

2010年

京畿鄉土史學

제 15집



기획특집 京畿道の 戰爭史



韓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京畿鄉土史學

第15輯

韓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발 간 사



경기도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의 중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18년,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건국된 이래 백제의 중심지로 4세기 말까지 기능한 고장입니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는 신라의 영토로서 중국과의 해상 교통로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18년에 송악의 호족인 왕건이 궁예를 타도하고 고려를 건국하면서 개경(開京)으로 개칭하고 도읍으로 삼았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함으로써 경기도는 1,0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중심적인 고장으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소중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각지에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자랑스런 문화유산들은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오히려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빛을 발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귀중한 역사유적·유물들이 제자리를 잃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더욱이 도내 곳곳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민들이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조상들이 남겨주신 귀중한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는 있어도, 이를 방치하거나 훼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향토사학> 15집을 간행하는 것도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통해 애乡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도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향토사학> 15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2010년 11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 용 원

목 차

기획특집 - 경기도 전쟁사

1. 처인성 대몽 항쟁 연구 (김장환)	7
2. 파주 지역과 임진왜란 (권효숙)	33
3. 병자호란 후 조선의 방위전략 (홍정덕)	51
4. 壬午軍亂 기간 중 明成皇后 피난행적과 국내외 상황 (조성문)	101
5. 舊韓末 경기도 광주지역 의병전쟁 (윤종준)	125

경기도 향토사

6. 삼국사기에 의한 고구려사의 연구 (김택기)	151
7. 고산동 부용산 미륵암과 미륵신앙 연구 (최영희)	207
8. 경기북부지역의 화전민사 (이명수)	241

처인성 대몽 항쟁 연구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目 次

- I. 서론
- II. 대몽항쟁의 정치 사회적 배경
 - 1. 최씨 무신정권
 - 2. 고려의 사회상(농민과 노비의 난)
- III. 몽고의 입구와 고려의 항쟁
 - 1. 몽고의 등장
 - 2. 몽고의 입구(入寇)
 - 3. 강화도 천도와 대몽항전
- IV. 처인성(處仁城) 전투
 - 1. 몽고의 2차 침입과 처인성 승리
 - 2. 김윤후 승장과 부곡민
- V. 처인성과 처인부곡에 대하여
 - 1. 처인성
 - 2. 처인부곡
- VI. 결론

집필자 : 김장환

용인 향토사학자, 용인디지털문화대전 집필, 용인시지 집필, 용인시 각 읍·면지 집필, 용인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I. 서론

우리의 민족은 그 역사가 유구한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항상 외세의 침입에 직면하였고, 그때마다 그를 격퇴하여 평화를 되찾은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강산이 유린되기도 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항쟁하여 국토를 방위하였다.

고구려의 용맹성이 민족의 영광을 안겨준 이후로 우리 민족은 외적의 피침과 저항이라는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과 국토를 지켜온 것이다. 그러기에 외국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에 항쟁하여 승리로 이끈 역사적 사실과 민족을 수호한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였던 대제국 몽고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듯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은 이때도 역시 우리 민족은 강인한 저항을 하였으니, 구주성(龜州城) 싸움에서 보여준 박서의 용기, 도처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활약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몽고의 2차 침입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처인성에서 승장 김윤후(金允候)와 부곡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몽고의 원수 살리타이(撒禮塔)를 사살함으로써 강력한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강인성을 보여준 자랑스런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처인성 전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그 하나는 외적의 침략에 대해 가장 주체적인 저항세력이 지배층이나 권력층이 아니라 일반 민중, 곧 농민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층이라는 사실이며, 승려 신분인 김윤후를 중심으로 이러한 민중들이 호응을 같이하여 국난을 이겨내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는 임진왜란에서도 우리가 보는 바이지만 국난을 당할 때의 지배층은 한결같이 무능하였고, 끝까지 외세에 저항하는 것은 억압받던 피지배층이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몽고와의 30여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끝까지 대몽항쟁에 나선 것은 민중들이었고, 특히 김윤후 승장은 이러한 민중세력을 규합하여 그들로 하여금 침입해 온 몽고군에 항전케 하도록 이끈 지도자였다. 그는 처인성 전투 이후에도 충주산성 방호별감(防護別監)으로 부

임하여 몽고의 제4차 침입시 또다시 그곳의 민중들을 규합하여 몽고의 대군을 물리친 인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신분 해방을 시도하여 전란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개혁을 아울러 이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¹⁾

본 논문에서는 몽고의 2차 침입시 승리를 이끈 처인성 전투를 조명하되, 몽고와의 투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윤후라는 인물과 사회적 신분이 낮았음에도 몽고군에 대항하여 당당히 싸운 처인부곡민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처인성 전투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 일부 문헌에 짧은 기사만 전할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몽고와의 다른 전투에서 이루어졌던 전황을 살펴봄으로써 처인성 전투를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대몽항쟁의 정치 사회적 배경

1. 최씨 무신정권

몽고가 세력을 확장하던 당시 고려는 최충헌의 무신정권이 한창일 무렵이었다.²⁾ 무신정권의 등장은 고려초 이래 지배계층을 이루던 훈구귀족과 사대보수 문신들의 지나친 유약성, 그리고 왕실의 후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모순과 혼란이 빚어낸 결과였다.

무신난은 고려사회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으니, 문물제도는 하루아침에 마비되고 무인 상호간의 정권쟁탈, 천민들의 전국적인 반란 등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 이때 최충헌(崔忠獻)은 조위충(趙位寵)³⁾의 토벌에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1) KBS 한국사 傳 ‘몽골을 두 번 격파하다! - 고려 영웅 김윤후’

2) 1206년

3)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서경유수(西京留守)를 겸하고 있을 때 1170년(의종 24) 정중부(鄭仲夫), 이의방(李義方) 등이 정변을 일으키자 1174년(명종 4) 서북의 여러 성에 격문을 보내 절령(嶺) 이북 40여 성의 호응을 얻어 난을 일으켰다. 이에 중앙에서 평장사(平章事) 윤인첨(尹麟瞻)이 3군을 이끌고 진격해 오자 이를 절령에서 물리치고, 선두에서 추격하여 개경(開京) 근교에 이르렀으나, 이의방군의 반격을 받아 후퇴하여 서경(西京)에 진을 치고 방어에 진력하였다. 그 해 11월 중앙군의 총공세로 이듬해 연주성(漣州城)이 함락되고, 이어 여러 성이 중앙군에 항복하여 위기에 처하자,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절령 이북 땅을 바친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휘두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충현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동시에 권력을 구사할 줄 아는 정치가였던 것이다.

최충현은 이의민(李義旼)을 제거한 뒤에 자기파에 속하더라도 명을 거역하는 자는 가차 없이 이를 제거하였다. 이같이 최충현은 자기의 모든 적대세력을 차례로 제압하고 드디어 독재정권의 수립에 성공한 것이다.

최충현은 먼저 왕의 존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명종(明宗)을 폐하고 신종(神宗)·희종(熙宗)·강종(康宗) 및 고종(高宗)을 차례로 옹립하였다. 왕위는 완전히 최충현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신종은 최충현이 세운 바로서 생과 사, 그리고 치폐(置廢)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다. 신종은 다만 허기(虛器)를 붙들고 신민의 위에 서서 목우인(木偶人)과 같을 뿐이니 가 없다.” 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만 최충현이 사실상 정권을 혼자서 좌우하면서도 왕씨(王氏)의 정권을 존속시킨 것은 아직 문벌과 전통에 대한 강한 집착을 사회로부터 씻어버릴 수 없었던 당시의 정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충현은 그의 실력으로 사원(寺院) 세력을 억압하는 데 성공하였다.⁴⁾ 또 정권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던 농민과 노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우선 성공하고 이어서 무력으로 이들을 토벌하는 동시에 그들을 회유하였다. 혹은 관직을 주기도 하고 혹은 부곡(部曲)·향(鄕)·소(所) 등을 현(縣)으로 승격시켜 천민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천민을 주동으로 하는 농민의 난은 일단 진압되었다. 이와 같이하여 최충현 일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최씨 정권의 기초는 그의 아들 최우(崔瑀), 손자 최항(崔抗), 증손자 최의(崔維)대에 이르기까지 세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사병을 양성하고 통치 권력의 행사기관으로 중방(重房)⁵⁾을 두어 최씨 무신정권의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최충현의 아들 최우(崔瑀)는 인사의 처리를 위하여 그의 사제(私第)에 정방(政房)⁶⁾을 설치하였다.

다는 조진으로 원병을 요청했으나 실패하여, 1176년(명종 6) 서경이 함락된 뒤 처형되었다.

4) 당시 사원은 왕과 문신들의 세력과 연결된 유일한 무력의 소유자였다. 수천의 승병들이 개경을 습격하여 무인정권을 타도하려고 꾀한 일까지도 있었다.

5) 중방은 무신(武臣)에 의한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문신(文臣)들의 도당(都堂)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이 정방에는 문사들을 속하게 하여 이를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문신들의 세력이 점차로 대두할 수 있는 토대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정방은 무인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유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씨 일문이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북방의 몽고세력은 점차 강대해져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형성하려는 웅지가 조금씩 키워지고 있었다. 최씨 정권하의 고려가 이러한 대외정세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할 수 없었음은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무리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최씨 정권은 몽고의 짓밟힘 속에서도 강화에서 형식적인 항몽정책을 견지하면서 실제로는 주지욕립에 빠져 온갖 열락(悅樂)을 누렸으니, 그들이 고려의 자구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2. 고려의 사회상(농민과 노비의 난)

몽고의 내침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몽항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씨 무신정권의 미몽(迷夢)과 더불어 농민과 노비의 난을 중심으로 한 고려 말기의 사회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김윤후(金允候)는 승려라고 하지만 그의 승명(僧名)이나 승려로서의 위치와 활동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무신정권에 대해 승려가 저항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여러 농민반란에 있어서도 승려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윤후(金允候)는 무신정권에 의해 시달리는 농민의 편에 서서 국가의 환난을 근심한 지도자적 선각자였을 것이다.

농민이 토지에서 떠나 유민(流民)이 되는 경향은 12세기 초의 예종 때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개경에 가까운 경기도나 황해도 지방에서 특히 심했던 것은 중앙 귀족들을 위한 공물의 징수나 역역(力役)의 동원이 심하였던 때문이었다. 이 유민들은 때로 집단적인 도적이 되어 전국 각지를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동요하던 농민들이 무신란의 하극상 풍조에 자극을 받아 각지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무신정권 하에서 처음 일어난 반란인 1172년의 창주(昌州: 평북 창성)·성주(城州: 지금의 성천)·철주(鐵州: 지금의 철산) 등지에서 일어난 것과 1176년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가 난을 일으켜 공주는 물론 청주와 아산 일대를 점령하는 사태를 빚은 것을 비롯하여, 1182년에 일어난 전주에서의 군과 관노의 반란 등 초기에 나타난 것들은 대

체로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193년의 김사미(金思彌)·효심(孝心)의 난에 이르러 반란은 새로운 양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반란군들은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펴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또 일련의 지속적인 반란으로 발전한 것이다. 원래 김사미(金沙彌)는 운문(雲門: 지금의 청도)에서, 효심은 초전(草田: 지금의 울산)에서 각기 반란을 일으켰던 것인데, 뒤에 합류하여 그 수가 몇 만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진압하려 나선 정부군의 사령관은 오히려 패하여 자살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밀성(密城: 지금의 밀양)의 싸움에서 반란군이 패하여 그 기세가 크게 꺾였는데, 그때 죽은 반란군의 수가 7천에 달하였다는 것으로도 반란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반란은 지방에서뿐 아니라 개경에서도 일어났다. 1198년에 일어난 만적(滿積)의 난이 그것이다. 이 반란은 신분해방, 나아가서 정권의 탈취를 위하여 개경의 모든 노비들과 연락하여 계획적인 반란을 꾀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거사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개경의 북산(北山)에서 공사노비를 모아놓고 만적(滿積)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선동적인 연설은 유명하다.

또한 노예나 천민 출신이 아니면서도 노비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으니, 이는 고려 사회가 갖는 적폐(積弊)의 표현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승려 우본(牛本)과 이통(李通) 등 지모와 책략에 우수한 사람들도 끼여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몽고군에 점령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반란은 대개 최충헌에 의해 진압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었다. 고려사회에 있어서 이들 반란이 지니는 의의는 고려사회의 신분질서의 동요를 말해 주는 것이며, 특히 소민·부곡민이나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위한 반란은 그 고대적인 유산을 청산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시책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어 지방에 감무(監務)가 허다하게 설치된 것은 그 결과였던 것이다. 즉, 무신집권시대에는 지배층의 교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반란 등으로 사회의 심층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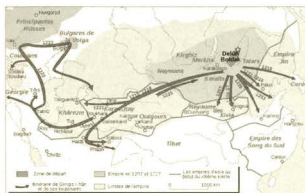
그러므로 최충헌이 반란을 진압한 것은 실상 본질적인 모순이 제거된 것이 아니고 다만 무력에 의하여, 또는 회유를 통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무신집권체제의 존속과 사회계층간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고려는 몽고의 침입을 당했던 것이다.

Ⅲ. 몽고의 입구와 고려의 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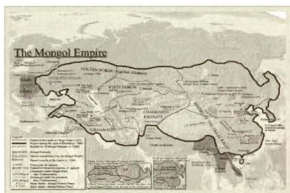
1. 몽고의 등장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기 전의 12세기 말-13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북중국과 만주지역에는 금나라가, 남중국 지역에는 송나라가, 몽고 남서쪽에는 서하, 그리고 한반도에는 고려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초원 쪽에서는 몽고족의 세력이 왕성해지면서 동아시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3세기 초, 몽골 고원의 부족장 태무진(鐵木眞: 재위 1206-1227)은 몽골족 전체를 통일하고 칸(汗)의 자리에 추대되었다. 그가 곧 몽고의 태조 징기스칸(成吉思汗)이며, 이 해가 고려의 희종(熙宗) 2년(1206)이었다. 그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제국 건설에 나서게 되는데 1211년부터 증원을 장악하고 있던 금을 공략했고, 1220년 터키계의 화래즘샤 제국을 쓰러뜨렸다. 1255년에는 남러시아를, 1227년에는 동외 서하를 멸망시켜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두었다. 몽고족의 기병대는 유목민족 기마군단이 도달할 수 있는 군사적 우월성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속도, 파괴력, 유연성, 인내와 끈기 등 모든 영역에서 당시 세계의 어떤 군대도 몽고족을 앞서지 못했으며, 극동에서 동유럽까지 세계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⁸⁾



〈그림 1〉 몽골의 세계정복 과정



〈그림 2〉 몽골의 세계정복 지도

7) 칸(Khan) : 대략 5세기 초 이후 몽골고원에 세워진 여러 유목국가 군주의 칭호

8) 『하룻밤에 읽는 고려사』, 최용범, 중앙M&B, 2003

몽골 제국의 팽창은 한반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과의 강화로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려에 대 파란의 시기가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와 몽고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것은 1219년 평양 동쪽에 있는 강동성(江東城) 전투에서였다. 강동성 전투는 몽고군에게 쫓겨서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契丹)족을 토벌하는 전쟁이었다.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契丹)족이 독립하였다가 실패한 뒤 그 잔당들이 고려의 지경을 침입하였으며, 이에 1218년(고종 5) 고려군은 이들을 쫓아 강동성에 이들을 몰아넣었다. 이해 몽고는 금의 장군 포선만노(浦鮮萬奴)가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동진국(東眞國)을 정벌한 뒤, 이 동진군도 함께 이끌고 '거란의 도둑을 토벌하여 고려를 구하겠다'는 구실로 고려에 들어와 고려군과 연합하여 강동성에 있던 거란족을 소탕하였다.

고려로서는 몽고와 함께 공동작전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형세에 따라 이에 응하였으며, 1219년 1월 이들을 소탕한 후 몽고 장군 카진(哈眞)은 철수하기 전에 부하로 하여금 저를 황제의 조서를 고려에 전하고 정식 수교를 요청함으로써, 고려와 몽고는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교관계는 고려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몽고 군대의 위력에 눌렸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고려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⁹⁾

2. 몽고의 입구(入寇)

몽고는 강동성을 함락한 후 마치 큰 은혜나 베푼 듯이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과중한 공물(貢物)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몽고가 남송정벌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고려에서는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고종 8년(1221)에 온 사신 저고여(著古與)는 지나치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도가 지극히 불손하여 고려는 상하 모두가 그와 몽고를 매우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고종 12년(1225) 1월 고려에 왔다 돌아가던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부근에서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고려의 소행이 아니었지만, 몽고는 이를 구실로 고려와 국교를 단절하였고, 이것은 뒤에 고려를 침입하는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몽고와 고려는 완전히 교호(交好)를 끊게 되었으나, 정기스칸이

9) 손흥열, '김윤후 장군', 『충주의 인물(Ⅲ) 김윤후 · 이수일 · 조웅』, 충주시·충주대학교 박물관, 2003

1227년에 병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정작 몽고가 고려를 침입한 것은 국교가 단절된지 6년 만인 고종 18년(1231)이었다. 이때는 징기스칸의 3자 오고타이(窩闊台)가 즉위한 뒤였는데, 이가 곧 태종(太宗)이다. 그는 금과 동전을 정벌하고 이어 살리타이(撒禮塔)로 하여금 고려를 침공하도록 명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몽고와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몽고는 공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금을 멸하여 만주와 화북지방을 점령하고, 나아가 남송(南宋)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지를 고려에 구하러 하였던 것이다.

살리타이가 거느린 몽고군의 1차 침입은 1231년 8월부터 이듬해 정월 그들이 철퇴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몽고군이 압록강을 건너 서북면 일대에 쳐들어오자 함신진(咸新鎭: 의주)과 철주를 비롯하여 북계의 여러 성이 무참히 함락되었다. 그러나 구주(龜州)에서는 서북면 도병마사 박서(朴犀)가, 또 자주(慈州)에서는 부사 최춘명(崔努命) 등이 용감하게 대항하였다.

구주와 자주에서의 피아의 공방전은 치열하였다. 맹수와 같이 사나운 몽고군의 위력으로 도 어찌하지 못하자, 몽고군은 이를 버려둔 채 수도 개경에 육박하였다. 이에 고려는 왕족을 보내어 살리타이와 강화를 협의하여 막대한 예폐(禮幣)를 바치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몽고는 서경 등 서북면의 14지역에 다루가치(達魯花赤: 민정감찰관) 72명을 배치하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몽고는 그 후에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당시 집권자인 최우(崔瑀)는 저들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이듬해인 고종 19년(1232)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때 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최우는 반대론자를 참하고 백성들은 산성이나 섬으로 피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몽고와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몽고는 다시 살리타이로 하여금 고려에 입구토록 하였다. 살리타이는 고려 정부와 교섭하는 한편 별동부대를 경상도까지 파견하여 노략질을 하였는데, 이때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말았다. 주장(主將) 살리타이는 한강을 건너 수원에 속해 있던 처인성(處仁城: 龍仁)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백현원(白峴院)의 승려 김윤후와 부곡민들에 의해 사살되었던 것이다. 주장을 잃은 몽고는 전의를 크게 상실하고 부장 대구(鐵哥)의 인솔하에 곧 철군함으로써, 몽고의 2차 입구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몽고의 3차 침입은 고종 22년(1235)부터 26년(1239)까지 약 5년 동안에 걸친 싸움이었

는데 이때의 지휘관은 당구(唐古)였다. 이 3차 침입 기간인 고종 25년(1238)에는 신라시대부터 국보였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 없어졌다. 다음 4차 침입은 고종 34년(1247) 몽고의 장수 아무간(阿母侃)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때는 비교적 큰 피해가 없었다. 그 후 몽고는 고려가 출륙한도(出陸還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종 40년(1253) 5차 입구를 감행하였는데, 이때의 주장은 예구(也古)였다. 이 예구가 철수한 뒤에도 고려가 항복하지 않자, 몽고는 자랄타이(車羅大)를 시켜 제 6차의 침입을 하였는데, 자랄타이는 6년 동안에 4차례나 침입하였다. 이때 입은 고려의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 자랄타이 침입의 피해를 『高麗史』에서는 “슬프다! 최근 년 간에 학살당한 사람과 약탈된 가축만 해도 이루다 말할 수 없거니와 심지어는 살아 있는 백성들도 부자간에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처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금년 한 해 동안에 굶어 죽은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으니 나라의 형세가 위급하지 아니한가. (중략) 이 해에 몽고병에게 잡혀간 남녀가 무려 266,800여 명이요, 살육을 당한 사람은 이루 셀 수가 없으며, 그들이 지나간 주군(州郡)들은 다 잿더미로 되었다. 몽고 병란이 있는 뒤로 이 보다 심한 때는 없었다.”¹⁰⁾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는 이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는 장기간에 걸친 몽고와의 전쟁에서 재산과 인명의 큰 손실이 있었으며, 그 후 몽고의 압제를 받으면서 경제 수탈과 정치적 압박은 물론 그들의 강요로 일본정벌에 참가하는 등 원나라가 망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3. 강화도 천도와 대몽항전

몽고가 고려에 군대를 보내 전국을 노략하는 동안 고려도 그들에 맞서 끈질긴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몽고에 항쟁한 중심세력은 역시 농민과 노비 계층이었으며, 집권층은 무력하기만 하였고 전쟁수행의 우선 목적도 정권의 유지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는 몽고군의 1차 침입 당시 몽고군이 개경에 접근해 오자 고려정부에서 그때까지도 북쪽에서 몽고군을 맞아 잘 싸우고 있던 구주성의 박서나 자주성의 최춘명 등에게 항복을 권

10) 『고려사』 권24, 「고종세가」

유하였던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최춘명 등이 항복을 거부하자 그를 처벌하려다가 이는 고려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몽고 장수의 충고를 듣고 그만 두었던 사실 등에서 최씨 정권의 속성을 엿볼 수 있다. 이후 강화도 천도 및 대몽 강화교섭 등도 모두 정권의 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 위에서 수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전략상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강화천도도 전략적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몽고군의 약점인 수전을 이용한 측면에서 강화천도는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었고 확실히 몽고 측에 대하여 적의를 보임과 동시에 장기항전의 각오를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단지 해도(海島)나 산성으로 난을 피하라는 것일 뿐 이렇다 할 보호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강화도에 이주하였던 지배층들은 이전 시기의 개경에서 누렸던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취(收取)를 강화하였고, 그 때문에 민심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종(高宗) 19년(1232)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한 뒤로 몽고군과 맞서 싸운 항전 세력은 삼별초(三別抄)와 농민·천민 등이었고, 심지어는 초적(草賊)들까지 합세하여 침략자들과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다. 특히 고종 19년(1232년) 제2차 침입시 처인성에서 승장 김윤후(金允候)와 부곡민이 몽고의 살리타이를 사살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실과 고종 40년(1253) 예구(也古)가 5차 침입을 했을 때 충주산성에서 역시 김윤후와 노비들이 역전분투함으로써 이들을 물리치고 큰 전과를 올렸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고의 2차 침입시 승전을 거둔 처인성 전투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몽고의 5차 침입시 김윤후와 민중의 항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253년 몽고 장수 예구(也古)는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입했다. 그들은 고려 국왕에게 육지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실권자인 최항의 반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나라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몽고군은 충주까지 남하하여 충주산성에 이르렀다. 그 때 김윤후는 방호별감으로 임명되어 충주산성을 지키고 있었다. 몽고군이 충주산성을 포위해 공격한 지 70일이 되었다. 성 안에는 식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위해 김윤후는 관노(官奴)를 등록한 장부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또한 노획한 소와 말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곧 병사들은 사기가 높아져 필사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김윤후의 뛰어난 지휘력과 목숨을 걸고 투쟁한 노비 등 천민들의 항쟁으로 충주산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 강화도의 정부는 김윤후를 감문위 상장군으로 승진시키고, 관노와 백정에 이르기까지 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 벼슬자리를 주었다. 정부에서는 다시 김윤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했으나, 이미 동북면이 몽고군에게 함락된 상태였으므로 부임하지 않았다.

IV. 처인성(處仁城) 전투

1. 몽고의 2차 침입과 처인성 승리

몽골은 1231년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대규모로 침략을 해 왔다. 이듬해인 1232년에 2차 침입이 있었고 1235-1239년에 3차, 그리고 이후에도 제4차(1247-1248), 제5차(1253-1254), 제6차(1254-1259)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 중 강화 천도 이후 발생한 2차 침략은 이후에 벌어질 여·몽 전쟁의 양상을 가늠할 중요한 전쟁이었다. 살리타이(撒禮塔)¹¹⁾를 원수로 한 몽고군은 한강을 건너 광주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이후 용인 지역을 공격했다. 그러나 둘레가 불과 425미터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성이었던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는 전사하고 많은 몽고군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처인성 전투에서 원수 살리타이가 전사하여 몽고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서둘러 철군해야만 했다.

처인성 전투는 30여 년간 펼쳐진 여·몽 전쟁의 초기에 발생하여 향후 여·몽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에 처인성 전투가 2차 여·몽 전쟁, 나아가 전체 여·몽 전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종래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1) 撒禮塔의 표기는 撒里塔(『원사』), 撒兒台(『원사』), 撒里打(『동국이상국집』), 沙打(『동국이상국집』), 撒歹(『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고종 18년(1231) 8월 살리타이가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던 몽고군은 이듬해 1월 화의가 성립하여 철수하였다. 이때 살리타이는 고려의 수도와 지방에 72명의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배치하고 또 탐마적군(探馬赤軍)을 파견하여 고려를 제어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는 배치되어 있으면서 고려를 압박하던 일부 다루가치들을 살해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몽적인 행동을 감행하였고, 이어 고종 19년 6월 강화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몽고는 다시 이해 8월 살리타이로 하여금 고려에 대한 2차 침입을 감행하게 하였던 것이다.¹²⁾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은 서경 일대에 주둔하면서 강화 정부와 교섭을 벌였다. 살리타이는 고려정부에 복속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설득하여 돌려보낸 뒤에 문득 마음이 변해 해중(海中)으로 들어갔으며, 불충한 송 입장과 허공재 두 사람이 와서 황당한 말을 하였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니 어서 해중에서 나오라.”고 하며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국왕과 최우(崔瑀)의 친조(親朝)¹³⁾를 요구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고려 본토에 대한 구략(寇掠)을 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도 정부가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⁴⁾

그러나 고려는 몽고의 요구대로 출륙(出陸)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몽고군은 고려의 국토를 철저히 짓밟기 위해 남진을 시작하였다. 살리타이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처음 공격한 곳은 광주(廣州)였다. 이 광주성 싸움에서 몽고는 광주 부사(副使) 이세화(李世華)의 기지와 응변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광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고려사」에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이세화묘지명」을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12) 『원사』 고려전에 따르면, “태종 4년(고종 19, 1232) 6월에 왕철(고종)이 달로화적(達魯花赤) 72인을 다 살해하고 배반하여 곧 왕정 및 여러 주현의 관민들을 거느리고 해도(海島)로 도망쳤다. 홍복원이 남은 백성을 모아 지키며 대병(大兵)을 기다림으로 8월에 다시 살레탐에게 군사를 주어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다.”고 한다.

13) 친조(親朝)란 상대국의 국왕이 직접 자기의 나라에 와서 인사를 올리는 것, 즉 하국(下國)국이 상국(上國)에게 예를 올리는 것으로, 몽고군은 침략 때마다 즐기게 왕의 친조를 요구하였는데 번번히 핑계를 대며 거절함으로써 몽고와의 전쟁이 길어졌다. 국왕이 친조를 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여러 차례 친조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6차 침입시 국왕의 아들인 태자가 친조를 하였다. 다른 말로 입조(入朝)라고도 한다.

14) 김윤주 장군, 손흥열, 『충주의 인물(Ⅲ)』 김윤주 · 이수일 · 조웅, 충주시충주대학교 박물관, 2003

“임진년(壬辰年 高宗 19, 1232) (李世華는) 예민소경(禮賓少卿)·어사잡단(御史雜端)에 제배되었다. 이해 여름에 국가에서는 오랑캐의 침범으로 인하여 도읍을 옮기려 하였는데, 광주(廣州)는 곧 중도의 큰 진이라 해서 조정 의논으로 책임자를 간택하게 되어 이균(李世華)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다. 이해 겨울 11월에 몽고의 대군이 와서 수십 겹으로 포위하고 몇 달 동안 온갖 계교로 공격하였는데, 이균은 주야로 수비를 튼튼히 하고 수시로 응변(應變)하는 일을 그들이 전혀 예측 못할 정도로 하였으며, 혹은 생포하고 죽인 수요가 많았으므로, 오랑캐는 불가한 일임을 알고 드디어 포위를 풀고 갔다. 광주는 남쪽 길의 요지에 해당하는데, 이 성이 함락되었다면 기타의 성은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균이 아니었다면 거의 위태하였을 것이다.”¹⁵⁾

이처럼 이세화의 공을 높이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세화의 공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광주의 주민과 이곳에 들어와 있던 주변 지역의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3년 뒤에 이들에 대해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즉 <고려사>에 “광주는 신묘·임진년에 오랑캐 군대의 포위 공격을 받았으나 능히 군계 지저 함락되지 않았으니 상요(常搖)와 잡역(雜役)을 면해 주도록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주민의 공이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이들에게 포상한 것은, 이세화가 3년 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예부 시랑·우간의대부로 승진하여 온 뒤 이들의 공을 조정에 알렸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국 몽고군은 광주성 함락을 포기하고 계속 남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몽고군의 움직임, 그리고 광주성의 공방과 고려군의 승리는 곧 고려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었을 것이다. 살리타이가 한강을 건너 남하한다는 소식은 곧바로 부근의 여러 지역에 알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드러나듯 살리타이는,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찔러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던가, “우리 군사가 이르렀을 때 맞아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았다. 너의 나라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려 백성들은 항복이나 항전이나의 기로에 섰을 것이다.

1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후집』 권12 「이세화묘지명」

16)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18年條

김윤후가 처인성에 있게 된 것은 ‘피병(避兵)’ 혹은 ‘피난(避亂)’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 것은 몽고군의 남하 소식이 이미 널리 전파되었음을 말해준다. 몽고군의 남하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을 것이다.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인성은 이규보의 말대로 작은 성에 불과했다. 처인성은 현재 성곽의 전체 둘레가 425m 정도이고, 성곽의 높이는 주변 지역보다 겨우 20-30m 더 높은 정도이다. 그야말로 이곳은 작고 평범한 ‘소성(小城)’에 불과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작은 처인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일까. 살리타이는 광주성 함락을 포기한 후 남쪽을 공략하기 위해 길을 잡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의 요로인 용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다. 용인 지역이 서울과 남부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¹⁷⁾

1232년(고종 19) 12월 16일 몽고군의 수장 살리타이는 이 작은 처인성을 공격하던 중 날아온 화살을 맞고 죽게 되고, 주장을 잃은 몽고군은 전의를 상실하여 부장 철가(鐵哥)의 인솔하에 북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로써 몽고의 제2차 침입은 김윤후(金允候)와 부곡민이 쏜 화살들 중 한 개를 맞고 격퇴된 것이다. 그를 사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부곡민들을 지휘한 김윤후였다. 김윤후는 인근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백현원(白峴院)의 승려로서, 몽고가 쳐들어오자 이곳에 입보하여 있다가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⁸⁾ 처인성 전투는 몽고와 30년 가까이 싸웠던 많은 전투 중에서 고려가 거둔 가장 큰 승리 중의 하나로, 김윤후는 이 빛나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었다.

2. 김윤후 승장과 부곡민

지금까지 역사는 김윤후가 직접 살리타이를 사살했다고 전하고 있다. 즉 『고려사절요』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살례담(撒禮塔)이 처인성(處仁城)을 공격하였을 때 성중에는 병란을 피해 이곳에 있던 한 승려가 있었는데, (그가) 살례담을 사살하였다. 국가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上將軍)을 제수 하였는데, 그 승은 공을 다른 사람에 돌리면서 말하기를

17) 김철웅, ‘처인성전투와 2차 여몽전쟁의 승배’ 〈제1회 한 몽 국제학술대회〉, 제24회 처인성문화제추진위원회·단국대 몽골연구소, 2010

18) 『高麗史』 列傳 卷103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김윤후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싸울 당시에 나는 활과 화살도 없었는데, 어떻게 감히 중상(重賞)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양하고 받지 않으므로 이어 섭랑장(攝郎將)을 제수 하였는데, 그 승이 김윤후(金允侯)였다.”¹⁹⁾ 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고려사』 열전(列傳)에도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⁰⁾ 그런데 이 기사에서 살리타이를 직접 사살한 주인공이라고 알려진 김윤후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처인성 전투와 살리타이의 사살에 대해서는 다른 사서(史書)에서도 명확하게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사살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즉 『고려사』에도 “금년(고종 19, 1232) 12월 16일 수주(水州)의 속읍(屬邑)인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작은 성에서 바야흐로 (적과) 대전하다가 괴수(魁帥) 살례탐(撒禮塔)을 쏘아 죽였고, 포로 또한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산산히 흩어지고 말았다.”²¹⁾ 라고 하였으며, 또 『元史』에도 “(원 태종 4년, 1232) 8월에 다시 살례탐(撒禮塔)을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토벌하게 하였다. (그는) 양경 남쪽에 이르러 처인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죽었다.”²²⁾고 하였다.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다가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누구의 화살을 맞고 죽었는지 확인해주는 사료가 없다. 이와 같이 살리타이를 죽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윤후 자신도 당시에 활과 화살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장군(上將軍)직의 제수라는 중상(重賞)을 사양한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직접 사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발사한 화살 중의 하나가 살리타이에 명중함으로써 그가 죽었는데, 그것이 김윤후가 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상장군 대신 섭랑장(攝郎將)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것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살리타이를 죽임으로써 몽고군을 패퇴시킨 김윤후와 처인성에서 함께 싸운 부곡민들이 이룩한 전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사살한 것을 부인함으로써, 그것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 부곡민 모두의 전공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몽고군은 서하, 금나라, 호라즘제국, 러시아공국들, 압바스 왕조, 대리국, 동진, 남

19)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19年條

20) 『高麗史』 列傳 卷16, 金允侯傳

21) 『高麗史』 列傳 卷16, 高宗 19年 12月條

22) 『元史』 卷208, 列傳 第95, 外夷

송 등을 점령하여 그 이름조차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였다. 그 넓은 아시아의 문명권은 모조리 몽고족의 말발굽에 굴복해 버렸고 심지어 유럽까지 진출하여 유럽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정도로 천하무적을 자랑했다.

그런데 초라한 토성에 불과한 처인성에서 승려 김윤후와 부곡민들이 세계 최강의 몽고군에게 기습을 가하여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처인성은 부곡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당시 부곡민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하층민들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김윤후의 지휘하에 뚝뚝 뭉쳐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사나웠던 몽고군에게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주체 세력이었던 것이다.

V. 처인성과 처인부곡에 대하여

1. 처인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번지에 소재한 처인성(處仁城)은 고려시대에는 부곡(部曲)이었는데, 부곡은 향(鄕)이나 소(所)와 같은 천민의 집단 거주지였다. 처인부곡은 현재는 용인시 지역이나 고려시대에는 수주(水州)에 속해 있던 부곡이었다가 조선 태조 6년(1397)에 현으로 승격되었고, 태종 14년(1414) 광주의 속현이었던 용구현(龍駒驛)과 합쳐서 용인현(龍仁縣)이 된 것이다. 즉 처인은 원래 수원부에 속해 있던 부곡으로서, 조선 태조 6년에 처음으로 현령을 두었고 태종 13년에 용구현과 합쳐 용인현이 되었던 것이다.

처인성은 고려시대의 토성으로, 당시에는 총면적 5,820평의 직사각형으로 성곽 둘레는 425m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토축(土築)된 주위는 3리(약 1,32km)였으나 이미 성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고 다만 군창만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현재 잔존하는 성의 길이는 250m 정도이다. 2002년 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출토되어 고려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처인성은 1979년에 남서쪽 성벽 120m를 복원하고, 1980년에 동남북 방면의 성벽 205m를 수축하였다고 한다. 이 때 성곽 복원공사의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자문은 고 이선은(李瑄環) 박사가 하였고, 그가 이 성이 백제 때에 축성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⁴⁾

1977년 10월 13일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79년 처인성 대첩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비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희(崔永禧)가 짓고, 글씨는 서예가 김기승(金基昇)이 썼다.

처인성에 대하여는 그간 세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어떠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이족(異族)이 침입해 오면 그에 대항하여 항쟁하였던 성터들이 거의 산성(山城)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라서 평지에 축성된 작은 언덕의 처인성을 둘러보면 과연 이곳이 처인성이 맞는지, 그 강한 몽고족을 물리친 승전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그리고 몽고의 『원사(元史)』 등의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에서의 싸움은 서기 1232년 8월에 몽고 태종의 명령으로 침략이 단행되어 그해 12월 16일에 전투가 있었음과 처인성은 수주(水州) 소속의 처인부곡(處仁部曲)에 있었던 소규모의 성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인성에서 마주보이는 북쪽 기슭은 살타타이가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사장(射場, 死將)터’로 불리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처인부곡의 성(城)이라면 그것은 처인부곡의 치소가 있는 읍성(邑城)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당시 주변의 백성이 작은 성으로 피난하여 여러 사람들이 성안에서 싸움에 참가하였다고 여겨진다. 김윤환은 이곳에 모여든 백성들로부터 신앙을 얻은 인물이며, 그의 신앙은 그의 천성이 신분을 초월하여 백성들을 단결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⁵⁾

처인성이 비록 작은 규모의 성이었지만, 몽고군이 오자 부곡민은 물론 부근의 주민과 승려들까지 함께 입보(立保)하여 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이곳에 입보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입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곡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보아 입보한 사람들은 처인부곡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24) 龍仁文化院, 1998, 〈駒城面誌〉, 83쪽의 주9)

25) 『龍仁市誌』 제2권,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 2006

생각된다.

또 몽고의 원수가 직접 지휘하는 대군과 맞서서 싸웠다면,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고,²⁶⁾ 외교문서로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싸움에서 고려는 상당수의 몽고군을 포로로 획득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에서 몽고와 맞서 싸운 부곡민의 수가 상당히 많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처인부곡

향(鄉)·소(所)·부곡(部曲)은 신라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던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획이다. 향과 부곡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생산에 치중하였으나, 소는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다.

부곡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에서 한(漢)나라 때는 군오(軍伍)의 뜻이었고, 위(魏)·진(晉)·남북조시대에는 관사(官私)의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뒤 당나라 때는 천민(賤民)의 칭호로 변하여 양민과 노비와의 중간층을 이루었다가 명나라 때 이르러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신분적 의미와 함께 행정구획으로도 사용하였다. 부곡민은 매매·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노비보다 신분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도 역시 천적(賤籍)에 따라 장악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고려시대 부곡집단은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후삼국 통합전쟁이라는 사회 변동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후삼국 통합전쟁 시 고려는 왕조에 저항한 호족 세력 지역의 주민들을 부곡민으로 편성하였으며, 후삼국 통합 후에는 이 지역들을 법제적으로 부곡제라는 행정구역으로 편성하여 군현제의 하부기기로 연속시켜 지배하였다.

부곡의 주민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곡리와 둔전(屯田), 공해전(公廩田), 학전(學田) 등을 경작하거나 군사요충지에서 성을 수축하는 역을 부담하는 부곡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학(國學)에 입학하거나 승려가 되거나 관직 진출에 있어 법제적으로

26) 손홍열, '김윤후 장군', 『충주의 인물(Ⅲ) 김윤후 · 이수일 · 조웅』, 충주시충주대학교 박물관, 2003

제한을 받았다.²⁷⁾

고려 중기 이후 군현제의 변동으로 수취체계가 변질되면서 부곡은 고유의 성격을 탈피하여 점차 소멸하였다. 종래 부곡의 주민이 천민이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고려시대의 부곡은 특수 행정구역으로 그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양인이었다.²⁸⁾ 다만 군현민 보다는 신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과중한 부담을 안고 군·현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고려시대 지방 지배체제에서 행정구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그 지위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가령 어느 현(縣)에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지위를 강등하여 향소·부곡으로 삼기도 했으며, 반대로 향소·부곡에서 나라에 공을 세웠다면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때문에 향소·부곡에는 그 자체로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했다. 그래서 향소·부곡민들은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청원하기도 했고, 이를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반란을 무마하기 위하여 향소·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킨 예도 적지 않다.

처인부곡은 언제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종 9년(1018년)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특수한 행정 단위의 하나로 기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처인부곡민은 기본적으로 일반 군현인과 마찬가지로 3세 납부의 의무와 사노(仕路) 진출의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 즉 양천(良賤)들 속에서는 일반 군현인과 동일한 양인이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양인의 최하층’으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천역(賤役)을 담당해야 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계층이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노동력 동원과 특정한 역 징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 『고려사』에 의하면, 선종 때 직한림원(直翰林院)에 발탁된 정문(鄭文)이 외조부가 처인부곡 출신이어서 간관(諫官)과 같은 청요직(淸要職)에 임명할 수 없다는 대간(臺諫)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부곡민들이 양인(良人)제 출신들이 일반 군현(郡縣) 출신보다 관직 진출에 신분적 제한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처럼 부곡민이 비록 일반 군현인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천인(賤人)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신분층이었다. 왜냐하면 천인인 공사노비(公私奴婢)는 양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27) 립진상,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30~31쪽, 1963

28) 朴宗基, <고려시대의 부곡제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0

29) 디지털용인문화대전(<http://yongin.grandculture.net/>), 2008

와 권리인 3세 납부와 사노(仕路) 진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³⁰⁾

고종 19년(1232) 처인부곡민을 이끈 김윤후(金允侯)가 몽고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한 공을 인정받아 처인현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6년(1397) 현령을 파견하여 경기 좌도에 속하게 했고, 처인현령은 수원에 속해 있던 쌍부현(雙阜縣)의 겸관(兼官)이 되기도 했다. 태종 14년(1414) 용구현과 합쳐져 용인현에 통합되었다.

처인(處仁)은 ‘어진 곳에 몸을 둔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里仁)편에 ‘마을에 어진 사람이 있음을 아름답게 여기나니 어진 곳을 선택하여 몸을 두지 않는다면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里仁爲美擇不處仁 焉得知)’라는 구절이 있다. 지명으로 쓰인 처인현은 곧 ‘어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³¹⁾

문헌상 오늘날의 용인시 관내에 존재했던 부곡(部曲)으로는 고안부곡(高安部曲), 대곡부곡(大谷部曲), 목악부곡(木岳部曲), 제촌부곡(蹄村部曲), 양량부곡(陽良部曲) 등이다.³²⁾

VI. 결 론

이상으로 몽고의 2차 침입에 맞서 싸워 승리한 처인성에서의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겪은 시련 중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겨란·여진과의 싸움, 몽고와의 항쟁, 홍건적의 입구, 왜구의 창궐 등 북방과 남방의 여러 민족과 생존을 위한 피나는 싸움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다른 민족과의 투쟁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전쟁은 몽고와의 싸움이었다. 고려와 몽고가 전쟁을 한 기간은 무려 29년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에 몽고는 9차례나 입구하였고, 그 전쟁으로 고려는 전국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몽고와의 전쟁으로 고려는 많은 것을 잃었다. 대구 부인사(符仁寺)에 있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과 흥왕사(興王寺)에 있었던 속장경(續藏經)은 물론 황룡사의 9층목탑 등 소중한

30) 李貞基, 〈고려전기 부곡과 부곡인의 성격〉,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1) 홍순석, 〈용인학〉, 채륜, 2010

32) 『龍仁市誌』 제2권, 용인시지사편찬위원회, 2006

불교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논과 밭이 폐허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살해당하는 등 인명의 손실도 컸다. 그러나 이렇게 힘겨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삼별초가 중심이 된 관군과 농민들 그리고 초적(草賊)들까지 나서서 끈질긴 저항을 계속한 결과 저들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강화를 맺음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김윤후(金允候)는 고려가 몽고의 말발굽에 짓밟힐 때 고려인의 투쟁정신을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아마도 이때 김윤후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고려는 전국토가 남김없이 몽고군에게 짓밟히게 되었을 것이며, 몽고 침략의 과정을 통한 민족의 항쟁이 전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항전이 있었으므로 후일 강화도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때 몽고는 고려를 무마하려고 애를 썼으며, 이후 역사는 여러번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위난의 시기에는 반드시 이를 극복해내고야 마는 강인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윤후(金允候)는 이렇듯 승려이며 장수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노비를 해방시켜 사회 모순의 타파를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에 관한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몽고와의 전쟁 이후 조선은 약 1세기의 내정간섭을 받게 됨으로써 몽고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윤후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거나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기록이 소실되었을 것이다. 김윤후가 승려 출신이란 점도 후대의 역사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였을 것이다. <고려사>가 조선시대에 집필된 만큼 유교를 국시로 받아들인 조선사회에서 고려시대 승려출신의 위인을 크게 주목할 리 없었고, 따라서 승려인 김윤후의 공을 높이 세운다면 국가 이념인 유교보다 불교를 치켜세우는 격이 되어 김윤후에 대한 언급을 꺼렸을 것이다. 또 김윤후는 불교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볼 때, 신분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서 대접받는 세계를 꿈꿨던 인물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물을 제대로 조명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한 용기와 지혜란 결국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로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버림받은 민중인 부곡민과 노비들의 힘을 규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적을 불살라 사회개혁의 뜻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수와 같은 몽고병을 물리쳐 이겨낸 김윤후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국난시 지도자의 큰 역량의 귀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인성 전투의 주역은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주민들이었다. 지금까지 부곡이 천민집단(賤民集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부곡은 고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그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양인(良人)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 평민이었든, 천민이었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신분적인 구분을 떠나서 누가 고려의 자존심이었는데는 고려의 대몽항쟁에서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려의 모든 군사력이 강화도에 집결되어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몽고군의 공격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 했던 것이다. 정부군이 아닌 민중들이 모여 김윤후를 중심으로 몽고에 대한 항전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처인성(處仁城)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살리타이를 사살한 처인성이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는 위치 비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처인성의 형태가 상당 부분 변형·왜곡되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³³⁾

이러한 처인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30년에 시작하여 6차에 걸쳐 고려를 공격한 몽고군이 고려에 의해 패퇴하여 철수한 것은 1232년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처인성 승첩은 처인부곡민들이 만들어낸 역전의 결과였으며 당시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무능한 정부군을 대신하여 본토에서의 대몽항쟁이 주로 민중적 기반 위에 전개되고 있었던 몽고의 2차 침입 상황을 고려한다면, 처인성 승첩이 갖는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처인성에서 13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평원을 누비며 일으킨 정복전쟁으로 세계에 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몽고에게 일개 부곡민만으로 뼈아픈 일패를 안긴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처인성을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는 용인의 상징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며, 향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국민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이 성을 용인의 함미산성, 오산의 독산성, 수원 화성, 이천 설봉산성 등 주변의 성들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로 관광 학술 자원으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인성 발굴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성내 주요 시설의 유구 및

33) 용인신문, 2010년 10월 26일자

식수원 확인과 잘못된 성벽 보수를 원상태로 정비하고, 성벽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려 때 부곡으로 있었을 당시의 유적을 파악하기 위해 성내 유적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여 가옥 배치나 규모 형태 등을 파악하고 군창의 위치와 규모도 조사해 향후 전체적인 복원과 함께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園輿地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李相國集〉

〈元史〉

고석규·고영진 공저, 〈역사 속의 역사 읽기〉, 풀빛, 1996

김난옥, 〈고려시대 賤事 · 賤役良人 研究〉, 신서원, 2001

김일우,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제 연구〉, 일지사, 1998

김재홍,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려편), 백산자료원, 1988

김철웅, ‘처인성전투와 2차 여몽전쟁의 승패’, 〈제1회 한·몽 국제학술회〉 자료, 단국대 몽골연구소, 2010

디지털용인문화대전(<http://yongin.grandculture.net/>), 2008

림건상,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1963

박종기, 〈고려시대의 부곡제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0

손홍열, ‘김윤후 장군’, 〈충주의 인물(Ⅲ)〉, 충주대학교 박물관, 2003

용인문화원, 〈駒城面誌〉, 1998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 〈龍仁市誌〉, 2006

윤용현,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1991

이인영, ‘蒙古侵入과 處仁城 大捷 小考’,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이정기, 〈고려전기 부곡과 부곡인의 성격〉,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정성희, 〈인물로 읽는 고려사〉 ‘용의 후손 왕건에서부터 이성계까지’, 청아, 2000

KBS, 한국사 傳 ‘몽골을 두 번 격파하다 - 고려 영웅 김윤후’

최용범, 〈하룻밤에 읽는 고려사〉, 중앙M&B, 2003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속의 전쟁〉, 청년사, 1997

홍순석, 〈용인학〉, 채륜, 2010

파주지역과 임진왜란

권 효 숙 (파주문화원 책임연구원)

目 次

- I. 서론
- II. 임진왜란과 파주 임진강 전투상황
- III. 의병통제와 벽제관 전투 패퇴
- IV. 권율장군의 파주산성 移陣
- V. 임진왜란 관련 일화와 인물
 - 1. 선조의 몽진과 화석정
 - 2. 임진왜란과 관련된 파주의 인물
- VI. 결론

집필자 : 권효숙

고양시 시사편찬위 상임연구원, 파주시 시사편찬위 상임연구원, 현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파주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나가 는 뱃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뱃길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제공해 주었으며, 나아가 서 해를 통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창구 역할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집단의 용이한 접근로도 이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파주는 삼국시대 이래 남북 세력이 교 차되고 충돌하며 완충역할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삼국의 흥망과 직접 관계를 가지게 되어 치열한 전투의 격전지가 되었다.

이 지역의 주인은 삼국시대 백제에서 고구려, 다시 신라로 바뀌었고, 현대에 와서는 남 북한이 이곳에서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는 일찌감치 전쟁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이야 기가 많으며, 칠중성, 오두산성, 고랑포, 파평산성, 월룡산성 등 전쟁관련 유적이자 또한 많은 곳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어두운 밤에 파주의 임진나루에서 강을 건너 의주 로 몽진을 하였고, 임진강에서는 왜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아까운 목숨들이 강물 아래 로 사라졌다. 이렇게 임진왜란 시기 파주지역에서는 임진강 전투와 선조의 몽진경로, 권율 장군의 부대이동, 명군의 후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와 관련된 일화와 인물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파주지역에서의 임진왜란 상황은 주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에서 발췌, 정리하였으며, 전쟁기념관에서 펴낸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학술논문집에서 파주관련 부분을 참고하 고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임진왜란과 파주 임진강 전투상황

1592년 북상하는 왜군을 맞아 신립(申稜) 장군은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치열한 격전 끝에 역부족으로 대패하고, 부하 김여물(金汝物) 장수와 같이 강물에 투신자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몽진을 서둘러 4월 29일 쏟아지는 폭우 속에 임진강을 건너 의주

로 파천하게 되었다.

왜군들은 북상을 거듭하여 5월 2일 한성에 입성하고 이어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왜군들은 5월 2일 오후 임진강에 도착하였다.

선조는 5월 1일 이산보(李山甫)를 이조판서로, 이항복(李恒福)을 이조참판으로 삼고, 한응인(韓應寅)을 제도순찰사(諸道巡察使)로 삼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였다. 그때 왜군은 경성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군사를 휴식시켰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왜인들이 멀리서 오느라 발이 부르튼고 피곤해 쓰러져 있으니 몽둥이를 가지고도 격퇴할 수 있다'는 말이 조정에서 나돌았다. 행조(行朝)에서 이 말을 믿고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을 재촉하여 임진을 건너 나아가 싸워 경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으나 김명원(金命元)은 주저하고 있었다.

때마침 한응인이 주창사(奏請使)로 연경에서 돌아왔고, 서계(西界)의 토병(土兵) 1,000여 명도 도착했다. 이들은 모두 오랑캐들을 상대해 본 정예병(精銳兵)이었으므로 선조는 한응인을 장수로 삼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면서 기회를 보아 진격하도록 하고, 도원수 김명원의 통제를 받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자 한응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파주를 지나면서 김명원을 만나지 않고 임진의 입구에 달려가 여러 장수들을 모은 뒤 진격할 것을 재촉하였다.

임진강에서의 전투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초 김명원이 여러 장수들을 배치하여 신할(申訐)·유극량(劉克良)·이반이천(李薦)·변기(邊機) 등에게 임진의 모든 여울을 지키도록 하면서 방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왜군이 남쪽 언덕에 도착하여 대치한 지 8~9일이 지나도록 서로 정세만 살피며 공격하지 않았다.

마침내 왜군이 여막을 불태우고 퇴각하여 도망하는 모양을 보이며 아군을 유인하였다. 신할(申訐)은 적이 실제로 퇴각하여 도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강을 건너 추격하려고 하였다. 경기감사 권징의 의견도 신할과 같았다. 김명원은 그래도 의심하여 어렵다고 여겼는데, 이날 한응인이 도착하여 모든 무리를 거느리고 건너려 하였다.

그러나 토병 가운데 몇 사람이 한응인에게 고하기를 '군사들이 멀리서 와서 피곤한데다 기계(器械)도 정비되지 못하고 적의 정세도 아직 살피지 못했으니 조금 쉬게 하였다가 내일 형세를 살펴서 진격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응인은 이 작전을 지연시키는 발언이라 하여 몇 사람을 참하였다.

유극량은 나이가 많고 노련하였으므로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신할에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극력 저지하였다. 신할이 듣지않고 오히려 그를 참하려고 하니 유극량이 말하기를 “내가 소싯적부터 종군(從軍)하였는데 어찌 죽음을 피할 마음이 있어 그리 고하겠는가. 그렇게 말한 까닭은 국사(國事)를 그르칠까 싶어서이다.” 하고, 분개한 마음으로 그의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강을 건너가서 적진의 순라 기병 몇 명을 참하였다. 이후 신할의 군사가 모두 강을 건넜는데 이때 왜군은 산 뒤에 군사를 매복시키고는 산을 의지하여 진을 정돈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신할이 진에 나아가 적진을 압박하자 왜군들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 총과 칼로 접전을 벌였다. 치열한 전투 끝에 신할의 여러 군사가 마침내 허물어졌다. 유극량이 신할을 부르며 진을 거두어 퇴각하려고 하였으나 신할은 응하지 않고 끝내 싸우다 죽었다. 유극량이 말에서 내려 땅에 앉아 말하기를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활을 당기어 적을 쏘다가 화살이 떨어지자 전사하였다.

이렇게 신할과 유극량의 장군을 잃은 우리 군사들이 달아나 강 언덕에 이르렀는데 왜군이 추격해오며 우리군을 사살하였다. 우리 군사들 중에는 목을 빼어 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다.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僞)은 군중(軍中)에 있다가 말을 타고 먼저 도망하였다. 군사들이 바라보고 원수(元帥)가 도망간다고 부르짖자 여러 여울을 지키던 군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김명원과 한응인도 모두 퇴각하여 행재소로 가고 왜군은 마침내 강을 건너 서쪽으로 향하였으니 그때가 5월 17일이었다.

원수종사관(元帥從事官) 전적 홍봉상은 평소 활쏘기를 좋아하며 병법을 안다고 자처하였는데, 이날 자청하여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임진년 5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임진강 전투에서의 관계 장령 및 교전 병력은 다음과 같다.

아군측 :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7천여명

부원사 이빈(李蘋)

제도도순찰사(諸道都巡察使) 한경인(韓慶寅) 3천여명(江邊士兵)

독진관(督陳官) 홍봉상(洪鳳祥-전사)

제도도(諸道都) 순찰부사(巡察副使) 이성임(李聖任)

조방장(助防將) 유극량(劉克良-戰死)

검찰사(檢察使) 박충간(朴忠侃-商上君)

좌위장(左衛將) 이천(李薦)

방어사(防禦使) 신할(申誥-전사)

전유도대장(前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 5천명

경기감사 권철(權徹)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

전부원사(前副元師) 신각(申恪)

조방장(助防將) 변기(邊璣)

병력 합계 1만 5천명

적군측 : 2번대(二番隊) 주장(主將) 가등청정(加藤清正)

요장(僚將) 과도직무(鍋島直茂),

상량뢰방(相良頼房)

병력합계 약 1만2천여명

18일간에 걸쳐 임진강에서의 치열한 격투 끝에 우리군과 왜군들은 멸왜천(滅倭川)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으나 우리측에서 김명원과 한응인, 박충간 등이 도망을 치자 우리 군사들은 모두 흩어져 후퇴하였다. 왜군들은 기세를 몰아 임진강을 건너 개성을 점령하였다.

Ⅲ. 의병 통제와 벽제관 전투 패퇴

9월이 되자 조정의 군사들은 매년 전투에서 패하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렸다. 이들은 난을 피해 도망을 갔다가 의병의 조직으로 다시 뭉쳐서 전투에 임했다. 만만한 적군

과는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이기면 상을 받지만 패하여도 죄를 받지는 않았기에 관가의 군부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지역을 나누어 의병을 통제할 장군을 지명하였다. 그리하여 장단과 삭령의 의병은 이정암(李廷範)의 통제를 받게 하고, 이천여주음죽산의 의병은 성영(成泳)의 통제를 받게 하고, 통진(通津)·양천(陽川)의 의병은 김천일(金千鎰)의 통제를 받게 하고, 파주·양주·광주의 의병은 심대(沈岱)의 통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도록 하였다.

전국적으로 왜군의 침략활동이 커지자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12월에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이여송(李如松)제독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들어와 평양성을 공격하여 다음해 1월 8일 평양을 탈환하고 진격하였다. 그러자 봉산, 백천 개성에 주둔한 왜군들은 한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 후 1월 27일 소조천 용경(小早川 隆景)이 이끄는 왜군과 이여송 제독이 이끄는 명군은 고양 벽제관 인근에서 맞서게 되었다.

조승훈(祖承訓)·사대수(查大受)·장언충(張彦忠)·이영(李寧) 등이 3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벽제로 가 왜군 1천여 명을 사살하자, 명군의 10배나 되는 수 만 명의 왜군이 몰려왔다. 이여송은 급히 먼저 가느라 화포 등을 모두 운반해 가지를 못하여 신기전(神機箭)만 발사했는데, 왜군은 포를 쏘며 먼저 진격해 왔다. 명군이 바로 돌격해 격전하자 왜군이 조금 물러가는듯 하더니 곧 좌충우돌하며 일시에 진격해 오자 명군이 대적하지 못하여 한편으로 여러 장수들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로한 병졸들을 먼저 후퇴시켰다.

그 때 이빈(李賓)은 고양의 신원(新院) 근처에 있었고, 도원수 김명원은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중국군의 후방에 있었다. 중국군이 후퇴할 때에 군량과 기기를 남자하게 버려 말이 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여송 제독과 여러 장수들이 싸우면서 후퇴하는데 중국군 300여 명이 왜적과 육박전을 하다가 패퇴할 즈음 남쪽에서 우리측 병사들이 와서 지원했는데 왜군이 차츰 밀려 그대로 진격하면 승전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여송 제독은 수하의 많은 가정(家丁)들이 전사하고 동생 이문승(李文升) 또한 전사했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여 진격하지 않고 파주로 군사를 되돌렸다.

이여송 제독은 파주에 도착하여 세 대장과 의논하기를 ‘이곳은 전장으로 부적당하고 군량의 운반 또한 이이지지를 않으니 동파에 물러가 주둔하려 한다’ 하고 다음날 임진강 너

머 동파로 물러가 주둔했다가, 사람과 말이 굶주리고 또 비가 올 징후가 있었으므로 개성 부로 회군했다.

그 후 명군은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왜군 또한 많은 군사를 잃었는데 승장(僧將) 처영(處英)이 이끄는 승병의 활동으로 왜군의 피해가 컸던 것이다. 그리하여 파주 고령산 전역에 걸쳐 피바다를 이루고 수천명의 시체가 널비하였다 한다. 명군이 후퇴하고 왜군들은 비교적 유리한 전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임진강 이북은 넘보지 못하고 단지 한성 방어만을 하였다.

왜군은 다음해 1월까지 파주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경성으로 올라가 동대문 밖에 진을 치고, 성(城)에 있는 왜적들도 나와서 동대문 밖과 남대문 밖의 사한리(沙漢里)와 한강 등에 진을 쳤고, 사대문 밖에는 녹각(鹿角 : 사슴뿔 모양의 바리케이트)을 많이 설치하였다. 이들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다가 죽여서 내버리기도 하고, 경성의 젊은이들 머리를 깎게 하고 노인들은 모두 죽였으며 짐바리를 잇따라 한강 건너편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

1593년 2월 12일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던 전라도순찰사 권율(權慄)이 적병을 격파하였다는 승전보가 날아들었다. 행주대첩의 승전보를 이어송 제독은 처음엔 믿지 않다가 사대수(查大受)의 첩보를 보고받고서야 비로소 기뻐하며 즉시 정병 3천 명을 선발하여, 가서 임진을 방어하게 했다.

2월 18일에 8명의 왜장은 공동으로 본국에 패전 보고를 보내었다. 왜군의 피해상황을 축소는폐시킴과 동시에 행주산성 밑에 감시선 150척을 파송하였다. 왜군은 행주산성에 대한 보복전으로 제2의 행주산성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왜군은 제2의 행주산성전은 수륙양면 작전으로 4면 포위공격에 의한 섬멸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권율장군의 파주산성 移陣

행주대첩 승전이후 권율장군은 군대를 행주산성에서 파주산성³⁴⁾으로 이동하였다. 권율장

34) 『국조보감』 권 31, 선조26년, 『선조수정실록』 권 27, 선조 26년 2월조에는 大興山城으로 표기가 되었다. 파주산성은 鳳棲山城으로 표기되었으며 봉서산(214m)에 위치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馬山古城과 城山古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東國輿地志』에는 城山城으로, 『輿地圖書』 보유편에는 파주

군에 2월 16일에 군대를 행주산성에서 파주산성으로 이동한 것은 조방장 조경의 의견을 수렴해서였다. 행주산성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시적인 승리는 가능했지만 전면적인 대공세나 혹은 장기전에는 취약점이 있어서 그의 본거지를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행주산성의 한계성은 첫째로 한강에 연한 고립성으로 말미암아 적의 포위작전을 당할 염려가 있고 둘째로 적의 주력이 집결하고 있는 한양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셋째로 기존의 방어시설물이 불비해서 이를 보강할 물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파주산성은 천험의 요충지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³⁵⁾ 파주산성의 장점은 첫째로 산성 주위는 광활한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어 적의 공격을 쉽게 감지할 수 있고, 둘째 산세가 험하고 토질이 토산으로 방어전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셋째로 인근의 봉암리 대산과 함께 적의 공격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각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권율장군은 병력을 이끌고 파주에 봉서산성으로 전진하여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이빈(李蘋)등과 같이 산성을 지키게 하였으며 방어사 고언백(高彦伯)과 이시언(李時言) 그리고 조방장 정희현(鄭希賢)으로 하여금 해유령(蟹踰嶺) 계너머 고개를 막도록 하는 동시에 의병장 박유인(朴惟仁) 윤선정(尹先正) 이산휘(李山輝) 등으로 하여금 우로부터 창릉(昌陵)과 경릉(景陵) 사이에 복병을 매설하여 각각 그의 병력으로써 수시로 적을 공격하게 하였다.

왜군은 군사를 재정비하여 파주산성을 향해 행군하다가 포기하고 충도에서 되돌아가버렸는데 그 이유는 후일에 왜적의 부장(副將) 나강계저모차(羅江戒底母此)라는 자가 행장(行長) 등의 서신을 가지고 권율장군을 만나러 왔을 때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당시 행주산성에서 패전한 왜군 장수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찢러 피를 내며 맹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왜병 10여 만 명을 모아서 날을 택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율장군이 파주산성으로 진을 옮겨버리자 왜군은 파주로 행군하다가 충도

고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大東地志』에는 馬山古城으로 백제시에 축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輿圖備考』에는 城山이며 선조시에 수축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35) 『선조실록』 권59, 선조28년 정월 을미조의 경연석상에서 파주산성에 대한 지형적 조건을 유성룡은 더없이 평가하고 있으며, 왜군들도 進攻해서는 이익이 없는 곳으로 인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증보문헌비고』 권26, 관방 파주 진산조에 기록되어 있는 “명군의 유격장인 趙佑가 ‘天設形勝國西中門’ 이라고 쓴 현판이 있었다는 것도 이를 입증시켜주고 있다.

에서 되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행주산성은 진 밖에 암석이 간간이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면 바위 사이에 피신하여 혹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산성의 진은 돌을 피할 곳이 조금도 없어서 왜군 10만 병력이 싸움을 포기하고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듯 전투에서 지형을 잘 활용함이 얼마나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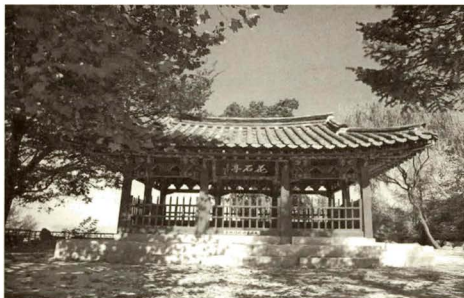
행주산성 전투 이후 관군과 의병은 한양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축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격전을 벌였다. 왜군들은 성 안에서 식량, 땔나무 등의 결핍을 겪고 있었고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매복과 기습작전을 벌여 왜군들을 공격하니 왜군들은 멀리 나가서 땔나무조차 구할 수 없었다.

한양에 주둔한 왜군은 조선군의 반격과 의병의 유격전, 명군의 남진 등으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었고 여기에 군량미는 거의 바닥나고 도망자까지 속출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한양을 점령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월 13일에 용산에서 군량미 수 만 석이 아군 정찰조에 의해 불타자 왜군은 명측과 단독 강화협상을 벌려 4월 19일 한양에서 퇴각하였다. 물론 조선군은 강화협상을 반대하여 권율이 파주로부터 군사를 인솔해서 입성한 다음 도강하여 적을 추격하려 하였으나 이여송이 노량진의 나룻배를 거두어 한강 도하작전을 방해하였다. 퇴각한 왜군은 본국으로 철수하지도 못한 채 경상도 울산 서생포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요충지에 성을 쌓고 강화협상을 벌이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이중적인 작전을 취하게 되었다.

V. 임진왜란 관련 일화와 인물

1. 선조의 몽진과 화석정

파주 파평면 율곡리 율곡 이이선생의 본향마을에는 임진강을 내려다 보는 경치 좋은 곳에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곳은 율곡 선생이 국사의 여가가 날 때마다 찾았던 곳이고 관직을 물러난 후에는 여생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시와 학문을 논하였다고 한다.



화석정은 원래 고려 말의 유학자인 길재(吉再)의 유지가 있던 곳에 세종 25년(1443) 울곡선생의 5대조부인 강평공 이명신(康平公 李明晨)이 세종 25년(1443년)에 정자를 세우고 성종 9년(1478)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증수하였다. 화석정이란 이름은 당나라의 재상 이덕유의 별채인 평천장의 가문 중에서 '花石'을 따왔다고 하며 연안 이씨 집안의 이숙함이 지은 이름이다.

당시 울곡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勅使) 황홍헌(黃洪憲)이 찾아와 시를 읊고 자연을 즐겼다는 설도 있다. 임진왜란 때 불 타 없어져 80여 년간 터만 남아있는 것을 현종(顯宗) 14년(1673)에 울곡선생의 증손 이후지(李厚地), 이후방(李厚坊)이 다시 세웠으나 한국 전쟁때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화석정은 1966년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한 것으로 건축양식은 팔작 지붕 겹처마에 초익공(初翼工) 형태로 조선시대 양식을 따랐다. 건물의 정면 중앙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쓴 '花石亭'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 뒷면에는 울곡선생이 8세때 화석정에서 지었다는 〈八歲賦詩〉가 걸려있다.

임진강이 휘돌아 흐르는 언덕에 세워진 화석정의 전망은 아름답기 그지 없는데 이곳 화석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곡 선생은 평소 정자에 제자들과 함께 기둥과 서까래 등에 들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먹여 두었다고 하는데, 훗날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년)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파천할 당시(4월 29일 밤) 역수같은 폭우 속에서 강을 건널 때 이항복이 화석정에 불을 질러 무사히 배가 강을 건넜다고 전한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때 파주지역을 지나던 선조의 몽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4월 30일

돈의문을 지나 사헌[지금의 홍제동 부근] 고개에 달을 무렵 동이 티기 시작했다. 머리를 돌려 성안을 바라보았더니 남대문 안의 커다란 창고에 불이 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고개를 넘어 석교에 도착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경기 감사 권징이 뒤 쫓아와서 나를 따랐다. 벽제역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더욱 거세져 일행 모두 옷이 젖었다. 임금께서는 잠시 비를 피해 벽제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발하셨는데, 이때부터 도성으로 되돌아가는 관원들이 늘었다. 시종, 대간들 가운데도 뒤떨어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해음령[지금의 벽제 부근]을 넘을 무렵에는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다. 허약한 말을 탄 궁인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따라왔다. 마산역을 지날 무렵,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행을 바라보더니 통곡하며 말하였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임진강에 이를 때까지 비는 멈추지 않았다. 배에 오른신 임금께서 수상과 나를 부르셔서 뵈고 나왔다.

강을 건넜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옛날 승청이 있었는데 적들이 그 나무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널까 두려워 나무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불빛이 강 북 쪽까지 비추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오후 8시경이 되어 동파역[지금의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달자 파주 목사 허진과 구효연이 임금 접대를 위해 파견되어 와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 글에서 보면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간 후 승청의 나무에 불을 지른 것인데 이것이 화석정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변형되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율곡 선생의 십만양병설과 관련하여 율곡선생의 예지력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구전설화라고 볼 수 있다.

2. 임진왜란과 관련된 파주의 인물

유극량(劉克良)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 자는 중무(仲武), 연안유씨(延安劉氏)의 시조이다. 어머니는 재상 홍섬(洪暹)의 노비였다. 어려서부터 고학을 하여 무과에 급제하였다. 당시의 신분제도로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노비출신이었으나, 홍섬의 깊은 배려로 노비신분을 면제받았다. 여러 무관직을 거친 뒤 1591년(선조 24) 전라좌수사가 되었고, 곧 조방장(助防將)으로 전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죽령(竹嶺)을 방어하다가 패배하자, 군사를 영솔하여 방어사 신할(申碩)의 밑에 들어가 그 부장이 되었다. 대장 신할과 마침 1,000명의 군졸을 이끌고 그곳에 달려온 도순찰사 한응인(韓應寅) 등과 함께 임진강을 방어하였다.

이때 임진강 남안에 이른 적병이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하자, 대장 신할이 강을 건너 적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적이 우리 군사를 유인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5, 6일간 우리 군사의 힘을 길러 사기가 올라간 다음에 적을 치자.” 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신할과 뜻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뒤떨어질 수 있으랴 하고, 그의 군사를 수습하여 거느리고 선봉에 서서 곧 강을 건넜다. 그러나 미처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적의 복병이 수없이 나타나 공격해옴으로써 좌위장(左衛將) 이천(李薦)이 강 상류에서 패하고, 신할도 난군(亂軍) 중에 전사하였다. 이때 그는 강을 건너 수명의 적을 죽였으나 그도 역시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지용(智勇)을 겸비한 그의 전략을 무시한 결과 임진강전투가 참패로 끝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며, 백발을 흘날리며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군사들은 그의 충절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개성 숭절사(崇節祠)에 제향되었으며,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 14번지에 무의공 유극량의 충절을 기리고자 후손들이 기공비(紀功碑)를 세웠다.

유극량과 관련된 일화

유극량이 문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의 어머니가 슬피 울고 있기에 연유를 물었다. 어머니 말하기를 “이 에미는 본래 사비(私婢)였는데 하루는 실수하여 주인의 옥배(玉盃)를 깨뜨려 죄를 받을까 두려워 도망을 쳤다. 그 뒤 너의 아버지를 만나 너를 낳은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사비와 같은 천한 소생은 국법으로 삭과(制科-과거에 급제한 것을 취소하는 것)한다고 하니 네가 필시 과거급제를 취소당할 것이 원통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

유극량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곧 상경하여 주가(主家)인 홍모(洪某)의 집을 찾아가 그 사유를 말하고 삭과(削科)하여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 주인은 이같은 유극량의 말에 탄복하여 그 어머니의 신분을 종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문권(文券)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노(奴)의 신분을 면한 그는 이후로도 계속 주가(主家)를 섬기고 벼슬하는 곳에서 항상 예물(禮物)을 바쳤다. 그리고 주가(主家)에 다다를 때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종 종걸음으로 예물을 손에 높이 받들고 주가(主家)에 들어서서 등 예의를 다했다고 한다.

이빈(李賓)

1537년(중종 32)~1603년(선조 36)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아버지는 서흥부수(瑞興副守) 춘억(春億)이며, 어머니는 첨정(僉正) 김국량(金國良)의 딸이다. 1570년(선조 3)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회령부사(會寧府使)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충주에서 신립(申립)의 휘하에 들어가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뒤 김명원(金命元)의 휘하에 들어가 임진강을 방어하다가 다시 패하고,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평양을 방어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이원익(李元翼)을 따라 순안에서 싸웠다. 이듬해 명장 이여송(李如松)과 함

계 평양을 탈환한 뒤 이어송의 요청으로 순변사(巡邊使)에 임명되어 권율(權율)과 함께 파주산성을 수비하였다. 같은 해 왜군이 진주와 구례 지방을 침략할 때 남원을 지켰다. 그러나 당시 진주성을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대죄종군(戴罪從軍)하다가 1594년(선조 27) 경상도순변사(慶尙道巡邊使)에 복직되었다. 이듬해 상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물러났다가 임진왜란이 평정된 뒤 포도대장(捕盜大將)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퇴하였다. 월롱면 능산리에 묘가 있다.

김만수(金萬壽)

1553년(명종 8)~1607년(선조 40)

임진왜란 때 의병장. 본관은 광산. 자는 덕로(德老). 아버지는 훈원원판관 대유(大有), 어머니는 감찰 오세훈(吳世勳)의 딸이다.

그는 용력이 뛰어나 천수(千壽)·백수(百壽)·구수(九壽)의 세 아우들과 함께 용맹으로 널리 알려졌다. 1584년(선조 17) 무과에 급제하고 감찰·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풍천부사(豊川府使) 등을 역임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실직(失職)으로 봉산 향제(鄕第)에 있다가 분연히 일어나, 세 아우, 그리고 진사 최섭(崔涉)·이옹(李莚)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9백인을 모으고 의병대장에 추대되었다.

세 아우를 선봉장으로 삼고, 급히 장단(長湍)으로 나아가 조방장 유극량(劉克良)과 합병하여 임진강 방어전에 참가하였는데, 백수는 조방장과 함께 파주싸움에서 전사했다. 두 아우와 함께 흠어진 군졸들을 모아 다시 봉산으로 돌아와 의거할 준비를 하며 오위도총부도사인 아들 광협(光猷)과 함께 황해도 여러 읍의 적정을 탐문하였다.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순찰사 이일(李鎰)에 의해 임시로 봉산군수에 임명됨으로써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어 여러 군병(郡兵)과 합세하여 왜군을 격파하였다. 그 공으로 의병장의 호를 하사받았으며, 선전관에 임명되어 부차전투(富車戰鬪)에서 3전 3승을 거두었으나 아들 광협을 잃었다.

1593년 진도군수가 되어 한산도에 진을 친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군대와 광주(光州)에 진을 친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의 군대에 군량미를 보급하는 데 공헌하였다.

난 중의 공적이 참작되어 공조판서에 추증되고, 봉산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김복경(金復慶)

1545년(인종 1)~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호는 몽유당(夢允堂)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양주목사겸양주진병마첨절제사(楊洲牧使兼兵楊洲鎭馬僉節制使)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주까지 쳐들어온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1633년(인조 11)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고 “통정대부행양주목사진병마첨절제사김복경지려(通政大夫行楊州牧使鎭兵馬僉節制使金復慶之閭)”란 현액을 하사하였다. 파주읍 봉서리에 묘와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된 충신정려각이 있다.

김희철(金希哲)

?~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옥천(沃川)이며, 자는 원명(原明), 호는 휴계(休溪)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올랐다. 딸이 선조의 후궁으로 들어가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자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1583년(선조 16)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조헌(趙憲)의 휘하에서 혈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영동녕부사(領敦寧府事)에 추증되었고, 영천의 방산서원(方山書院)에 제향되었다. 탄현면 문지리에 묘가 있다.

이광(李洸)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무신으로 파평이 고향이다.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산인(雨溪散人)이다.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행(荇)의 손자이며 도사(都事)를 역임한 원상(元祥)의 아들이다.

1567년(명종 22) 생원이 되고, 1574년(선조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 의정부사록(議政府司祿)을 거쳐, 1577년 예문관검열로서 춘

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이후 평안병마평사, 성균관전적, 북청관관, 함경도도사를 지냈다. 1584년 병조정랑, 장악원첨정을 거쳐 외직을 두루 섭렵하였다. 먼저 함경도암행어사로 나아가 북쪽 지역민의 물자 현황을 살폈으며 계속해서 영흥부사로 부임했다. 이어 1586년 길주목사로 나갔다가 함경도관찰사겸순찰사로 승진되었다.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1589년 10월 백유양(白惟讓), 최영경(崔永慶) 등과 함께 정여립(鄭汝立)이 모반사건을 일으키자 조정으로부터 관련된 도당 모두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받았다. 이때 혐의가 적은 인물을 임의로 용서하여 풀어주었다가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조정의 부름을 다시 받아 1591년 호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며, 지중추부사로써 전라도관찰사를 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의 존위가 위태롭게 되자, 처음에는 근왕(勤王)에 소극적이었지만 전국에 징병령이 내려지자 격문을 붙여 급히 군사를 끌어 모았다. 이후 전라감사 소로서 충청도관찰사 윤선각(尹先覺)과 경상도관찰사 김수(金睟)와 함께 관군을 이끌고 북상하여 서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웠다. 즉, 이해 5월에 최원(崔遠)에게 전라도를 방어하게 하고, 스스로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주목사 이경복(李慶福)을 중위장으로, 조방장 이지시(李之詩)를 선봉으로 하여 임천(林川)을 거쳐 계속 북진하였다. 북진하던 길에 왜적을 만났는데, 수원으로 유인하여 싸우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용인에서 전투를 벌이다 방심한 나머지 적의 기습을 받아 참패하고 말았다. 군사를 이끌고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왜적이 전주·금산 지역을 침입하였다. 절치부심하여 광주목사 권율(權慄)을 도절제사로 삼아 웅치(熊峙)에서 적을 크게 섬멸하였고, 전주에 근접한 왜적을 그 고을 선비 이정란(李廷鸞)과 함께 격퇴시켰다. 이렇게 전란 중에 나름대로의 공을 세웠지만, 같은 해 가을에 용인 패전의 책임자로 몰려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백의종군한 뒤 의금부에 감금되어 벽동군에 유배되었다가 1594년(선조 27) 고향 파주로 돌아왔다. 저서로는 『우계집(雨溪集)』이 있다.

이몽태(李夢台)

생몰년 미상

파주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안성군수로 재직하다 감사(監司) 심대와 함께 삭녕 지방에서 전사하였기에 1806년(순조 6) 예조에서 각도의 유생이 상언하여 표절사(表節祠)에 배향하

었다.

이유길(李有吉)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의사(義士)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유지(有之)이다. 종계변무(宗系辨謄)로 광국공신(光國功臣)이 된 후백(後白)의 손자이다. 광탄면 발랑리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왜병에게 해를 입자 검은 상복을 입고 기의(起義)하여 해남 명량(鳴梁)에서 17세의 나이로 공을 세웠으며,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서 전봉장(前鋒將)으로 왜군과 싸우고 명나라 유정(劉綎)의 원군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숙종 때 정려되었으며 참판(參判)으로 추증되었고 강진에 사우를 세워 제향하게 하였다.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VI. 결론

임진왜란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주었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쟁이었기에 어느 지역이라도 임진왜란과 관련한 한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파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라서 전쟁과 관련하여 전투상황, 의병활동, 왜군들에게 도륙당한 마을과 백성들의 처참함, 순절자 등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스며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임진강에서 치러진 왜군과의 치열한 전투상황과 권율장군의 전략적인 파주산성으로의 이동, 명나라 이여송 장군의 벽제관전투 패배 후 임진강 동파로 후퇴하던 상황,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거나 중요한 활동을 한 파주인물들을 다루었다. 임진왜란 때 치욕을 피하고자 순절한 열녀들과 파주에 묘가 있는 인물 중 임진왜란 때 벼슬을 하거나 선조임금을 호종한 여러 인물들은 너무 많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의 몽진과 관련하여 잘못 와전되어 널리 퍼진 화석정에 붙지른 이야기가 올바른 역사적 사실로 다시 기억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유적지와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을 가지고 있는 파주지역의 평화회복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방위 전략

홍 정 덕 (한북대 평생교육원 교무부장)

目 次

I. 서론

II. 본론

1. 호란의 경과

- 1) 여진의 성장과 조선의 대응
- 2) 정묘호란
- 3) 병자호란

2. 호란과 관련한 국가 방어 전략의 재편

- 1) 5위(衛) 체제
- 2) 5군영(軍營) 체제
- 3) 5군영 체제의 특징
- 4) 영장제(營將制)의 확장

III. 결론

집필자 : 홍정덕

국사편찬위 자료조사원, 동두천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 한북대
평생교육원 교무부장

I. 서론

병자호란(丙子胡亂)은 마침내 조선이 여진족의 제후(諸侯)가 되는 극단의 정변으로서 이후 조선의 정치, 사상, 사회,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엄청난 사변이었다.

여진족은 오랜 기간 조선을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조선으로부터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입어왔기에 통제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온 변방의 야만족에게 사대의 예를 갖추는 조선으로서의 건디기 어려운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다.

조선의 지배계급에게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최대의 굴욕이며 반드시 설욕되어야 할 수치였기에 효종은 북벌(北伐)이라는 국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양반 사대부 층은 청(淸)의 연호를 거부하고 소멸된 명(明)의 연호를 인용(仍用)하여 반청복명(反淸復明)의 의지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인 면으로도 청의 재침에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호란 이후 조선정부의 대청 방어책의 수립과 전개의 추이를 검토하여 조선 후기 방어 전략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호란의 경과

1) 여진(女眞)의 성장과 조선의 대응

오랜 기간 명(明)의 군사적 통제를 받으며 부락 단위의 자치를 유지하던 여진은 왜란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 주둔군이 대거 조선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통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걸출

한 영웅 누르하치(奴兒哈赤 1559~1626)의 노력으로 부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왜란이 끝난 후 명은 <위(衛)>를 재건하고 여진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려 노력하였으나, 군부의 부패와 여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오히려 만주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대릉하 지역의 주요 성(城)을 거점으로 서진(西進)하는 여진과 대치하게 된다. 명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고 조선은 강홍립(姜弘立)을 주장(主將)으로 하는 대병을 파병하지만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대패하고 이로써 후금의 정치적, 군사적 입지는 확고해 진다. 명은 만주 회복을 포기하고 산해관 등 요해를 지키며 후금의 증원 진출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후금은 조선이 명에 원병을 파견하여 전투에 참전하였음에도 오히려 조선을 선부(宣撫), 포섭하려 하였다³⁶⁾. 이는 요서(遼西)에 형성되어 있는 명(明)과의 전선(戰線)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후방 조선과의 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할 적극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대부분의 조선(朝臣)들이 후금과의 화친을 반대하며, 후금 사신을 처형하고, 아울러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姜弘立) 등 파병군 지휘관의 가족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고, 이 사실이 후금에 알려지면서 후금 내의 대조선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2) 정묘호란

1627(인조5)년 후금은 조선에 침공한다. 이른바 정묘호란이다

후금의 조선 공격은 인조의 즉위 이후 공개적으로 친명반금(親明反金)을 표방하는 조선을 공격하여 대명(對明) 전선(戰線)의 후방에 제2전선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대 조선강경론자 홍타이지(皇太極, 弘他時)가 후금의 2대 칸(汗)으로 즉위한 것과 명(明)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압록강 어귀의 가도(叆島)에 군영(軍營)을 설치하고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는 상황, 그리고 명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명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되어 명으

36) 누르하치는 사르후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가 된 조선군 장병의 대다수를 조선으로 귀환시키고 친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누르하치에 이어 대권을 장악하는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대 조선 화평책에 적극 반대하였고 이는 후에 후금이 조선에 침공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로부터의 물자 유입이 끊어지자 야기된 만주의 경제적 위기³⁷⁾를 조선과의 개시(開市)로 타개하려는 의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며 이를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출(廢黜)하여 반(反) 후금(後金)을 외교의 기조로 하였으므로 친명반금(親明反金)의 구호와 함성은 높았지만 실제적인 위협인 후금의 침공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투는 후금군의 일방적인 우세로 전개되었다.

후금의 2세 칸(汗) 홍타이지는 자신의 형인 대패륵(大貝勒) 아민(阿敏)을 총지휘관으로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1627년 1월 조선에 출병한다. 후금 군이 의주, 안주, 평양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황주를 공격하자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급히 강화도로 피난한다. 이는 수군을 보유하지 못한 몽골족을 강화도로 근거지로 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했던 고려의 선례를 답습한 것이었다. 청은 평산에 이르러 압도적인 승세(勝勢)를 바탕으로 조선에 강화를 제의하게 된다.

요서에서 명과 대치하고 있는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의 군사작전이 장기화되어 명군의 본격적인 반공(反攻)을 받게 되면, 동서(東西) 양면(兩面)에 전선(戰線)을 유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므로 조선에서의 작전을 조속히 종결할 절대적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후금은 조선에 침공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선에서 강화를 모색하려 하였는데, 그 소정의 목표는 명과 조선의 정치, 외교적 단절,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조선의 대명 원조 및 원군 파병과 연합작전의 방지, 조선과의 개시(開市)를 통한 물자 조달 등이었다.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투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항전은 무리였고, 조속히 강화가 체결되지 않으면, 후금군의 남하와 전투 지역 확대로 전

37) 명은 여진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통하여 식량과 기타 전략물자 등을 여진에 공급하여 왔다. 후금이 건국되고 명과 전투를 벌이게 되자 명은 여진에 대한 보복과 압력으로 식량을 포함한 물자의 공급을 금지하였고 이는 여진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되었다.

국을 병화에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조선과 후금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수용하는 선에서 강화를 추진하여 화약(和約)이 성립되었다. 이른바 <정묘화약(丁卯和約)>이다

이에 따르면 후금과 조선 양국은 <형제관계>를 설정여 조선의 왕은 후금의 칸(汗)을 형으로 후금은 조선의 왕을 <아우왕(弟王)>으로 호칭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의례를 상정(詳定)하게 된다.

아울러 후금이 요구하였던 조선과 명의 국교단절은 조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후금은 조선이 명에 사대(事大)하는 것을 용인(容認)하는 대신 조선은 후금에 보내는 국서(國書)에 명의 연호(年號)인 <천계(天啓)>를 사용하지 않기로 타협이 이루어 졌다. 이는 여진족이 아직 <대칸(大汗)>을 칭하고 있을 뿐 <황제(皇帝)>를 칭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침공한 가장 큰 이유였던 조선과 명의 국교 단절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조선 역시 지금까지 천시(賤視)하던 여진을 형(兄)으로 대접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양국 모두가 불만이었다. 그리고 정묘화약을 바라보는 양국의 불만은 후일 후금(後金)의 대칸 홍타이지가 만(滿), 몽(蒙), 한(漢)의 추대를 받아 <청(淸)>의 <황제(皇帝)>로 등극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결국 조선에 재침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

외교문제를 제외한 군사, 국방의 현안은 대체로 전황(戰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후금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외교문제를 제외한 정묘화약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³⁸⁾
- 후금군은 철병하나 압록강 하구의 모문룡 군과의 충돌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것

38)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후금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종실 이구를 원창군(原昌君)으로 봉하여 인질로 보냈다.

-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
- 조선은 후금에 세폐(歲幣)를 낼 것
- 개시(開市)를 열어 물자를 유통(流通)할 것

이 중 논란이 되었던 세폐는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목면(木綿) - 15,000필(疋)

명주(綿綢) - 200필(疋)

백저포(白苧布) - 250필(疋)

호피(虎皮) - 60장(張)

녹피(鹿皮) - 40장(張)

왜도(倭刀) - 8병(柄)

안구마(鞍具馬) - 1필(疋)

이어 3월 3일 양국의 지휘관이 강화 근교에서 회맹(會盟)의 의식(儀式)을 치르는 것으로 정묘호란은 종결되었다.

정묘화약의 내용을 분석하면 당시 후금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 조선이, 개시(開市)와 세폐(歲幣) 등 청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후금이 조선을 침공한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명과의 단절이나, 조선에 대한 청의 실제적인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고 명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도록 명문화 한 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선의 입장을 일부 관철해 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명(明)과의 기존 질서 유지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활용하여 조선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인조는 반정(反正)에 의하여 창출된 자기 정권의 허약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효가 없는 명과의 기존 관계에 집착한 결과 명을 압도해 가는 여진의 대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³⁹⁾ 그러나 명은 오히려 조선이 후금과 내통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고⁴⁰⁾ 청은 재침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W

한편 정묘호란을 통하여 청의 강력한 군사력을 체험한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나름대로 청의 재침에 대비하는 일련의 군제개혁과 국방 강화책을 추진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장(章)을 바꾸어 다시 검토하기로 하자.

3) 병자호란(丙子胡亂)

(1) 홍타이지의 야망

후금의 창건자 누르하치가 <7대한(七大恨)>을 내세우며 명을 공격할 때에만 하여도 그는 명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지 중원의 지배자로서 천하의 주인이 되리라는 야망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차이점이었다. 홍타이지는 만주를 뛰어 넘어 전 중국의 지배자, 즉 <제국(帝國)>의 건설을 꿈꾸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력(全力)을 기울였다.

홍타이지는 차하르 몽골을 휘하에 넣고⁴¹⁾ 조선을 굴복시키자⁴²⁾ 구체적인 황제 등극을 준비하여 1635년 만(滿), 몽(蒙), 한(漢)의 공동 추대로 마침내 황제에 즉위하며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변경한다. 아버지 누르하치와는 달리 그는 대 조선 강경론자였다. 누루하

39) 조선은 대명 관계를 재조지은(再造之恩), 즉 나라를 회복시켜준 은혜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배신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명에서는 <인조(人造) 반정(反正)>을 찬탈로 규정하여 이를 변무(辨謬)하는 것이 조선 대청외교의 핵심이 되기도 하였다. 청은 이를 조선을 순치(馴致)하는 방편으로 삼기도 하였다.

40) 명이 천명적인 조선을 후금과 내통하는 것으로 의심한 데에는 당시 가도에 주둔하던 모문룡의 모함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41) 홍타이지는 차하르 몽골을 복종시키는 과정에서 원(元) 제국의 옥새를 손에 넣었고 이후 원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황제의 위에 오를 준비를 시작한다.

42) 정묘화약을 후금에서는 조선을 굴복시킨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명과의 심리전 및 선전전에 대대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사건에 대한 과장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후금의 지배자들이 가지는 정묘화약에 대한 실질적인 시작이기도 하였다.

치가 명, 금 분쟁에서 조선이 중립 세력으로 남기를 위하여 유화정책으로 일관한데 비하여 그는 조선을 정벌하여 후방 전선을 안정시키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가 정묘화약을 후금의 조선정복으로 인식하고⁴³⁾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과 명의 단절을 조선에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그의 대조선 강역정책의 일환이었다⁴⁴⁾

1634년 차하르 몽골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원(元)제국의 전국(傳國) 옥새(玉璽)를 획득한 홍타이지는 이로서 자신이 원(元) 제국을 계승한 황제(皇帝)로 등극할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1635년 여진의 지배자들과, 몽골의 귀족들 그리고 명에서 후금으로 투항해 온 문무 관리들⁴⁵⁾인 이신(貳臣)들의 추대를 받아 대청제국(大清帝國)의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추대식에 조선(朝鮮)이 합류하여 추대자의 명부에 조선왕이 기재되기를 희망하였고 실제 별도의 경로로 이를 조선에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조선의 맹렬한 반발을 샀을 뿐이었다.⁴⁶⁾

실제로 조선에 대한 이와 같은 청의 정치적 요구는 정묘화약 위반이기도 했다. 조선과 청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명과 조선의 기존 사대관계를 용인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다. 그

43) <청 태종실록> 권 3 천총 1년 4월 신해(辛亥)

임금(홍타이지)이 유시하여 말하기를 ‘ 이제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조선을 쳐서 복종시키니 (우리나라의) 위명이 세상에 크게 떨치게 되었다... ’

(上諭曰 天佑我國 平服朝鮮 聲名宜播...)

44) 신달도(申達道) <晩悟集> 권7 강도일록(江都日錄)

“하물며 이제 조선은 조선이고 여진은 여진이니 각국에 걸 맞는 연호를 쓰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이제 귀국(조선)이 천계(天啓-명의 연호)를 사용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는 천계(天啓)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미 마음으로 화해하였고 형제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의 나라에 연호가 없다면 우리의 천총(天聰) 연호를 사용하여 서로 순치(脣齒)의 나라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況爾爲朝鮮 我爲女眞 各書各國號 禮也 今貴國肇天啓來壓我 我非天啓所屬之國 如今我兩國既講心和 要爲兄弟之國 若無國號 就當寫我天聰年號 結爲脣齒之邦)

45) 이들을 이신(貳臣)이라 부르며 청의 국가 정비와 경영, 그리고 중원 정벌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기에 여진에 투항한 사람들부터 나중에 전투에 지고 항복한 홍승주 같은 무장, 그리고 명 멸망 후 투항한 오삼계 같은 지휘관들을 모두가 이신의 범주에 포함된다.

46) 차하르를 비롯한 몽골의 왕족들은 조선에 서신을 보내어 조선왕 역시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형식은 몽골 왕족들이 보내는 권유 편지였으나 실제로는 청의 비공식 요청이었다.

“우리를 (몽골의) 16개국 49 패족들은 작년 12월에 금나라의 여러 패족들과 만나 협의하니 모두 이르기를 우리들의 대간(홍타이지)께서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옥새를 얻으시니 이는 그가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추대하는 것이 분명한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홍타이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금년 정월에 다시 이일을 상주하니 이르시기를 ‘조선의 왕은 나의 동생이니 그에게도 역시 마땅히 이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니 우리들의 생각에 진실로 대외에 합당한 일이라 여겨

려나 청은 정묘화약을 조선이 자신들에게 굴복한 결과 체결되었다고 보고 화약(和約)의 일구(一句) 일구(一句)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정묘화약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식 즈음에 후금에 머물러 있던 나덕헌(羅德憲) 등 조선 사절에게 황제 추대식 참여를 강요하게 되었고 나덕헌 등은 이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여 무수히 구타당한 후 청으로부터 황제가 신하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된 국서를 받아 돌아오다가 이 국서를 객관(客館)에 버리는 극단의 반청(反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⁴⁷⁾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인식의 차이는 점차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으로 발전되어 갔다. 조선과 명의 국교 단절, 경제적 실리의 추구, 후방의 안정 등 실제 조선과 타협할 여지가 있었던 정묘년의 상황과, 이미 황제국이 되었다는 국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을 완전히 신복(臣服)시키는 것이 과제였던 병자년의 상황은 청으로 하여금 조선에 침략하는 의도를 근본적으로 달리 설정하게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청 태종의 <조선정벌> 강행하도록 촉진하였던 것이 바로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 등 명 장수의 투항 귀순이었다. 여진족은 유목민이었으므로 수군을 보유하지도, 수전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바로 이 점이 강력한 수군을 보유한 명과의 전투에서 약점으로 작용하여 여진으로 하여금 육전에만 치중하도록 하는 군사적 한계(限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632년 경중명(耿仲明)의 상관이었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假島)에서 소환되어 사형에 처해지자 산둥(山東)의 수군(水軍)을 거느리던 명의 장군들은 후금에 투항하였고, 이들이 거느리고 온 수군과 불랑기포(佛狼機砲)등 강력한 화기는 이후 명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강화도로 피난하여 이를 거점으로 여진의 침공에 대항하려는 조선의 방어계획을 익히 알고 있었던 청 태종에게, 투항해 온 명의 수군과 화포는 조선의 방어(防禦) 기도(企圖)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 여겨졌다⁴⁸⁾

47)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나덕헌이 국서를 거절하거나 자결하지 않고 국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그를 처사(處死)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8) 실제로 이들 명의 항장을 중심으로 한 청의 수군은 명의 원군이 조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

(2) 병자호란의 경과

1632년 12월 청 태종은 여진, 몽골, 한족으로 구성된 10만의 대병으로 조선에 침공하였고, 침입로에 축성된 조선의 산성들을 우회(迂廻)하며 전속력으로 남하한 여진군은 불과 10여일 만에 한양에 도달하는 속공을 감행하였다.

인조는 이미 수립된 방어계획을 따라 우선 세자를 비롯한 여러 종친과 종묘(宗廟)의 신주(神主)를 긴급히 강화도를 피난시키고 자신도 강화도에 입도(入島)하려 하였으나 이미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이 끊겨,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절망적인 농성전을 벌였으나 그들의 압도적인 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삼전도(三田渡)에서의 이 항복은 청이 요구하는 군신(君臣) 관계를 수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현이었던 동시에, 이를 통하여 청 태종은 천하에 제국 건설의 대의 명분이 완성되었음을 공포하는 선언이기도 하였다.⁴⁹⁾ 따라서 항복의식은 이를 증빙하는 장중한 의식으로 종인(衆人) 환시(環視)리에 엄숙히 진행되었고 그만큼 조선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치욕과 수치를 감내(堪耐)해야 하는 배가된 욕스러움이었다. 아울러 항복에는 패전국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다.

- ① 청(淸)에 군신(君臣)의 예(禮)를 지킬 것,
- ② 명(明)의 연호(年號)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에서 받은 고명(誥命) · 책인(冊印)을 내놓을 것,
- ③ 조선 왕의 장자(長子) · 제2자 및 여러 대신의 자제를 선양(瀋陽)에 인질로 보낼 것,
- ④ 성절(聖節: 중국 황제의 생일 · 정조(正朝) · 동지(冬至) · 천추(千秋: 중국 황후 · 황태자의 생일) · 경조(慶弔) 등의 사절(使節)은 명과의 이전 예(例)에 따를 것,
- ⑤ 명나라를 칠 때 출병(出兵)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 것,

아냈을 뿐 아니라 강화도를 함락하는 데도 성공하여 실질적으로 병자호란을 청의 승리로 귀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49) 조선의 항복과 사대(事大) 맹약은 몽골, 여진 등 유목민, 투항한 한족을 대표되는 중원, 그리고 조선으로 상징되는 변진(藩鎮) 등 동아시아 전체가 청에 굴복하는 이른바 천하관의 완성이었다. 아울러 명의 가장 중요한 변진인 조선이 청에 투항함으로써 명의 제국으로서의 명분은 그 가장 중요한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 ⑥ 청군이 돌아갈 때 병선(兵船) 50척을 보낼 것.
- ⑦ 내외 제신(諸臣)과 혼연(婚緣)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 ⑧ 성(城)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말 것.
- ⑨ 기묘년(己卯年:1639)부터 일정한 세폐(歲幣)를 보낼 것 등이다.

그리고 삼전도에 수항단(受降壇)을 쌓고 조선왕의 항례(降禮)를 받을 때 철저히 군신(君臣)의 예를 준용함으로써 양국의 변화된 외교 관계를 천하에 공포하였다.⁵⁰⁾

(3)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강압

조선은 힘에 눌려 굴복하였을 뿐 청에의 복속을 마음 깊이 수긍(首肯)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선은 명의 신하였고 천하는 명의 천하였다. 단지 야만족 여진의 군사력에 휘둘러 일시적인 소요(騷擾)가 있을 뿐, 이 혼란은 머지않아 곧 수습될 것이었다. 그리고 야만족에 대한 설욕을 다짐하며 남명(南明)⁵¹⁾의 재기를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의 이와 같은 속내는 그러나 청에 의하여 날날이 간파(看破)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은 조선을 순치(馴致)하고 철저히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우선 심양에 인질로 압류되어있던 소현세자(昭顯世子) 일행을 북경 입성식에 참여시켰다.

조선의 세자에게 명의 멸망과 청의 증원제패 현장을 직접 목도시킴으로서 청에 대한 불궐(不軌)한 마음을 뿌리부터 제거하려는 속셈이며 동시에 명의 유민들에게 조선 역시도 청과 연합하여 명 제압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

두 번째는 사대(事大) 의례(儀禮)의 철저한 확립이었다.

50) 인조는 출성하여 삼전도에 와 항복하되 남포(藍袍)를 입고 걸어와야 하며 단에 올라 북면(北面)하여 청 태종에게 삼배구고(三拜九叩)의 예를 올리도록 강요되었다.

51) 북경이 함락되고 강북 일대가 청의 세력에 판도에 들어간 후 양자강 남쪽 해안 지대에 건립되었던 명의 피난 정권들

청은 조선이 이전에 명에 대하여 행하던 사대의 의례를 완전히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조선이 청에 보내는 국사(國使)와 청이 조선에 보내는 칙사(勅使) 양편 모두에 과거의 사례를 준수하도록 강요하였고 특히 정명수(鄭命壽) 등 귀순 조선인들을 사신에 기용하고 그들의 횡포를 묵인, 조장하여 조선 왕실 및 조정 전반에 치욕과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패전국으로서의 위치와 현실을 철저히 확인시켜 나갔다. 때로는 조선이 보내오는 국서의 내용을 전거(典據)를 밝혀 시비(是非)하고 무엇보다 자귀(字句)에 함의(含意)된 내용을 일일이 들추어내어 이를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사대(事大)의 규칙을 철저히 확립하고, 아울러 저들이 조선에 못지않은 문화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⁵²⁾

세 번째는 군사적 압박이었다.

청은 호란 이후 조선이 왜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성채(城砦)를 수리하거나 증설하는 일을 포함하여 국방력을 증대하는 일에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간섭하고 위협하였다.

비록 만주와 중원을 장악하였다 하나 아직 강남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남명(南明)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고, 민심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직 중국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청에 항복해 온 명의 장수들과 이신들의 동향 역시 아직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의 대상이었다.⁵³⁾

따라서 조선의 군사력은 청의 중원지배 확립에 여전히 하나의 변인(變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청이 조선의 군사력 증강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였다.

청은 조선의 군비 증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선 내부 각처에 치밀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였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조선에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가하였다.

52) 이와 같은 문서 검토에는 고도의 문학적 재능이 요구되었는데, 청은 이 작업을 명에서 투항해 온 문신 즉 이신(貳臣)들에게 맡겨 특히 명에 보내는 수준의 사대(事大) 문장(文章)을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함의된 이중 내용이 없는 지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하여 조선의 기를 꺾었다.

53) 이윽고 이들 명의 항장들은 <3번(蕃)의 난(亂)>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반청 저항을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치밀하고도 집요한 청의 노력에 따라 점차 조선은 청과의 군신관계를 실제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순치(馴致)되어 갔다. 외교 의례를 포함하여 정치 전반에 걸친 청의 요구가 이의 없이 수용되었고 행동이 순치되면서 의식(意識)도 함께 동화(同化)되어 갔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 수용에는 남명 정권의 최종적인 붕괴와 삼변의 난, 정성공의 대만 경영 등 중국내부의 반청 저항이 소멸된 것도 조선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4)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입장 변화

여진에 항복하고 그들의 극심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받으면서, 조선은 거대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었다. 전술한 것처럼 조선의 기본적인 정서는 청에의 신복과 예속, 그리고 명과의 실질적인 단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시적인 사태에 불과 할 뿐 이러한 사변은 결국 중주국 명의 최종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

특히 청에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간 척화파 조선 관리들의 목숨을 다한 저항은 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들의 장렬한 죽음은 절조를 꺾고 청에 항복한 문무 이신들에게 찬탄과 함께 경외심을 끌어내며 일정한 정치적 지분 확보로 까지 작용하였다.

예컨대 청은 심양의 조선관을 일종의 대사관으로 여기고, 다양한 분야의 조선 문제를 당시 인질이었던 소현세자 등과 상의하며 관련업무의 상당부분을 조선관에 위임하게 된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란 당시는 물론 이후 상당 기간 내내 조선은 반청 정서를 유지하며 가능하면 청과의 실질적인 협조를 거부하고 명과의 유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하였다.

54) 청은 황실의 권력 일부를 왕자들에게 분할하여 예컨대 팔기의 지휘권, 각 정부 조직의 운영권 등을 맡기고 있었는데 소현세자 역시 조선의 왕자로서 자신들과 동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던 것 같고 따라서 소현세자가 조선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소현세자에게 책임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인조는 소현세자가 권한 밖의 일에 간여한다고 여겨 그를 경계하게 되어 결국 귀국 후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병자화약에 따라 청이 대명 군사협조를 조선에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임경업(林慶業)을 대장으로 하는 원정군을 보내지만 임경업은 고의로 수군을 침몰시키고 명에 항복하는 등 청의 군사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643년에는 조선이 명과 몰래 통교한 사실이 적발되어 최명길, 임경업 등이 심양에 끌려가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런 반청 기조를 실제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자체 동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선 인조 정권 자체가 문제였다.

인조 정권은 친명(親明) 반청(反淸)을 명분으로 수립된 정권이었다. 즉 광해군(光海君)의 중립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주요한 명분으로 하여 일으킨 쿠데타로 집권하였던 것이다⁵⁵⁾ 그러나 반청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하다보니 인조 정권은 본래 왕위 계승권이 없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쟁취하였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권 초기에 야기된 박홍구(朴弘畝) 옥사(獄事)나 인성군을 추대하여 쫓아내려 하였던 이괄(李适)의 난 등은 이러한 정권의 약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때문에 인조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보위하는 일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다.

인조가 청이 항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신(君臣)관계를 이미 수용하고서도 강화교섭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출성(出城)하지 않고 남한산성에 머무르며 항복례를 치르는 방안(方案)에 집착한 것도, 귀국한 소현세자(昭顯世子) 일가를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도 그 이유는 실상 청(淸)이 자신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올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호란을 통하여 청의 압도적 군사력을 실감한 인조는 이후 청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철저히 포기하고 자신의 왕위 보전에 전력을 다하여 매달렸다.

이는 정명수⁵⁶⁾같은 친민 출신의 투항인을 칙사로 파견하여 조선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수

55) 인조반정의 명분은 1) 폐모(廢母)와 살제(殺弟) 등의 패륜(悖倫) 2) 친 여진적 중립외교 3) 창덕궁, 경희궁 중건 등 지나친 재정낭비와 이에 따른 백성의 고통 등이었다.

56) 조선 중기 민족반역자. 평안도 은산(殷山) 출신. 1618년(광해군 10) 명(明)나라가 후금(後金; 淸)을 토벌할 때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자, 강홍립(姜弘立)의 군대를 따라갔다가 청나라의 포로가 되어 청국어를 배우고 조선의 사정을 밀고하여 청나라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용골대(龍骨

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등 조선의 심리적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강압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하였던 근본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결국 호란이라는 미증유의 국가 위기를 겪고 난 후에도 조선의 대북방 방어정책은 효율적인 지향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호란과 관련한 국가 방어 전략의 재편

1) 5위(衛) 체제

양난 이후 조선의 군제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대체(大體)는 지금까지의 군제인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체제를 5군영(軍營)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먼저 5위 체제에 대해 살펴보자

개국 다음 해인 1393년(태조 2)년 조선은 고려 때의 삼군총제부(三軍總制府)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고 여기에 다시 종래의 10위군(衛軍)을 중·좌·우군의 3군으로 나누어 귀속시켜 최초의 강력한 중앙군사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3군에 속한 위(衛)를 사(司)로 개편하여 12사(司)가 되었다가 1451년(문종 1) 5사로 다시 개편되었고, 1457년(세조 3) 3월 5위제도로 개편하여 이때까지의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대신해서 3군을 통제해오던 3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5위 진무소(鎭撫所)로 개편하여 5위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 군령기관(軍令機關)으로 하였다.

그 후 5위진무소를 1566년 5위도총부(五衛都總府)로 개칭하여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인 용양위(龍衛), 우위(右衛)인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 등 5위를 관장하게 하였다. 5위에는 장(將:종2품, 타관이

大)·마부대(馬夫大)의 통역관으로 들어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세력을 믿고 조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종추부사에 오르고, 친척들도 벼슬에 오르도록 하였다. 1653년(효종 4) 선양(瀋陽[신양])에서 청나라에 의해 관직을 삭탈(削奪)당한 뒤 성주포수(星州砲手) 이사룡(李士龍)에게 살해되었다.

겸임) 12명, 상호군(上護軍:정3품) 9명, 대호군(大護軍:종3품) 14명, 호군(護軍:정4품) 12명, 부호군(副護軍:종4품) 54명, 사직(司直:정5품) 14명, 부사직(副司直:종5품) 125명, 사과(司果:정6품) 15명, 부장(部將:종6품) 25명, 부사과(副司果:종6품) 176명, 사정(司正:정7품) 5명, 부사정(副司正:종7품) 309명, 사맹(司猛:정8품) 16명, 부사맹(副司猛:종8품) 483명, 사용(司勇:정9품) 42명, 부사용(副司勇:종9품) 1,939명을 두었다. 5위의 구성을 보면 각 위(衛)에 중(中) · 좌(左) · 우(右) · 전(前) · 후(後)의 5부(部)가 있어 모두 25부가 되고, 각 부에 4통(統)이 있어 1위에 20통, 5위에 100통이 있었다. 통 밑에는 약간의 여(旅)가 있고, 여는 5대(隊)로 나뉘고, 대는 5오(伍)로 나뉘어 오가 분대(分隊)와 같은 최하위 단위로, 1오는 5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부의 4통은 보병 2통, 기병(騎兵) 2통으로, 전투 시에는 보병 · 기병 각각 1통씩 나가고 나머지는 대기하였다. 그러나 각 위의 병력 및 보병 · 기병의 비례는 일정하지 않고 원칙상 여(旅)는 125명, 대는 25명, 오(伍)는 5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의 통솔 계통은 종2품의 장(將) 12명을 5위장(五衛將)이라 하여 그때그때 5위의 통솔을 맡고, 종6품의 부장 25명이 각 부를, 부사과로부터 부사용이 통장(統將) · 여수(旅帥) · 대정(隊正) · 오장(伍長) 등의 직책을 맡았다.

이러한 5위체제는 중앙에서의 수도경비(首都警備)의 임무를 맡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가장 강력한 국방력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조직체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고, 내금위(內禁衛) · 겸사복(兼司僕) · 우림위(羽林衛) 등 왕의 친병(親兵) 계열을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병종(兵種)이 이에 속하여 중앙군의 단일 체계가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5위의 병종별 · 지방별 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의흥위(義興衛): 갑사(甲士)와 보충대(補充隊)가 여기에 속했다. 갑사는 5위의 병종 가운데 수적으로도 많지만 5위의 기간병종(基幹兵種)으로 주로 양반의 자제들 가운데 일정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무예가 뛰어난 자들로서 그 인원은 1만 8400명에 이르렀고 대우가 좋았을 뿐 아니라 대개 지휘를 맡았다. 보충대는 양반 특수층의 천첩자(賤妾子)가 낳은 자손이나 신랑역

천(身良役賤) 등이 종량(從良)될 때 입속(入屬)하는 병종(兵種)으로, 1415년(태종 15)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들은 보충대에 들어가서 1,000일의 근무를 마치면 면천(免賤)되면서 종9품의 잡직(雜職)에 임명되는 특전이 있었으며, 주로 사령군(使令軍)의 역할을 맡았다.

- ② 용양위(龍養衛): 별시위(別侍衛)와 대졸(除卒)이 여기에 속했다. 별시위는 양반의 자제가 운데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병종으로, 주로 마병(馬兵)으로 편성되었는데, 1401년(태종 1)에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들은 1,500명이 5교대로 6개월씩 근무를 하고, 근무자는 전원이 체아직(遞兒職)을 받는 등 감사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 대졸은 양인(良人) 또는 천인(賤人) 중에서 주로 달리기와 힘을 바탕으로 한 시험으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총원이 3,000명으로, 600명이 4개월간 복무하고 1보(保)를 지급받았다.

- ③ 호분위(虎賁衛): 족친위(族親衛) · 친군위(親軍衛) · 팽배(彭排)가 여기에 속했다. 족친위는 왕이나 왕비, 또는 세자빈(世子嬪) 등의 원친(遠親)들로 구성된 부대로 지배층 계급을 대우하기 위해 설정된 부대이다. 따라서 선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무재(武才) 유무에 관계없이 뽑혀 체아직을 받았으며, 장번근무(長番勤務)를 하였다. 친군위는 태조가 개국하는데 공이 많았던 함길도(咸吉道)의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 감사 등이 치르는 시취과목(試取科目)과 철전(鐵箭)으로 시험하여 영안남북도 절도사(永安南北道節度使)가 선발하여 상경(上京) 숙위(宿衛)하게 하였는데, 정원 40명을 20명씩 나누어 양교대로 1년씩 근무하고, 당번 20명에게 체아직을 주었다. 팽배는 1415년에 설치하였던 방패(防牌)를 개칭한 것으로 양인의 하부 층 또는 신랑역천의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정원은 500명으로 100명씩 4개월간 5교대로 근무하여 잡직의 체아직과 1보(保)를 지급받았다.

- ④ 충좌위(忠佐衛): 충의위(忠義衛) · 충찬위(忠贊衛) · 파적위(破敵衛)가 여기에 속했다. 이 중 충의위는 1418년(세종 즉위)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佐命) 3공신(三功臣)의 자제들을 대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충의 위에는 이들 세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를 제외한 자제들이 그 부조(父祖)의 공에 의하여 시험 절차도 없이 뽑혔는데, 정원은 없었으나 종 4품 이하의 체아직은 53명에게만 주었다. 이들은 4교대로 궁중의 숙위를 하고 일정한 복무를 마치면 거관(去官)되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어 이들은 벼슬길로 나가기 전의 한 예비적 단계로 여기서 복무하였다. 충찬위는 3공신을 도운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자손들을 위하여 1456년(세조 2)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충찬위도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시험 절차 없이 뽑아 입직(入直) 숙위하게 하고 일정한 복무 기간을 마치면 거관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고, 이들에게는 종 6품 이하의 체아직 20명이 배정되었다. 파적위는 1459년에 설치된 병종(兵種)으로, 대체로 양인 계층으로 구성되었는데, 목전(木箭) · 편전(片箭) · 달리기 · 힘겨루기 등을 시험하여 선발하였으며, 정원 2,500명이 5교대로 하여 500명이 4개월씩 근무하였다.
- ⑤ 충무위(忠武衛): 충순위(忠順衛) · 정병(正兵) · 장용위(壯勇衛)가 여기에 속하였다. 이 중 충순위는 1445년(세종 27)에 설치되어 이성왕족(異姓王族) · 왕비족 및 동반(東班) 6품 이상, 서반(西班) 4품 이상의 실직현관(實職顯官)을 지낸 자의 자손들을 시험 없이 뽑아 7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게 하였는데, 정원은 없고 일정한 복무 기간을 마치고 다른 벼슬길로 출할 수 있었다. 정병은 건국 초기의 시위패(侍衛牌)를 1459년에 개칭한 것으로 갑사와 더불어 5위의 핵심을 이루는 병종이었다. 이들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양인 중 의무적으로 번상(番上)하는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정병(騎正兵)과 보정병(步正兵)으로 나누어져 8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

었는데, 1472년(성종 3)의 통계에 따르면 총 4만 2,000명으로 나타나 5위병 가운데 가장 많은 병종이었다. 장용위는 1459년에 설치되어 공·사천(公私賤) 가운데서 목전·달리기·힘겨루기 등을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이들은 총 600명이 5교대로 6개월씩 120명이 복무하였는데, 당번인원 가운데 15명에게는 체아직을 주고 나머지는 1보(保)를 지급하였다. 1464년(세조 10)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노군(奴軍)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역군(使役軍)의 기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중앙군의 기간(基幹)이었던 5위(五衛)는 성종 말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훈척정치(勳戚政治)의 결과 문신이 상위직(上位職)을 차지하여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무력함이 드러나 제도적 붕괴를 가져와서 임진왜란 이후 설치되는 5군영(五軍營)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대폭 축소되어 궁성의 숙위(宿衛)만 맡았다⁵⁷⁾.

5위제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우선 이 군제의 개념과 편제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동시에 수도 방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보니 국토방위를 위한 논의는 활발하나 실질적인 방어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 소규모로 진행된 왜인들의 소란에조차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면모를 보인 것은 물론 임란초기에 나타나는 전면적인 국방력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아울러 외침(外侵)이 있을 때 현장에 적용하던 원칙인 제승방략(制勝方略)이 가지는 전략상의 허점, 즉 주성(主城)이 무너지면 전선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나게 된 것이다.

바로 이점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명군(明軍)으로부터 <문약(文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선조는 과격하다 싶은 정도의 무비(武備) 강화책을 시행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57) 이상 5위에 관한 설명은 두산대백과사전의 <5위>에서 인용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유생들은 평소에 무인(武人)을 이단(異端)으로 알아
마치 노예 대하듯 하며 단지 고담준론(高談峻論)만을 일삼으니 우리나라의 문폐
(文弊)가 그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도가 심하여 내가 전에 윤탁연(尹卓然)에
게 들으니 상주(尙州)에는 사수(射手)가 단지 3인 뿐이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도 활쏘기와 수레몰기를 가르치셨고, 육상산 역시 문인들에게 반드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으니 이후로는 생원, 진사시에 반드시 활 쏘는 것을 같이 시험보아
합격한 자만을 뽑도록 하라.

(上曰 我國儒生輩 平日視武夫如異端 待之如奴隸 惟事迂闊高談 我國文弊極矣 慶尙道爲尤甚 前聞尹卓然之言 尙州只有射手三人云孔子之教非射御乎 陸象山教人必使門人習射 今後取生進時 并貫革入格者取之 此不易之理 議啓)⁵⁸⁾

-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문폐가 극심한 것은 서원과 관계가 있는 일이
니 긴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혁파하고 각도의 대도호부에 마땅히 훈련원과 같
은 무학(武學)을 세워 군사를 기르도록 하라

(傳于政院曰 我國文弊太勝 如不關書院 姑爲革罷 各道大都護 宜立武學如訓練院 使之養 兵鍊業)⁵⁹⁾

그러나 이와 같은 무비강화책은 후술하게 되는 기효신서(紀效新書) 체제의 선부른 수용과 함께 단지 미봉(彌縫)만을 서두른 결과가 되어 오히려 혼란을 가속하게 되었다. 이는 관념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5위 체제의 개혁이 따라주지 않은 탓이었다. 5위 체제의 개혁은 호란이 일어나고 청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급히 이루어지게 된다. 소위 말하는 5군영 체제의 성립이다

2) 5군영(軍營) 체제

조선은 인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금까지의 중립 외교 기조를 선명한 친명 반여진으로 전환하고 예상되는 여진의 침공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책을 활발히 추진했다. 먼저

58) 선조실록 권39 선조 26년 6월 경자

59)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 7월 계미

1623년 호위청(扈衛廳)을 신설하여 반정을 주도한 세력의 사병을 정규병력으로 변화시켰다.

이어 1624년에는 어영군(御營軍)을 창설했으며 이해 6월에는 기존의 경기군(京畿軍)을 정비·강화하여 총융군(摠戎軍)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방어의 거점으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강화도의 군사력을 정비했다. 한편 군역 자원과 재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직후부터 호패청(號牌廳)을 설치하고 호패법을 시행하여 거의 완성했으나 정묘호란 때 소실되어 이를 통한 군사력 증강은 실패로 돌아갔다.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후, 조선은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즉 남한산성의 수비강화를 위해 수어청(守禦廳)을 신설하고 어영청과 훈련도감의 인원을 증강함으로써 5군영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1) 어영청(御營廳)

임진왜란 뒤 5위(五衛)에 대체되어 설치된 3군문(三軍門)의 하나이다. 1623년(인조1) 이귀(李貴)가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있으면서 건장한 자 260명을 모집하여 화포술(火砲術)을 가르치고 이를 어영군(御營軍)이라 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귀를 어영사(御營使)로 삼고, 뒤에 어영찬획사(御營贊劃使)·찬리사(贊理使)를 두고 군대를 편제하여,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는 인조를 어영군이 공주(公州)로 호종하였고, 공주에서 민간인의 포수를 뽑아 정예부대를 조직하였으나 이는 총융청(摠戎廳)에 소속되었다. 1628년 어영청을 설치하여 이서(李曙)를 제조(提調)로, 구인후(具仁壺)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군병 훈련을 전담하게 하였다.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北伐)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강화, 비로소 군보(軍保)를 정하고 군영을 설치하여 이완(李浣)을 어영대장으로 북벌계획의 본영(本營) 구실을 하였다.

관원은 도제조(都提調:의정 겸임)·제조(提調:병조판서 겸임)·대장(宗2품)·중군(中軍:종2품)·별장(別將:정3품) 각 1명, 천총(千摠:정3품) 5명, 별후부(別後部) 천총(정3품:永宗叅使 겸임) 1명, 기사장(騎士將:정3품) 3명, 파총(宗4품) 5명,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종4품, 지방수령 겸임) 10명, 종사관(從事官:종6품) 문 · 무관 각 1명, 초관(哨官:종9품) 41명, 교련관 12명, 기패관(旗牌官) 11명이 있었으며, 병력은 별무사(別武士) 30, 군관(軍官) 38, 별군관(別軍官) 10, 권무군관(勳武軍官) 50, 가전별초(駕前別抄) 52, 기사(騎士) 150, 표하군(標下軍) 783, 별파군(別破軍) 160, 수문군(守門軍) 40, 치중군(輜重軍) 50, 기타 보군(步軍)으로 되어 있었다.

효종 때의 어영군은 별초병과 기병을 주로 한 정예부대로서 경상 · 전라 · 충청 · 강원 · 경기 · 황해의 6도에 나누어 배치되었는데, 1706년(숙종 32)에 1영5부제(一營五部制)로 기구가 축소되었으며, 얼마 뒤 양화도(楊花渡)를 어영청에 속하게 하였다. 즉,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정책에 따라 군비확장을 할 때 이완(李浣)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한 다음 원호(元戶) 2만 1,000명을 확정하고 도성에 어영창(御營倉)을 두는 등 체제를 크게 개편하여, 어영군을 북벌의 핵심부대로 양성하려 했다. 그러나 현종 · 숙종 때 양역(良役)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1704년(숙종 30) 1만 6,300여 명으로 어영군의 수를 줄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 향군(鄉軍)의 번상체제로 바꾸었다. 아울러 흉년 · 농번기 · 재해 · 재정절약 등의 이유로 정번(停番)이 자주 있었고, 정조대 이후에는 감번(減番)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순조대에는 도성숙위의 허소(虛疏)를 방지하기 위하여 1초(哨)는 도성인으로 선발했다. 어영군의 선발기준은 궁(弓) · 포(砲) · 창(槍) · 력(力) 중 1가지만 능하면 되었으므로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주요임무는 국왕의 호위와 도성의 수비였지만 그 외에 적간(摘奸), 금송(禁松), 착호(捉虎), 중앙관청의 파수 등을 맡았다.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를 채택한 어영청의 재정은 주로 보(保)에 의존했지만 양역변통(良役變通)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현종 · 영조 연간에는 점차 둔전(屯田)을 확보하여 재정에 활용했으며, 일시적이거나 숙종 때에는 어영청에서 주전(鑄錢)하여 얻은 이익금을 재정에 충당시킨 바 있다. 그런데 현종 대 이후에 정번이나 감번이 잦아지면서 그로 인해 덜 소비된 재정과 위의 방법을 통해 모아진 재정을 화성축성비(華城築城費) · 사신접대비 · 진흥비 등에 옮겨 사용했다. 그것은 도성의 숙위와 국왕의 호위를 주목적으로 하던 어영군의 성격 변화와 아울러 조선 후기 군역이 국가의 재정확보수

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881년(고종 18)에는 장어영(壯禦營)을 새로 설치, 어영청을 이에 병합시켰다가, 이듬해 장어영을 폐지하고 어영청을 다시 설치하였으며, 1884년에는 별영(別營), 1888년에는 총어영(總禦營)으로 각각 개칭하였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⁶⁰⁾

(2) 총융청(摠戎廳)

1624년(인조 2) 서울의 외곽인 경기(京畿) 일대의 경비를 위해 서울 사직동(社稷洞) 북쪽에 설치하였던 조선 시대의 군영(軍營).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로이 편제된 5군영의 하나로, 개설 당시에는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가 총융사(摠戎使)가 되어 남양(南陽)·수원(水原)·장단(長湍) 등 3진(鎭)의 군무를 관장하였다.

총융청에는 좌·우 2부(部)로 나누고 각 부에는 좌·중·우의 3사(司)가 있고, 각 사 밑에 5초(哨)를 두었다. 총융청에는 사(使:종2품)·중군(中軍:종2품) 각 1명, 천총(千摠:정3품) 2명, 진영장(鎭營將:정3품) 4명, 파총(把摠:종4품) 2명, 초관(哨官:종9품) 10명 등의 유품무관(有品武官)과 교련관(敎鍊官) 15명, 기패관(旗牌官) 2명, 군관 2명, 본청 군관 3명, 별부료군관(別付料軍官) 2명, 감관(監官) 2명, 수문부장(守門部將) 1명, 한량군관(閑良軍官) 150명이 있었다.

1757년(영조 33)에는 북한산성의 경비를 위해 설치한 경리청(經理廳)을 이에 병합함에 따라서 관성장(管城將:정3품)·파총 각 1명,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수첩군관총(守堞軍官摠) 2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 소임군관(所任軍官) 3명, 부료군관 20명, 성문부장(城門部將) 3명이 이속되어 북한산성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60) 두산대백과사전에서 인용

설치 당시의 병력은 장초(壯哨) 13초(哨), 아병(牙兵) 13초, 별파군(別破軍) 100명, 표하군(標下軍) 852명, 군수보(軍需保) 6,010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은 전영장(前營將)을 수원(水原)에, 중영장(中營將)을 북한(北漢)에, 우영장(右營將)을 파주(坡州)에, 후영장(後營將)을 장단에 두고, 전영은 안산(安山)·금천(衿川)·과천(果川)·양천(陽川)에, 좌영은 독산(禿山)에, 우영은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積城)·임진(臨津)·장산(長山)에, 후영은 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이 소속되어 각지의 군무를 관장하였다.

총융청은 1846년(헌종 12)에 총위영(總衛營)으로 개칭되었다가 1849년에 다시 총융청으로 복귀되고, 1882년(고종 19) 잠시 폐지하였다가 곧 다시 설치하여 84년에 아주 없었다.⁶¹⁾

(3) 수어청(守禦廳)

1626년(인조 4) 수축한 남한산성과 그 부근의 진(鎭)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나 수어사(守禦使)의 직함은 32년에 생겨났다.

처음에는 경기도의 광주읍군(廣州邑軍)·죽산진(竹山鎭)·양주진(楊州鎭)의 3진과 강원도의 원주진(原州鎭)·회양진(淮陽鎭) 및 충청도의 충주진(忠州鎭) 등의 1600명을 유사시에 방어사나 영장이 인솔해서 입수(入守)하도록 하였다.

그 뒤 몇 차례의 변경이 이루어진 수어청의 조직편제는 경기도 속오군을 중심으로 1704년(숙종 30)에는 3영 2부체제(三營二部體制)로 군제가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수어청이 광주부의 남한산성을 신지(信地)로 하여 편제되었기 때문에 군사책임자인 수어사와 행정책임자인 광주부윤 사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자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키고 수어청을 산성으로 옮겨 수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1795년(정조 19)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면서 수어경청

61) 두산대백과사전에서 인용

을 없애고 산성으로의 출진을 영구화함으로써, 수어청은 사실상 광주유수의 직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관원은 사(使;정2품) 1명, 중군(中軍;정3품) 1명, 진영장(鎭營將;정3품) 3명, 별장(別將) 2명, 파총(把摠) 2명, 초관(哨官) 26명, 교련관(敎鍊官) 17명, 기패관(旗牌官) 19명, 별군관(別軍官) 9명, 수첩군관(守堞軍官) 61명이었고, 1894년(고종 31) 폐지되었다.⁶²⁾

(4) 금위영(禁衛營)

금위영은 인조(仁祖) 때 기병(騎兵) 중에서 정병(精兵)을 선발하여 병조 산하에 두었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의 별대(別隊)를 통합하여 1682년(숙종 8)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금위영은 처음부터 5군영의 일부로 독립된 채 생겨난 것이 아니고, 병조 판서가 금위영의 대장직을 겸함으로서 실질적으로 6조 중에서 병조의 수중에 있었다. 이후 1754년(영조 30년)에 독립된 군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초기의 편제는 1영-5부-20사-105초(哨)로 구성되었으나 1704년 군제를 개혁할 때 1영-5부-25사-125초로 편제되어 그 수가 증가하였다. 지휘부의 인원은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대장(大將)·중군(中軍)·별기위별장(別騎衛別將) 각 1명, 천총(千總) 4명, 파총(把摠) 5명, 낭청(郎廳) 2명, 초관(哨官) 41명 등이며, 병력은 별무사(別武士) 30명, 기사(騎士) 150명, 별기위(別騎衛) 32명, 표하군(標下軍) 1,177명, 별파진(別破陣) 160명, 보군(步軍) 등으로 구성되었다.

금위영의 운영은 보(保)에 의해 이루어져 많을 때는 9만명에 이르렀다. 주축을 이루는 6도의 향군은 5조씩 번상하여 2개월간 복무하였고, 마병으로 이루어진 기사는 장번(長番)으로 복무했으며, 별파진은 16교대로 복무하였다. 이러한 금위영은 1881년(고종 18) 장어영으로 통합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혁파(革罷)되었다.

62) 한국사사전에서 인용

(5) 훈련도감(訓練都監)

임진왜란중인 1593년(선조 26) 임시군영으로 설치되었다가, 뒤에 상설기구가 되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이 내륙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일본군의 조총(鳥銃)에 대응하지 못한 점과 전술상의 문제점에서도 기인했지만, 무엇보다도 대립(代立)·방군수포(放軍收布) 등과 같은 피역(避役) 현상으로 말미암은 군역제의 동요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 유성룡(柳成龍)의 건의에 따라 1593년 중앙에 기민구제(飢民救濟)와 정병(精兵)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했으며, 지방에는 1594년 양친군(良賤軍)인 속오군(束伍軍)을 창설하는 한편 왜구를 물리치는데 효과가 있었던 명(明)의 절강(浙江) 병법을 양 군역에 도입하여 포수중심의 삼수병(三手兵)을 육성했다. 훈련도감의 편제는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의 삼수병으로 구분되었으나, 1593년 설치당시에는 포수를 중심으로 훈련시켰다. 이듬해 4월 대장·중군·천총의 지휘부 아래 사(司)-초(哨)-기(旗)-대(隊)-오(伍)의 편제를 만든 다음 1,000여 명의 병사를 편입시켜 사수를 제외한 포살수(砲殺手)를 중심으로 훈련시키면서 군영의 모습을 갖추었다. 같은 해 11월 서울의 5영(營)에 훈련도감의 군사가 배치됨으로써, 훈련도감은 군사의 훈련은 물론이고 수도 방위와 국왕의 호위임무 등도 맡아 종래 5위(衛)가 담당하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훈련도감의 관원은 도제조·제조·대장·중군·별장·천총·국별장·파총·종사관·초관 등이었다. 1669년(현종 10) 훈련별대(訓練別隊)가 창설됨으로써 훈련도감의 확장정책은 중단되었지만, 1682년(숙종 8) 훈련별대가 정초정(精抄廳)과 함께 금위영(禁衛營)으로 발족됨으로써 훈련도감은 여전히 장번급료병(長番給料兵)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5군영체제가 갖추어지자 어영청·금위영과 함께 삼군문(三軍門)으로 불리지면서 중앙군사력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훈련도감의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양인과 노비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무예가 뛰어나면 양인에게는 금군(禁軍), 노(奴)에게는 면천(免賤), 서얼에게는 허통사로(許通仕路)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때 면천된 사노(私奴)의 주인에게는 그 보상으로 관직의 제수, 전결이나 잡역의 면제 또는 복호(復戶)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훈련도감은 장번급료제를 채택한 군영이었

으므로 점차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축소·폐지 등의 변동(變通)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훈련도감의 창설은 군역(軍役)의 납포화(納布化) 추세에 따른 군사력을 대신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직업군인으로 충당함으로써 병(兵)과 농(農)을 분리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881년(고종 18) 별기군(別技軍)이 창설되어 신식군대체제가 이루어지자 이듬해 훈련도감은 폐지되었다.⁶³⁾

3) 5군영 체제의 특징

5군영이 설치되는 각각의 시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5군영 설치의 의도가 명확해 진다.

군영 명	설치시기	설치경위와 목적
훈련도감	1693	임진왜란 중 명에 조선군 훈련의뢰.
어영청	1623	인조반정 직후, 정규군 편성
총융청	1624	이괄의 난 직후, 도성의 서북방향 수비
수어청	1626	호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의 남부지역 수비
금위영	1682	숙종 대 왕궁 및 수도 방위 강화

결국 5군영은 일관된 방어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군영의 운영 역시 상당한 곡절을 따라 변동을 거듭하였다.

5위 체제에서 5군영 체제로의 개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첫째 기효신서(紀效新書) 등 명의 전술체제의 수용이다

기효신서는 명(明)의 척계광(戚繼光)이 저술한 병서(兵書)이며 동시에 병법(兵法)이다.

불특정 해안에 기습 상륙하여 치고 빠지는 왜(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압한 그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검술을 바탕으로 한 단병(短兵) 접전에 능한 왜와의 전투에서 그의 전투 조직과 전술 운용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바로

63)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 인용

기효신서이다

조선의 경우 국초의 <진관(鎭管)>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를 <제승방략(制勝方略)>체제로 영성하게 보완한 결과 임란 초기의 참담한 패배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결과 제승방략이 폐기되면서 이를 기효신서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효신서, 즉 절강병법의 수용의 구체적 결과가 바로 훈련도감의 설치이다

진관체제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방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보였지만 문관인 지방관이 무관직을 겸하는 비현실적 구도에다 대토지 집적(集積)에 따른 지주전호(地主田戶)제의 확대는 군역의 대납(代納)현상으로 이어지고, 이 결과 나타나는 보인(保人)의 부족은 군역 자체를 포납(布納)으로 대체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로 몰아가 결국 조선의 전투력을 명목(名目)에 불과한 허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더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는 쉽게 말하면 거점 대진(大鎭)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이를 왜구(倭寇)의 침탈에 맡겨버리는 일종의 방어 포기전술인데다 그나마 인근 소진(小鎭)의 군사가 집결한 대진(大鎭)이 패배할 경우 지역 전체를 포기해야하는 결정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초기 부산진과 동래성은 인근 지역 병력의 합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모두 전투 개시 당일에 함락되어 영남 전체의 방어 체계가 괴멸되었고, 충주전투에서 신립(申立)이 패배하면서 조선의 중추 방어선 전체가 붕괴된 사실 등이 바로 제승방략 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군의 군사력, 특히 평양성 전투에서 보여준 명의 전투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임란 발발 이후 지금까지 조선군을 압도했던 일본군이 명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조선은 명의 병법과 군기(軍器)를 도입할 시급한 필요를 확인하게 된다.

기효신서의 도입은 시급히 명의 군사 운용체제를 습득하기 위한 위탁 훈련으로 시작되었지만 핵심사항은 대개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방군수포(放軍收布)제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정병(精兵)의 재건이었다. 우선 실질적으로 동원할 병력 자체가 전무하였다.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입란으로 인해 토지를 잃고 생계가 막연해진 전재민(戰災民)을 군대에 징모하였고, 이에 따라 훈련도감에의 입영은 신분을 초월하였다. 병력의 확보가 우선 급하였던 까닭이었다.

두 번째로 훈련도감에서는 새로운 병종의 정병을 길러 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바로 포수(砲手)였다. 이는 왜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책을 화력(火力)이라고 파악한 결과였다. 훈련도감은 삼수병(三手兵), 즉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 양성을 내용으로 하였지만 실상 포수(砲手) 양성을 전문(專務)하다시피 이에 집중하였다.

특히 기존의 총통(銃筒)류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기의 습득 및 자체 제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선조 26년(1593) 2월에는 명의 기술자로부터 조총과 화약제조법을 배우도록 하였고, 왜와의 전투 중에 노획한 조총을 행재소(行在所)에 올려 보내게 하여 정밀히 심사(審査)하는 한편, 항왜(降倭)를 동원하여 조총 제조 기술을 알아내고 조총을 시험 제작하는 동시에, 명군의 발전된 화기 제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이 결과 1593년 3월에는 마침내 조총의 제조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2월초에는 중앙에서만만이 아니라 지방의 감영(監營), 병영(兵營)에서도 조총을 제조하였다.

이처럼 중앙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무기생산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무기제조 작업을 함께 추진한 결과 지방군에도 포수를 편제하는 속오삼수제(束伍三手制)의 운용이 가능하여졌다. 지방군이 화기를 무장한 예로, 난중일기(亂中日記)에 의하면 이순신(李舜臣)은 선조 26년 9월 14일 왜군의 조총을 모방하여 우수한 성능의 조총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진주수성승첩장(晋州守成勝捷狀)에도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이 170여

정의 조총과 이에 필요한 화약을 제조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일(金誠一)도 산청의 지곡사에서, 호남지방에서 모든 숙련공을 통해서 정철(正鐵)을 이용한 조총 제조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명군이 사용하던 화기가 새로이 조선군에 도입되는데, 호준포, 불랑기, 삼안총, 백자총, 위원포 등이 그것이다.

호준포(虎蹲砲)는 외부에 죽절을 두어 포신의 파열 및 밀림을 방지하고 야전 운용에 편리하도록 개발한 화기로 명군이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모방 제작하였다. 선조 26년(1593) 6월부터 호준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운용이 편리했기 때문에 전함 등에 탑재시켜 사용하였다. 특히 이순신장군은 노량대첩에서 이를 사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삼안총(三眼銃)은 3개의 총열을 하나의 병부(柄部)에 결합시킨 다관식(多管式) 화기이며, 연발식 개념의 총으로 삼혈총으로도 칭한다. 조총을 대신하여 보다 제조가 용이한 삼안총을 대량으로 제조하였다.

불랑기(佛狼機)는 원래 15세기경 유럽에서 함재포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후장식(後裝式) 화포로, 16세기에 중국에 전래되었는데 이를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명군이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어 당제자모포(唐制子母砲)라는 이름으로 제조 사용되었다. 선조 28년 10월 비변사가 해상 통로를 차단할 좋은 계책으로 대포와 불랑기를 거북선에 많이 장착시킬 것을 건의한 것으로 보아 함재 무기로서 효과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말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화포로서 활용된다.

조선이 화기 제조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선조 29년(1595) 정월 비변사에서 올린 대소포 190여 점의 주조 보고나, 동년 6월 황해도 은율에서 28년 11월부터 29년 6월까지 조총 등 화기 372점의 제조 보고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조선이 훈련도감을 통하여 포수를 육성하고 각종 화기의 제작에 성공하면서 이전의 사수와 살수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집중적인 화력(火力) 육성의 결과 조선의 화기 운용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나선 정벌> 등의 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강력한 포수군의 운영이 가능해 지게 된다.

셋째 5군영 체제는 국왕 친위 무력의 확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세력은 광해군 정권을 혁거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에 주목하였다. 반정 당일 거사에 참여한 병력은 장단부사 이서가 인솔해온 700명에 이천부사 이종로 등의 군사를 모두 합해도 불과 1,0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반정(反正) 정보가 이미 고변(告變)으로 누설되어⁶⁴⁾ 총대장으로 내정되었던 김류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북병사로 부임 직전에 반정에 가담한 이괄(李适) 이외에는 장재(蔣材)도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병력과 무장을 확대한 정규군 훈련도감이 왕궁을 호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대장 이홍립이 반정군에 포섭되어 있었다는 것이다⁶⁵⁾ 이홍립의 내용은 반정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반정 사례를 통하여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괄(李适)은 국왕 친위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반정 직후 개성유수로 있으면서 정규군인 훈련도감과는 별도의 국왕 친위군을 구성하게 된다.

바로 어영청의 창설이다. 그리고 이 어영청 군사들은 이괄의 난을 맞아 공주로 피난한 인조의 호위를 담당하게 된다. 이후 어영청은 국왕의 친위군으로서 국왕은 물론 정권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위력으로 작용하여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절실했던 국왕 친위군의 필요성은 금위영의 운용으로 확대되어 간다. 본래 병조

64) 이이반의 반정 고변은 그러나 광해군이 총애하던 후궁 김개시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졌던 김자점 등 반정 측근의 공작으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고변에 접한 광해군은 고변에 나타난 인물들을 취조할 친국청을 설치하고도 당일 예정된 연회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65) 광해군은 즉위 후 훈련대장을 11번이나 교체하였다. 이는 광해군의 측근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지나와 당사자들은 교체에 따른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홍립도 교체대상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염려하여 반정군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하의 확대된 정규군이었던 금위영은 숙종 대에 이르러 별개의 부대로 편제되고 영조 대에 이르러 국왕의 친위군으로 독립된 군영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편성된 어영청과 함께 6도의 번상군으로 운용된 이들 친위군은 보(保)를 기조로 하는 2개월 단반이었지만 총병력이 많을 때는 6만에 달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선 후기 정권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넷째 수도 방위의 강화이다.

왜란과 호란 모두 전쟁 개시 이후 불과 한 달 미만의 단 기간에 수도가 함락되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승전을 이끌어 내야 할 지휘부가 먼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왜란 당시 조정은 충주 전투 패전 이후 방위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수도를 포기하였고, 병자호란 시에도 역시 강화도로의 피난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수도가 함락되어 남한산성에 고립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수도의 함락은 전황(戰況)의 추이(推移)와 사기(士氣)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었다.

이조 반정 이후 반정 주도 세력 간의 알력(軋轢)으로 발발(勃發)한 이괄(李适)의 난 역시 수도 방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총융청과 수어청의 편성은 이처럼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수도 방위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총융청은 북한산성 및 경기 해안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방어를, 수어영은 남한산성을 위주(爲主)로 하는 경기 남부의 방어를 주무(主務)로 수도 한성으로의 침공을 남북에서 요격(邀擊)하는 방어진을 편성하게 된다.

① 강화도의 방비태세 강화

강화 방어의 강화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북방 유목민의 침공을 상정(想定)할 때 최후의 방비처는 강화였다. 이는 수전에 약한 유목민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고려의 대몽항쟁을 통하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다. 수군을 보유하지 못하였던 몽골군에게 좁은 강화 해협은 40년간 건너지 못한 영원한 대해(大

海)였다. 여진의 흥기 이래 조선 정부는 늘 여진의 침공에 대비하는 최후의 방책이 바로 강화도였다. 그러나 여진이 굴기(崛起)하고 상당수의 명 장신(將臣)들이 이에 투항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가도에 주둔하던 명장 모문룡이 소환되어 참살되고 여진의 서진을 막아내던 원숭환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하옥되자 산동성의 지휘관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이 수군을 이끌고 여진에 투항한 것은 여진이 수군을 확보하고 수륙 양면전을 치를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은 명의 요구에 따라 여진에 항복한 명 수군을 추적할 함대는 파견하면서도 정작 강화에 대한 방비를 재검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어이없는 강화의 함락⁶⁶)으로 이어지고 이는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인조의 항정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되는 정황을 검토하면 조선의 방비 태세가 가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병자호란이 발발하면서 인조 정권은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檢察使)로 임명하여 강화도 방어의 총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이 인선에 우선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인조반정의 공신이자 인조정권의 핵심이었던 김류(金瑬)의 아들이었다. 그는 장재(將材)가 전혀 없는 자로 단지 아버지 김류가 아들과 가족의 일신을 염려하여 안전지대인 강화도로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부당 인선이었다.

반면 김경징과 맞선 청의 장수는 예친왕 도르곤이었다. 후일의 이야기이지만 그는 태종 홍타이지 사후 어린 조카 푸린을 제위에 올려놓고 중원에 입관하여 청의 250년 중국지배의 기반을 완성한 영웅이며 청의 실권을 독점하였던 인물이자, 중국, 몽골 등과의 각종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어 온 뛰어난 지휘관이기도 하였다.

김경징이 강화도 부임 후 추운 날씨와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만을 의지하여 장기 농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고을의 식량을 강화도에 실어들이고 실질적인 방비태세 수립을 방해해 버린 채 연회에 빠져있는 동안 도르곤은 강화도를 면밀히 정찰하고 조선군의 방비

66) 강화 수비를 책임진 김경징은 방어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강화로 피난민이 몰려 올 것을 염려하여 오히려 함선을 파괴함으로써 청의 수군이 강화에 침공하고 병력을 상륙하는데 일조하는 우를 범하였다

태세를 점검한 결과 강화도로의 상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상륙지점을 갑곶에 설정하였다. 갑곶은 대안과의 물길 폭이 좁은데다 소수의 수군만이 배치되어 있어 병력을 집중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강화도에 배치된 조선 수군은 광성진에 주진을 두었고, 육군은 긴 해안선을 따라 소수의 병력이 분산 배치된 데다, 화포 운용에 필요한 염초(焰硝)도 소량을 분산 지급하여 놓고 있었다. 청군의 기습 상륙에 대비하여 병력을 집중 운용할 비상계획이나, 험한 해안 지형에 방어 거점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경징은 강화의 천연적인 지형과, 청이 수군을 운용하지 못한다는 오랜 관념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조선 배를 징발하여 상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당시 몰아친 한파로 한강 하구가 결빙되어 선척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르곤은 역전(歷戰)의 장수였고, 그의 휘하에는 공유덕 등 명에서 항복해 온 수군지휘관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그는 점령지 안의 선장(船匠)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급히 쾌속선 100여척을 만들었고 이를 동거(董車)라는 수레에 실어 육로로 갑곶 대안에 이동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 소선(小船)에 각각 5-60명의 정예병을 실어 갑곶진으로의 기습 상륙을 기도하였다.

당시 갑곶을 수비하던 충청수사 강진흔(姜晉昕)은 휘하의 전선 7척과 200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혼신을 다하여 방어에 임했지만 밀려드는 청병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경징이 강화 수군의 주력을 거느리던 주사대장(舟師大將) 장신(張紳)에게 휘하의 전 수군을 거느리고 갑곶방어를 지원하라 하였지만 당시 조금 때가 되어 물길이 여의치 않아 현장 도착이 상당시간 지연되었고 그나마 청의 선단(船團)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결국 청군의 갑곶 상륙을 허용하고 말았다.

도르근, 호계, 공유덕, 경중명 등 역전의 장수들이 거느리는 16,000명의 청군이 상륙하여 해안 방어 시설을 공격하자 김경징은 다시 해안 거점을 버리고 강화성내로 후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강화는 청군에게 함락되었고, 인조의 명령으로 강화도에 피난해 있던 세자빈을 포함한 종친 전체가 포로로 잡히는 동시에, 강화성내는 물론 강화도 전체가 처참한 살육, 약탈, 분탕의 현장으로 변전되고 말았다. 청병은 정족산 깊은 곳과 인근 도서(島嶼)를 살살히 수색하며 조선인을 색출하고 재보를 마음껏 약탈하였다.

호란은 이렇게 북방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는 최후의 거점이자 금성탕지(金城湯池)라는 강화 신화(神話)가 붕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후 강화의 수비 강화는 호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이루어졌다.

강화도의 수비 강화책을 먼저 추진한 것은 인조정권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청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에 피란하였던 인조는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어도 5~6만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비상사태 발생 시 우선 어영청과 총융청 군사를 입도시키고 상황에 따라 훈련도감과 삼남의 지방군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강화성의 수축과 함께 군량을 비축할 창고의 확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627년(인조5)년 강화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키고, 이어 1633(이조11)년에는 경기수영(京畿水營)을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을 교동에 설치하여 경기, 황해, 충청의 3도 수군을 통할하게 한다.

효종 중반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청의 감시와 간섭이 상당부분 누그러지자 실질적인 강화도 방비책이 수립 시행되게 된다. 그 방비책의 핵심은 강화 대안(對岸)의 여러 진을 강화로 옮겨 설치하여 해안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의 운용에 필요한 군량 확보책으로 대안 제진에서 수납하는 세미를 강화에 각 진별로 적치하여 평소에는 제진의 운영에 대응하는 한편 비상시에 필요한 군량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동시에 대안의 주민을 비상시에는 강화에 소개함으로 효율적인 해안 방어의 인적 요소로 삼는다는 대책이 겸부(兼附)

된 것이었다.

○ 초지만호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지난번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물려 나와 문서를 상고하니, 경기의 계물과 초지 두 곳의 만호는 일찍이 헐파되었고 그곳에 소속되었던 수군은 신설된 철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영종만호는 남양의 작은 포구 옆에 치우쳐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강도로 옮겨 설치하되, 전의 호칭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감목을 겸하도록 하고 다시 형편을 살펴 그 직품을 올려주어야 할 것입니다.⁶⁷⁾

○ 비국이 아뢰기를 ‘18일 주강(晝講)에 특진관 신준이 아뢰기를 “근래 천재(天災)가 이와 같으니 국가에서 믿는 곳은 강화와 연해의 諸鎭뿐입니다. 풍덕·교하·김포·통진·인천·부평 등 고을은 모두 성이 없기 때문에 변란이 있을 경우 각 고을의 수령들은 그 고을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풍덕은 승천부와 철곳 근처에, 교하 등 다섯 고을은 연미정에서 죽진까지 창고를 설치할 곳을 선정하여 각자 그 고을에서 창고를 건축하고 평상시 운송한 곡물을 강화부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그 본 고을로 하여금 방출·수납을 주관케 하면, 백성들에게 방출할 때 줄어드는 일이 없고 또 수납할 때 폐단이 없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⁶⁸⁾

이와 같은 강화 해안 방비책은 결국 강화 해안에 진보(鎭堡)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어 효종 7년에는 다음과 같은 해안 진보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67) 43) 23비변사등록 23, 효종 4년 3월 3일(기사).

“啓曰, 草芝萬戶移設事, 頃日楊前定奪, 而臣等退考文書, 則京畿濟物草芝兩處萬戶, 曾已革罷, 以其所屬水軍, 移紹於新設鐵串矣, 永宗萬戶, 僻在於南陽小浦之邊, 距海頗遠, 最爲不緊, 以此移設, 勿改前號, 仍兼監牧, 更爲觀勢, 陸其職品

68) 『비변사등록』 효종 1년 11월 23일(계유).

“啓曰, 十八日晝講時, 特進官左尹申坡所啓, 近來天災如此, 國家所恃者江華沿海列邑, 如豐德·交河·金浦·通津·仁川·富平等官, 皆無城池, 設有變亂, 各邑守令, 似難在官策應, 豐德則昇天府鐵串近處, 交河等五邑, 自燕尾亭至竹津, 擇其設倉處, 各其官營造倉舍, 常時移轉之穀, 江華府割給各邑, 使其本官, 主管糶糴, 則民無受出時欠縮之患, 亦無捧上齋糶之弊, 似爲便好”

명칭	설치 연도	본래의 소속 군현
월곶진	효종 7년	교동
재물진		인천
용진진		강화
덕진진		통진
초지진		안산
승전포진		풍덕
광성보		강화

강화를 보장(保障)의 요새로만 인식하여 적의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결과, 강화에 상륙한 적에 대비한 방어 대책이 전무하여 상륙과 동시에 강화가 함락되었던 호란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이 진보 설치는 결국 상륙에 대비한 해안 협요(險要)의 설치와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군량 및 인원의 확충이라는 양면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 진보 설치와 함께 또 다른 방어책은 수군의 강화였다.

기존의 수군은 주로 왜의 침공에 대비하였으므로 그 병력과 시설이 삼남에 집중되어 있었고, 북방의 호(胡)는 산성 수축 등 육로상의 관방에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은 호(胡)의 침공에 대비한 최후 보장처로서의 강화가 결코 협요(險要)에만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청은 한강 하구의 배를 징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강화에 상륙함으로써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강화 방어책의 근본을 수정하여야 하였다. 즉 수군을 강화하여 적의 상륙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 수영을 교동으로 옮기고 縣을 府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수사가 부사를 겸임토록 하고, 월곶진을 혁파하고 화량진을 복설했다.⁶⁹⁾

69) 『인조실록』 권20, 7년 2월 24일(경술).

“移水營於叅桐，陞縣爲府，以水使兼府使，罷月串鎮，復設花梁鎮”

- 비변사가 이시발이 강도의 일을 아뢰는 사항에 대해 복계하기를, “황해도 의 여섯 鎭浦와 연변 각 고을의 舟師를 신척하여 정돈해 두었다가 급한 일에 대비케 하고, 적이 침입하면 각각 그 변장으로 하여금 배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가 연안 앞바다로 급히 가서 강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연안·배천의 도로를 막고, 한편으로는 강도 북쪽을 지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긴요한 방책이라 하겠습니까.⁷⁰⁾
- 김류가 “양천·김포·통진·풍덕·인천·부평 등의 속요군은 모두 배를 익숙하게 다루므로 남한산성에 편제하면 훈련하지 않는 군졸이지만, 강도에 소속시키면 정예병이 된다”고 했는데, 비국이 합당함을 주청함으로써 경기와 해서 연해의 각 고을 군병을 모두 강도 수군에 편제하였다⁷¹⁾
-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략) “순위도는 나무의 넓이가 갑곶의 배나 되고 백령·용매·허사의 여러 진이 전후에 나열해 있어 앞뒤로 호응하는 형세가 있으며, 남쪽으로 강도까지 한번의 潮水로 이를 수 있는 거리이니 응원하기에 가장 편리합니다.⁷²⁾

위의 사료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모두 강화에 수군을 강화하고 수영(水營)을 옮겨 설치하여 인근 제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편 외곽과 강도가 함께 대응하는 호각(互角)을 형성하여 예상되는 호(胡)의 강화 상륙을 해중(海中)에서 요격하자는 내용이다.

② 산성의 수축

호란이 가져다준 큰 교훈이 바로 수도 한성의 방어책이 대단히 허술하였다는 것이다.

70) 『인조실록』 권6, 2년 8월 14일(병신).

“備邊司, 因李時發所陳江都事宜, 覆啓曰: “黃海道六鎭浦及沿邊各色舟師, 申飭整頓, 以備緩急, 賊若來犯, 則令各其邊將, 領軍下海, 急赴延安前洋, 橫截江口, 一以遮遏延白之路, 一以護衛江都之北, 此是最切之策”

71) 『인조실록』 권15, 5년 1월 25일(계사).

“陽川·金浦·通津·豐德·仁川·富平等官東伍軍, 皆是慣習舟楫之人, 用於南甌則爲不練之兵, 用於江都”

72) 『효종실록』 권15, 6년 11월 16일(병신).

備邊司啓曰: (前略) “至於巡威島, 則津渡之廣, 倍於甲申, 而白翎·龍媒·許沙諸鎭, 羅列前後, 有犄角之勢, 南距江都, 一潮可到, 應援之際, 最爲便益.

조선의 기본 전술은 청야(淸野)전술이었으므로 한성을 포기하고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는 기본 전략을 따라 우선 수성처로 선택한 곳이 남한산성이었다. 1621(광해군 13)년 산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하였고, 인조 조에 들어와 반 여진 정책이 강화되면서 호(胡)의 침공에 대비하여 1624년부터 1626년까지 2년간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어 광주목을 남한산성 안으로 이전했고, 수어청 역시 산성에 설치되었다. 완성된 성의 둘레가 6,927보였고, 인조 4년 성곽이 완성될 때 상궐이 72칸 반, 하궐 154칸 합계 227칸의 행궁도 함께 건축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은 수성처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 청의 침공하자 강화도로 피난하여 농성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적의 속공으로 길이 막혀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남한산성을 선택한 결과 산성 안에는 대규모의 전투를 장기간 치러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성 안에는 1만 3천 여 명의 군사가 방어를 하고 있었고, 양곡 1만 4300여 석과 소금 90여 석이 있어 겨우 50일 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 거기다 입성한 인원의 상당수가 전투가 불가능한 비전투원이었다.

아측의 군비(軍備) 특히 식량이 부족한데 비해 적은 한양과 광주 등 인근 고을을 점령하여 점령지로부터 충분한 징발 보급이 가능했고, 노역인원도 무제한 차출할 수 있었으며 성 밖에 넉넉한 주둔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란 이후로 청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자 남한산성을 다시 수축하여 호(胡)의 재침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홍이포와 같은 공성무기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화기의 포격에 대비하여 용성과 외성을 덧쌓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봉암외성(峰巖外城)•포루•돈대•옹성 등이 증축되고, 문루(門樓)와 장대(將臺)를 새로이 축조하였다.

아울러 병자호란 당시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원성에 대한 증개축이 이루어져 3곳의 남옹성이 증축되고 연주봉옹성 등 4개의 옹성에 포루가 설치된다.

숙종 12년(1686년), 광주유수 윤지선의 건의에 따라 봉암성이 축조되고, 숙종19년에는 수어사 오시복을 시켜 한봉외성을, 그리고 숙종 31년에는 수어사 민진후의 주장에 따라 봉암성에 2개의 포루를 각각 신설하였다. 영조 대에 3번의 수축이 있었고, 정조 3년에는 기와로 쌓았던 여장을 벽돌로 교체하였다.

남한산성에 외성과 용성을 증축하고 포대를 설치한 것은 호란 당시 경험한 대구경 화포의 위력을 실감하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호란 이후 남한산성 수축의 핵심요소라 하겠다.

남한산성 수축과 함께 새로이 제기된 방비책이 바로 도성 북부에 새로이 방어거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병자호란 당시 한양이 적에게 점령되어 적의 보급지로 활용되면서 남한산성 수성전에 막대한 전술적 장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호(胡)의 침공을 한양 북방에서 차단하여 한양을 보존할 적극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이번 9월 20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빗기를 청하고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양주(楊州) 고을 서편에 홍복산(洪福山)이란 곳이 있는데, 종전부터 그곳을 본 사람들은 그 형세가 남한(南漢)보다 나아 성을 쌓고 요새로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근래 양주목사 이유(李濡)가 여러 번 가서 살펴보았으므로 그의 말을 자세히 들으니 '산세가 험준하니 이는 참으로 천연의 땅이다. 그 가운데에는 토지가 넓고 비옥하며 냇물이 도도히 흘러 마르지 않고 땅을 파면 물이 안 나는 곳이 없다. 또한 사면의 산줄기가 휘감기며 멀리 뻗어 경성(京城)의 주산(主山)과 서로 가까우니, 만약 성을 쌓아 방어하는 곳으로 만든다면 그 형세가 매우 편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로써 우의정에게 물으니, '일찍이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처음 쌓을 때에 홍복산의 형국을 뜯고 사람을 보내 형세를 그려 오게 하였는데, 그 당시 조정 의논이 대흥산성을 먼저 위주로 하였으므로 덮어두고 의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⁷³⁾

73) 숙종 8년(1682) 9월 22일

領議政金壽恒請對入侍時，領議政金壽恒所啓“楊州邑治之西，有所謂洪福山，從前見之者，多稱其形勢勝於南漢，可合築城設險矣”近者楊州牧使李濡，屢度往審，故詳聞其言，則山勢險阻，實是天作之地，其中土地，寬廣

○ 대체로 사변의 일어남을 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무사하다면 그만이겠으나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기면 국가의 보장(保障)은 강화와 남한산성이 있을 뿐입니다. 전일 성상의 하교에도 이르시기를 '남한산성은 외떨어져 있고 강화는 조금 멀어 해적을 피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신이 염려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강화와 남한산성이 믿을 만하더라도 군량과 병기를 서울에 쌓아 두었으니 만일 버리고 피난하는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마침내 도적들이 이용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중략)

지금 국가가 무사하기를 진실로 바라지만 만약 사변을 갑자기 당하게 된다면 믿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 북한산(北漢山)에 성을 쌓자는 의논은 매우 순편하다고 여깁니다. 신이 다시 그곳 형세를 자세히 살피고자 하여 요전에 가서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내외가 천험(天險)의 요해처인 줄은 모르겠으나 이미 도성과 서로 잇닿았고 또한 높은 준령과 절벽이 많아, 성을 쌓을 때 공력이 많이 떨어질 듯하였습니다. 그 지형으로 논한다면 천만 가래의 산줄기가 얹히고 증첩되어 아무리 사다리나 누대가 있더라도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참으로 함락 될 수 없는 만전의 형세이니 위급할 때 믿을 만한 곳이 이보다 지나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조정 신료들 중에는 혹 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논이 있으나 도성의 형세로는 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위험한 성에 있는 것이 어찌 만전의 도리이겠습니까? 만약 먼저 북한산성을 쌓으면 도성과 표리가 되어 서로 의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수레를 따르는 군병은 북한산성을 지키고, 도성의 장정들과 기타 군병들은 도성을 지키다가 만약 도성이 함락되면 물러가 북한산성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민정(民情)은 모두 성 쌓기를 원하는데 조정 의논은 둘로

肥沃, 水泉滔滔不竭之則無往非水、且其四面山、回合連亘、與京城主山相近、若築山城、以爲保障、則形勢極其便好云² 臣以此間於右相、則曾於大興山城始築之時、聞洪福之勝、遣人圖形以來、而其時廟議、先以大興爲主、故置而不論云

갈려져 있으니, 성을 쌓든 쌓지 않든지 간에 속히 결정해야 마땅할 듯합니다.”⁷⁴⁾

조정은 도성 북방에 적의 침략에 대비한 별개의 산성을 수축하는 문제를 놓고 다양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홍복산과 북한산 중 어느 곳에 산성을 쌓을 것인가 하는 이 논쟁은 여러 차례의 현장답사와 치열한 논란⁷⁵⁾ 끝에 마침내 북한산성에 축성하기로 결정이 된다⁷⁶⁾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북한산에 성을 쌓는 일은 4월 안에 일을 시작하도록 하명하신 바 있습니다. 날을 선택하고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등의 모든 일을 상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당 관청에 분부하심이 어떠하신지요” 하니 “그리하라” 비답하였다.⁷⁷⁾

그리고 숙종 37년 8월에 이르면 대략의 산성 축성 공사가 마무리 된다.

74) 숙종 29년(1703) 3월 21일

大抵事變之來，不可預料，國家無事則已，脫有緩急，國之保障，只有江都·南漢，而前日聖教，亦曰，南漢孤絕，江都稍遠，且不合於避海寇，誠爲至當，而臣之所慮者不特此也，江都南漢，設令可恃，軍器兵糧，積置京中，萬一有去邨之舉，則適足爲藉寇之資(중략)方今國家苟無事，如或猝當事變，則無一可恃之處，北漢築城之議，十分便好，而臣更欲詳審形勢，頃往還觀，則雖未知果爲內外天塹，而既與都城相接，且其高峻巖巖處居多，築城之際，功力必省以地形論之，則千枝萬葉，盤回稠疊，雖有臨櫺樓，無所施力，實爲萬全不拔之勢，緩急可恃，莫過於此，朝臣中或有都城可守之議，都城形勢，實不可守，奉君父處危，城豈萬全之道乎，若先築北城，與都城，表裏相依，從駕軍兵守北城，都內丁壯及他軍，守都城都城失守，亦足退守北城矣，外間民情，皆願築城，而朝論有岐貳，築與不築間，似當速決矣，

75) 홍복산에는 큰 연못이 있어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터가 좁고 양주 고을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종 탈락하였다.

76) 1704년(숙종 30년) 음력 10월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와 어영대장 김석연(金錫衍)으로 하여금 북한 축성의 가부를 가서 살피고 오라 하자 이기하는 돌아와 보고하기를 험하기가 남한산성을 비할 바 아니며 도성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형세의 지대를 버릴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고, 여러 신하도 이에 동의하는 수가 많아졌는가 하면, 특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는 강력히 이를 지지했다. 그리고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와 사직(司直) 이우항(李宇恒)도 성의 터를 시찰하고 돌아와 찬성의 뜻으로 보고하였다.

77) 숙종 37년(辛卯) 三月二十七日

司啓辭，北漢築城，四月內始役事命下矣，擇日告祭等事，依例舉行之意，分付該曹何如，答曰，允。

- 훈련도감에서 보고하기를 “저희가 맡은 북한산에 성 쌓는 일이 비록 성문과 수문 등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문에서 북쪽으로 용암산에 이르기까지 2,292보의 체성(體城)을 쌓고 여장(女牆)을 만드는 일이 올 팔월 25일에 모두 완료되었기에 이에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 고 비답하였다⁷⁸⁾

이 북한산성의 건축은 조선 후기의 국방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북방으로부터의 침공에는 강화도로 입도하여 항거하거나, 남한산성에 입성하여 수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었다. 이 방책은 어느 경우에도 수도 한양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극적 방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산성의 건축은 한양으로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한양을 포기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세 대응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김구(金構)의 상소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산성과 한양성이 서로 의각(倚脚)의 형세를 이루어 적을 견제한다거나 한양이 함락되면 북산산성으로, 북한산성이 함락되면 한양성으로 방어 주체를 이동하여 싸울 수 있으리라는 방책에서 이와 같은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4) 영장제(營將制)의 확장

(1) 속오군(束伍軍) 편제

임란이라는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서 초전(初戰)에 방어체계가 붕괴된 조선은 우선 군대의 재건과 전투 병력의 확보가 국가 보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신분을 초월한 초모(招募)에 나서게 되고 처음부터 군역(軍役)에서 제외되었던 양반(兩班)⁷⁹⁾은 물론 천민(賤民)들조차도 닥치는 대로 대오(隊伍)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은 물론 지방군인 속오군은 이처럼 신분 체계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상체제 아래 군대였다⁸⁰⁾. 따라서 속오군은 양반과 천인은 면제된 군역을 변형된 형태로 감당하게 된 것이

78) 숙종 37년(辛卯) 八月二十六日

訓鍊都監啓曰、都監分授北漢山城城門及水門、雖未完役、而自水門北邊龍巖、至二千二百九十二步、體城與女牆之役、今八月二十五日已爲畢築之意敢啓、答曰、知道。

79) 과전법 체제 아래서 토지수급을 전제로 군역을 담당하던 양반은 과전법 체제가 붕괴되고 군역이 방군수포제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80) 광해군 9년(1617) 11월 2일

요, 양인들은 이왕의 군역에 속오역이 더해져 <1인 양역(兩役)>의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기효신서 즉 절강병법 체제 아래서는 이전의 진관체제와 달리 번상(番上)이나 계승방략에 따른 거진(巨鎭) 중심의 방어, 즉 거주지를 떠나는 대신에 거주지 주민으로 편성된 지방군이 거주지에서 훈련받고 해당 거주지 방어를 자체 담당하게 됨⁸¹⁾으로 이를 포납(布納)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군역에 따르는 수포(收布)는 그대로 부담하고 속오군에 편제되어 훈련과 작전에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도 지방 치안 등의 과외 업무를 여전히 부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속오군의 훈련이나 작전이 정교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아뢰기를 "정원의 계사에 '신이 과거 남방의 수령으로 재임할 때 각 고을의 속오군을 보면, 매월 보름 전과 보름 후에 관문에 모여 총이나 포를 시험 사격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이 속달된 대포기술자로부터 들으면 「포를 배우는 자는 스스로 화약을 장전하여 사격술을 익히는데 전념하면 불과 15회 만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속오군이 관문에서 시험사격하는 경우는 화약 장전하는 법을 전혀 모른 채, 시험 사격하는 날 남의 손을 빌려 화약을 장전하고 동서로 흩어져 사격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 해를 시험 사격한다 하더라도 서툴기는 매일반입니다. 한 달 두 차례에 1명이 사격하는 것은 모두 여섯 번입니다. 한번에 비록 화약을 장전

"...지금 그 큰 것만을 들어 말씀드리면 본부의 속오군(東伍軍)에는 사천(私賤)이 반이나 되어 그 주인이 임의로 잡아가거나 연습(練習)의 고통을 기피하여 도망치는 자가 뒤를 잇기도 하니, 대오(隊伍)가 감축되어 초(哨)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금방(禁防)하지 않는다면 오래잖아 모두 흩어질 것이니 매우 가슴 아픉니다."

81) 효종 7년(1656) 8월 17일

아뢰기를 "삼남(三南) 각 영(營)의 속오군(東伍軍)을 부대별로 나누어 소집하여 시열(試閱)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를 제거하여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감사와 병사가 한 자리에 모여 모든 영장(營將)과 함께 동의를 거친 다음 보장(報狀)을 보내어 왔으나, 경상·충청 2도에서는 보장이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도착되기를 기다려서 일시에 아뢴 생각임을 감히 아뢰옵니다."

하는 것은 2전 반이라 하나 여섯 번 장전되는 데에는 자그만치 1냥 반이니, 많은 군병이 1년에 허비하는 약환(藥丸)은 그 수가 얼마이겠습니까?⁸²⁾

따라서 본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천민을 속오군에 편제하기 위하여는 이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였다. 이는 당연히 천민의 신분 상승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 신분제도 해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속오군 편제에 따른 천민의 보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① 속오군의 최말단 대오인 대(隊)의 지휘관, 즉 대총(隊總)에 상당수의 천민이 등용되고 있다. 아래 표는 일부 지방 속오군의 편제에 나타나는 대총을 집계한 것이다.

	영변	안주	구성	의주
대총의 수	60	83	56	78
양민대총	47	73	51	78
천민대총	13	10	4	0

83)

비록 일부 지방의 제한된 통계이기는 해도 이처럼 천민 대총이 등장하는 것은 엄격한 신분 사회 조선에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의 일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양반 무과 급제자들이 지방 속오군의 지휘관직을 맡는 것을 기피하였던 풍조를 감안한다 하어도 심지어 노(奴)의 주인이 자기 노(奴)의 봉족(奉足)이 됨으로서 주종(主從)이 역변(逆變)되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다.

- ② 군공에 따른 실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 즉 다양한 면천(免賤)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임란 당시에는 천민이 적의 머리를 하나 베면 면천(免賤), 둘이면 우림위(羽林衛), 셋이면 허통(許通), 넷이면 수문장(守門將)이라는 면천의 원칙이 있었고, 훈련을 잘 받아 군력(軍力)이 능통한 경우에도 면천이 이루어졌다. 이괄의 난이나 임경업의 난

82) 효종 1년(1650) 5월 27일

83)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P46, 1999, 도서출판 해안

등에는 적과 결연히 싸운 경우, 적을 귀순시킨 경우에도 이를 군공(軍功)으로 인정하여 면천하였고,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사그러든 효종 조에 이르면 명화적(明火賊)을 다수 토포(討捕)한 것으로도 면천의 사유가 되었다.

(2) 영장제의 확대

지방군인 속오군을 편제하고 훈련하는 실무를 담당한 속오군의 최고 지휘자가 바로 영장(營將)이었다. 속오군은 대(隊-대총(隊總))→기(旗-기총(旗總))→초(哨-초관(哨官))→사(司-파총(把總))→영(營-영장(營將))로 편제되었으므로 속오군이 존재하는 한 영장(營將)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설립 초기에는 일정한 원칙없이 해당 지역의 지휘 능력이 있는 전, 현관을 영장(營將)으로 보임하였던 것 같다.

지역	영장 보임자
안주진관(安州鎭管)	군자시(軍資寺) 주부(主簿)(從六品)
영변진관(寧邊鎭管)	수문장(守門將) (從六品-從九品)
구성진관(龜城鎭管)	출신(出身)
의주진관(義州鎭管)	전(前) 군수(郡守) (從四品)
수원 독산산성(水原 禿山城)	전(前) 우후(虞侯) (從三品)
용인 석성산성(龍仁 石城山城)	찰방(察訪) 從六品

84)

아울러 유성룡이 작성한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의 잔질(殘秩)로 추정을 하면 임란 당시 전국에는 22개의 영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여 영장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영장제의 실시는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문과(文科)를 통하여 등과(登科) 입사(入仕)한 지방관, 즉 군력(軍歷)이 전혀 없는 수령이 지방군을 지휘하면서 나타나는 전문성의 부족을 나름대로 메꾸려 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임란이 끝난 후 조선정부는 다시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직제도를 부활 하였고 이는 호란을 겪으면서 결국 전투 지휘력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노정 하였다.

84)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P55, 1999, 도서출판 해안

- 본조에서 진영장 겸 토포사 46명과, 진무영장(鎭撫營將) 5명을 두었다.

경기도는 6명인데, 전(前)에 광주(廣州), (부윤이 겸한다). 좌(左)에 남양(南陽), (부사가 겸한다). 중(中)에 양주(楊州), (목사가 겸한다). 이상은 모두 인조 조에 처음 두었다. 별중(別中)에 수원(水原), (부사가 겸하며 현종 9년에 처음으로 두었다). 우(右)에 장단(長湍), (부사가 겸하며 현종 6년에 처음 두었다). 후(後)에 죽산(竹山) (부사가 겸하며 인조조에 여주에서 옮겼다.) 이다.⁸⁵⁾

- 진영(鎭營)의 영장 중에는 문관(文官), 음관(蔭官)이 있는데 그들은 병법을 모르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적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장을 감당할 자를 조정에서 파견하여 평상시에는 조련(訓練)을 전관(專管)케 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함으로써 임시로 장수를 바꾸는 폐단을 시정하자⁸⁶⁾

위의 두 자료는 영장을 수령이 겸하는 <겸영장>제의 광범위한 존재와 이 겸영장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폐해를 지적하고 영장을 복설(復設)하도록 촉구하는 건의가 나타난다. 물론 영장제가 시행되었어도 아직 조선의 군대가 강력한 호병(胡兵)을 감당할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병자호란 패배 이후 특히 청의 위협이 느껴지고 영장제를 유지하는데 따른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면서 영장제를 폐하고 겸영장제를 일반화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속오군의 통솔을 둘러싼 문무(文武)간의 대립도 겸영장제 실시의 한 이유였다.

그러다가 효종 대에 이르러 영장제는 다시 제한적이나마 부활하게 된다. 삼남(三南)에 한하여 영장제를 부활한 것은 효종이 추진한 북벌과 관련이 있다. 북벌을 위해 군병의 양성과 조련이 필요해졌고 아직 청의 감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감시를 피할 수 있고, 또 유사시에 왜(倭)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삼남 지역에 우선 영장을 부활하여 시행한 것이다.

85) 연려실기술 별집 제8권 > 관직전고(官職典故) > 진영장

86) 인조5년 4월 병자

후대의 영장은 속오군 외에 마병(馬兵) 별대(別隊) 포수(砲手) 등의 다양한 병종을 수하에 두고 있었다. 시국이 안정되어 가면서 양반이나 상인들은 천민과 함께 속오군에 편성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본래 속오군 편성의 기본인 기효신서는 왜(倭)를 상대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새로이 기병(騎兵) 중심의 호(胡)가 주적(主敵)으로 상정된 때문이었다. 당연히 기병에 대항하는 기병이 강화(強化)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화력(火力)에 대응하는 포수(砲手)의 편제가 불가피해진 까닭이었다.

아울러 효종 때에는 영장 절목(節目)을 상정하여 수령이 영장과 대립하는 소지를 없애고 또 영장의 순력(巡歷)을 통하여 휘하 지방군의 전력 향상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어사(御使)를 파견하여 불시에 지방군의 훈련수준을 하고 이를 영장의 포폄(褒貶)에 적극 반영한 결과 영장의 순력은 규정보다 훨씬 강화되고 이는 진영병 특히 농민병에 대한 민폐로 나타나게 된다. 이울러 영장에 대한 녹봉이 대단히 박하여 이 역시 영장이 휘하 민병을 토색하는 폐해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III. 결론

호란 이후 조선의 방위 전략을 소략하게나마 검토하여 보았다.

양난, 특히 호란이 조선 사회에 끼친 충격은 대단히 컸다. 문치에 안주하여 성리학적 가치를 추구하던 조선 사회에 양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분, 사상, 학문, 풍습 전반에 걸치는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였고 결국 조선은 상당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

본고는 이중 특히 호란 이후에 나타나는 군사상의 변화, 새로이 전개되는 방어 전략의 추이를 추적하여 그 실상의 일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초의 5위제와 이에 따른 진관제, 제승방략 체제가 5군영으로 재편되고 호병(胡兵)과의

전투에 패하면서 자연히 제기된 방어 상의 필요를 여하히 채워갔는가를 검토하였다.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촉급히 제기된 군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병 초모(招募)와 절강병법의 수용에 따르는 새로운 병제의 운용의 결과 양천(良賤)을 막론한 편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편성되는가 하면, 화기(火器)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병종 포수(砲手) 중심의 군병 운용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한편 호병(胡兵)과의 패전이 가져다 준 교훈을 따라 강화(江華)의 방비가 강화되어 대안(對岸)의 진관이 강화도로 이설되고 진보(鎭堡)가 증설되었으며, 남한산성을 화공(火攻)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증수(增修)와 보축(補築)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한양 포기를 전제로 하였던 방어 전력의 수정은 결국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건축으로 나타나며 지방 속오군의 효율적인 통제와 훈련, 운영을 위한 영장(營將)제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5군영체제 역시 수도와 왕궁 방위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졌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여전히 <주상(主喪) 즉 국망(國亡)>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에 상주하고 있고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란 이후 조선은 안보상의 안정을 누리지만 이는 효율적인 방어책의 수립 추진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조선이 청의 중주권을 수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청의 입관(入關)과 중원(中原) 평정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조선의 이와 같은 방어 대책도 만일 청의 재침에 직면하였더라면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을 까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스럽다.

아울러 동 시대의 서양 여러 나라가 이미 국민개병을 통한 근대 군대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고, 효율적인 전술 개발과 화기 개량에 집중하고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조선의 방어 개념이나 군사 운용은 후진적인 상황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결국 조선의 멸망은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에 제압당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원전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청(淸) 실록(實錄)
- 일성록(日省錄)

2. 저술

- 한명기 :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 한명기 :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 국방부 : 병자호란사
- 서태원 :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 차문섭 : 속오군 연구

3. 논문

- 윤용출 :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부산사학〉13, 1989
- 이겸주 : 조선후기 속오군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진 : 중앙 5군영제의 성립과정 〈한국군제사〉 1977
- 이흥두 : 속오군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천인의 신분변동 〈군사〉 34 1997
- 이흥두 : 병자호란 전후 강도의 진보설치와 관방체계의 확립 〈인천학 연구〉 2008
- 차문섭 : 조선 후기의 영장에 관하여 〈사충〉 1968
- 오수창 : 청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 시민강좌〉 2005

壬午軍亂 기간 중 明成皇后 피난행적과 국내외 상황

조 성 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 임오유월일기 기록 이전의 국내외 상황

III. 임오유월일기와 국내외 상황

IV. 나가는 말

집필자 : 조성문

여주군사 편찬위원, 국사편찬위원 사료조사원, 현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I. 들어가는 말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의 표면적 이유는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과 봉급의 체불에 있었으나 내면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正祖) 이후 시작된 조선의 세도정치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고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폐단을 불러왔고 이는 왕권의 약화와 정치기강의 해이로 이어졌다. 흔들리는 정치기강은 매관매직과 과거제도의 부정을 야기하였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직에 진출한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마구 세금을 수탈하면서 국가재정의 근간인 삼정(三政)이 문란해졌다. 지나친 착취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진 백성들은 자연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곳곳에서 대규모 농민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조선을 비롯한 청·일 3국은 서양세력의 진출로 인한 근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 속에 휘말리고 있었다.

중국은 제1차 아편전쟁(1840-1842)과 제2차 아편전쟁(1856-1860),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1851-1864)을 겪으면서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였고 서양에 의한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중체서용의 틀 속에서 부국강병을 모색하는 근대화작업인 양무운동(1861-1894)을 시작했다.

1854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의 압력으로 개항한 일본은 1868년 왕정복고를 통한 명치유신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관료적 정부의 수립, 의회의 헌법제정, 국민의 교육, 최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발달, 강력한 육군과 해군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주변국의 근대화 와중에 대원군의 하야를 계기로 정치전면에 등장하게 된 고종과 명성황후는 주변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던 끝에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시작으로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고 중국에 영선사,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배워 오게 하였다. 1881년 5월, 5군영으로부터 신채 강건한 80명의 지원자를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키고 일본 공병소위를 교관으로 삼아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군대로 다른 조직에 비해 대우가 특별하였는데 이것이 임오군란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2006년 5월, 제월당 송규렴(宋奎濂)⁸⁷⁾의 후손이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에 기탁한 유물 가운데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 상황을 기록한 임오유월일기(壬午六月日記)⁸⁸⁾가 발견되었다. 일기에는 1882년 6월 13일부터 8월 1일 환궁하기까지의 날씨, 황후의 동정, 환후, 관련 인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임오군란 기간 중에 명성황후의 피난행적과 국내외 상황을 날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임오유월일기 기록 이전의 국내외 상황

6월 5일

맑음.

지난 6월 1일 고삐 풀린 말이 궁중에 들어왔다. 상서롭지 못하다하여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할 것을 명하였다.

무위(武衛)·장어(壯禦) 두 군영의 군인들이 급료체불과 선혜청에서 주는 급여양곡의 변질에 항의해 난동을 일으켰다. 무위영 소속 구훈련도감 군사들이 선혜청 고지기와 무위영 영관을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주동자인 김춘영(金春永)과 유복만(柳卜萬)이 체포되어 포도청에 구속되었다.

6월 9일

맑았다가 때때로 흐림.

군인들이 민겸호(閔謙鎬)⁸⁹⁾ 집을 파괴하였다. 일대는 의금부에 갇힌 김춘영, 유복만들을 구출하고 일대는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오후 5시경 수 천명의 백성과 군인들이 산 위와 아래에서 호응하여 소리를 지르며 일본 공관에 투석을 하고 화살을 쏘았다.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實) 일행은 공관을 탈출하여

87) 숙종 때 동지중추부사

88) 임오군란 당시의 일기. 작가 미상. 송규렴의 7대손인 송현경의 부인인 여흥 민씨가 친정에서 가지고 왔다고 함. 이 여흥 민씨가 민용식의 딸이다.

89) 명성황후의 12촌. 민승호의 동생.

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감영으로 갔다가 감영이 텅 비어있자 남대문 쪽으로 옮겨갔다. 다시 양화진으로 가려다 여의치 않자 결국 인천으로 피난하였다. 28명의 탈출자 중 교련교관 호리모토(堀本禮造)등 일본인 3명이 피살되었고 부상 4명, 생사불명이 9명이었다.

6월 10일

비가 쏟아져 내림.

영돈녕부사 이최응(李最應; 흥선대원군의 형)을 살해한 군인들이 창덕궁에 난입하였다. 선해청 당상 민겸호와 경기감사 김보현(金輔鉉)이 중희당(重熙堂) 아래서 피살되었다. 대원군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난을 진압하기위해 큰아들 재면(載冕), 부대부인 민씨와 함께 입궐하였다. 궁궐에 난입한 군졸들이 왕비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부대부인 민씨가 자신이 타고 온 사인교를 태워 왕비를 도피시켰다. 군졸들이 궐 밖으로 나가려는 사인교를 막고 궁녀복을 입은 왕비를 끌어내어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다. 이때 무예별감 홍재희(洪在義)가 나서서 자신의 누나인 홍상궁이라 칭하며 왕비를 업고 화개동(花開洞)⁹⁰ 사어 윤태준(尹泰駿)의 사제로 피하였다. 임금이 이후부터 대소의 공무는 모두 대원군에게 품결하라고 명하였다. 또 왕비가 오늘 오시(午時)⁹¹에 승하하였으니 거애하는 절차를 규례대로 하라며 왕비의 국상을 반포하였다. 예조에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상복을 입을 것을 명하였다. 왕비의 체백을 찾지 못하였으나 서둘러 왕비의 상을 반포한 것은 무장한 군졸들을 해산시키고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지도 모를 왕비의 출현을 막아보겠다는 대원군의 생각에서였다. 통리기무아문이 혁파되고 예전의 삼군부가 부활되었다.

6월 11일

사시(巳時)⁹²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시에 맑음.

보부상들이 왕비시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흥인문(興仁門) 밖으로부터 경성에 침입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도성 안의 인심이 흉흉했다. 대원군은 각 영의 무기고를 개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임의대로 무기를 취하여 방위하게 하였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

90) 서울 종로구 삼청동.

91) 오전 11시-오후 1시.

92) 오전 9시-11시.

장례절차에 따라 왕비의 목욕과 염습하는 시각을 정하였다.

6월 12일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침. 낮에는 맑음.

이무렵 왕비는 여주로 피난하기로 하고 윤태준과 상의하였다. 일설에는 윤태준이 친구 이위(李偉)의 집 판돈 2백냥을 빌려 왕비가 탈 가마를 마련했다하고 또 다른 설로는 전 승지 조충희(趙忠熙)가 말을 판 돈으로 가마를 마련했다고 한다.

일본공사 일행이 영국 측량선인 비어호(飛魚號; Flyingfish)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

안개가 짙은 아침 영국 배를 발견하였다. 일장기를 꽂은 범선을 타고 접근하자 함장이 알아보고 작은 기선을 보내 본 함으로 옮겨 탈 수 있었다. 일본공사는 인천을 떠나면서 임금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관찰사에게도 사망자와 생사불명인들의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왕비의 소렴(小殮)을 행하였다.

Ⅲ. 임오유월일기와 국내외 상황

6월 13일

맑음.

2경(二更)⁹³ 쯤, 중군전하께서 벽동(碧洞)⁹⁴ 익찬 민응식(閔應植)⁹⁵ 집에 거동하셨다. 인후증세로 박하유(薄荷油)⁹⁶를 드렸다. (본문의 굵은 글씨 - 임오 유월일기)

보부상의 거주지 이탈을 엄금토록 지시하였다.

93) 오후 9시-11시.

94) 서울 종로구 관훈동.

95) 황후의 14촌.

96) 해열, 진통완화.

6월 14일

맑음. 더움.

등을 무렵에 민응식과 진사 민궁식(閔肯植)⁹⁷⁾, 현흥택(玄興澤), 비자 1명이 배행하였다. 광주 취적리(吹笛里)⁹⁸⁾ 임천군수 이근영(李根永)의 집에서 점심을 드셨다. 조현(鳥峴)⁹⁹⁾ 점사에 있는 숙소에 이르렀다. 옥후가 조금 더 불편해지셨다가 4경(四更)¹⁰⁰⁾ 후 조금 평순해 지셨다.

왕비일행이 한강 나루터에 이르렀으나 배삿이 없어 난감해 하자 왕비가 가마 밖으로 자신의 금반지를 빼어주었다. 민응식이 반지를 사공에게 주었고 그제야 사공이 배를 움직이니 일행은 가까스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왕비의 가마가 광주 점사에 머물 때 점녀들이 왕비인줄 알지 못하고 어디로 피난 가기를 묻고 왕비 때문에 난리가 나서 아가씨가 고생을 한다며 왕비가 훈련도감 군사들에게 밝혀죽지 않았느냐고 하니 왕비는 피난 오는 일에 바빠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왕비의 대렴(大殮)을 행하였다.

임금이 왕비의 옥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입던 옷을 가지고 장사 지낼 것을 명하였다. 원임·시임대신들이 반대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우의정 신응조(申應朝)는 의대를 가지고 국모의 상을 치를 수 없다고 반대하며 슬퍼하지도 않고 상복도 입지 않았고 도승지 조병호(趙秉鎬)는 국상 반포의 국서를 작성하라는 대원군 면전에서 붓을 내던졌다고 한다.

6월 15일

맑음. 더움.

새벽에 배행하였다. 이천읍(利川邑)¹⁰¹⁾ 점사에 이르러 점심을 드셨다. 여주 단강(丹江)¹⁰²⁾ 권삼대(權三大)의 집 숙소에 이르렀다. 전 오위장 민영기(閔泳綺)¹⁰³⁾가 왔다.

97) 민영위의 아들. 형식(卿植)으로 개명. 민응식의 4촌.

98)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취적리의 오기인 듯.

99) 경기도 광주시 묵헌동 새오개.

100) 새벽 2시~4시.

101) 경기도 이천시.

익찬 민옹식, 진사 민공식, 오위장 민영기 등이 배종하였으나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나가사끼(長崎)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조선에서 일어난 군란의 소식을 도쿄(東京)에 알렸다.

6월 16일

맑음. 더움.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같은 마을 인근에 한점대(韓点大)의 집으로 옮기었다. 환후는 차도가 없으셨다. 감길탕(甘桔湯)¹⁰⁴ 두 첩과 박하탕에 용뇌(龍腦)¹⁰⁵를 타서 드셨다.

예조에서 왕비의 옷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음을 아뢰었으나 임금은 속히 거행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6월 17일

맑음. 더움. 소나기가 내렸다.

계속 머무셨다. 감길탕 한 첩을 드렸고 박하탕에 용뇌를 타서 드셨다. 옥체의 다리에 종기가 나서 끓었다. 고약을 붙여 드렸다.

연일 조정신하들이 왕비의 옥체가 없는 국장의 반포를 취하하라고 임금에게 간청하였으나 불허하였다. 예조에서 재궁에 봉하(奉下)하는 예절을 국장의 규례대로 할 것을 아뢰고 허락을 받았다.

도쿄에 있던 주일 청국공사 여서창(黎庶昌)은 하나부사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임오군란의 소식을 전보로 청나라에 전했다.

102)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앞강.

103) 황후의 13촌.

104) 인후통에 효과.

105) 인후염 완화.

6월 18일

종일 비가 내렸다.

계속 머무셨다. 환후는 달라지지 않으셨다. 오후에 인후증세가 있으셨고 종기가 저절로 터졌다. 감길탕 한 첩, 구갱(狗羹)¹⁰⁶ 한 사발, 부어고(鮑魚羹)¹⁰⁷ 한 사발을 드렸다. 민공식이 먼저 충주 노은(老隱)¹⁰⁸에 갔다.

왕비의 성복(成服)을 행하였다.

빈청에서 왕비의 전호를 휘경(徽敬), 시호를 인성(仁成), 능호를 정릉(正陵)으로 계하자 임금도 능호를 희릉(熙陵)으로 고쳤다.

6월 19일

아침에 비가 왔다. 오후에 잠시 개었다. 신시(申時)¹⁰⁹ 후부터 비가 계속 내렸다.

새벽에 배행하였다. 충주 매산(梅山)¹¹⁰에 이르러 오봉학(吳鳳鶴)의 집에서 점심을 드셨다. 사창 민응식의 향제(鄉第)를 숙소로 정하셨다.

청나라 천진에 있던 영선사 김윤식(金允植)과 문의관 어윤중(魚允中) 등이 군란진압을 위해 청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6월 20일

비가 오다가 흐렸다가 했다.

계속 머무셨다. 대나무 통을 환처에 대고 약간의 봉사(礬砂)¹¹¹를 붙였다.

각종 조세에 관한 규정은 병자년(1864) 이후의 신정식(新定式)에 따르도록 하였다.

106) 개고기 국.

107) 붕어를 고은 국물.

108)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신흥동.

109) 오후 3시-5시.

110) 음성군 갑곡면 왕장리, 천주교 갑곡성당 뒷산.

111) 방부, 소독작용.

6월 21일

맑음. 더움.

동틀 무렵에 배행하였다. 노은에 있는 유학 이시일(李是鎰)의 집에 머무셨다. 감길탕 한 첩을 드렸고 박하탕에 용늪를 타서 드셨다. 옥후가 점차 나아져 회복되었다.

왕비가 노은 신흥동으로 피난하면서 동네에서 잘사는 한씨 집에 머물고자 하였으나 후환을 두려워 한 한씨의 거절로 가난한 모자가 사는 이시일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인 히사미즈(久水三郎) 등 3명이 군란 후의 국정탐지를 위해 영국 측량선을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6월 22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고 판서 민승호(閔升鎬)¹¹²⁾의 처 정경부인 이씨, 전 참판 민영익(閔泳翊)¹¹³⁾의 처 정부인 김씨가 죽산(竹山)¹¹⁴⁾에서 왔다.

이 무렵 민태호가 머느리 김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왕비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지금의 형편이 난처하니 산중에 조용히 은거하면서 하회를 기다리라는 것이어서 왕비가 보고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井上馨)가 부산, 인천, 원산에 군함을 파견하고 하나부사에게 1개 대대의 지원을 명하였다.

일본정부의 조선출병 사실을 주일 청국공사 여서창(黎庶昌)이 본국에 알렸고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과 일본의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일본은 청나라의 중재를 거부하고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개전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112) 황후의 양�빠.

113) 민승호의 양자. 민태호의 아들.

114) 안성시 죽산면.

6월 23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6월 24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반점관 윤성진(尹成鎭)이 제물포에 도착하여 히사미즈에게 군란 중 일본인 변사자는 일 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포함해 13명임을 알렸다.

6월 25일

오후에 가랑비가 내렸다.

계속 머무셨다.

6월 26일

오후에 비가 왔다.

계속 머무셨다.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가 하나부사에게 함흥, 양화진, 대구의 개방과 일본인 여행권을 획득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밖에도 이노우에가 주도하는 일본정부는 척화비의 파괴, 세제의 개혁, 금광의 재굴, 화폐의 주조, 전선의 가설 등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되 대원군 보다는 국왕을 직접 알현하여 타결할 것을 하나부사에게 당부하였다.

6월 27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임금이 왕비의 능호단자(陵號單子)를 환입하라고 명하였다. 지난 번에 ‘희릉’으로 개서하여 내렸기 때문이다.

일본국 외무서기관 곤도오 모토스케(近藤真鋤) 등이 군함 금강호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청나라 마건충(馬建忠), 정여창(丁汝昌) 등이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월미도에 도착하였다.

6월 28일

맑음.

신시 이후에 배행하였다. 전 판서 민영위(閔泳緯)¹¹⁵⁾의 집이 있는 매산으로 옮기었다.

6월 29일

맑음.

계속 머무었다. 가미양위탕(加味養胃湯)¹¹⁶⁾ 두 첩을 드렸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호위 육해군 1개 대대를 거느리고 인천에 도착하였다. 아무런 인천에 정박한 일본 배는 군함이 4척이고 운송선이 2척이었다.

6월 30일

맑음.

계속 머무었다. 양위탕(養胃湯)¹¹⁷⁾ 한 첩을 드렸다.

미국 군함 모노카시호(Monocasy號)가 군란 후의 국정을 살피기 위해 인천 월미도에 도착하였다.

115) 황후의 13촌.

116) 체중해소, 위장기능 보완.

117) 복통, 설사에 특효.

7월 1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청서육화탕(淸暑六和湯)¹¹⁸⁾ 한 첩을 드렸다.

7월 2일

맑음. 더움.

민영기가 배행하였다. 지평 섬실(蟪蛄)¹¹⁹⁾에 있는 전 현감 안정옥(安鼎玉)의 집으로 옮기셨다. 민응식은 번잡한 이목을 꺼려하여 뒤에 출발하였고 여주읍에 이르러 머물러 묵었다.

7월 3일

보슬비가 내렸다. 밤에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졌다.

계속 머무셨다. 청서육화탕 한 첩을 드렸다. 이후 증세가 다시 악화되었다. 민응식이 도착했다.

이무렵 하나부사에게 조선 측으로부터 두 개의 상반된 정보가 전달되었다. 반접사 윤성진은 군란이 대원군의 지휘로 진압되어 정세가 안정되었으니 일본군대의 입경을 자제해 달라고 하였고 조영하(趙寧夏)와 김홍집(金弘集)은 정반대로 대원군의 지휘로 군란이 조장되어 정부가 무너졌으며 정권이 대원군에게 넘어가 임금의 의사는 전혀 소통되지 않으므로 일본군대가 신속히 입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청나라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호위병을 이끌고 경성에 들어왔다.

118) 더위로 인한 구토, 설사에 효능.

119)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7월 4일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저녁에야 그쳤다.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 한 첩을 드렸다. 전 오위장 구연소(具然韶)를 충주 병영에 보냈다.

일본공사가 데리고 온 군사를 장악원에 거처하게 하였다.

7월 5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인후증세가 점차 나아져 회복되었다.

7월 6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 한 첩을 드렸다. 민영기를 양근 자잠리(紫岑里)¹²⁰로 보냈다.

7월 7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광향정기산(藿香正氣散)¹²¹ 한 첩을 드렸다. 민공식이 들어왔다.

일본군 1,500명이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였다. 임금이 중희당에서 하나부사를 소견하였다. 하나부사는 군란 중에 일본공사관과 일본인이 입은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원군도 연현각(延賢閣)에서 하나부사를 만났다.

청나라 오장경(吳長慶)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김윤식과 함께 남양부 마산포에 도착하였다.

120) 가평군 설악면 사릉리 자잠마을을 가리키는 듯.

121) 소화장애, 급성 위장염, 설사, 복통에 효과.

7월 8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 한 첩을 드렸다. 민영기가 돌아왔다.

회답이 지연되자 하나부사는 조선 측의 무성의 함을 비난하고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하였다.

대원군은 마건충에게 글을 보내어 일본공사가 제시한 요구조건을 알리고 속히 입경하여 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7월 9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옥체 다리의 종기가 완전히 아물었다.

이무렵 북경과 동경의 공사를 겸임하고 있던 영국공사 파아크스(H.S.Parkes)는 조선에서 청·일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홍장(李鴻章)과 일본 정부 간의 중재에 힘썼다.

7월 10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서기관 곤도오 모토스케에게 사후처리 문제를 위임하고 인천으로 퇴거하였다. 인천에 머물던 일본 육해군은 인천을 강제 점령하였다.

청나라 마건충이 입경하여 남별영에 들었다.

7월 11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민영기, 민옹식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꺼려 먼저 떠났다.

영국군함 엔카운터호(Encounter號)가 조선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중국사신 마건충이 27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관소에 들어왔다.

7월 12일

맑음.

안정옥이 배행하였다. 매산 오봉학 집의 숙소로 돌아오셨다. 민공식은 먼저 다른 길로 떠났다.

청나라 제독 오장경과 통령 정여창이 입경하였다. 오장경은 성 밖에 주둔하였다.

마건충이 이현에 가서 곤도오 모토스케를 만나보고 관소로 돌아왔다.

정여창이 군사 100여명을 이끌고 관소로 들어왔다.

오장경이 군사 700여명을 이끌고 동별영으로 들어왔다.

7월 13일

맑음.

민영위의 집 뒷 채로 옮기셨다.

오시에 오장경, 정여창, 마건충이 호위병을 줄여 탄술(坦率)하게 보이게 한 뒤 성안으로 들어가 운현궁에서 홍선대원군을 문안하였다. 이어 대원군은 같은 날 성 밖의 청나라 군영으로 오장경등을 답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건충은 대원군을 천막 안에 머물게 하고는 이번 정변의 사유를 문책하고 천진에 가서 중국조정의 처치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정여창이 대원군을 납치하여 가마에 태우고 남양부 마산포로 떠났다.

7월 14일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계속 머무셨다.

청나라 제독 오장경과 정여창, 마건충 등이 민심소요를 예방하기 위해 대원군 납치사유를 밝히는 포고문을 내걸었다. 포고문에는 속국인 조선에서 변고가 일어나 황제가 군사를 파견하였고 진상을 파악하고자 대원군을 중국으로 불렀으나 크게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니 백성들은 두려워 말 것이며 난을 일으킨 무리들은 빨리 해산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임금이 조영하를 보내서 마건충에게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난군의 초포(勦捕)를 청하였다. 또 김병국(金炳國)에게 일본의 요구에 관해 마건충과 상의하도록 하였다.

마산포에 도착한 대원군이 청나라 군함 등영주(登瀛州)호에 실려 천진으로 압송되었다.

7월 15일

흐림. 비가 내렸다.

계속 머무셨다. 안정옥을 경성에 보냈다.

전권대신 이유원과 부관 김홍집이 제물포에 정박 중인 일본군함에서 하나부사와 회동하고 조관(條款)을 상의하였다.

7월 16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우철(又哲)이 와서 경성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안정옥이 중도에 청나라 관리가 붙인 방문을 베껴서 돌아왔다. 김천 찰방 민치현(閔致憲)¹²²이 왔다.

이무렵 군란에 가담했던 군졸들과 백성들이 대원군납치에 항의하면서 왕십리와 이태원에 서 청나라 군대의 무력에 대한 항쟁을 꾀하였다. 이날 새벽에 장광전(張光箭), 오조유(吳兆有), 하승호(何乘鰲)가 비밀리에 왕십리에 이르러 150명을 사로잡고 오장경도 친히 이태원에 이르러서 20여명을 체포하여 난당을 평정하였다. 훈련도감군졸 정완린(鄭完鄰) 등 11명을 참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민 376명이 죽었다.

122) 황후의 11촌.

7월 17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민치현을 경성에 보냈다. 이현식(李賢植)이 민영익의 봉서를 가지고 왔다.

일본군함 히에이호(比叡號) 함상에서 조일강화조약 및 조일수교조규속약을 체결하였다. 군란당시 일본이 입은 피해 보상, 일본군대 주둔권, 병영설치권, 여행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였다.

7월 18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이현식이 돌아갔다. 안정옥을 경성에 보냈다.

변란과 관련된 문제는 일체 따지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하고 편안히 살도록 백성들에게 운음을 내렸다.

7월 19일

비. 오후에 그쳤다.

계속 머무셨다. 점증(店症)¹²³으로 옥후가 편치 않으셨다. 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¹²⁴ 두 첩을 드렸다.

임금이 청나라 영선사 위륜선(魏綸先)을 소견하였다.

7월 20일

맑음.

123) 학질 증세.

124) 소화불량, 식욕부진에 효능.

계속 머무셨다. 수삼 한 냥종(37.5g)을 드렸다.

임금이 재위 19년 동안의 그릇된 정사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워 질것을 다짐하는 윤음을 백성들에게 내렸다.

마건충은 남양부로 떠나고 오장경은 6영(營)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방어를 위해 잔류하였다.

7월 21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수삼 한 냥종을 드렸다. 학질증세가 나아지지 않으셨다.

마건충과 정여창이 천진으로 떠났다.

사은사 겸 진주사를 청나라에 보내 대원군의 방환을 청하게 하였다.

7월 22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안신사물탕(安神四物湯)¹²⁵⁾ 두 첵을 드렸다. 민치현과 안정옥이 경성에서 돌아왔다.

신분이나 지역에 차별을 두지 말고 재능에 따라 등용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7월 23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계속 머무셨다. 수삼 한 냥종을 드렸다. 학질증세가 더 심해지셨다. 양성(陽城)¹²⁶⁾ 의인 박응종(朴應鍾)의 처소에 사람을 보냈다.

125) 사물안신탕, 스트레스, 신경과민에 효과.

126) 안성시 양성면.

임금이 어운중을 원세개(袁世凱)에게 보내 왕비를 맞아들일 호위군의 차출을 요청하게 하였다.

7월 24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밤에 산삼 다섯 전종을 드렸다. 안정옥이 (황후께서 주신) 봉서를 가지고 경성으로 올라갔다.

청나라 제독 오장경을 소견하였다.

7월 25일

맑음.

이른 아침에 산삼 다섯 전종을 드렸다. 민영위의 집 안채로 옮기셨다. 학질증세는 차도가 없으셨다. 양성 의인(醫人) 박응종이 왔다.

왕비를 맞이할 의절을 예조에서 마련하게 하였다.

왕비를 맞이할 때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이 나가게 하고 제학 김병시(金炳始) 등이 배종하게 하였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재차 입경하였다. 왕비 호위군이 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부사는 일본군이 호위를 맡겠다고 조정에 제안하였으나 오장경이 청일간의 마찰이 우려되니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니 이에 굴복하여 호위군 차출을 단념하였다.

7월 26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이른 아침에 박응종이 진찰하러 들어왔다.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¹²⁷⁾ 두 첩을 드렸다. 좌찬성 민태호(閔台鎬)¹²⁸⁾집 하인이 봉서를 가지고 왔다. 같

은 달 19일, 전 감찰 심의순(沈宜淳)이 환정곤위(還正壺位)¹²⁹의 일로 제독 오장경에게 청원서를 냈고 며칠 안에 봉영하는 일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런 까닭에 부사과 김설현(金鵠鉉)이 이 일을 아뢰기 위해 경성으로부터 이른 아침에 도착하였다. 이현식이 왔다. 이날 밤 봉서와 무감 8명이 내려왔고 화복(華服)의 전교를 들으셨다.(임금의 명으로 환궁 때에 입을 왕비의 복색이 함께 온 듯)

왕비를 맞이할 때 왕세자의 지영(祗迎)은 대궐문 안에서 할 것을 명했다.

오장경이 진운룡(陳雲龍), 오장순(吳長純)에게 명하여 군사 100명을 인솔하여 충주목으로 가서 왕비를 시위케 하였다.

7월 27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학질은 점점 증세가 약해지셨다. 가미군자탕 한 첵, 가감군자탕(加減君子湯)¹³⁰ 한 첵을 드렸다. 봉영 때 배종할 관원이 내려왔다. 안정옥이 (임금께서 주신) 회담봉서를 가지고 내려왔다.

7월 28일

맑음.

아침에 가감군자탕 한 첵을 드렸다. 손시(巽時)¹³¹에 가마를 움직여 죽산부 내아에 숙소를 정하셨다. 가감군자탕 한 첵을 드렸다.

7월 29일

맑음.

이른 아침에 가감군자탕 한 첵을 드렸다. 묘각(卯刻)¹³²에 가마를 움직여 양지현(陽

127) 설사, 중서, 기허에 효능.

128) 황후의 12촌, 민영익의 생부.

129) 왕비의 지위를 바르게 되돌려 놓음.

130) 신경쇠약, 두통에 효능.

131) 오전 8시 30분-9시 30분.

智縣) 내아에 이르렀다. 주정(晝停)¹³³⁾하였다. 민영익이 왔다. 학질 증세가 남으셨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용인현(龍仁縣) 동현 숙소에 이르렀다. 평진탕(平陳湯)¹³⁴⁾ 한 첩을 드렸다.

손순길(孫順吉) 등 3명을 일본공사관 침입죄로 효수하였다.

8월 1일

맑음.

이른 아침에 가감군자탕을 한 첩 드렸다. 묘각에 가마를 움직여 신원(新院)¹³⁵⁾에 이르렀다. 어군막에서 주정하였다. 신각(申刻)¹³⁶⁾에 환궁하였다.

시임대신과 원임대신, 봉조하 등 여러 관리들이 왕비에게 문안을 올렸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임오군란 발생 이후 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 들였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추적군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시각에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피난길을 재촉했던 명성황후가 궁궐에 있는 임금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사태 수습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임오유월일기를 보면, 6월 10일 황후가 창덕궁을 탈출하자마자 바로 황후의 국상이 발표되고 국가의 대소 공무를 대원군에게 품계를 받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13일이 되어야 비로소 황후의 행적이 드러났다. 광주, 이천, 여주, 감곡을 거쳐 노은에

132) 오전 5시~7시.

133) 낮에 행차가 멈춤.

134) 식학(食瘡; 체증과 학질)에 효능.

135) 용인시 포곡읍 신원리.

136) 오후 3시~5시.

이르러서 겨우 한숨을 돌린 황후는 비밀리에 올케와 조카며느리를 곁으로 불렀다.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인천에 도착하고 일본공사가 경성에 들어온 다음 날인 7월 4일에 황후는 조용히 사람을 충주병영에 보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고 7월 15일에 경성으로 안정옥을 보내 궁궐의 정황을 알아보았으며 안정옥이 내려오는 길에 빼겨 온 청군의 포고문을 보고 서야 대원군의 납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군란 이후의 상황에 황후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특히 고종실록 7월 20일조에 고종은 재위 19년의 정사를 반성하면서 경복궁의 중건, 잦은 화폐개혁, 서원철폐, 기복행위에 의한 내탕금 낭비, 종친과 척신의 등용, 뇌물성행 방관, 탐관오리 처벌 미흡, 국고의 고갈, 문호개방 대처미흡 등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자책하고 있다. 이 유시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없는 상황에서 혼란의 원인을 바라보는 고종의 객관적 시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종시대사를 보는 기존의 관점들이 국정최고 책임자인 고종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또한 임오유월일기는 피난 기간 내내 황후가 탕약을 먹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주로 소화 불량, 식욕부진, 설사, 두통, 신경쇠약에 관한 약이었는데 이는 황후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오군란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임오군란은 부패한 정권에 대한 항쟁이었다. 임오군란은 그즈음에 일어난 여러 민란과도 맥을 같이 한다. 탐욕에 눈이 먼 정권담당자들이 백성들에게 지나친 횡포와 가혹한 착취를 가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백성들의 불만 폭발이 민란이었다면 같은 맥락에서 지나친 차별대우를 받은 구식군인들의 항쟁이 임오군란이었다. 둘째, 임오군란은 개화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었다. 당시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개화정책에 반발한 유림들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기치를 내걸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와 보수파가 서로 격양된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신식군인에 대한 편애가 환영받는 개화의 산물로 여겨졌고 구식군인에 대한 홀대는 버림받는 보수의 유물로 인식한 사회분위기가 임오군란을 촉발하였던 것이다.

둘어해보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총체적인 국난의 책임을 왕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여자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임오군란 당

시 명성황후 피난길에 동행하면서 황후의 행적을 기록한 임오유월일기가 발견되어 임오군란 이후 명성황후가 처했던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기를 통해 명성황후에 관한 몇 가지 오해가 풀렸듯이 앞으로도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명성황후에 대한 더 많은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들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여흥민씨 삼방파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석호 외 〈신구문화사〉, 『한국현대사』 1980

윤효정 〈교문사〉, 『한말비사』 1995

조성문 〈여주문화원〉, 『명성황후를 찾아서』 2000

황 현 〈서해문집〉, 『매천야록』 2009

舊韓末 경기도 광주지역 의병전쟁

윤 종 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 I. 머리말
- II. 경기 광주지역의 의병전쟁
 - 1. 사회적 배경
 - 2. 광주지역의 의병전쟁사 연구의 현황
- III. 한말 의병전쟁의 흐름
 - 1. 제1기(1895~1896) 을미의병
 - 가. 을미의병의 전반적 상황
 - 나. 남한산성 주변의 의병전쟁
 - 2. 제2기(1905~1907) 의병전쟁
 - 가. 전국 의병전쟁 전개 개황
 - 나. 남한산성 주변의 동향
 - 3. 제3기(1907~1910) 의병
 - 가. 전국의병 개황
 - 나. 제3기 의병전쟁과 광주지역 의병
 - 4.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
- IV. 맺음말 - 의병전쟁 기념사업에 대한 제언

집필자 : 윤종준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성남 서현문화의집 관장

I. 머리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그 때마다 나라의 운명을 구한 것은 의롭게 펼쳐 일어난 민중들의 힘이었다. 일찍이 박은식은 “의병이란 민군(民軍)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 곧바로 의기(義起)하여 국가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 적과 싸우는 민중 의용병(義勇兵)”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 민족의 충의정신은 돈독하여 삼국시대부터 의병이 있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과 한말의 의병이 가장 뚜렷하며 ……의병은 우리 민족의 정수(精粹)”라고 하였다.¹³⁷⁾

의병은 외세가 침략해 왔을 때에 일어나기도 하였고, 연산군과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던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때에도 그들은 의병이라고 칭했다. 즉, 의병은 나라가 위태롭거나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할 때에 이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일어난 것이었다. 박은식이 의병 가운데 한말의병이 가장 뚜렷하다고 했는데, 경기 동부 지역,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수많은 의병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니, 성남 지역에서는 남상목·윤치장 같은 의병장이 나왔고, 광주의 구만서(具萬書), 남공필(南公弼), 도척면에서 구연영, 구정서 부자(父子), 임옥여, 남한산성의 심진원, 김하락 같은 이들이 맹활약하였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하여 자행한 수탈과 국권의 침탈에 항거하여 무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한 열사들이다. 이처럼 살신성인의 구국 정신으로 무장 봉기했던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날 이름조차 확인 할 수 없이 전장에서 순절한 이들도 있으며, 옥중에서 모진 고문으로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 그리고 모진 고통의 수감생활을 거쳐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병들이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의 목숨을 버릴 각오와 희생정신은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한결같이 우리가 추앙하고 기려야 할 빛나는 독립운동사의 꽃이라 하겠다.

137)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울 신문사, 1946, p.16

“義兵者 民軍也。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之徵發 而從軍敵愾者也。吾族素敦忠義 自三國時代 對於外患而義兵之樹立最位卓著 在李朝宣祖時被倭寇之蹂躪者 八年而若儒林 若鄉紳 若僧侶之屬 皆奮起野草 …… 義兵者 吾族之國粹也。”

이제 남한산성은 그동안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 현장으로만 인식되던 틀에서 벗어나 국난 극복과 민족정기의 역사 현장으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복원과 새로운 가치 부여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남한산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 전쟁에 대한 기념사업의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광주 일대에서 전개된 의병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애국선열들의 행적을 터럭만큼의 흔적이나마 찾아서 기억하고, 오늘날 변영된 세상을 누리기까지 이 땅을 피로써 지켜온 선조들의 고귀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II. 경기 광주지역의 의병전쟁

1. 사회적 배경

구한말의 남한산성 주변 일대는 현재의 광주시는 물론이고 서울 한강 남쪽 일대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하남시 일대 등 동부지역 대부분이 광주에 속해있었다. 그러므로 100년이 지난 지금,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부터 광주일대의 주민들 생활상은 참담한 것이었다. 1894년에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대희(南大熙), 구연태(具然泰)를 중심으로 9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감면을 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마침내 이들은 음력 10월 10일 한성아문(漢城衙門)으로 가서 청원하기로 계획했다. 그러자 남대희가 광주의 포교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광주부의 농민들을 남대희를 구출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일본군이 출동하여 10월 13일 이들을 모두 포박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부에서 봉기한 농민들의 봉기는 한성의 방어체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곡물과 기타 물자의 반입을 못하게 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했다. 이에 일본군은 1894년 11월 11일 오전 6시경 군대를 보내 오후 3시 15분에 광주에 도착하고, 경안면 직동에 사는 남대희, 구연태, 심상현 등 3명을 지도부로 지목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한성으로 압송함으로써 농민 봉기는 일단락되었다.¹³⁸⁾

이처럼 광주 지역은 지나친 조세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는 불안정하여 폭발의 소리를 안고 있었던 데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서서히 의병이 봉기할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 일대는 의병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구하려는 깃발을 높이 든 대표적인 남상목, 윤치장, 이명하, 구연영, 구정서, 임옥여, 구만서, 남공필, 심진원, 김하락, 김광준, 김광희 형제, 이춘삼, 이익삼 등 이름을 남긴 이들과 남한산성 안의 서울진공작전 참여 의병 1,600여명, 크고 작은 전투에서 순국한 우리의 선조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되었기에 실로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2. 광주지역 의병전쟁사 연구의 현황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의병 전쟁에 대한 연구는 나름대로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 중에서 성남문화원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남지역 의병전쟁에 관한 연구는 한춘섭¹³⁹⁾, 박민영¹⁴⁰⁾ 등의 개별 연구논문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전보삼, 김도형, 서승갑, 이승수 등 4명¹⁴¹⁾의 공동 집필로 이루어진 『성남지역 의병조사연구』와 한춘섭, 『성남문화유산』¹⁴²⁾이 있다. 이들 논저는 모두 성남문화원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거나 또는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성남지역 의병조사연구』의 경우

138) 정은경,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성남문화연구 제9호, 성남문화원, 2002, pp.104~106

139) 한춘섭,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성남문화연구』 제3호, 1995

_____, 「근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 『성남문화연구』 제7호, 성남문화원 2001

_____,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성남문화연구』 제6호, 성남문화원, 1999

_____, 「성남의 중요 인물조사」, 『성남문화연구』 제12호, 성남문화원, 2005

140)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 운동 양상』,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남문화원, 2003

141) 전보삼, 김도형, 서승갑, 이승수, 『城南 地域 義兵調査研究』, 성남문화원, 2002

142) 한춘섭, 『성남문화유산』, 동명사, 1999

제목은 '성남지역' 이라고 했지만, 성남지역에서 이 책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붙여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광주 일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료집이다.

성남 지역의 의병전쟁에 관한 연구의 첫 장을 연 것이 1995년 『성남문화연구』 제3호에 실린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이다. 이 논문은 성남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의병활동에 대하여 의병장의 후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잊혀 질 뻔한 성남 지역 근대사의 민족적 자긍심을 발굴 보존하는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¹⁴³⁾는 성남시사 연구에 있어서 역사인물 연구가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기초적인 연구임을 환기시키면서, 일련의 기록과 각종 기념비, 자료현장과 구비전승의 무수한 흔적들이 모여져 '역사복원'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총체성의 역사 한 귀퉁이를 꿰어 맞추는 현장 발굴조사와 다를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성남시지(사)』 특히, 경원전문대학 장삼현 교수의 『성남의 지명과 인물』, 『성남의 뿌리』 두 권 자료집에서 필적할 만한 업적이 없다 하여 제외시킨 인물에 대하여 주목하여 성남 출신의 의병장인 남상목·윤치장 의병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8년에 남상목 의병장에 대한 공적 재조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천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회장 김우전 前 광복회장)가 설립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광복회가 공동으로 선정 발표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성남의 충효 인물조사」¹⁴⁴⁾는 오늘날 국민소득은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청소년 범죄나 가정의 붕괴,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위원회를 만들거나 사회단체들의 교양강좌, 문화강좌 및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에 대하여 기초적인 인문과학 그리고 한국학 전통사상의 뿌리와의 같은 역사 속 위인 중에서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쳤던 충신들의 이야기, 또한 웃어른들에게 공경심으로 삶을 바친 특별한 이 지역 충효인물을 조사하면서 진실로 역사를 이끈 성실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근 · 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¹⁴⁵⁾에서는 20세기

143) 한춘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성남문화연구』 제6호, 성남문화원, 1999

144) 한춘섭, 「성남의 충효 인물조사」, 『성남문화연구』 제12호, 성남문화원, 2005

145) 한춘섭, 「근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 『성남문화연구』 제7호, 성남문화원 2001

의 흥미한 역사현실 속에서 성남의 근 · 현대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산촌지역이었던 성남의 근대사 이야기에서 남상목, 윤치장, 이명하 의병장의 공훈기를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성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3.1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2002년 12월 성남 의병 연구의 맥을 짚어 성남 정신의 원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¹⁴⁶⁾ 성남문화원에서 발간한 『성남지역 의병조사연구』는 편집위원으로 백남옥, 천화숙, 전보삼, 서승갑 교수 등이 참여하고, 집필진으로는 전보삼, 김도형, 서승갑, 이승수 등이 담당하였다. 이 자료에는 1) 병자호란시 성남지역의 의병자료 연구, 2) 한말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3) 일제하 성남지역 항일 의병정신의 계승, 4) 성남 지역의 항일 의병항쟁과 독립운동이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의병전쟁에 관해서는 초기 의병이라 할 수 있는 단발령 이후 김하락 등에 의해 서울진공작전이 추진되었던 남한산성 의진에 대해서는 소상히 기술하였고, 후기 의병 전쟁에 대해서는 성남과 주변의 항쟁에 대한 전반적인 정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서 유인석 의병장 휘하에서 소모장으로 활동한 이명하 소모장의 행적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다른 의병장으로 최운서가 1910년 2월 22일에 광주군 포이리에서 경성의 필동 헌병분견대에 의해 피체되었다는 기사¹⁴⁷⁾가 언급되었다.

성남문화원이 2003년 9월 27일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제8회 학술회의에서는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 되었는데, 유준기(충신대 사회교육원장)의 기조강연 ‘한국 민족 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와, 박민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논문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과 서승갑(경원대)의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한상도(건국대)의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 민족운동’ 등 세 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발표에서 박민영의 ‘성남 지역의 의병항쟁’ 은 「동경조일신문」, 「한성신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자료를 다수 활용하는 등 고심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의진(義陣)의 활동 전말과 성남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의병전쟁의 개황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실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날 토론자로는 문수진(신구대), 김세민(하남시문화재전문위

146) 전보삼, 김도형, 서승갑, 이승수, 『城南 地域 義兵調査研究』, 성남문화원, 2002.

147) 전보삼, 김도형, 서승갑, 이승수, 『城南 地域 義兵調査研究』, 성남문화원, 2002. p.85

원)이 참가하였는데 문수진은 1)김광희(金光喜), 김광준(金光洵) 두 의병장들의 실체 파악, 2)의병의 근거지와 전투 유적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148) 김세민은 지방사 시대에 있어서 성남지역사로서의 의병항쟁에 대한 관심과 학술회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과, 제대로 된 의병항쟁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 발굴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일 개인의 학자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학술회의의 정례적 개최와 더불어 시나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먼저 사료의 수집, 발굴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성남지역 의병의 성격이나 특징을 추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149)

『성남시사』와 『하남시사』의 발간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시사』 편찬이 완료되어 이들을 함께 참조하면 경기도역 의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본고는 2007년에 본인이 쓴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150)에다 그동안의 몇 가지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2007년의 원고는 성남출신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본고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조망해 보았다.

Ⅲ. 한말 의병전쟁의 흐름

한말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시기 구분의 기준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한다. 의병전쟁사 연구의 초창기에는 의병의 단계구분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통용되어 왔고, 조동걸의 4단계 구분, 151) 김세규의 3시기 구분 등이 있는데, 김세규는 의병전쟁을 제1기(1895~1896), 제2기(1905~1907), 제3기(1907~1910)로 나누어 있다.

148) 문수진, ‘성남지역의병항쟁 약정토론문’,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 운동 양상』,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남문화원, 2003, p.39

149) 김세민, ‘성남지역의병항쟁 약정토론문’,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 운동 양상』,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남문화원, 2003, pp.41~42

150) 『성남문화연구』 제14호, 2007, 9

151)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
전기의병(1894~1896), 중기의병(1904~1907.7), 후기의병(1907.8~1909.10), 전환기의병(1909.11~1915)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제1기(1895~1896) 을미의병

가. 을미 의병의 전반적 상황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낭인(浪人)들이 경복궁 옥호루(玉壺樓)에서 명성황후를 소살(燒殺)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어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키고, 11월 10일에는 폐후(廢后)조칙(詔勅)을 내리고 11월 15일에는 단발령(斷髮令)을 반포하였다.

이에 '창의소고시(倡義所告示)'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극악무도함과 원수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고시문이 붙었다.¹⁵²⁾ 8월 30일에는 전 참판 이건창, 홍승헌, 정원하가 연명으로 '토역소(討逆疏)'를 올렸고, 최익현, 윤태홍, 이남규 등은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⁵³⁾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의 반포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런 기회를 틈타 친러파가 친일 김홍집 내각을 축출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소위 아관파천(俄館播遷)의 정변이 발생했다. 그리고 의병 활동을 중지하라는 선언(宣諭)과 함께 전국 각도의 병영과 수영을 모두 폐지하고 경무청(警務廳)과 시위대(侍衛隊)를 설치하였으며, 뒤이어 시위대를 훈련대(訓練隊)에 합했다가 음력 9월 13일 칙령에 의하여 국내의 육군병력을 친위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로 나누어 친위대는 서울에, 진위대는 지방에 두었다. 친위대는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3개 대대로 편성하고, 진위대는 2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평양과 전주에 편성하였다. 그 후 건양원년 3월에 친위대를 다시 제4, 제5의 2개 대대를 증설하여 연대병력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무청 주관 하에 순검(巡檢)을 각 관찰부에 배치하여 치안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¹⁵⁴⁾

을미의병은 10개월에 걸친 항쟁이었지만 그 의병이 종결되는 양상을 보면 남한산성과 진주성 그리고 홍주성의 경우처럼 내부 갈등에 의해 와해된 것이 있고, 유인석(柳麟錫), 김

152) 『독립운동사』 권1,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p.147

153) 황현, 『매천야록』, 권2, 고종 32년(1895, 을미)

154) 『문헌비고(文獻備考)』, 권100, 「병고(兵考)」 2, 및 「직관고」(職官考) 25, 경장(更張)관제(官制)

하락(金河洛), 민용호(閔龍鎬)의 진영처럼 끝내 항전하다 최후를 맞은 경우, 유인석 의진과 같이 만주로 망명한 경우와, 유인석 의진의 이강년(李康年), 정운경(鄭雲慶), 원용팔(元容八), 김태원(金泰元)처럼 힘의 한계에 부딪쳐 비밀리에 해산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잠적한 경우와 정부의 선유(宣諭)에 따라 자진 해산 하는 경우가 있었다.¹⁵⁵⁾

나. 남한산성 주변의 의병전쟁

한말 의병운동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연원이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기의 병¹⁵⁶⁾은 의병운동의 발단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전기의병은 활동유형에 따라 전투의병, 시위의병, 기회주의 의병¹⁵⁷⁾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전투의병이 특별히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기의병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지방유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투쟁방법은 강력한 무장 투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울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당시는 지평현 상동)에서 안승우, 이춘영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원주를 거쳐 제천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하며 전투를 벌여 일본군을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¹⁵⁸⁾ 일본 공사가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 116호에는 의병들의 봉기 상황을 설명하고는 “이와 같이 세월만 보내게 되면 국내에 반드시 대소란이 일어날 것이니 정말로 불안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¹⁵⁹⁾

광주에서는 심진원(沈鎭元 혹은 沈鎭澤) 의진을 비롯한 남한산성의 연합의진(聯合義陣)이 의병운동사상 최초로 서울진공작전을 계획, 실행 한 점,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전할 때까지 끝까지 항전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의지로 평가된다.

155)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5, pp.64~70

156)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

157)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1, p.19~20, 1986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편

158) 1896년 1월 27일 오후 4시 발, 小村공사가 일본 본국의 외무대신 西園寺에게 보낸 電文 45호에 “원주 폭도의 상황을 정찰하기 위해 당관에서 파견한 자의 보고에 의하면, 폭도는 지평에서 발단되었으며, 그 거두도 역시 지평의 이춘영이라 합니다. 춘영은 단발령에 격앙하여 군에 있는 포군 수백 명을 규합하여 원주로 나아가 관할부 청사와 군청을 습격하여 무기를 모두 약탈하였습니다. 폭도는 원주에서 3~4일 체류했다가 이 달 18일 그 일부는 평창을 지나 경상도로, 또 일부는 제천을 지나 경상도로 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 이춘영이 살던 곳은 현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이며, 묘소도 그곳에 있다. 양동면이 당시에는 지평현 상동으로 불렸기에 지평이라고 한 것이다.

159) 1896년 2월 22일 오후 10시 50분 발, 전문 제116호

남한산성 김하락 의진의 초기조직은 ‘이천 수창의소’였다. 이는 김하락(金河洛), 조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이천에서 결성되었다. 위의 인물들이 의진 결성에 착수했던 시기는 단발령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인 1895년 12월 31일이다. 이들은 활동지역을 이천으로 결정하고, 서울을 출발하여 1896년 1월 1일 이천에 도착했다. 이들이 기의(起義) 장소를 이천으로 결정한 것은 이천군(利川郡)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火砲軍 都領將 方春植)이란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춘식과의 인적관계는 이천에서 가까운 곤지암 부근에서 활동하던 구연영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연영은 능성구씨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서 도착면 일대의 집성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천의진 결성과정에서 방춘식은 김하락 등과 함께 포군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100명을 선발하였고, 김하락을 비롯한 5인은 역할을 나누어 의병모집에 착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구연영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양평) · 지평으로, 조성학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으로 떠났고, 김하락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 지휘의 역할을 맡았다.

단기간 내에 의병은 최소한 900명이 모집되었고, 광주산성(남한산성)안에 있던 별패진 포군(別牌陣砲軍) 300여명도 참가하였다. 단기간에 대규모 의진 결성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방춘식과 그 휘하의 포군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고,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이미 전국적으로 의병봉기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김하락 진중일기에 의하면 김하락 의진의 봉기 원인은, ‘(1) 을미개혁에 의한 국정의 문란과 일제의 내정간섭(정치적 침략) (2) 그로 인한 전통문화질서의 파괴 (3) 청일전쟁을 악용한 일제의 불법 무력 침략과 그 군사의 주둔 (4) 친일관리들의 무분별한 친일행태 (5) 일본군의 명성황후의 시해 (6) 단발령의 강행’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의병봉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이천수창의소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즉, 반일침략, 반친일관리의 이념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전통문화수호의 정치, 윤리이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하락 의진은 1896년 1월 17일 의진 결성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전투로서 일본군 수비대 보병 100여명이 이천으로 공격해 오자 백현(魄峴 : 광주-이천 사이에 있는 고개이름, 뉘고개)에 매복하고, 1월 18일 조성학이 전투를 하며 유인하였고, 백현에 이르자 구연영의 군사가 전면을 가로막고, 김귀성 · 신용희는 산 중턱으로부터 쏘살같이 내려

오고, 조성학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사방에서 공격하여 낮밤을 계속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후퇴해 가는 일본군을 광주 장항¹⁶⁰⁾ 장터에 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섬멸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이러한 승리의 쾌거는 이천 의진이 장거리에 걸쳐 최후까지 항전할 수 있는 정신력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전투였던 이천전투에서 패한 의진은 조직을 재정비하여 박주영을 대장으로 삼고 2월 28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이미 산성 안을 점령하고 있던 심진원의 의병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광주의진, 이천의진 외에 양근의진도 합세하고 있었다. 『동경조일신문』에는 당시의 남한산성 연합의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한산성 내의 적도(賊徒)는 약 1,600명이다. 그 중 1,000여명은 광주, 이천, 양근의 포군 즉 구지방병이고 그 나머지 600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는 광주의병장 沈英澤, 이천의병장 朴周英, 양근 의병장 李錫容 등 3명이다.”

이로써 남한산성에 집결한 연합의진은 1,600여명의 병력과 풍부한 군수물자를 갖추어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당황한 일본은 고종을 위협하여 의병을 토벌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종은 끝까지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일제는 거짓 서류를 꾸며 한국군 500여명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이어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결과 토벌군은 송파일대로 물러가고 의병진에서는 대포 1문을 노획 하는 등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어서 산발적인 두 세 차례의 전투도 승리했는데 다급해진 일본은 강화도의 지방병 300여명을 남한산성에 증파하여 불당골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친위 1중대는 성의 북문 향교리(현재 하남시)에 진을 치고, 同 1중대는 성의 남문 매착점(梅着店, 성남방면)에 진을 쳤으며, 서문(송파방면)을 향해서는 친위 1소대를 배치하고, 동북문 사이에도 同 1소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의병은 나날이 늘어갔으며 이에 3단계의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게 되니, 1단계는 먼저 수원지방의 의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과 춘천 · 분원 · 공주 · 청주 및 수원 의진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160) 광주 獐項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노루목

협공으로 격파하고, 마지막 3단계는 삼남지방 의병까지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한말의병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서울진공작전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서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1차 수원점령단계는 경기도 안성·평택·충청도 온양·장원·목천 의병이 참여했다. 2단계 계획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즉 일본군 수비대 本田 소위가 3월 17일자로 그들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춘천의병 1,200명이 양근에 도착했는데 그 중 200여명이 한강 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했다는 것이다.¹⁶¹⁾

……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 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征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捷報에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 162)

이처럼 남한산성 연합의진은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진이 함락됨으로써 서울진공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남한산성 의진이 함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차이가 있는데, 여러 설을 종합하면 함락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는 식량의 부족과 그로인한 의진 내부의 동요가 있었고, 둘째로 의병장들의 내부 분열이 있었다. 일본 측 기록은 박주영이 끝까지 서울진공작전을 주장하다가 처형되었다고 했는데 김하락의 『진중일기(陣中日記)』와 김태원의 『집의당유고』에는 박주영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동요가 있었던 가능성은 충분하다. 셋째 원인은 김귀성이 관군에 체포되어 남한산성의 취약지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었다.

161) 本田소위로부터의 「廣州賊情報告書 移牒의견」,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5권 p.16. 국사편찬위원회
162) 1896년 3월 18일 「제정성 일등공사 內田定槌의 보고」(公信 제78호) 1896년 3월 30일 접수(『한말 의병자료집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pp.26~27)

그러하여 관군이 3월 22일 새벽 2시에 총공격을 시작했고, 날이 밝을 때 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의병전에서 사마(士馬) 500여의 손실이 있었고, 의병토벌군에서도 300여명이 사망했다.¹⁶³⁾ 이로써 남한산성 연합의진은 무너졌으며 이곳에 주둔했던 의병들은 남문을 빠져 나와 양근 및 양지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양근에 모인 의병은 3월 19일 이래 의병 1천여 명이 모여 광주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쳐 약 2천명이 넘었다.¹⁶⁴⁾ 이후 이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전쟁을 계속 전개했으며, 안동 지방을 거쳐 경주출신의 이달문 등과 함께 경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1896년 6월 17일 경주성을 점령한 이래 병기와 양식을 차지하고 성내에서 농성하며 수비를 엄하게 했는데 이들의 창의대장은 김하락이었고 증군은 광주의 안시흥(安時興)이었다. 이들은 깃발에다 “국모복수(國母復讐)” 등의 문자를 크게 서서 성벽이나 성내의 나무에 걸고 크게 위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한 영월 총병 240~250명을 비롯하여 3~400명 혹은 5~600명으로 추산되는 의병이 있는 것은 물론 총공(銃工) 30명 정도가 소집되어 자주 무기의 제조에 종사하였다. 이 때 경상도 영덕과 청송 부근에서 봉기한 의병들도 경주의병과 호응하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¹⁶⁵⁾ 이로써 의병전에서는 스스로 무기를 제조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시기인 1896년 2월 5일 여주에서는 장날에 맞추어 수백 명이 모인 후 여주 및 그 부근 일대에서 일본인 전신감시소 측량수 일행을 습격하여 살상하였고, 연도번의 전신선을 절단하고, 여주 이남에서만 전주 60본 이상을 쓰러뜨렸다. 특히 이들은 진퇴와 출동과 멈춤이 점차 전법(戰法)에 맞고 그 세력이 맹렬하였을 뿐 아니라, 촌락의 주민들조차도 이들의 편에 가담하여 일본이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여주 뿐 아니라 이천 장호원간은 의병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장악되었고, 나아가 17일 경에는 충주 일대까지 진격하였다.¹⁶⁶⁾ 이후 여주와 충주일대의 의병은 일본군에 패한 후 다시 광주일대의 의병과 세력을 합하여 산성을 의지해서 항일전투를 펼쳤다.

163) 유한철, 「김하락 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64) 1896년 3월 28일 「재부산 일등 영사의 보고」(公 제69호), 1896년 4월 1일 접수

165) 1896년 6월 24일 재부산일등영사 秋月左都夫가 외무차관에게 보낸 「경상도 경주 폭도의 상황 보고의 건」(公제178호), (『한말의병자료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24)

166) 1896년 2월 10일 일등영사 가등증웅(加藤增雄)이 일본 외무차관에게 보낸 전문(公 제20호 및 23호, 제30호, 제35호, 제36호, 제40호)

한편 1월 21일 무렵 용인 부근 금산령(金山嶺)에서 일본인 2명을 처단하였고, 수원에서 4명을 처단하였다. 2월 6일에는 광주 분원에 있던 일본인 의사가 양평에 갔다가 살해되었고, 2월 24일 진위에서 일본인 1명이 살해되었는데 이천의병이라 칭하는 300여명이 진위를 습격하여 세무주사를 포박하고 금 5,90냥과 구식총 4정을 빼앗고는 마을을 수색하여 일본인을 찾아내 죽였다. 이들은 이천의병이라 칭했는데 용인, 양지 주변 사람들이었다.¹⁶⁷⁾ 이 무렵의 양평지역의병은 1,200명에 달했고 한강의 도선(渡船)까지 확보하여 광주로 진격하고자 하였다.¹⁶⁸⁾

2. 제2기(1905~1907)의병 전쟁

가. 전국 의병전쟁 전개 개황

을미의병이 해산한 후에도 이들 가운데 일부는 토비(土匪), 당도(黨盜), 화적(火賊), 활빈당(活貧黨)등으로 불리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매천야록』에는 조정에서 이들에 대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의논이 분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1896년 12월에 경기, 충청도 일대에 당도(黨盜)가 횡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들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1901년의 대흉년을 맞아 더욱 극심해져 갔으니 이와 같은 동정(動靜)은 농민운동사 또는 민중운동사의 측면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전후한 민란, 동학농민운동, 을미의병, 활빈당 등으로 굴절되면서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지만 의병운동의 측면에서는 을미의병 때의 민중이 의병의 조직성을 잃고 나타난 독자적 항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민중적 항쟁은 을사의병 때의 신돌석(申堧石) 의병 또는 속리산의 김운로(金雲老)의 의병으로 재조직 되면서 의병활동을 민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¹⁶⁹⁾

한편 일제는 을미의병이 해산된 이후에도 그들의 침략을 강화했으니, 1897년과 1898년

167) 1896년 3월 26일 재인천영사관 사무대리 추원수일(蔡原守一)이 외무차관에게 보낸 보고(公 報 제63호)

168) 1896년 3월 24일 서울 주재 內田 일등영사의 보고

169) 조동걸, 의병들의 항쟁, 민족운동총서 권1 pp.91~93

의 경인 · 경부철도 부설권 장악으로 이 나라의 교통, 산업 및 경제, 군사상의 대동맥을 완전 점령하고, 목포와 진남포, 성진, 군산, 마산포 등의 연안은 개항장 설치, 평양의 개시장(開市場) 신설 등으로 일본 상인이 대거 진출하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1900년에는 마침내 직산의 금광 점유를 비롯하여 각지의 금광과 철광, 해상 어업권 점유 및 전국적 확대를 자행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는 활빈당을 비롯한 반일 항쟁이 계속되어 내륙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 행상배(行商輩)와 거상배(居商輩)들을 배격하였고, 그들의 침략을 경고, 규탄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1904년 까지 국내 신문지상에 실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그들의 기세는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자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강력한 항일 무장투쟁이 시작되었으니 그 개황을 대한매일신문에서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¹⁷⁰⁾ 더구나 일본은 이등박문(伊藤博文)을 특명전권대사로 파견하여 11월 19일 각 대신을 위협하여 5개조의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勒結)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까지 간섭하게 되니 한국의 주권은 가사상태(假死狀態)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¹⁷¹⁾

나. 남한산성 주변의 동향

을사조약의 비보(悲報)에 장지연(張志淵)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문장을 통하여 주권침탈의 통분을 눈물로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민영환 · 조병세 · 홍만식 · 이상철 · 김학봉 · 이한웅 · 송병선 · 이명재 등은 죽음으로써 항쟁하였으며, 전 승지 이석중, 이건식 등은 상소 항쟁하다가 투옥되었으며, 단식으로 자살 하는 등 고관으로부터 한낱 이름 없는 차부(車夫)와 비첩(婢妾)들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목숨을 끊었고, 친일 매국노의 집에는 의로운 자객이 뒤따랐으며¹⁷²⁾ 도처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였다.

성남 지역과 인근 광주 지역에서 역시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킬 조짐이 있었다.

170) 대한매일신문, 1905년 9월 10일자

171)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전쟁」, 『경주사학』 제4집, 동국대 국사학회, 1985, pp.74~75

172) 이관영(李寬永)은 손병희의 큰 사위로서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

1907년 10월 30일 경찰관·수비대 약 20명이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독점(獨店)에 내습한 의병과 전투를 벌였고, 의병은 시체 1, 화승총 5정을 버리고 산중으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23일 오후 3시에는 경찰관 및 수비대의 연합대는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둔토리(屯土里)에서 약 20명의 의병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교전 약 20분에 의병 7명이 희생되고 총 5정을 빼앗기게 되었다.

남상목 의병장은 이 시기에 성남 지역의 울창한 수목을 벌채하여 군용으로 실어 가려는 일본의 수탈에 항거 하다가 일본 헌병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바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대왕면, 돌마면 등 현재의 성남지역과 광주군 연주면 등 현재의 서울지역, 그리고 용인등지에서 의병을 모아 거의(擧義)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⁷³⁾

또한 윤치장 의병장은 생애의 황혼기인 89세 되던 해에 지났은 88년간의 세월을 되새기면서 쓴 그의 자서전을 남겼는데, 비록 그 분량은 길지 않지만 그의 학력에 대한 기록 다음으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을사조약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울어 가는 국운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 의하여 이미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¹⁷⁴⁾

그리고 일찍부터 경기도 광주일대에서 의병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보인다. 1905년 6월에 광주지역에서 약 200 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부민(富民)들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고¹⁷⁵⁾ 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양력 6월 23일)에 의정부 참정 심상훈(沈相薰),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이 삼가 아뢰기를,

“경기관찰사 정주영(鄭周永)의 보고서를 보니, ‘지평 군수 이석호(李哲鎬)가 보고하기를, 「음력 5월 2일에 의병이라고 하는 총을 맨 군사 39명이 양근 등지로부터 본군의 북면에 와서 머리를 깎은 사람 1인을 쏘아 죽였고, 7일에는 갑자기 읍 안에 이르러 일진회원 8인을 붙잡아 쏘아 죽였는데, 그 정경이 매우 참혹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조사한 다음에 군부(軍部)에 조화를 보내어 군사를 파견하여 소멸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뒤이어 ‘양근 군수 이범석(李範奭)의 보고서에, 「음력 이달 7

173) 정철화, 허달,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등, 「통고문」

174) 윤치장 자서전, 서대문형무소 소장

175) 『황성신문』 1905년 6월 6일자

일에 광주부 지경에 사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패거리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지평(砥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에 당도하여 창의(倡義)를 내세워 일진회를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가 있는 곳을 포위하였는데, 회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 나가서 무수히 총을 쏘아 대니, 저자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군의 읍내면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白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 이경구(李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什物)을 깨부수고 돈과 재물 수만 금어치와 물건, 의복 등 많은 수량을 탈취해 가지고는 곧장 지평, 곡수(曲水) 등지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광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조사한 다음 체포하고 안무할 방도에 대해 별도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¹⁷⁶⁾ 하였습니다.¹⁷⁶⁾

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력 5월 7일에 광주부에 사는 구만서라는 사람이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양평군 일대에 진출하여 친일파 일진회를 소탕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가 있는 곳을 포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다만 구만서의 행적에 관해서는 양평지역에서의 의병활동 이후의 행적이 묘연하며, 그가 당시 광주지역 사람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거주하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략 추정하기에는 능성구씨가 세거하는 지역이 현재 광주시 경안면 직동(直洞)리, 실촌면 삼리와 실촌면 열미리, 하남시 감일동 지역 가운데 양평으로 접근이 쉬운 실촌면 부근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양평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그 시기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보도 외에 이후의 행적이 어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제3기(1907~1910)의병

가. 전국의병 개황

176) 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계사, 양력 6월 23일) 맑음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를 반대하는 결사적인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의 병합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4일 전문 7조로 된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 했으나, 이 조약에는 한국의 군사권, 재판권, 징세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뒤이어 7월 30일 군대해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되고 8월 1일 서울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지방 진위대의 해산도 이어졌으니 3일에는 개성과 청주, 4일에 대구, 5일에 안성, 6일에 공주, 해주, 평양 9월 3일에 북청 등 약 한 달 간에 걸쳐 군대해산을 끝냈다. 그러나 군대 해산에 반대하는 서울 시위대 박승환(朴昇煥) 참령의 자살로 야기된 항전은 200여명이 포로로 잡히고 무수한 사상자를 낸 끝에 비록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지만, 지방의 진위대에 큰 영향을 끼쳐 이들의 항전은 전국 의병의 봉기를 유발하게 하였으니, 이들 해산 군인들은 신식 훈련도 받았고 더구나 신식총기도 다수 갖추었고, 이들은 전술도 기묘해서 정예를 자랑하는 일본군도 상당한 고배를 면할 수 없었다. 1907년 8월부터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 의병항쟁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영역과 규모로 확대되었고 1908년에는 그 절정에 달하여 남쪽에서는 제주도로부터 북쪽은 간도(間島), 노령(露嶺), 연해주(沿海州)까지 의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는 1909년을 거쳐 1910년 까지 계속되었다.¹⁷⁷⁾

이 시기 의병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의병의 역량을 총결집 하여 고종의 밀지를 받은 이강년 등에 의하여 13도창의군이 편성되고 이들에 의해 서울진공작전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진공작전은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이 된 이인영은 전국에 격문을 보내 모든 국민은 의병의 기치아래 모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을 탈환하자고 역설하고 통감 이등박문에게 글을 보내 일본은 당초 세계에 공약한 대로 한국의 독립과 황실의 안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국 영사관에 오늘의 의병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혈전(血戰)하는 단체이니 충정을 이해하고 국제공법에 의거해서 교전단체로 승인하고 정의의 성원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¹⁷⁸⁾ 그리하여 11월에 양주에 명망있는 의병장과 1만여의 병력으로 전국을 24진으로 나누어 일제히 공격키로 하였으나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귀향하자 사기가 저하된 군사들이 각기 흩어져 소규모 부대로 유격전을 전개하

177)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1985, p.81

178) 기록, 헌병대비밀보고, 이인영 취조서

게되었다.

한편 일본은 1907년 8월 1일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9월 9일에는 총포화약취체법(銃砲火藥取締法)을 만들어 도검 및 총포 및 화약에 대하여 이를 압수했으며 그 결과 11월 말까지 도합 99,747정의 무기와 36,377근의 화약 및 탄약류가 압수 되었다.¹⁷⁹⁾

그리고 이에 앞서 남한산성에서는 1907년 8월 23일 일본군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참모총장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 제 13사단에서 이천방면으로 보낸 기병장교 척후가 8월 22일 오전 9시 10분 광주에 이르러 화약고 2곳과 무기고 4곳을 폭파시키는 일이 있었다.

제13 사단에서 이천(利川) 방면에 보낸 기병 장교 척후는 어제 21일 오전 9시 10분 광주(廣州)에 이르러 한국 화약고 2, 무기고 4를 발견하여 이를 폭발 혹은 소각하여 버렸음. 이 장교 척후는 이 날 오후 4시 30분 그 곳을 출발, 이천 방면으로 전진함¹⁸⁰⁾

김하락 의병진이 1896년 광주산성(남한산성)에 들어갔을 때, “대완기(大砲器)가 수십 자루, 불랑기(拂狼器)가 수십 자루, 천황포(天黃砲)·지자포(地字砲)도 역시 수십 자루, 천보총(千步銃)이 수백 자루였고, 그 나머지 조총도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탄약 철환이 산더미 같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 데다 진철 곳마져 견고함을 몹시 기

179)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1985, p. 85에 인용된

日本公使館紀錄, 廳秘 제7224호, 1907년 10월 5일, “병기, 탄약류 정리에 관한 군부대신 훈령”

①화약은 모두 소기(燒棄)하고 만약 태워 없앨 수 없을 시에는 물속에 투기하여 후일 건져서 건조시키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할 것

②탄환(완전한 탄피)은 전향에 준하여 처리할 것

③총포류는 병기로서 사용 못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변형 절단 등 적당한 방법을 집행할 것. 단, 미술품 또는 역사상 자료가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이를 군부에 송부할 것.

④弓, 矢, 刃, 槍類는 소기할 것.

⑤고대 갑주류는 군부에 송부할 것.

⑥변형 또는 소기한 금속 본질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게 매각할 것.

⑦郡衛에서 이전에 募置한 것으로써 砲臺에 사용한 병기도 역시 전향에 의해서 정리할 것.

180) 명치 40년(1907) 8월 23일 참모총장(참1발 제72호)앞으로 보낸 「한국 주차군사령관 보고」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발 전 23일 오전 3시 15분작(『한말의병자료4』,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p.53)

빠하였다.” 181)

이처럼 대량의 무기와 화약이 저장되어 있던 남한산성의 화약고는 군대 해산에 반발한 서울과 강화분견대가 봉기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고, 각지의 조선 군인들도 속속 의병에 투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1896년에 김하락 의병진이 유용하게 탄약을 활용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일본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일본군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작전으로 남한산성 내의 무기고를 폭파시켰던 것인데 이를 회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서 폭파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찰에 보관된 무기와 화약이 폭파될 때, 폭발음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한다.¹⁸²⁾ 일본군의 광주 화약고 폭파 보고문 속의 광주는 곧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이 사실은 이 지역 원로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나. 제3기 의병 전쟁과 광주지역 의병

제3기 의병전쟁은 이른바 헤이그 밀사사건과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 그리고 정미 7조약에 의한 군사, 경제 등의 권리가 침탈당한 데서 오는 저항이 발단이 되었는데, 이 중에 특징적인 것이 바로 군대의 해산과 이에 반발하는 군인들의 의병활동 참여라 하겠다. 이 시기에 성남 출신의 남상목과 윤치장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는 시기가 되는 바, 이들도 여타 지역의 의병과 마찬가지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상목 의병장은 구식총 40자루와 신식총 10여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윤치장 의병장도 광주 목동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고 총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남상목 의병장 휘하에서 좌익 군장으로 활동한 김재선은 시위대의 퇴역병 출신으로서 군사적 훈련을 받았기에 군사 작전에 관한 지식을 의병 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의 수탈은 극에 달하여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된 후에는 일제(日帝)의 농촌 수탈이 관권적 조직에 의하여 철도 부지의 약탈이나 역토(驛土), 둔토(屯土) 및 그 외 왕실의 토지를 국유지 또는 토지 정리의 명분으로 점탈하고 그 토지를 일본인에게 불하하

181) 김하락 진중일기, 1896년 1월 30일

182) 강진갑, 「영육을 함께한 마을의 역사」,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9

여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를 설립하는 등 몇 겹으로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었기에 농민들은 일제침략(日帝侵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1907년 7월 28일 서울 부근은 평온했지만 양지군 죽산 부근에 의병 약 1천여 명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¹⁸³⁾ 그 해 8월 24~25일에는 양평군 장수동, 연안막, 상원사, 용문사, 용문동, 마동, 운현 등 용문산 남쪽 일대와 광탄일대에 의병들이 집결해 있었는데 일본군 보병 52연대 제9중대의 공격을 받아 의병 50여명이 전사하였고 용문사 부근에 쌓아두었던 식량은 불살라졌다. 8월 31일에는 이천 남쪽에서 400여명의 의병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는데 지휘관 1명이 전사하여 설봉산을 지나 남쪽으로 후퇴하였다.¹⁸⁴⁾ 9월 18일에는 광주 북쪽 약 10리 지점에서 일본군 특무조장과 줄병 3명에게 사격을 가해 줄병 1명이 부상을 입게 하였다.¹⁸⁵⁾ 9월 17일 오전 1시에는 400여명의 의병이 분원동 남쪽 고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대포를 쏘면서 교전을 하였고 2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9월 21일에는 용인 양지의 동남쪽 약 30리 지점인 백암에서 100여명의 의병이 일본군을 교란시켰다. 다시 22일 양지 서남쪽 15리 지점인 굴암에서 200여명의 의병이 15명의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항전하였다. 10월 2일에는 오후 8시경 안성 부근에서 400여명이 3시간여에 걸쳐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0월 26일에는 광주 동쪽의 관음방 부근에서 200여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10월 26일과 27일 양평에서도 사나사 주병에서 일본군과의 교전이 있었다. 10월 30일에는 죽산에서 200여명이 교전했으나 22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12월 27일 가평 북쪽 약 30리 지점에서 200여명의 의병들이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81명이 죽고 약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1908년 1월 8일에는 경안역 부근에서 20여명의 의병 가운데 10여명이 전사하였다. 곤지암 일대는 이미 을미의병 때부터 이천 지역 의병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의병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1911년 5월 31일에는 곤지암 부근에서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 때 곤지암 의병은 7명이라는 소수 인원이었지만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고 이 중 1명은 체포되고 말았다.

위에 열거한 교전 기록들은 수많은 교전 기록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수많은 의병장들이 체포되거나 전사하였다. 지금까지 용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임옥여(任玉

183) 1907년 7월 28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參1發 제11호)

184) 1907년 8월 31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참1발 제89호)

185) 1907년 9월 19일 한국주차군사령관보고(참1발 제130호)

汝) 의병장은 광주 도척면 궁평리 출신인데 용인 양지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남상목의병장은 송병준의 밀고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옥중 순국하였고, 윤치장의병장은 미아리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후일 감형되어 15년의 징역을 살았고, 구연영 의병장과 그 아들 구정서 전도사는 부자가 같은 날 이천경찰서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4.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

의병들은 일정하게 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하면서 일본군과 싸웠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 동부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이춘삼(李春三) 의병장은 윤치장 의병장과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윤치장 의병장이 일본군에 체포되면서 의병의 지휘권을 넘겨받아(『매천야록』 516쪽) 활동한 인물이다. 다음의 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익삼(李益三)이라는 의병장이 있는 데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활동 지역이 과천, 용인 등지였고 광주에서 체포되었다. 김광준, 김광희 형제와 같이 이익삼도 이춘삼 의병장과 형제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6義士傳』에 심덕재라는 의병장의 이름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이규철(李揆哲)은 1916년 간도성 용정에서 무장독립단체인 동맹결사대를 조직 활동하다 1919년 8월 용정에서 日憲에 체포되어 강제추방, 입국하고 1920년 함북 경성에서 국권회복단지대를 조직하고 임정과 연락 연통계에 가담 활동 중 日憲에 체포되어 1920년 8월 15일 청진지법에서 4년 형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2년 7월 18일 옥사 순국하였다. 남공필(南公弼)은 1907년 11월부터 1908년 2월까지 경기 일대에서 윤모 의병진에 속하여 일본 순사대와 교전하고 군자금 및 군량을 조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유형 5년을 받았다. 배천봉(裵千奉)은 1907년 9월부터 1908년 9월까지 양주, 광주, 용인 일대에서 김병길(金炳吉) 의병진 및 그의 선봉인 서정호(徐正鎬) 의병진에 가담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일본 헌병과 교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어 유형 3년을 받았다. 강복선(姜卜先)은 1908년 음력 4월 초순경, 이익삼(李益三)의 부하로서 동월 11일경 '의병을 위하여 군수

전 5천 냥을 내놓으라' 는 취지의 고시문을 경기도 광주군 궁내동(宮內洞)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이 동리 사람에게 전달. 한남창의소(漢南倡義所) 명의로 된 '고시궁내리(告示宮內里)' 라는 제목의 문서는 압류당하였다. 유형 7년을 받았다. 김광희 광준 형제는 부하 800명을 이끌고 1909년 음력 3월에 광주로 들어옴(『매천야록』 491쪽). 정철화는 여주에서 방인관의 부대에서 서기가 되었다가 죽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전봉규의 휘하로 들어가서 의병전쟁에 참여하였고 유형15년을 선고받음

IV. 맺음말 - 의병전쟁 기념사업에 대한 제언

국운이 기울어 가던 한말, 그러한 위기의 시기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들고 일어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이 나라를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 나라 전란사에서 의병은 국가의 명운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한말 의병은 36년간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투쟁의 뿌리가 되었다. 한말 의병전쟁이 처음 전개되는 시기에 남한산성은 서울진공작전의 거점이 되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었고,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였다. 신라 문무왕 때에 석성으로 쌓았고, 고려시대에는 몽고군과 홍건적의 난을 광주 백성들이 물리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가 의승군을 이끌고 이곳에 주둔한 바 있으며, 인조 임금 때에 병자호란을 이곳에서 치렀다. 남한산성 자체로서는 함락당할바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인조 때 8도의 승군들이 성벽을 쌓아 호국불교의 성지가 되었고, 천주교 박해의 시대에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낸 300여명 순교의 성지가 되었다. 세계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 되는 무렵 박영효에 의해 3천여 명 규모의 사관학교 설립이 구상되었고, 나라가 빼앗기에 뒀에 이르러서는 의병들의 총 집결지로서 서울 진공작전의 거점이 되었다. 1919년의 만세운동과 그 이후 신간회 활동을 비롯한 애국계몽활동으로 이어지는 민족혼의 상징적 문화유산이다. 이곳에는 백제시조 온조왕의 사당과 삼학사를 비롯한 척화와 대신들의 사당인 현절사가 있지만 남한산성의 의로운 역사를 모두 한데 모으는 기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

1. 이제 선열들의 사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대 연구자들이 겪어 온 바와 같이 자료의 빈곤에 대해서는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라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연구플랜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통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한 다음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이 최근에 별도의 사업단이 꾸려져 매우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문화관광사업단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포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고고학적 발굴에 못지않게 문헌기록의 조사와 연구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조직을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2. 남한산성에 평화기념관을 건립을 제안한다. 남한산성이 쌓아지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이다. 그것은 삼국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한 것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통한 평화의 추구였고, 만세를 외쳤던 것도 평화가 최종 목표였다. 하다못해 현대 사회에 와서 주말에 여가 삼아 올라오는 산이 되었지만, 그저 산만이 아닌 문화유적지로서 그 속에 품고 있는 사연을 통해서 남한산성은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학사와 김상헌 등 척화신들과 최명길 등 주화파의 주장은 방법론상으로 엇갈리지만 지향하는 곳은 평화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 평화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1월 20일 용인향일운동기념사업회에서 법인설립 발기인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학술회의 기조발제에서는 의미있는 제안이 있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김호일 관장은 기조발표에서 독립운동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민족정기 선양시설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 묘소, 기념관, 형무소, 전적지, 조형물, 동상, 비석, 탐, 공원을 합쳐 1,273곳에 이르고 있지만 이거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의병전쟁의 전체 모습을 조감해 볼수 있는 기념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의병의 상징성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는 의병기념관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김관장은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 독립이나 전쟁의 명칭보다는 <평화>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1931년부터 15년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평화박물관>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008년 제6회 세계 평화뮤지엄회의를 개최한 일본 교토 릿츠메이칸 대학 국제 평화 뮤지엄은 일개 사립대학이 1992년에 대학 캠퍼스 내에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뜻에서 평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¹⁸⁶⁾ 우리나라에는 안성, 화성, 여주, 제천, 안동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국의 상징 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안에 우리나라 의병전쟁 전모를 살펴 볼 수 있는 평화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186) 김호일, 「용인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방안」,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법인설립 발기인대회 및 독립운동가 선양학술회의, 2010년 11월 20일, 용인항일운동기념사업회

삼국사기에 의한 高句麗史의 研究

김택기 (동두천 향토문화연구소장)

目次

I. 서론

II. 고구려(高句麗)의 건국(建國)

1. 삼국사기에 의한 건국설
2. 통전편(通典篇)
3. 양서편(梁書篇)

III. 고구려의 혈통(血統)

IV. 구려국과 고리국

V. 고구려의 활동

1. 주몽의 도읍지
2. 주몽 때 지배강역
3. 전성기의 강력과 조공을 받는 나라로

VI. 고구려의 대전

1. 제 1 대전
2. 제 2 대전
3. 제 3 대전
4. 제 4 대전

VII. 결론

집필자 : 김택기

전 동두천 시의회 의장, 동두천 지방행정사 편저,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 현 동두천 향토문화연구소장

I. 서론

오늘날 국제정세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접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창틀에 낀 것처럼 복잡하고 괴로운 때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중 간에는 고구려 문제로 인하여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고로 한,중 국제간에 논쟁의 불씨가 언제 어느 때 비화될줄 모르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中國(중국)에서는 고구려가 변방국가라 하여 한국의 역사를 비하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백제, 신라, 고려까지도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의 역사는 말살될 위기에 다다를 지도 모른다. 그리고 청(靑)나라 건륭(乾隆)은 1736년부터 60명의 학자를 동원하여 40년간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하여 변방에 있는 나라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륙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속국인 것처럼 모조리 고쳐 놓고 있었다. 한 마디로 엉망으로 기록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유리한 부분은 반대로 기술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으로 부터 수년전에 역사적업을 통해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미명(美名)아래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 1962년 이후 박정희 정권 때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호상씨(安浩相)가 한글 전용법을 국회에 통과 시킨 후 지금까지 한글만 사용해 왔다. 그것은 일제 식민주의자였던 역사학자 이병도(李秉燾) 일파에 의하여 역사조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05년부터 을사 강제조약 이후 1910년까지 일제는 한 민족의 역사왜곡을 시작했다. 1927년 조선사학회가 만들어 진 후 대전시 금잠면 사람인 이병연(李秉延)이 1929년 저작한 조선환여승람(朝鮮輿勝覽)이란 책을 철저히 날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38년 조선사편수회 사업개요를 통해 조선 총독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조작하기에 이른다.

이때 위원장급 회장은 유길충일(有吉忠一), 하강충치(下岡忠治), 탕천창평(湯淺倉平), 지상사랑(地上四廊), 아옥수웅(兒玉秀雄), 금정전청덕(金井田淸德), 대야록일랑(大野綠一郎)들이었다.

이 당시 고문으로는 이완용(李完用), 박영효(朴泳孝), 권중현(權重顯), 복부우지길(服部宇之吉), 흑판승미(黑板勝美),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郎), 산전삼양(山田三良), 이윤용(李允用), 속수황(速水滉)등이다. 이들은 조선사 편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단행했다.

첫째, 사료를 강제로라도 빼앗거나 수집한다.

둘째, 복사본을 작성한 후 조작한다.

셋째, 교정본을 작성할 때 왜곡시킨다.

넷째, 왜곡된 원고를 인쇄한다.

다섯째, 심의를 거쳐 다시 교정한다.

여섯째, 편찬사업을 분담한다.

일곱째, 날조 조작된 원고를 완성시킨다.

대략 이와 같은 순으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사료를 수탈, 약탈, 수집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조선반도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시킨다. 한편 조선사편찬 위원회에서는 그 후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 한 후 철저하게 한 민족의 역사를 날조하게 된다. 이때 아주 중요 한 사료는 일본으로 빼돌리고 증거가 될 만한 사료는 남산에서 약 20만권 이상 불태워버렸다.

한민족사를 날조 조작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학자는 이병연(李秉堧), 이병도(李秉燾)이며, 일본인은 금서룡(今西龍)이다. 일본인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인들을 식민화하기 위해 철저한 반도사관을 만들어 내선(內鮮) 일체(一體)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역사를 왜곡하여 한국인들을 비하시켜 지배하고자 칼을 댄 것이 일본인들의 만행이었다.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한민족의 역사를 맹강 잘라버려 살아 숨쉬는 한국인을 두 번 다시 죽임으로서 노예화하려 한 것이다.

1905년부터 빼앗긴 나라는 40년 만에 되찾았지만 역사는 100년 동안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엮힌 데 댔친 격으로 중국에서는 고구려사 마저 중국의 변방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삼한(三韓) 그리고 백제, 신라, 고려까지 일 만년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그러다 고대(古代)로 부터 정사로 엮어진 이십오사(二十五史), 책부원구(冊府元龜), 자치통감(資治通鑑), 태평어람(太平御覽), 고사기(古事記), 고사변(古事辨), 통전(通典), 통지(通志), 수경주소(水經注疏) 그 외 수많은 사서들이 대륙에 있었던 고구려의 강역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근대 사학자들이 저서한 수많은 책자를 통해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기자조선, 삼한과 백제, 신라 등이 중원대륙에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중간의 역사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민족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 고로 한국은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아직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이다.

일정(日政)대 일본사람들과 청(淸)나라는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날조까지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역시 그러하다. 주변 나라들이 그러하고 있거늘 한국은 정녕 모른 채하고 있으니 딱한 실정이다.

II. 고구려(高句麗)의 건국(建國)

1. 삼국사기에 의한 건국설

고구려의 건국설은 대략 3가지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권에 보면 부여왕(扶餘王) 해부루(解夫婁)는 늙어서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대를 잇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어느 날 말을 타고 부여왕이 산천인 연못에 이르렀을 때 큰 돌을 보는 순간 그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하를 시켜 돌을 굴러 보았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금색, 개구리 형상으로 있어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하늘이 내려준 씨앗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두어 길렀는데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와 해부루가 죽자 금와는 왕위에 올랐으며 그 후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이름을 동부

여(東扶餘)하고 했다고 적고 있다.

금와가 왕위에 오른 후 일곱 아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태백산 남쪽 발수(浮水)에서 하백녀(河伯女)인 유화(柳花)를 유인하여 압록변에 있는 사택(私宅)에 가두어 놓고 유화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당시 유화는 동생과 함께 놀러 나왔다가 자칭 천제의 자인 해모수(解慕漱)에 의해 강금당한후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알이 어찌나 컸던지 닻(五升<오승>)되나 되었다고 했다. 본문에서 인이유잉생일란 대여오승허(因而有孕生一卵 大如五升許)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알이 아니라 서자(庶子)를 알로 비유한 문장이다.

서자가 태어나자 금와왕은 개, 돼지가 있는 곳에 아이를 버렸으나 먹지 아니했다.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해갔다.

그 후 들에 버렸으나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덮었다.

왕은 화가 나 알(서자)을 깨 버리려 했으나 깨지지 아니했다. 즉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는 수 없이 유화인 어머니가 강보에 싸서 집으로 데리고 와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껍질을 깨고, 남자아이가 나왔다고 되어있다.

본문에서 棄之與犬豕(기지어견시) 皆不食(개불식), 又棄之路中(우기지로중), 牛馬避之(우마피지), 後棄之野(후기지야), 鳥覆翼之(조복익지), 王欲剖之(왕욕부지), 不能破(불능파), 遂還其母(수환기모), 其母以物裹之(기모이물이지), 置於暖處(치어난치), 有一男兒(유일남아), 破殼而出(파각이출)이라고 하는 것은 서자를 왕이 죽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으나 죽지 아니했다는 것을 뜻하는 문장이다. 주몽(朱蒙)이 일곱 살이 되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니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담에 따르면 명사수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는 해부루왕이 죽은 후 왕위에 오르자 국호를 동부여(東扶餘)라 하고 도읍지를 옮겼다. 그 후 금와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언제나 주몽은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 기능이 매우 우수하여 그 누구도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금와인 부여왕의 큰아들 대소(帶素)가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고 했다. 주몽의 사람됨이 너무나 용맹해서 일찍 손을 쓰지 아니하면 후환이 두려우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청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아니했다. 신하를 시켜 말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주몽이 워낙 뛰어남을 알고 아주 여윈 말을 기르도록 했다. 하지만 주몽은 여윈 말을 살찐 말로

잘 길렀다. 왕이 살찐 말을 직접 타 보고는 아직도 말이 여윌었다고 주몽에게 말 하였다. 하지만 주몽은 살찐 말을 타고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주몽은 명사수가 되었다.

여윌 말을 살찌운 뒤 주몽이 들에서 사냥하는 무예를 닦은 결과 적은 화살로 많은 짐승을 잡았다.

그 당시 왕자와 여러 신하들은 주몽을 죽일 것을 모의했다.

이때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가 이러한 사실을 엄밀히 탐지하고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너(주몽)를 죽이려 하니 너는 재주껏 어디든지 가도록 당부하였다. 만약 지체하게 되면 엄청난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려면 적당히 먼 곳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부(陜父) 등 세사람의 친구와 함께 이른 곳인 염사수(淹水)였다. 염사수는 일명 개사수(蓋斯水)라 했으며, 압록의 동북에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개사수는 개마대산(蓋馬大山)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므로 현도군(玄道郡)에 속해 있다.

현도군은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동옥저(東沃沮)편에 고구려가 있던 곳은 개마대산의 동쪽이라 했다. 이곳은 개마현(蓋馬縣)의 이름이며 현도군(玄道郡)에 속해있고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평양성(平壤城) 서쪽으로, 평양은 요(堯)왕검이 있던 왕검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주몽이 달아난 곳은 염사수라 했으므로 지금의 섬서성 서안 동쪽에 있는 동관(潼關)주위에 있는 위하(渭河)의 동쪽 하남성 서쪽 편인 뜻하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128쪽 개마대산의 기록을 보면 동옥저와 고구려가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있다.

주몽이 오이, 마리, 협부 등 세친구와 함께 염사수에 이르렀다고 했으므로 섬서성 서안의 동쪽으로 황하의 지류(支流)인 위하(渭河) 즉 위수(渭水)에 다다른것으로 보인다.

주몽 일행은 염사수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없어 건널수 없었다. 뒤에서는 부여병이 쫓아오고 앞은 강물에 막혀 건널수 없게 되었다. 다급한 나머지 주몽은 큰 소리로 나는 천자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으로 도망오는 것이라고 외쳤다. 뒤에서 쫓아오는 자가 오면 큰일이라고 했을 때 강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놓아 주었다.

여기서 물고기와 자라는 실제 물고기와 자라가 아니라 강 건너에서 천자의 외손으로 금

일 도망 온다는 소리를 들은 하백(河伯)의 후예들이 해엄처 구출하러 왔던 것이다.

고대사회의 언어는 해학적이며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면서 풍자적인 언어였기에 강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주어 건너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문장이다.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게 되자 물고기와 자라는 흠뻑 젖었다고 했다. 뒤 따라 오던 부여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모둔곡(毛屯谷)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서(魏書)에 의하면 모둔곡 있는 곳은 보솔수(普述水)라고 되어있다.

본문에서 모둔곡이라 했으므로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찾아 보았다. 毛(모)라는 나라가 있던곳은 하남성 의양현이었다. 이곳에는 모하(毛河)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남성 낙양시 바로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연히 세 사람은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마의(麻衣) 즉 삼베옷을 입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누더기처럼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주몽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며 성씨는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 이름이 없었던지 주몽은 이름과 성을 말해 주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을 재사(再思)라고 했고, 너덕너덕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무골(武骨)이라 했으며,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묵거(默居)라고 했다.

또한 성(姓)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은 재사의 성을 극씨(克氏)라 했고, 무골의 성을 중실씨(仲室氏)라 했으며 묵거는 소실씨(少室氏)라고 성씨를 하사했다.

이내 다시 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로부터 빛나는 명을 이어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터전을 닦는데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연한 때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각자 능력을 헤아리고 각각 일의 임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주몽과 함께 일행이 되어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렀다.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졸본천은 흘승골성(紇升骨城)이라 했다. 여기서 졸본천은 흘승골성이라 했으며 흘승골성은 현도군(玄道郡)에 속한다고 통전(通典) 고구려편에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는 본래 부여에서 나왔으며 평양성(지금의 서안)에서 다스렸다고 되어 있다.

졸본천에 있는 흘승골성은 보기에도 토질이 비옥하고 경관이 좋았으나 한편 산과 강으로

되어있지만 산세가 험하다고 되어있다. 드디어 이곳에 도읍지를 정하기로 하고 궁실을 지었다. 비류수(沸流水)가 흐르는 위쪽으로 농막 같은 풀집을 지어 살기로 했다.

본문에서 비류수가 흐르는 곳이라 했으므로 중국고금지명대사전 519쪽을 찾아보았다. 비류수는 환도성이 있는 환도산 아래 비류수가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환도성을 찾아보았다. 지명사전 51쪽에 환도는 고구려의 옛 도읍지라고 적고 있다. 통전에 의하면 성이 있는 곳은 환도산(丸都山) 아래 비류수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한서(後漢書) 동옥저 편에 고구려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으며, 개마현의 이름은 현도군에 속한다고 적고 있다.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평양성 서쪽이며 평양은 왕검성이라고 했으므로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주몽이 달아난 곳은 엄사수(淹沙水)였으며 엄사수를 건너 모둔곡까지 이르렀고 다시 찾아간 곳은 졸본천이 있는 흘승골성이었다. 흘승골성이 있는 곳은 비류수가 있는 곳으로 개마대산의 동쪽이라 했다.

개마대산에는 평양성이 있으며 평양성은 요왕검(堯王儉) 즉 요임금이 살던 왕검성이다. BC 2357년부터 요왕검이 살던 왕검성은 고구려가 도읍하면서 평양성이라 했으며, 고구려 24대 양원왕 8년에는 평양성을 개축하면서 장안성(長安成)이라고 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주몽은 국호를 구려(句麗)라 했으며 그로인해 고위씨(高爲氏) 즉 고씨(高氏)의 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주몽의 그때 나이는 22세라고 했으며 본래 부여왕은 아들이 없어 주몽의 사람됨이 비상하므로 부여왕이 죽은 후 주몽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일권 시조편은 주몽의 고구려 건국설을 기록하고 있다.

2. 통전편(通典篇)

통전 고구려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구려는 후한의 조공을 받은 바에 의하면 본래 부여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 선조는 주

몽이며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녀로서 부여왕의 처라고 되어있다. 어느 날 햇빛이 들더니 드디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주몽이라 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위일소조(僞日所照), 유유잉이생(遂有孕而生), 급장명왈주몽(及長名曰朱蒙)이라고 되어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은 부여왕을 본 후 잡자리를 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임신 후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속언에 따르면 주몽은 명사수로서 활을 잘 쏘았으므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 그때 부여왕은 주몽을 버리기로 했다. 주몽은 동남쪽으로 달아나 보슬수(普通水)에 다다르고 흡승골성에 이르러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 이름을 구려라하고 고위씨(高爲氏)라 姓(성)을 갖게 되었다. 한무제(漢武帝 BC 140~135년)가 조선을 멸한 후 고구려라는 고을(군)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현도군이라 했다. 이곳은 동진(東晉 AD 317~420년) 이후 고구려왕이 살던 곳은 평양성이라고 되어있다. 즉, 한나라 때의 낙랑군(樂浪郡)이었으며 왕검성(王儉城)이라고 했다.

위(魏)나라 정시(正始 AD 240~249년)때 부터 진(晉)강제건원(AD 343~344년)에 이르러 모용황(慕容皝)은 환도성을 침공하므로 인해, 나라 안에 있는 성으로 도읍지를 옮긴 곳이 장안성(長安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면 주몽은 처음부터 고구려란 나라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처음 도읍을 할 때 구려(句麗)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전 본문에서 구루(溝婁)는 구려이며 이름은 城이라 되어있다. 구루는 도량을 말하며 구려가 하천의 주변에서 제후국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당시 왕망(王莽)은 구려병을 동원하여 흉노를 벌했다고 한다. 왕망은 아무 욕심 없이 흉노를 물리치고 구려를 지키려고 나아갔다고 되어있다. 그 때의 사회는 어지러워 모든 나라들이 망할 즈음에 이르자 도적떼들이 창궐했으므로 왕망은 구려병을 일으켜 한(漢)나라를 격파한 수 고구려라고 이름을 고치고 천하에 반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밑에는 제후국으로 구려를 두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통전(通典)의 본문을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것이 아니라 왕망(王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주몽과 왕망은 어떤 관계이며 고구려의 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문 제일장 고양씨(高陽氏)와 고신씨(高辛氏)편에서 고구려의 뿌리를 밝히기로 하

졌다.

주몽(朱蒙)의 이름을 보면 추모(鄒牟)라고 했고 또한 중해(衆解)하고도 했다. 한편 왕의 호(號)로는 동명성왕(東明聖王), 그리고 추모왕(鄒牟王)이라고 했다. 주몽은 22세 때 비류수(沸流水) 위쪽에 터전을 잡고 고구려라고 한 후 18년 뒤 40세에 승하(昇遐)했는데 용산에 장사지낸 후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 했다고 삼국사기에 적고있다.

통전과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의 건국이 엇갈리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고구려라 했다면 통전과 후한서 구려전에서는 왕망이 고구려라고 천하에 이름을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다.

고구려는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AD 25~56년) 8년에 파견사를 조공으로 바쳤다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왕호(王號)를 받아 제왕(帝王)으로 불리었다고 통전에는 적고 있다.

고구려국은 주로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千里)나 되었다. 이때 남쪽으로는 조선이며 예맥과 동으로는 옥저가 있었고 북으로는 부여가 인접해 있었다. 고구려의 강역으로는 사방 2천리이며 많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었고 들은 별로 없고 연못과 산과 골짜기 같은 곳에 살았다. 농사로는 작은 밭을 힘으로 일구고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자산을 갖고 살았다. 풍속으로는 절기마다 음식을 해먹고 좋은 궁실을 수리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부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통전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는 현도군에 속해있는 흘승골성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도군은 지금의 서안(西安) 일대이며 한나라 무제(BC 140~135년)가 조선을 멸 할때 고구려 현을 두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고구려현은 한나라 무제때 있었으므로 그 보다 훨씬 100년 전에는 구려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와 다른 사서들은 고구려 건국을 BC 37년으로 보고 있으나 고구려 28대 보장왕(AD 634~668년) 27년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금구백년(今九百年)으로서 고씨자 한유국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금구백년 이라 하는 것은 고구려가 900년간 이어왔음을 말한다.

앞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 무제(BC 140~135년)때 이미 고구려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건국시기는 BC 37에서 195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BC 232년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건국년대는 구려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설은 삼국사기에서 위서를 인용한 흘승골성과 통전을 이용한 흘승골성 그리고 북사에서 인용한 흘승골성 등은 같은 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삼국사기에서 졸본천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궁실을 지은 곳은 비류수가 흐르는 위 땅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되어있다.

앞에서 말한 졸본천과 흘승골성 그리고 비류수의 지역은 모두 현도군에 속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몽은 처음부터 구려를 건국할 당시 지금의 서안 동쪽인 개마대산의 동쪽인 현도군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한서 동옥저 편에는 분명히 고구려가 개마대산의 동쪽인 개마현이며 이곳은 현도군에 속해 있고 평양성 서쪽이라고 적고 있다. 평양은 고대 요임금이 살았던 왕검성이라 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서 주몽은 통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도군에 속하는 흘승골성에 도읍지를 정한 후 건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양서편(梁書篇)

고구려의 선조는 동명이며 동명은 본래 북쪽 고리국의 왕자라고 했다. 고리국 왕이 출행한 후 고리국 왕의 시녀는 후에 임신을 하였다. 본문을 보면 고구려자(高句麗者), 기선출자 동명(其先出自東明), 동명본북이고리왕지자(東明本北夷高麗王者), 이왕출행(離王出行), 기시아어후임신(其侍兒於後任娠)이라고 적고있다.

본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명은 본래 북이었던 고리국의 왕자라고 되어있다.

자치통감(資治通鑑) 201권 당기 17권 1938쪽 당 고종때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고려백제하북지민(高麗百濟河北之民)이라고 되어있다. 즉 고구려와 백제는 하북성 백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선조가 있던 고리국은 어디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305쪽에는 한(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韓)이란 한국(韓國)이며 고리국의 후손이므로 한(韓)의 기록을 보면 고리국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韓)은 옛 나라 이름이다. 이곳은 지금의 하북성 고안현 동남이며 한(韓)나라때 삼한

(三韓)의 땅이라고 되어 있다.

한(韓)나라는 본래 진당숙우(晉唐叔虞)와 형제간이다. 즉 대부한만(大夫韓萬)은 주(周, BC 1134~1116년) 무왕의 큰 아들이며 진당숙우는 셋째아들이다.

주무왕(周武王)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인 성왕(成王)이다. 큰 아들 대부한만과 진당숙우는 각각 지방의 제후왕으로 있다가 주나라 위열왕(BC 425~402년) 23년에 진(晉)나라에서 분리된 한(韓)나라, 위(魏)나라, 조(趙)나라가 갈라져 나온 것이 삼한(三韓)이다. 삼한(三韓)이 떨어져 나오기 이전의 한(韓)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북성 고안현 동남에 있었다. 다시 말해 한(韓)나라의 조상은 고리국으로 구려와 부여국은 바로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후예이다.

양서(梁書)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국 왕의 아들이 동명(東明)이라면 주몽과는 년대 차이가 약 195년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AD 634~668년) 27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900년의 역사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부여에서 195년 후에 주몽이 하백녀인 유화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몽의 건국시기는 BC 37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한서 부여전에도 고리국의 왕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여의 왕자가 주몽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서, 수서, 주서, 북사에서는 본래 고구려는 부여로 부터 나왔다고 되어있다. 즉 고구려의 선조는 부여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구당서에는 고구려가 생기게 된 것은 부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양서(梁書) 본문을 해설해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선조는 동명으로 부터 나왔다. 동명은 본래 북이 즉 북쪽의 동이의 고리국의 왕자이다. 고리국왕이 출타한 후 그 시녀가 후에 임신을 하였다. 고리왕이 돌아와 죽이려고 했다. 시녀가 말하기를 전에 천상의 기운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큰 닭 같은 자식이 나에게 내려왔다. 그로인해 임신을 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고리왕은 듣지 않고 가두어 버렸다. 여기서 큰 닭이란 여자를 뜻한다. 즉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다.

그 후 아들을 낳았다. 왕은 그 아들을 돼지우리에 두게 했으나 돼지는 입으로 기(氣)를

불기만 하고 죽이지 아니했다. 고리왕은 이상히 여겨 신이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내 그 소식을 듣고 거두어 길렀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면서 명사수가 되었다. 왕은 용맹스러움에 두려워 다시 죽이려 했다.

그때 동명은 달이나 납죽인 엄체수에 이르렀다. 군사들이 뒤쫓아와 활을 쏘았으나 물에 떨어졌다. 물고기가, 자라가 모두 떠올라 다리를 낳았으므로 동명은 물고기와 자라 등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리하여 구려왕이 되었다.

그 후 가지처럼 떨어져 나가 구려(句麗)가 되었는데, 부여와는 같은 종족이 되었다. 동명왕이 세운 부여국은 한(韓)나라가 있던 현도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본문에서 이 궁격수의 문장이 상세하지 못한 것이 결점이다. 동명이 엄체수에 이르러 강을 건널 수 없었으므로 나는 하백의 외손인 천제의 아들이라고 외쳤다는 기록이 위서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똑같음을 볼 수 있다. 위서와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도망간 곳이 엄사수라고 했다. 엄사수와 엄체수는 같은 것으로 이명 개사수라 했으며 압록이 있는 동북이라 했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주몽이 그후 이른 곳은 모둔곡이며 이곳은 보솔수라고 적고 있다. 그 후 또다시 이른 곳은 졸본천이며 이곳은 흘승골성이라고 되어있다. 한편 후한서 동옥저 편에서는 개마의 동쪽에서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되어있다. 삼국지와 남사에서는 환도산 아래로 되어있다. 그리고 후한서에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적고 있다. 위서와 당서, 구당서 그리고 수서와 주서에는 고구려의 도읍지가 평양성이라고 적고 있다. 흘승골성에서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서는 통전과 북사 그리고 주서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마대산의 동쪽이나 흘승골성 그리고 평양성에서 고구려가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다는 곳은 현도군에 속하는 것으로 사서와 중국고금지명대산전 등에서 고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건국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요즘 한국의 사학자들은 졸본수와 환도성이 만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북한의 평양에는 평양성이 없으며, 본래 평양성은 모든 정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검성이다. 왕검은 요임금(단군왕검)이 살던 성으로 후일 평양성이다.

고구려의 건국설은 고리국에서 파생된 구려와 부여에서 발생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하간 고구려의 건국은 구려와 부여의 뿌리인 한(韓)이며 한(韓)의 뿌리는 고리국이다. 고로 고구려의 건국은 고리국에서 생겼다는 설과 부여 해부루왕의 서자로 생겼다는 설 또한 부여와는 다른 종(種)이라는 몇 가지의 건국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삼한(三韓)의 군장으로부터 고씨(高氏)로 이어져 왔으며 고씨의 먼 조상은 요, 순임을 통전은 기록하고 있다. 여하간 고구려의 건국은 삼한(三韓)의 뿌리인 한(韓)에서 고리국으로 부터 부여, 구려로 기원되었음을 정사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양성인 장안성은 고구려가 끝까지 도읍지로 지켜왔으나 기원후 668년 나당 연합군의 공세로 무너지고 말았다.

Ⅲ. 고구려의 혈통(血統)

고구려의 조상은 고양씨(高陽氏)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요즘 중국에서는 일만년(10,000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고양씨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이다.

고양씨는 현원황제(BC 2679년)의 손자이다. 황제의년대 BC 267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689년 전이다.

중국에서 일만년 역사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전욱고양씨를 내세워 일만년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가당찮은 말이다.

역사는 간지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간지법을 모르면 역사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간지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일만년의 역사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불과 4,689년 밖에 되지 않는 고양씨를 앞세워 일만년의 역사를 꾸미겠다는 것은 중국에는 간지법을 아는 역사학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구려가 고씨의 성을 사용하게 된것은 고양씨로 부터라는 설이 있고 또한 고신씨라는 설이 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19대 광개토왕 17년 3월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십칠년(十七年), 춘삼월(春三月), 견사북연(遣使北燕), 차숙종족(且菽宗族), 북연왕운견시어사이발지(北燕王雲遣侍御史李拔之), 운조부고화구려지속(雲祖父高和句麗之屬), 자운고양씨지묘예(自云高陽氏之苗裔).

본문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17년 봄 3월에 북연에 사신이 파견되었다. 종족에 대하여 공손하게 차례를 펴는 과정에서 북연왕이었던 “운”은 왕을 모시던 어사 이발을 맞이한 자리에서 고구려의 먼 조상의 아버지로 부터 고씨는 구려에 화합하여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양씨의 후손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다.

고 적고 있다.

전옥고양씨(BC 2,554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황제(黃帝)의 손자로 부터 고구려가 기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삼국사기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제6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역이고신씨후성고씨(高句麗亦以高辛氏後性高氏)라고 적고 있다. 즉 고구려 역시 고신씨(高辛氏 BC 2476年) 후로 부터 성을 고씨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고구려의 조상은 황제의 증손자인 제국 고신씨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고구려의 운조(雲祖: 먼 조상)는 고양씨가 되었던 고신씨가 되었던 고구려의 조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황제로 부터 후손으로 뿌리가 내려오고 있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다.

황제는 4명의 왕후로 부터 25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머리가 나쁜 11명은 성(姓)을 하사 받지 못했다. 그 중 14명만 성을 하사 받았는데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다섯 명이 고작이다.

황제의 아들 창이는 전옥고양씨를 낳았다. 고로 황제의 손자인 고양씨로부터 구려 또는 고구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황제의 아들 현효는 교국을 낳았는데 교국의 아들이 제국 고신씨이다. 이는 산해경과 사기 오제본기에 기록하고 있다. 고씨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온 것은 문헌상으로 보면 제국 고신씨(BC 2,476년)이다. 고신씨의 뒤를 이은 사람은 요단군왕검(BC 2,357년)이다.

삼국유사 고조선편에는 분명히 요(堯)임금을 요단군왕검으로 기록하고 있다. 요왕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순(舜 BC, 2,284년)임금이며, 다음은 하, 은, 주(夏, 殷, 周)로부터 삼한(三韓: 한, 위, 조<韓, 魏, 趙>)이어서 고리국 후로 구려 부여를 거쳐 후에 고구려로 내려움을 볼 수 있다. 고로 고양씨가 황제의 직계 손자라면, 고신씨는 직계 증손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고양씨로 본다면 친오촌 조카별이 고신씨이고, 고신씨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별이

된다. 여하간 고구려의 운조는 황제의 후손임을 정사(正史)가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IV. 구려국과 고리국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으나, 고리국에 대하여 계통을 확실히 하는 것이 고구려에 대한 이해가 보다 용이할 것 같다. 제곡고신씨(帝嚳高辛氏 BC 2476년)가 도읍한 곳은 호(毫)라는 곳이다. 호는 지금의 하남성 낙양이다. 낙양고도사는 1987년 소견의 저술로 낙양 박물관 소장으로 되어있다.

하도 낙서편에 보면 복희씨 이후 염제신농씨(BC 3,071년)를 거쳐 황제와 더불어 산동성 곡부에서 도읍을 정하고 변영해 갔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낙양에서 황제와 손자인 전욱고 양씨, 요, 순 등이 낙수에서 물놀이를 하던 때부터 황화문명은 발전하게 된 동기가 다. 바로 그곳이 지금의 하남성 낙양이다.

황제의 증손자인 제곡고신씨가 전욱고양씨에 이어 도읍한 곳은 호(毫)이며, 이곳이 바로 낙양이다. 제곡고신씨 이후 요, 순, 때 하북성 옛 영주(瀛州)인 지금의 고안현에서 황제의 증손자인 제곡고신씨의 후손으로 제후국에서 일어난 나라가 바로 고리국이다. 고리국이 생긴 것은 BC 260년 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열국인 철웅시대 이전으로 보는 것이 사가들의 견해이다.

여기서 7웅시대란 진, 한, 위, 조, 연, 제, 초(秦, 韓, 魏, 趙, 燕, 齊, 楚) 나라를 말한다. 즉 주나라 말기에는 대륙에 2천개 이상의 제후국이 난립하기 이전에 고리국이 하북성 고안현에 도읍을 정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열국시대는 점차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드는 초기단계로서 전운이 감도는 조짐이 나타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리국은 천자였던 염제신농씨와 황제가 도읍했던 산동성 곡부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곳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황제의 아들격인 소호금천씨(BC 2578~2562년)까지 산동성 곡부에서 12년간

집권하는 동안 전국은 점점 허물어지는 정세였다. 이를 지켜보던 고양씨(BC 2554~2475년)는 천자에 등극 하자마자 도읍지를 중국대륙의 중앙지인 하남성 동북부인 북양현으로 옮겼다. 그 후 바로 천자의 뒤를 이은 황제의 증손인 제곡고신씨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남성 낙양으로 도읍지를 정한 후 사회는 125년간 안정되어 갔다.

BC 2357년 고신씨의 셋째 아들인 요왕검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다시 도읍지를 평양으로 정한다. 여기서 평양은 감숙성 통위현과 섬서성 평양, 그리고 섬서성 서경인 서안의 동쪽이다.

중국에서는 평양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신라, 백제, 고려의 역사까지도 완전히 들쭉날 것이 두려워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명은 모두 옮기거나 없애고, 경우에는 비슷한 음으로 글자를 바꾸어버렸다.

1931년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저술한 장려화는 지명이 바뀌어진 과정을 적으면서도 일부 유명한 역사의 흔적이나 나라이름 등은 자국을 남기고 있다.

평양(平壤)을 평양(平襄)이라고 약자를 쓴 곳도 있고 평양이라는 글자를 아예 평양성(平陽城), 또는 평양부(平陽府), 평양군(平陽郡), 평양현(平陽縣)으로 바꾸었다.

평양현(平陽縣)을 보면 중국고금지명대사전 217쪽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漢)나라 때 두었는데 후위 때 폐하였다. 옛 고성(古城)이 있던 곳은 지금의 감숙성 통위현 서남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평양부(平陽府)를 보면 옛날 요임금이 도읍했던 곳으로 삼국시 위(魏)나라가 둔 곳이 평양군(平陽郡)이다. 이곳을 예로부터 다스려 오던 곳은 지금의 산서성 임분현 서남으로 되어있다.

여하간 평양성의 본 위치는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있는 것처럼 요임금이 도읍한 왕검성이며 후일 평양성으로 지금의 서안(西安)임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국은 황제의 증손자인 제곡고신씨의 후예로서 하북성 하간현에 도읍을 정하고 다스려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치통감 201권 당기17, 고종 때의 기록에는 고려, 백제는 하북성의 백성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려라고 적은 것은 백제가 있을 당시이므로 고구려를 뜻한다.

고리국의 후손인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이 중국 북경에 있는 하북성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고구려, 백제는 한반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고구려 백제의 백성이 하북성 사람들이 차지 통감 당나라 기록에 있다는 것은 삼한(三韓)의 모국인 고리국은 중국의 심장부인 하북성 하간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리국(BC 260~230년)에서 파생된 구려는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고 대륙 여러 곳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후한서(後漢書) 구려(句麗)편을 보면 구려는 일명 맥이(貂耳)라 했으며 하백의 후예로서 강물을 위주로 살았다고 했다. 그로 인해

소수맥(小水貂)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했다. 구려인들은 활을 가지고 다니기를 좋아했으므로 맥궁(貂弓)이라고도 했다고 적고 있다.

구려가 점차 세력이 커지자 구려병들을 동원하여 왕망이 흉노를 정벌하였다고 되어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국의 운조는 제곡고신씨이며 구려의 조상은 고리국이다.

후한서 부여국과 양서에 의하면 고리국에서 고구려의 뿌리인 구려가 생겨났음을 볼 수 있다. 고로 고리국과 구려 그리고 고구려는 황제의 증손자인 고신씨에서 뿌리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사에는 잘 나타나 있다. 그러기에 삼국사기 백제 마지막 의자왕편에 고구려의 조상이 제곡고신씨에서 연유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 수서, 주서에는 부여에서 주몽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서, 구당서, 통전에는 부여와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후한서, 양서에는 분명히 고리국의 왕자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주나라 말기에 고리국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고리국과 구려는 같은 혈통으로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리국에서 부여도 함께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아서 고리국과 구려 그리고 부여는 같은 동족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나라를 세울 때 국호를 다르게 했을 뿐 고리국과 구려는 같은 뿌리로서 후일 왕망에 의해 고구려가 건국되었음을 정사에는 기록하고 있다.

V. 고구려의 활동

1. 주몽의 도읍지

주몽의 출생 비밀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부여와 금와왕과 하백녀 유화의 의 관계이다. 이 기록이 있는 사서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와 주서 고구려전이다. 그리고 수서와 북사의 고구려전과 통지와 통전의 고구려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서에서는 북이 고리국왕의 왕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혈통관계나 년대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후자인 양서(梁書)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전편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역사의 기록은 혈통과 계보(系譜) 그리고 년대의 기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로 부여왕과 유화와의 관계를 보면 고구려 주몽은 부여의 혈통으로 보이게 된다. 많은 정사에서 구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이었던 고리국에서 구려가 파생되어 나온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몽은 고리국의 왕자임이 분명해진다. 그 이유로는 자치통감 201권 당기 17권 고종편에서 고려백제하북지민(高麗百濟河北之民)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은 지금의 하북성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고리국이 지금의 하북성 고안현이며 이곳은 현 북경의 바로 남쪽이다.

그리고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국은 제국고신씨(BC 2476년)의 후손이기에 주(周)나라 말기 주(周)나라가 망할 무렵에 지금의 하북성 고안현에서 고리국이 도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주몽이 달아나 세운 나라가 고구려가 아니고 구려국이었다. 그러므로 구려국은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이다. 그러므로 주몽이 부여왕자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주몽은 고리국의 서자였기에 뛰어난 용맹으로 선사(善射) 즉 명사수라 할 만한 능력을 지녔기에 왕자들이나 군신들의 모함을 받아 남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주몽이 부여에서 출발했다면 혈통과 계보 그리고 년대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몽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구려국은 건국하게 된 것은 옛부터 천자인 고신씨(高辛氏)의 후예였기에 비록 서자로 태어났어도 용량과 지략이 출중하여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도망쳐 구려국을 건국한 것으로 보인다. 구려국을 건국한 원년 주몽의 지략과 용맹함이 알려지자 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 들었다. 그 당시 구려국과 땅이 이어져있는 말갈 부락에서는 공포감에 질려 굴복한 후 감히 범법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몽은 사냥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비류수 물 가운데 채소 잎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로 올라가 이른 곳이 비류국이었다. 그곳에서 비류국왕인 송양(松讓)을 만나 말했다. “과인은 넓은 땅 구석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송양이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금일 서로 만나게 된 것이 다행스럽지 못하다.” 송양왕이 다시 말하기를 “불식(不識)간에 어떤 일로 왔는가?” 라고 하자 주몽이 답하기를 “나는 천제자(天帝子) 즉 하늘의 임금 아들이다. 오다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고 했다. 송양왕이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이곳에서 왕으로 살고 있다. 땅이 작고 좁은 곳에서 두 임금이 살 수 없다. 그대 왕이 세운 도읍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합병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자 주몽은 분한 마음에 성을 내려 말하기를 “그렇다면 더불어 싸워서 판가름하던지 아니면 서로 활을 쏘아 겨루어 보자” 고 했다. 송양왕은 당할 수 없었다. 다음해인 2년 여름 6월 소양왕은 주몽에게 항복해 왔다.

이 당시 주몽은 졸본천에서 흘승골성(紇升骨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 구려국(句麗國)으로 기반을 다져 나갔다.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편 제2대 유리왕 22년에는 국내에 있는 위나임성을 쌓고 도읍을 옮겼다. 한편 제5편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구려 제11대 동천왕 21년 봄 2월의 기록을 보면 환도성에서 경난(經難)즉 선비들의 난이 일어났다. 도읍이 불가하므로 평양성(平壤城)을 쌓았다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백성들과 조상들을 모신 사당도 옮겼다고 했다.

평양성은 본시 고대 요임금이 살던 집이며 왕검성, 왕협성 또는 협독성이라고 했다. 본시 왕검성은 동서의 길이가 6리이다. 6리는 2.4km의 거리이다. 고구려 제11대 동천왕 21년 봄 2월에 왕검성을 평양성이라 하고 개축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고구려전에는 제11대 동천왕때까지 도읍지를 정했다는 기록이 없고 또한 환도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처음에 흘승골성을 쌓고 임시로 궁실을 지었다고만 되어 있다. 고구려 제2대 부터 10대까지 성을 쌓거나 궁실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시로 터전을 잡은 졸본천 주위에 비류수가 흐르는 것을 보면 처음 터전을 잡은 졸본천에서 흘승골성을 쌓고 임시로 궁실을 지었던 곳에 새롭게 환도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환도성에서 선비들의 난이 일어나자 도읍지로서는 불가하므로 고대 요왕검(단군왕검)이 살았던 왕검성을 동천왕 21년에 새로 쌓으면서 평양성이라 했다.

고구려가 환도성에 도읍했다는 사서는 남사(南史) 고구려전과 삼국지 고구려전 그리고 북사(北史)고구려전이다. 그리고 수서 고구려전과 신당서 고구려전, 그리고 구당서 고구려전에서는 평양성에서 도읍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뒷받침한 자치통감 183권의 기록을 보기로 한다.

수나라 기록 7편 수양제때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본문을 싣고 풀어 보기로 한다.

고려기계자저개적어탁군(高麗器械自儲皆積於涿郡)으로 되어있다.

고구려의 병기와 자재 등을 모두 쌓아 둔 곳은 탁군인 서경 지금의 서안(西安)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주몽이 처음 임시로 도읍한 흘승골성이라고 기록한 사서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와 태평어람 고구려편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환도성에서 먼저 도읍한 것인지 아니면 흘승골성에서 처음 도읍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여기서 흘승골성은 졸본천에서 임시로 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가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몽이 도망쳐와 버젓이 도읍지의 터전을 닦았을 리는 없다고 본다면 졸본천에서 임시로 도읍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지금의 섬서성 서안이 있는 옛 현도군임을 짐작케 한다.

이곳은 지금의 서안의 남쪽에 있는 평양성의 동쪽에 속하는 곳이다.

졸본천에서 흘승골성의 성을 쌓고 임시 궁실을 짓고 있던 후에 제2대 유리왕 22년의 기록처럼 국내 위나암성(尉那巖城)을 쌓고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전 제10대 산상왕 2년 봄, 2월에는 환도성(丸都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산상왕 13년 겨울 10월에는 왕이 환도성으로 옮기게 된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점차 나라가 강성하여 강력이 커짐에 따라 도읍지를 옮길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제16대 고국원왕 4년 가을 8월에 다시 평양성을 증축했다.

12년 봄, 2월에는 환도성을 수리하여 가을 8월에 환도성으로 옮겼다. 평양성과 환도성의 거리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이다. 제16대 고국원왕 13년 평양성이 있는 동황성(東黃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곳은 서경 즉 지금의 서안의 동쪽에 있는 목면산(木面山) 산 가운데 성이 있었다.

제20대 장수왕 15년에는 다시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다.

제24대 양원왕 8년에는 평양성을 장안성이라고 성을 쌓았다. 본시 왕검성의 길이는 동서로 6리 즉 2.4km였으나 평양성이라는 성을 또 쌓고 장안성이라고 하고 쌓은 것이 지금의 서안의 남쪽 장안성 길이는 31.5km가 되어 서안시에서 동서로 성이 뻗어 있다.

본시 왕검성은 성(城)이 험하다하여 왕험성이라 했으며 성 주위는 약 10m 넓이로 물이 고여 있어 일명 험독성이라 했다. 평양성인 장안성은 고구려가 끝까지 도읍지로서 지켜왔으나 AD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세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옛 고구려의 웅장했던 그 날을 지금도 말해 주고 있다.

2. 주몽 때 지배강역

주몽은 부여국 금와왕의 장자인 대소의 시기가 지나쳐 주몽을 없애려고 하여 도망쳤다고 삼국사기 본기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사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태평어람과 통지, 통전, 복사, 수서와 위서등에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같이 하백역, 유화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처럼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일부 사서만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사서들은 삼국사기 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책이라 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삼국사기처럼 주몽의 탈출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고구려의 관계되는 책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고구려 비기가 있었더라면 훨씬 상세한 기록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미 없어진 책이기에 상세한 것은 알길이 없다. 25사와 통지, 통전, 태평어람과 태평환우기 등에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별도로 적혀있지만 자세하지 않는 것이 흠이다.

주몽은 부여국에서 도망쳤다고 하지만 부여국의 서자였다면 성(姓)을 부여씨로 써야 마땅하다. 그러나 주몽은 구려국으로써 고씨의 성을 쓴것을 보면 하북성 북경, 남쪽 고안현에 있던 고리국의 서자임이 확실한 것 같다.

아마,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은 고구려비기를 보고도 년대를 낮추어 쓴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신라의 년대보다 195년이나 앞선 고구려의 년대를 고의로 깎은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려시대까지 단행본의 사서가 전연 없었기에 김부식은 고구려사

와 백제사에 대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양서(梁書) 고구려전을 간략하게 기록한 바 있으나 본문전체를 해설해 보기로 한다.

고구려는 그 선조가 동명으로 부터 나왔다. 동명은 본시 북이(北夷) 고구려의 왕자이다. 고리왕이 출행한 사이 그 시녀가 후에 임신을 했다. 고리왕이 돌아와 임신한 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 했다.

시녀가 말하기를 전에 천상에 큰 계란과 같은 기운이 나에게 내려와 그로인해 임신을 했다고 했다. 왕은 즉시 시녀를 가두었다. 후에 아들을 낳았다. 왕은 돼지우리에 갖다두었다. 돼지는 입금으로 불면서 죽이지 아니했다. 왕은 신이 위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 소리를 듣고 이내 거두어 길렀다. 아이가 자라면서 활을 잘 쏘므로 왕은 그 용맹함을 시기하여 다시 죽이려 했다.

동명은 즉시 달아났다. 남쪽으로 가 엄체수에 이르자 강을 건널수 없었다. 활을 강물에 쏘자 고기와 자라가 모두 떠올라 다리를 놔 주어 동명은 강을 건넜다.

이 단락을 보면 청(淸)나라 건융때 문장을 많이 삭제한 것 같다. 청나라 건융은 1736년부터 1776년까지 40년 동안 60명의 학자를 동원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부분의 사서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반대로 왜곡 날조 시킨 것이다.

졸본 부여왕으로 있던 우태씨가 죽고 혼자서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있던 소서노(召西奴)와 결혼할 때는 졸본부여를 흡수했기에 동명은 일시 졸본 부여왕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 후 여러 곳으로 나누어 구려를 세우다 보니 구려의 종족이 되었다.

구려국은 한(漢)나라때 현도군이었다. 여기서 한(漢)나라란 제7대 원왕(元王 BC 73~70년) 이전 까지는 국명이 마한(馬韓)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마한이란 국명을 개칭하여 한(漢)나라로 하였다.

처음은 한(漢)나라가 아니고 마한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유방으로부터 선제까지 마한으로 내려오다 나라 이름을 선제때 바꾼 것이다. 고대 은(殷)나라도 처음은 상(商)나라였으나 제17대 반경(盤庚)때 도읍지를 옮기면서 은(殷)나라로 바꾼 것과 같다.

구려국은 요동(遼東)의 동쪽이며 거리는 요동의 천리이다.

다시 말해 고대는 경도(經度) 110도를 기준하였기에 서경인 지금의 서안에서 약 80km 지점이 경도 110도이다. 그 당시 서경일대가 현도군이므로 구려국은 현도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요동 즉 동(東)으로 1,000리가 구려국임을 말한다.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시대에는 남쪽으로 조선(朝鮮)과 예맥(穢貊)이며 동쪽으로 옥저(沃沮)가 있고 북쪽으로는 부여(扶餘)가 인접해 있었다.

한무제(漢武帝)인 마한의 무제(武帝 BC 140~135) 원봉4년에 조선을 멸하고 현도군을 두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현에 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114년에 고구려는 없었으므로 구려일 것이다. 고로 삼국사기의 년대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서(梁書) 본문을 해설해 보았다. 구려국은 마한시대 초기부터 구려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의 년대는 구려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것이 아니고 제7대까지는 구려국왕의 시대이며 이어서 왕망(王莽)인 백고(伯固)이 신대왕(新大王)에 의해 고구려의 나라 이름을 갖게 되었다. 주몽은 고리국 왕자로서 남으로 달려와 구려국의 강역을 넓혀 나갔다.

다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편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몽은 송양왕과 겨루어 1년 후 항복을 받고 비류국을 병합했다. 고구려의 말을 설명하자면 옛 땅을 회복한다는 말로 다물(多勿)이라 했다고 한다.

추모왕 6년 겨울 10월에는 왕은 오이(烏伊)와 부분노(扶芬奴)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에 있는 행인국(荇人國)을 쳐 그 땅을 성과 읍으로 삼았다고 했다. 현재 태백산은 지금의 섬서성 서안의 서남쪽에 있으나 고대에는 산서성 태원의 동북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년 겨울 11월 왕은 부위염(扶尉厭)에게 명하여 북옥저를 정벌한 후 그 땅을 성과 읍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주몽은 2년에 비류국을 항복받고 나서 6년 겨울 10월에는 행인국을 멸했으며 10년 겨울 10월에는 북옥저까지 멸하여 영역을 넓혔던 것이다.

3. 전성기의 강력과 조공을 받는 나라로

앞의 건국시 강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가 초기 도읍지인 현도군에서 점차 강역을 넓혀가기 시작하여 두루 사방 2,000리의 영토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전성기 강역은 얼마나 되었을까 살펴보기로 한다.

한(漢)나라 때에는 고구려 아닌 구려국으로서 현도군에 속해있었다고 했다. 현도군은 지

금의 서안으로서 개마대산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후한서에는 적고 있다. 특히 개마대산에는 개마현이 있었으며 개마현은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고 했다.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평양성이 있는 서쪽이라 했고 평양성은 왕협성을 왕검성이라 했다. 왕검성은 삼국유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요 즉 요왕검이 살던 곳으로 고구려가 도읍하면서 평양성으로 바뀌었다. 이중재씨는 서안을 3번이나 답사하면서 직접 평양성인 지금의 장안성을 가보기도 했다. 평양성의 길이는 동서 6리라고 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고구려가 성을 수리하고 다시 쌓아 지금은 평양성인 장안성의 길이가 무려 13.6km이다.

수서와 북사에서는 고구려왕이 궁실을 좋게 수리했는데 도읍을 평양성이라 했으며 평양성은 역시 말하자면 장안성이며 동서가 6리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평양성은 언제부터 장안성이라 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고구려 11대 동천왕 21년 봄 2월에 환도성에 경난(학자들의 난동)이 일어나 부득이 다시 도읍지인 환도성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평양성을 다시 쌓았다고 했다. 동천왕 21년전까지는 환도성에 있다가 학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부득이 21년 봄 2월에 왕검성인 왕협성을 평양성이라하고 성을 다시 쌓아 도읍지를 평양성으로 옮겼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11대 동천왕 때부터 평양성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평양성이 동서 6리라고 했는데 10리가 4km이므로 6리라면 2.4km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있는 장안성의 길이는 13.6km이며 폭은 약 13m가 된다. 다시 말해 고구려는 16대 고국원왕 4년 가을인 8월에 다시 평양성을 증축하게 된다. 그러나 고국원왕 12년 봄 2월에 다시 환도성을 수리하여 평양성에서 환도성으로 옮기게 된다. 다음해 13년 가을 7월에는 다시 평양인 동황성으로 또 다시 도읍지를 옮긴다. 이곳은 동황성이 있는 서경의 동쪽인 목면산중이라 했다. 그 후 고국원왕 41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직접 3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한 후 17대 소수림왕 7년 10월에도 백제군 30,000명이 평양성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8대 고국양왕 3년 봄 정월에 태자인 담덕(광개토왕)이 옹립되고 8월에는 왕이 직접 군사를 일으켜 남쪽에 있는 백제를 정벌했다.

19대 광개토왕 2년 가을 8월에 백제의 남쪽 변방을 침공한 후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한다. 3년 가을 7월 백제가 다시 침공해 오자, 왕은 기병 5,000명으로 격퇴시킨다. 그리고 8월에는 나라 남쪽에 7개의 성을 쌓았는데 도적같은 백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광개토왕 23년 여름 6월에는 위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한다. 24년에는 위나라를 공격했다. 이때 연나라의 백남성을 극하게 했다. 즉 이긴 것을 뜻한다.

광개토왕은 남쪽으로 백제의 10개성을 뿌리 뽑고, 북쪽의 글란을 정벌하는 등 남북으로 강역이 넓어짐을 볼 수 있다. 이후부터 고구려는 남벌과 북벌이 끝나갈 무렵 동벌과 서벌을 하게 된다. 특히 20대 장수왕이 들어서면서 27년 겨울 11월 12월에는 위나라가 파견사를 보내 조공을 바치려고 왔다. 다시 50년 봄에도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려고 왔다. 53년 이때의 위나라는 북조인 북위를 말한다. 삼국시대 위나라 문제(조비)인 황초(AD 220~265)가 망한 후 북조인 북위 때 북조시대가 되면서 위나라 도무제(道武帝)인 탁발규가 등극(AD 386~396년)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대 장수왕 때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로 대강국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장수왕 55년 봄 2월에도 위나라에서 파견사를 보내 조공(朝貢)을 바치러 왔다. 그리고 58년 봄 2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61년 봄 2월에도, 63년 2월과 8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

20대 장수왕은 63년 가을 9월에도 왕이 직접 군사 3만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해 함락시킨다음 평양성에서 한성으로 도읍지를 옮긴다. 이때의 한성은 백제가 도읍하고 있던 지금의 사천성 성도이다. 즉 백제가 하남성에서 밀려 사천성 성도인 한성에 도읍을 정하고 있었지만 19대 광개토왕에게 함락되었다. 이때 백제는 대륙의 남쪽으로 쫓겨가 임시로 도읍했다. 64년 봄 2월과 가을 7월 그리고 9월에도 위나라는 조공을 바치러 온다. 65년 봄 2월과 가을인 9월에도 두 차례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다. 66년에는 송나라가 조공을 바치러 오고, 67년 봄 3월과 가을인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 또한 69년에는 남제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다. 72년 겨울 10월과 73년 여름 5월 그리고 겨울 10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다. 74년 여름 4월, 75년 여름 5월, 76년 봄 2월과 여름 4월 그리고 가을인 윤8월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하려고 온다. 다시 77년 봄 2월과 여름 6월 또한 가을인 9월에 겨울인 10월에도 4차례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다. 79년 여름 5월과 가을인 9월에도 북위에서는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그 후 문자왕때까지 북위의 조공은 이어졌다. 그 후 22대 안장왕 때에는 양나라에서 조

공을 바치러 왔고 23대 안원왕 때에도 복위가 2번 조공한 뒤 끊어졌다. 그러나 양나라에서는 계속 조공을 바치러 왔으며 복위에 이어 동위가 24대 양원왕 때까지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그러나 23대 안원왕 때 역시 양나라와 동위들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러 왔던 것이다. 특히 24대 양원왕 8년에는 평양성을 장안성이라 하고 장안성을 쌓았다고 했다.

고구려 24대 양원왕 6년부터 복제가 조공을 오기 시작했다.

25대 평원왕 때에는 복제와 진(陣)나라 그리고 수나라까지 조공하러 왔다. 28년에는 도읍지를 장안성으로 다시 옮겼다. 26대 영양왕 때까지 수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것은 고구려가 대강국인 천자의 나라로 부상했다는 증거이다.

영왕왕 18년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통감 181권 수나라 양제 상편 1728쪽의 기록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으므로 본문에 있는 것을 적고 풀여보기로 한다.

高句麗本箕子所封之地，漢普指爲郡縣，今乃不臣，別爲異域，先帝欲征之久이(고구려본기자소봉지, 한진개위군현, 금내불신, 별위이역, 선제욕정지구역)

고구려는 본래 기자가 도읍하고 다스리던 땅이던, 한(漢)나라 때와 진(晉)나라 때 모두 군과 현이 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하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곳은 다른 지역이라고 할 것이다. 고로 앞서 제왕들은 욕심을 갖고 다시 오래도록 정벌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기자가 도읍한 곳과 한(漢)나라와 진(晉) 나라에서 다스렸던 모든 군과 현이 있는 지역을 가진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고구려의 강역은 상상을 초월한 대국의 나라요 천자국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치통감 195권 당나라 기록 11권 1886쪽을 보면 고구려는 본래 한사군인 현도, 낙랑, 진번 임둔의 네 군태의 군을 모두 고구려가 다스렸다고 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통감 198권 당나라 기록 14권에 보면 東征高麗西討龜茲(동정고려서토구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고구려가 동쪽을 모두 정벌하고 서역에 있는 신강성 서쪽인 구자까지 토벌했다고 적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고구려가 전성기에는 지금의 동부 3성인 만주에서 내몽고와 외몽고 일부지역과 서역인 중국대륙 서쪽 경계에 있는 구자까지 모두 고구려 강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중국대륙 전역과 외몽고의 일부까지 모두 고구려 강토임을 정사에서 보여 주고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771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본문을 적고 해설해 보기로 한다.

高句麗國，基先出自扶餘，漢時避難居於卒本水，因稱卒本扶餘，地爲漢之玄菟郡，屬有三縣，高句麗其一也，因以爲國號，其疆域西距，遼東千里)

(고구려국, 기선출자부여, 한시피난거여졸본수, 인칭졸본부여, 지위한지현도군, 속유삼현, 고구려기일야, 인이위국호, 기강역서거, 요동천리)

“해설” 고구려의 나라는 그 선조가 스스로 부여에서 나왔다. 한나라 때 피난 와서 졸본수에서 살았다. 그로 인해 청하기를 졸본 부여라 한다. 그 지역은 한나라가 있던 현도군이며 현도군에 속하는 삼현 즉 세 고을이다. 그중 고구려가 하나이다. 이로 인해 나라 이름이 붙여졌다. 그 강역은 서역인 서쪽을 걸친 거리이며 요동으로 천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가 처음 도읍하여 비류국인 다물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송양왕이 스스로 항복한 땅과 노예의 나라인 태백산 동남에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벌하면서 사방 2,000리의 강토로 넓혔다. 그 후로 광개토왕이 등극하여 남백제와 북쪽에 있던 글란을 정벌하면서 강역이 동서만리, 남북 육천리로 늘어나면서부터 강대국으로 부상되자, 북위와 동위는 물론 양나라 진나라 그리고 수나라 등 여러 나라들은 제후국이 되어 강대국인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던 것이다. 심지어 산서성 태원에서 이연이 선통하여 당나라가 선지 8년 만에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부터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있다.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호시탐탐 강국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상에서 고구려의 강역은 동쪽인 요동 천리에서부터 중국대륙인 서역의 경계까지 전성기 때의 고구려 강역임을 정사에게는 확실히 밝히고 있다.

(고구려 초기 疆域도)

高句麗 初期 疆域圖

(高句麗 朱蒙時 疆域圖)

(朱蒙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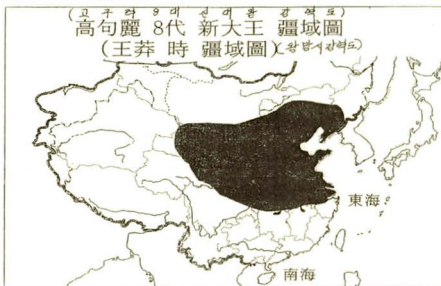


(고구려 8대 신대왕 疆域도)

高句麗 8代 新大王 疆域圖

(王莽時 疆域圖)

(왕망시 疆域도)



(고구려 전성기 時 疆域도)

高句麗 全盛期時 疆域圖



Ⅵ. 고구려의 대전

1. 제 1 대전

고구려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란을 많이 겪은 나라이다. 그것은 대륙의 중심부에 자리잡으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과 수 없는 전란을 겪었다. 중원대륙에서 일어난 전란의 대상자는 따지고 보면 모두 동족간의 상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대사회는 국경선이 뒤바뀌는 가운데 국경의 개념이 희박하므로 한 나라가 전란을 겪거나 가뭄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관리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되면 이웃 나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멀리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은 백성을 독려하고 수탈하거나 전쟁을 해서라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다시 말해 내가 살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제1대 주몽은 비류국을 항복시켰고 따라서 6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인국을 멸했으며 10년에는 북옥저까지 정복했다.

제2대 유리왕 11년에는 험한 곳에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선비(鮮卑)를 정벌하였다.

31년 한(漢)나라때 왕망은 구려 군사를 동원하여 호(胡) 즉 한(漢) 나라를 격파하고 도독질하는 범법자를 죽였다.

32년 부여군이 침공하자 북병을 발동하여 불의의 일격으로 부여군사를 대파시켰다.

33년 서쪽에 있는 양맥국(梁貊國)을 쳐서 멸망시키고 군사를 진군시켜 한(漢)나라 현도군에 있는 고구려 현을 급습하여 취했다. 제3대 대무신왕(大武神王) 5년 왕은 군사를 진군시켜 부여군 남쪽에 있는 진흥땅 입구에서 임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부여왕 대소(帶素)가 군사를 이끌고 돌격하다 진흥땅에 빠졌을 때 괴유(怪由)가 장검을 들고 달려가 부여왕의 목을 베었다. 그로 인해 부여는 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9년 겨울 10월 왕은 친히 개마국을 정벌하여 그 땅을 군과 현으로 삼았다. 12월 구다국왕(句荼國王)이 듣건대 개마국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항복해 왔다. 이로 인해 강역이 많이 넓어졌다.

11년 한(漢)나라의 대군사가 위나암성을 포위해 왔다. 수십일이 지나도 포위를 풀지 않았다. 이때 왕은 피로에 지쳐 두지(豆智)에게 설명하여 말했다. “세가 약해 능히 지킬 수

없다. 어찌하면 되겠느냐” 고 했다. 두지가 말하기를 한(漢)나라 군사들은 위나암성이 흠이 없고 바위로 되어 있어 물이 없다고 생각하여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고로 연못에 있는 고기를 잡아 물풀인 수초로 싸고 약간의 술과 함께 한 나라 장수에게 바칠 때 왕이 글을 써서 보내시면 성(城)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물러날 겁니다.” 라고 했다. 두지의 말대로 한 결과 한나라 군사는 물러났다.

15년 왕자 호동(好童)이 옥저(沃沮)로 놀러 갔다가 낙랑왕(樂浪王) 최리(崔理)가 출행했을 때 호동을 보고 물어 말하기를 “보아하니 임군의 얼굴색이다. 비상한 사람임” 을 물었다. 호동이 대답하기를 북국(北國) 신왕의 아들이라 했다. 그러자 함께 돌아와 최리의 딸을 처로 삼고 호동은 나라로 돌아왔다. 호동은 사람을 시켜 최리의 딸에게 가 말하기를 “무기창고에 들어가 고각(鼓角)인 북을 파괴시키면 예로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다. 낙랑의 병기 창고에 있는 북은 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울린다고 하여 이름을 자명고라 했다. 호동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낙랑공주는 무기창고에 몰래 들어가 예리한 칼로 북을 파괴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호동은 왕에게 권유하여 낙랑의 성(城) 아래까지 군사가 이르도록 했다. 이때 낙랑왕 최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공주를 죽이고 항복했다. 27년 가을 9월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AD 25 ~ 56년)는 군사를 보내 넓은 땅을 건너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군과 현으로 삼았다.

제5대 모본왕 2년 봄이다. 장수를 보내 한(漢) 나라의 북평(北平), 어양(漁陽), 상곡(上谷), 태원(太原)을 습격했다. 이 시기에 요동태수 채동이 은혜로운 믿음으로 기다리기에 이내 다시 화친했다.

53년 봄 1월 왕은 장수를 한(漢)나라 요동으로 침입시켜 여섯성(六城)을 빼앗았다. 이때 태수 경기가 군사를 출정시켜 막음으로 왕의 군사가 크게 패했다. 그리고 태수 경기는 맥인(貊人)을 공격하여 패하게 했다.

66년 여름 6월 왕은 예맥과 한(漢)나라 현도를 습격하고 화려성을 공격했다.

69년 봄 한(漢)나라 유주자사 풍환과 현도태수 요광 그리고 요동태수 채풍 등이 장병을 이끌고 침공해 왔다. 이때 예맥의 거수를 공격하여 죽이고 군사와 병마를 모두 잡아갔다.

왕은 동생인 수성(遂成)과 함께 영병, 이천 명을 거느리고 풍환과 요광을 역습하다 수성은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한다고 했다. 유주자사 풍환 등은 이를 믿었다. 수성은 험한

곳을 거점으로 삼아 대군을 막기 위해 삼천 명의 군사가 잠복해 있다가 현도를 공격했다. 또한 요동 2군(郡)에 있는 성곽을 불살랐다. 이때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2,000명이었다. 여름 4월 왕은 선비(鮮卑) 8,000명을 데리고 요대현을 공격했다. 요동태수 채풍은 군사를 거느리고 신창(新昌)에 나타나 싸우다 죽었다.

공조연, 용서와 병마런 공손포가 몸으로 채풍을 막다가 함께 진중에서 죽었다. 그 밖에 죽은 자도 백여 명이었다.

12월 왕은 마한과 예맥등과 함께 요동을 침범하니 부여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므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94년 가을 8월 왕은 장수를 보내 한(漢)의 요동군 서안평을 습격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아왔다.

제8대 신대왕(新大王)때 한(漢)의 현도태수 경림이 침공해 와 우리 군사 수백명을 죽이므로 왕은 항복하고 현도에 소속되기를 청했다.

5년 왕은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然人)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태수 공손도를 도와 부산의 적을 토벌하였다.

8년 겨울 11월 한(漢)나라가 대군(大軍)을 보내 우리를 향해 오므로 왕은 여러 신하에게 묻기를 “전쟁과 수비의 어느 것이 편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많은 신하들이 말하길 한(漢)나라 군사들은 많은 군사만 믿고 우리를 업신여기므로 만약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저것들이 우리가 한(漢)나라 군사를 겁낸다고 하여 자주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른바 한 사람이 문을 지키면 만 사람이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하읍건데 군사를 내어 방어하소서 라고 했다. 이때 명령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漢)나라는 크고 백성도 많은데 지금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와 싸우려 하므로 그 서슬은 당할 수 없습니다.

또 병력이 많은 자는 싸워야 하고 병력이 작은 자는 지켜야 하는 것이 병가의 항상 있는 도입니다. 지금 한병이 천리 길에 군량을 수송하는 터이므로 오랜 시일을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호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들을 깨끗이 하여 기다리면 저것들은 열흘이나 한 달이 못가서 굶주리고 피곤하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날쌔 군사를 보내 추격하면 뜻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그렇다고 하여 그 말을 따라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한(漢)나라 군사가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사들이 굶주려 끌고 돌아가므로 답부(答夫)는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이를 추격하여 좌원(坐原)의 들에서 싸워 한나라 군사를 크게 대패시켰다. 그때 한 필의 말도 돌려보내지 아니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고 명임답부에게 좌원의 들과 질산(質山)을 식읍(食邑: 즉 먹고 살 수 있는 고을)을 하사했다.

제9대 고국천왕(故國川王) 6년 한(漢)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쳤다. 왕은 왕자 계수를 보내 막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왕은 친히 정예군사와 기병대를 거느리고 한나라 군사와 좌원에서 싸워 패하게 했다. 그때 참수한 자가 산더미같이 쌓였다. 19년 중원국에 대란이 일어나 한인(漢人)들이 피난 와 투항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

2. 제 2 대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와 한(漢)나라 간에 전란이 있었다. 그럼 한나라 뿌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시 한(漢)나라가 생기게 된 뿌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요즘 중국에서는 한족(漢族), 한족 하는데 한족이 생겨나는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은(殷)나라 25대 무을(武乙) 왕의 차자(次子)가 리(理)이며 리(理)의 아들이 기자(箕子)이다. 기자는 BC 1115년 병술년에 태어났다. 주(周)나라 무왕(武王 BC 1134 ~ 1116년)이 대륙의 낙양(洛陽)에서 도읍할 때 기자는 산서성 태원에서 기자조선으로 출발했다. 이 당시 연나라 노관의 반란 때 북쪽에서 흉노가 침입해오자 기자조선 제41대 애왕은 남쪽으로 내려와 도읍을 평양(平壤)에 정하고 나라 이름을 마한(馬韓)이라 했다. 마한의 제7대 원왕(元王)은 나라 이름을 고쳐 한(漢)나라로 이어져 왔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족(漢族)은 진짜 한족이 아니다. 그럼 현 중국에 있는 중국인의 뿌리를 고대(古代) 구이(九夷)는 다음과 같다.

① 건이(豳夷) ② 우이(于夷) ③ 방이(方夷) ④ 황이(黃夷) ⑤ 백이(白夷)

⑥ 적이(赤夷) ⑦ 현이(玄夷) ⑧ 풍이(風夷) ⑨ 양이(陽夷)로 되어 있다.

이 기록은 후한서 동이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조선 마지막 제41대 애왕(哀王)은

남으로 내려와 서경(西京)인 지금의 서안에 있는 평양성에 도읍하면서 마한(馬韓)이라 했다. 기원전 2357년 요왕검(堯王儉=檀君王儉)이 살던 성(城)은 왕검성(王儉城)이었으나 고구려 제11대 동천왕(東川王) 21년에는 평양성(平壤城)이라 했다.

제24대 양원왕(陽原王) 8년에는 평양성을 장안성이라 고쳤고 현재까지 서안에 있는 것은 지금도 장안성이라 한다.

기원전 48년에서 44년 마한(馬韓)이 끝날 무렵 구이(九夷)의 개념은 바뀌어진다.

① 현도(玄道) ② 낙랑(樂浪) ③ 고려(高麗) ④ 만식(滿飾) ⑤ 부유(夫婁)

⑥ 소가(素家) ⑦ 동도(東屠) ⑧ 왜인(倭人) ⑨ 천비(天鄙)이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족(漢族)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럼 자치통감을 통해 중국 민족의 뿌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자치통감 193권 당기(唐紀) 9. 태종편(太宗) 1858쪽을 소개해 본다. 중국여근본사이(中國如根本四夷) 여지엽(如枝葉) 피중국이봉사이(疲中國以奉四夷) 유발본근이익지엽야(猶拔本根以益枝葉也)라고 되어 있다.

본문을 풀어보기로 한다.

중국의 본 뿌리는 사이(四夷)이며 가지와 잎과 같다. 피곤하고 고단한 중국은 사이(四夷)를 받들었다. 오히려 중국의 본 뿌리를 뽑는다면 가지와 잎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1862쪽을 보면 중국행안사이구(中國幸安四夷俱)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중국은 다 행하게도 사이(四夷)가 갖추어짐으로 편안했다는 뜻이다.

자치통감 195권 당기(唐紀) 11 태종편을 보기로 한다(1880쪽 참고). 중국근건야(中國根乾也) 사이지엽야(四夷枝葉也)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을 풀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하늘같은 뿌리는 사이(四夷)에서 갈라져 나간 가지와 잎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이(四夷)의 부족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다. 통전(通典), 통지(通知)에 의하면 사이(四夷)는 놀랍게도 ① 고구려 ② 백제 ③ 신라 ④ 왜 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백성들은 사이(四夷)인 고구려, 백제, 신라, 왜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한족(漢族)은 중국 민족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이에서 다시 민족이 흩어져나가 195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漢)나라의 한족(漢族)은 현재 중국의 한족(漢族)이 아님이 분명하다.

한족(漢族)의 뿌리는 마한(馬韓)이며, 후에 한(漢)나라가 되었으나 중국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한(漢)나라가 싸운 것은 기자조선의 후손들이며 중국민족이 아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의 백성이다.

다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있는 전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1대 동천왕 19년 겨울 10월 군사를 출전시켜 신라의 북쪽 변방을 침공했다.

20년 가을 8월 위(魏)나라 유주자사 무구검이 장병 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에 나타나 침략해 왔다. 왕은 장군과 보병 그리고 기병 이만 명으로 비류수 위쪽에서 역전시켜 위나라 군사를 패하게 하고 삼천여명을 참수시켰다. 또 다시 군사를 이끌고 양맥의 골에서 이저 삼천여명을 죽이고 사로 잡았다. 왕이 여러 장수들에 말하기를 “위나라의 많은 군사가 우리의 작은 군사만 못하다. 위의 명장 무구검은 금일 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면서 철의 기마병 오천(五千)으로 진격했다. 무구검은 사방에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우므로 우리 군사가 크게 무너져 죽은 자가 일만팔천명(18,000명)이었다. 이때 왕은 일천여 기마병과 압록원으로 달아났다.

겨울 10월 무구검은 환도성을 공격해 함락시켜 무찌르고 장군 왕기(王頎)를 시켜 고구려 동천왕을 추격했다. 고구려왕은 남옥저(南沃沮)로 달아나 이른 곳이 우죽령이었다. 군사들은 흩어져 기진맥진했다. 유독 동부 밀우(密友) 혼자만이 좌측에 있었다. 밀우가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추격해 오는 병사들이 심히 압박해오므로 세가 불리하여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신이 결사 항전하여 막을 것이오니 왕께서는 그 틈을 타서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며 결사대를 모아 적진으로 달려가 힘껏 싸웠다. 이때 왕은 셋길로 빠져나와 산곡에 의지하여 흩어진 군사를 모아 방어했다. 왕이 말하기를 “만약 밀우를 데리고 오는 자는 후한 상을 주겠다.” 고 했다. 하부의 유록구가 앞으로 와 말하기를 “신이 가보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싸우던 곳에 가서 보니 밀우가 땅에 쓰러져 있어 그를 업고 왔다. 왕이 무릎에 누이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깨어났다. 왕은 셋길을 해마다 남옥저에 이르러 위나라 군사가 멈추지 않고 쫓아왔다. 왕은 계책도 궁하고 세도 꺾기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부사람 유유(유유)가 앞에 와 아뢰기를 “형세가 매우 위급하오니 헛되이 죽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이 어리

석이나 한 가지 피가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魏)나라 군사를 대접하면서 기회를 노려 위나라 장수를 쫓아 죽이겠습니다. 만약 신의 피가 성공한다면 왕은 들이쳐서 승부를 결단 하소서” 라고 하므로 왕은 그러하겠다고 했다. 유유는 위나라 군사의 집에 들어가 거짓말로 항복하며 말하길 “우리 임금의 대국에 죄를 짓고 바닷가로 도망했으나 몸 둘 곳 없어 장차 진 앞에 항복을 청하고 죽음을 사법관에게 맡기려 합니다. 먼저 소신을 시켜 변변치 못한 것이나마 따르는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위나라 장수가 듣고 그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유유는 칼을 밧그릇 속에 감추고 앞으로 나아가 칼을 빼어 위나라 장수의 가슴을 찌르고 함께 죽었다. 이때 위나라 군사들은 드디어 어지러워졌다. 왕은 군사를 세길로 나누어 급히 공격하므로 위나라 군사는 소란하여 진을 정비하지 못하고 낙량으로 퇴각하였다.

제12대 중천왕(中川王) 12년 겨울 12월 위나라 장수 올지가 군사를 거느리고 치러왔다. 왕은 정예 기병 5,000명으로 양맥의 골에서 싸워 대패시키고 8,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제13대 서천왕(西川王) 11년 겨울 10월 숙신이 침공해와 변방의 백성들을 무질렀다. 왕은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그마한 몸으로 그릇되게 나라를 이어받아 덕으로 백성을 편안케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위엄이 먼 곳까지 떨치지 못하여 이웃의 적이 나의 강역을 침략케 했다. 피있는 신하와 용맹있는 장수를 얻어 먼 곳에 있는 적을 꺾고자 하니 그대들은 제각기 지혜와 용맹이 능한 장수감이 될 만한 자를 천거라하고” 했다. 이때 여러 신하들이 말하길 “임금님의 아우 달가(達賈)가 낱새고 지혜로워 죽히 대장이 될 만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은 달가를 보내 적을 치게 했다. 달가는 신기한 피를 내어 갑자기 들이쳐 단로성을 뚫아 추장을 죽이고 600여호를 부여의 남쪽 오천으로 옮겼다. 또 6,7개소의 부락을 항복받아 복속시켰다. 왕은 크게 기뻐 달가를 안국군(安國君)으로 삼고 내외 병마사(內外兵馬事)를 맡게 했다. 겸하여 양맥과 숙신의 여러 부락을 통솔케 했다.

제14대 봉상왕(烽上王) 원년 봄 3월에 안국군 달가를 죽였다. 달가는 왕의 숙부 별이다. 그런데 달가는 큰 공이 있고 또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까닭으로 시기하여 계획적으로 모함하여 죽였다.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국군이 아니었으면 백성들은 양맥과 숙신의 난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가 죽었으니 장차 누구를 의탁한단 말인가”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했다.

2년 가을 8월 모용외가 침공해왔다. 왕은 신성에 가 적을 피할 생각으로 곡림에 이르렀다. 모용외가 왕이 왕도를 떠난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아 거의 미치게 되었다. 왕은 매우 두려워 하던 차에 때 마침 신성재에 있던 북부 소형 고노자(高奴子)가 영병 500의 기병대로 왕을 맞이하러 가다 적을 만나 들이치므로 모용외의 군사가 패하여 물러났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고노자에게 대형(大兄)의 벼슬을 내리고 겸하여 곡림을 주어 식읍 즉 먹고 살 수 있는 고을을 하사하였다.

5년 가을 8월 모용외가 침공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제13대 서천왕의 묘를 보고 사람을 시켜 파헤쳐 보게 하였더니 묘를 파던 사람 중에 갑자기 죽는 자가 생겼다. 또한 들판에서 풍악소리가 들리므로 신이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왕은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모용씨의 병력이 강하여 자주 우리 강토를 누차 침범하니 어찌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대답하기를 “북부 대형(大兄) 고노자는 어질고 또 날쌔여 대왕이 도둑을 막고 백성을 편안히 하시려면 고노자가 아니고는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新城太守) 창조리가 대답하기를 “북부 대형 고노자는 어질고 또 날쌔여 대왕이 도둑을 막고 백성을 편안히 하시려면 고노자가 아니면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더니 정사를 잘하고 위엄을 떨치어 모용외가 다시와 침범하지 못했다.

제15대 미천왕 3년 가을 왕이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공하여 포로 8,000 명을 평양으로 옮겼다.

12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15년 가을 9월 남쪽 대방군을 침범했다.

16년 봄 2월 현도성을 공격하여 파괴시켰으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심히 많았다.

제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 12년 겨울 10월 연왕 모용황은 도읍을 용성(龍城)으로 옮겼다. 입위장군 모용한이 먼저 청하기를 “고구려를 빼앗은 후 우문씨를 없앤 후에는 중원을 가히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고구려는 두 길이 있다. 북쪽 길은 평탄했고 남쪽 길은 좁고 험하므로 북쪽 길로 쳐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모용한이 말하기를 “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대군이 북쪽 길로 오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고로 당연히 평탄한 북쪽 길은 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하므로 남쪽 길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다. 왕은 날쌔 군

사를 거느리고 험하고 좁은 남쪽 길로 들어가 뜻밖에 들이치면 북쪽은 빼앗을 것도 없을 것이다. 따로 한 부대를 북쪽 길로 내보내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적의 심장부가 이미 무너진 뒤에는 사지(四支) 즉 사방이 무능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황은 그 말을 따랐다.

11월 황은 친히 정예군사 40,000명을 거느리고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아 남쪽 길로 나아가고 따로 장사, 왕우 등을 보낸 군사 15,000명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나와 침범케 했다. 고국원왕은 아우 무(武)를 시켜 정예군사 5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북쪽길을 막게 했다. 왕은 약한 군사로 남쪽길로 방비하였는데 모용한 등은 먼저 와서 싸울 때 왕이 대군의 뒤를 이으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했다. 좌장사 한수가 우리장군 아불화도가를 죽이고 여러 군사가 승리한 기세를 타고 환도성에 드니 왕은 홀로 말을 타고 달아나 단웅곡으로 들어갔다. 적장 모여니는 쫓아가 왕모 주씨와 왕비를 사로잡아 돌아갔다. 이때 왕우 등이 북쪽에서 싸우다 패하여 죽었다. 황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더 추격하지 못하고 사자를 시켜 왕을 불렀으나 왕은 나오지 아니했다. 황이 돌아가려 할 무렵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려 땅은 지키는 병사를 두어 지키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 임금의 도망가고 백성이 흩어져 산골에 잠복하고 있으니 대군이 떠나면 반드시 다시 모여 남은 힘을 수습할 것이므로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하오니 임금의 죽은 아비의 시체를 파 싣고 정부의 창고에 두고 대대로 내려온 보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남녀 50,000명을 사로잡은 후 궁실을 불태운 뒤 환도성을 헐고 돌아갔다.

13년 가을 7월 평양의 동황성으로 옮겨 살았다. 이곳 성이 있는 곳은 지금의 서경인 현서안의 동쪽에 있는 목면산 안이다.

15년 겨울 10월 연왕 황이 모용각을 시켜 남소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군사를 시켜 지키도록 하고 돌아갔다.

39년 가을 9월 왕은 군사 20,000명을 거느리고 남으로 백제를 쳐 치양에서 싸웠으나 패했다.

40년 진(秦)나라 왕 맵이 연나라를 쳐 부수니 연나라 태부 모용평이 도망해 왔다. 왕은 잡아 진(秦)나라로 보냈다.

41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군사 30,000명으로 평양을 공격해 왔다. 왕이 출정하여 군사를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은 후 10월 23일에 돌아가셨다.

제17대 소수림왕 5년 가을 7월 백제 수곡성을 공격했다.

6년 겨울 11월 백제가 북쪽 변방을 침공했다.

7월 겨울 10월 백제 장병 30,000명이 평양성을 침략해 왔다.

11월 남으로 백제를 쳤다.

8년 가을 9월 글란이 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여덟 부락을 함락했다.

제18대 고국양왕 2년 여름 6월 왕이 군사 10,000명을 내어 요동을 습격했다. 이에 앞서 연왕 수는 대방의 왕좌를 시켜 용성을 지키게 했다. 왕좌는 우리 군사가 요동을 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학경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 구원케 했다. 그러나 우리 군사는 이를 쳐 부수고 드디어 요동 현도를 함락시켜 10,000명을 사로잡아 왔다.

겨울 11월 연나라 모용농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침범하여 요동 현도군 두 고을을 회복했다.

3년 가을 8월 왕은 군사를 내어 남쪽에 있는 백제를 쳤다.

6년 가을 9월 백제가 침략하여 남쪽 변방에 있는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왔다.

7년 가을 9월 백제가 달솔 진가모를 보내 도압성을 공격하여 부수와 포로 200명을 데리고 돌아갔다.

제19대 광개토왕 원년 가을 7월 남쪽의 백제 10성을 공격하여 뽑아 버렸다. 가을 9월 북쪽 글란을 정벌하고 남너 포로 500명을 사로잡고 본국에서 흩어진 인구 10,000명을 타 일러 데리고 돌아왔다. 겨울 10월 백제 관미성을 쳐 함락시켰다.

2년 가을 8월 백제 남쪽 변방을 침공하므로 장수를 시켜 막게 했다.

3년 가을 7월 백제가 침범하자 왕은 정병 5,000명을 거느리고 맞아 싸워 무너뜨렸다.

4년 가을 8월 백제와 더불어 패수가에서 싸워 크게 이기고 8,000여명을 사로잡았다.

9년 2월 연왕 성이 우리 왕더러 예가 거만하다하여 군사 30,000명을 거느리고 습격해 와 표기장군 모용희로 선봉을 삼아 신성, 남소 두 성을 깨뜨리고 700여리의 땅을 개척하여 민가 5,000여호를 옮겨 놓고 돌아갔다.

11년 왕이 군사를 보내 속군을 치고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15년 겨울 12월 연왕 희가 우리 목저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3. 제 3 대전

제20대 장수왕 38년 신라 사람이 습격하여 변방의 장수를 죽였으므로 왕은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러든 차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이를 중지했다.

42년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 북쪽 변방을 침입했다.

56년 봄 2월 왕은 말갈의 군사 10,000명으로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하여 취했다.

57년 가을 8월 백제군사가 남쪽 시골에 침입했다.

63년 가을 9월 왕은 군사 30,000명을 거느리고 백제왕의 도움인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제왕 여경인 제21대 개로왕을 죽이고 포로로 남녀 8,00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77년 9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호산성을 함락시켰다.

제21대 문자명왕 3년 3월 부여왕이 자기 처자와 함께와 나라를 맡기고 항복했다. 가을 7월 우리 군사 신라사람과 더불어 살수의 들에서 싸웠다. 이때 신라가 패하여 물리가 전아성을 지키니 우리 군사가 포위했다. 이때 백제가 군사 3,000명을 보내 신라를 응원하므로 우리 군사는 물러났다.

4년 8월 군사를 보내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했다. 백제가 신라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여 신라왕은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와 구원하므로 우리 군사가 후퇴하여 돌아왔다.

5년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치므로 신라병이 나와 이하의 강변에서 반격하므로 우리 군사가 패했다.

6년 가을 8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11년 가을 11월에 백제가 국경을 침범했다.

12년 겨울 백제는 달솔 우영을 보내 군사 5,000명으로 수곡성에 와 침략했다. 15년 겨울 11월 장수를 파견하여 백제를 치려했으나 큰 눈이 와 병사들이 얼어 죽고 살갗이 터져 돌아왔다.

16년 겨울 10월 왕은 장수 고소와 말갈과 더불어 꾀를 내어 백제 한성을 공략하기로 하고 나아가 횡악 아래 주둔하고 있을 때 백제의 군사가 출정하여 싸우다 역전 당해 이내 물러났다.

21년 가을 9월 백제를 침범하여 가불과 원산의 2성을 함락하고 남녀 1,000여명을 사로 잡았다.

제22대 안장왕 5년 가을 8월 군사를 보내 백제를 침공했다.

11년 겨울 10월 왕은 백제와 더불어 오펑에서 싸워 이기고 적군의 머리 2,000여명을 베었다.

제23대 안원왕 10년 가을 9월 백제가 우산성을 포위하므로 왕은 정예군사 5,000명을 보내 쳐 물리쳤다.

제24대 양원왕 4년 봄 1월 예맥의 병사 6,000명을 거느리고 백제의 동산성을 공격했으나 신라장군 주진이 구원을 온고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6년 봄 1월 백제가 침범하려 와 도살성을 함락했다. 3월 백제의 금현성을 공격하니 신라는 그 틈을 타 우리의 두 성을 빼앗았다.

7년 가을 9월 돌궐이 와서 신성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백암성으로 이동하여 공격해 왔다. 왕이 장군 고희에게 군사 10,000명을 주니 싸워 이겨 죽이고 포로로 잡은 자가 1,000여명이었다. 이때 신라가 와서 열 개 성을 빼앗았다.

10년 겨울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제25대 평원왕 32년 왕이 들으니 진(陳)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설명하기를 요수는 넓고 얼마나 긴 강인가 즉 장강은 길며 고구려 사람이 진나라에 다소 살고 있었다고 했다.

제26대 영양왕 9년 왕은 말갈군사 10,000여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침범했다. 여기서 요서는 그 당시 경도 110도를 기준했다. 즉, 지금의 서안 동쪽 80km 지점이 경도 110도였다. 그렇다면 고대 서경인 현재의 서안 서쪽을 말한다. 영주총관 위충이 쳐 물리쳤다. 수나라 문제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한왕(漢王) 양과 왕세자를 원수로 삼아 수륙군 30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케 했다. 한왕 양(諱)의 군사가 임유관에 당도하자 장맛비를 만나 수송이 계속되지 못했다. 진중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또 유행병이 돌았다.

주라후는 동래(東萊)로부터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달리다가 역시 바람을 만나 배가 많이 침몰되었다. 여기서 동래란 지금의 중국 산둥성 액현(掖縣)을 말한다. 그리고 평양성이란 지금의 서안에 있는 장안성이다. 배를 타고 황하로 거슬러 올라 가다가 물살이 거친데다

바람까지 불어 배가 침몰되었음을 뜻한다.

가을 9월 수나라 군사가 돌아가는데 죽은 자가 10명 중 8, 9명이었다. 왕 역시 두려워 사신을 보내 사죄하는 글을 올려 요동분포 즉 요동의 더러운 땅의 신하 누구라고 하므로 수문제에는 이에 군사를 철회하고 처음과 같이 대우했다. 백제왕 창(昌)인 제27대(위덕왕)이 수문제에게 사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왕은 백제의 경계를 침략했다.

14년 왕은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신라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오고 성안에서는 북을 두드리며 서로 호응하므로 고승은 적의 군사가 많고 아군은 적어 이기지 못할까 염려해 후퇴했다.

18년 여름 4월 군사를 보내 백제의 송산성을 쳤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석두성을 공격하여 3,000명을 잡았다.

19년 봄 2월 장군에게 명하여 신라 북쪽 경계를 급습하여 포로 8,000명을 잡았다. 여름 4월 신라 우산성을 빼앗았다.

23년 봄 1월 수나라는 좌 12군, 우 십이군이 평양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무릇 1,303,800명(일백삼십만삼천팔백명)이었다.

기병이 40대 병사가 80대로 나뉘었다. 늘어진 군사가 960리였다. 2월 수제가 군사를 통솔하여 요수에 당도했다. 여러 군사가 다달아 진영을 만들었다. 우리 군사가 물을 사이로 항거하고 지켰다. 수나라 군사는 건너지 못했다. 수제는 공부상서 우문개에게 명하여 세길의 부교, 즉 물위의 다리 요수의 서쪽 언덕에서 만들었다. 부교를 끌어 동쪽 언덕에 닿도록 했으나 한길 남짓 모자라 언덕에 닿지 못했다. 이때 우리 군사가 물려드니 수병의 용맹한 자가 다투어 물속으로 달려와 접전했지만 우리 군사는 높은 곳에서 공격함으로 수병은 언덕으로 오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맥철장이 언덕에 뛰어 오르자 전사웅 명예등 모두 죽었다. 수는 군사를 거두고 부교를 띄워 다시 서쪽 언덕으로 나아가 소부감 하조에게 부교를 있도록 했다. 이를 만에 부교가 완성되자 모든 군사가 차례로 나아가 동쪽 언덕에서 맹렬히 싸웠으나 우리 군사는 크게 무너져 죽은 10,000명 가량 되었다.

수의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고 전진하여 요동성을 포위하였다.

수제가 요동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형부상서 위문승 등을 시켜 요자의 백성을 무마하여 10년의 급여를 부활시켰다. 그리하여 군과 현을 두고 서로 다스리

게 했다.

5월 요동성 군사가 자주 나와 싸웠으나 불리하자 영성을 굳게 닫고 지켰다. 수제는 모든 군사에게 명하여 공격케 했다. 요동성이 장차 함락될 위에게 놓이자 성안의 사람들이 번번이 말하기를 항복을 청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뜻을 받들어 감히 이르지 못했다. 앞서 영(旌)을 받고 달려가 보고 할 때는 이미 성중의 수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나가서 싸워 막고 재삼 반복하는 동안 수제는 깨닫지 못하고 성은 오랫동안 함락하지 못했다고 했다. 6월 수제가 요동성 남쪽에 행차했다. 성의 형세를 관찰한 뒤 여러 장수들을 불러 꾸짖었다.

“공들은 스스로 고관으로 자처하면서 집안의 세도만 믿고 남몰래 욕심을 부리고 사악한 생각으로 기회만 노리고 있다. 도읍지에 있을 때 공들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왔다. 공들을 보면 두려움 속에 병든 것 같다. 수제 즉 내가 여기 온 것은 공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 지를 보러온 것이다. 공들 모두는 참수 즉 목을 베야 할 것들이다. 공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긍지를 갖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공들을 능히 죽일 수도 있다.” 말하면 여러 장수들은 싸울 때보다 더 두려운 얼굴 색이었다.

수제는 성 서쪽의 수리에 머물며 육합성에 거처해 있었다. 우리의 여러 성들은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함락시킬 수 없었다. 좌익위대장군 내호아가 강희의 수군을 거느리고 수 백리에 뻗친 병선으로 바다 같은 강을 떠 먼저 패수에 진입하여 평양성에서 60리 거리에 있었다. 여기에서 패수란 지금의 황하이다. 옛날 패수를 바다 같은 큰 강이란 뜻에서 대동강이라 했다. 혹은 예를 이루었다는 뜻에서 예성강이라 했으며 혹은 강나루가 많아 다다를 수 있다 하여 임진강이라 했다. 그러나 패수의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냇강들은 마치 오리머리같이 푸르다 하여 일명 압록강이라 했다. 고대에는 마자수를 압록강이라 했다. 이곳은 서경인 현도군 서쪽 개마현에 있었다. 이곳은 감숙성과 사천성 북부와 맞닿아 있는 섬서성 서남의 세 성의 접경지대이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패수를 일명 압록강이라 했다가 고려 태조 이후에는 낙양의 동쪽 황하의 하류 옆으로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 했다.

고려 제27대 충숙왕(AC. 1332년) 때는 지금의 한반도 북쪽으로 압록강이 옮겨진 것이다.(중국고금 지명대사전 765쪽과 727쪽 참고)

다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편을 살펴 보기로 한다.

수나라 장군 내호아가 이끈 병선을 우리 군사가 만나 진격해 온 수나라 군사에게 대패했다. 내호아는 승세를 타고 그 성을 육박하려하자 부총관인 주법상이 말리며 여러 군사가 도착을 기다려 함께 진격하자고 청했다. 내호아는 듣지 않고 정예병 수만명을 뽑아 곧장 성 밑으로 달려들었다. 우리 장수는 나관안의 빈 궐속에 복병을 숨겨두고 일부 군사를 내어 내호아와 더불어 싸우다 거짓으로 패했다. 내호아가 쫓아서 성 안에 들어와 군사를 풀어 사람을 사로잡고 물건을 약탈하느라 대오가 흩어졌다.

이때 숨겨둔 복병을 발동시켜 총공세를 하므로 내호아는 대패했다.

그때 내호아는 근근히 몸만 빠져 도망가고 군졸이 살아서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명이었다.

우리 군사는 적의 병선이 있는 곳까지 추격하였으나 부총관 주법상이 진영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물러났다. 내호아는 군사를 끌고 돌아가 해포에 주둔하고 감히 제군을 대하지 못했다.

좌익위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오고 우익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나오고 좌효위대장군 형원항은 요동도로 나오고 우효위대장군 설세웅은 옥저도로 나오고 우둔위장군 신세웅은 현도도로 나오고 우어위장군 장군은 양평길로 나오고 우무후장군 조효제는 갈석길로 나오고 탁군태수 검교좌무위장군 최홍승은 수성의 길로 나오고 검교우어위호 분낭장 위문승은 증지의 길로 나와 모두 압록수의 서쪽에 모였다. 이때 우문술 등의 군사 100일 분의 양식을 받았다. 또 갑옷과 무기 그리고 의복자재와 창등의 도구 등과 화막 즉 불화살을 맞아도 괜찮은 막사를 받았다. 그리고 군중에 내린 명령은 쌀과 조등의 군량미를 버린 자는 목을 벤다고 했다. 그러나 군졸들은 무거워 갈 수 없었으므로 병졸들은 군막 밑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군대의 중간길에 이르자 군량이 이미 떨어졌다.

고구려왕은 대신 을지문덕을 수의 진영에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고 실은 허실을 관찰하려는 것이었다. 앞서 우문중이 먼저 받은 수제의 밀서에는 만약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는 기회가 있으면 사로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을지문덕을 잡으려 오던차 위무사 상서우승 유사용이 군이 멀려 우문중은 못내 그 청을 들어주었다. 을지문덕이 돌아가자 이내 후회하고 사람을 시켜 문덕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다시 오라 했지만 문덕은 돌아보지도 않고 압록수를 건너가버렸다. 중문과 문술 등은 을지문덕을 놓치고 몹시 실망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다. 우문술은 군량이 다 되어 돌아가려 했으나, 중문의 의견은 정병으로 문덕을 추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문술이 군이 말리므로 중문은 노하여 말하길 장군은 십만의 군사를 가지고서 능히 적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무슨 낮으로 수제 즉 수나라 제왕을 뵈겠소. 나는 이 걸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옛날의 명장이 능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이었소. 이렇듯 사람마다 각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적을 이긴단 말이오 라고 했다. 그때 중문이 계획성이 있다하여 제군들은 절도 있게 하라고 하였기에 이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문술 등은 하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

여러 장수들은 강을 건너 을지문덕을 추격했다. 을지문덕은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지치게 하기 위해 싸울 때마다 달아나기만 했다. 이로 말미암아 우문술 등은 하루 사이에 일곱 번 싸우다 승리했다.

이미 손쉽게 승리한 것을 믿고 못사람의 의견에 몰려 급기야 동으로 나아가 살수(薩水)를 건넜다. 이때 평양성과의 거리는 30리였다.

문덕은 산을 의지하여 진영을 쳤다. 문덕은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항복을 하고 우문술에게 청하기를 “만약 군사를 철수한다면 마땅히 왕을 모시고 다시 조회하겠나이다” 라고 했다. 우문술은 자기들의 병사가 지치고 지쳐 다시 싸울 수 없음을 생각했다. 또 평양성은 협하여 줄지 함락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믿었다. 마침 거짓 항복을 구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네모의 대열로 진을 만들어 행군했다.

을지문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방으로 유격대를 보내 유격하므로 우문술 등은 싸우다가 가다 싸웠다. 가을 7월 살수에 도착하여 수나라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널 무렵 우리 군사가 뒤로부터 후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수나라 장수 신세웅이 전사했다. 이에 모든 군사가 무너져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남은 병사가 달아나 압록강에 도착하고 보니 하루 밤 하루 낮에 450리를 걸은 셈이 되었다. 수 장군 왕인공이 후군이 되어 우리 군사를 공격하여 물리쳤다. 내호아도 우문술 등이 패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끌고 도망했다. 오직 우문승의 일군만이 홀로 안전했다. 처음 구군(9軍)이 요에 도착할 때는 무려 350,000명이었다. 요동성에 되돌아 왔을 때는 겨우 2,700명이 남았을 뿐이다. 수만으로 계산되는 물자와 기계가 거의 탕진되었다.

수제는 크게 노하여 우문술 등을 쇠사실에 묶어 돌아갔다. 수나라는 일백삼십만삼천팔백 명의 군사가 동원되어 요수의 서쪽에 있는 무려라를 함락하고 요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처음 백제왕 장인 30대 부왕은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토벌하도록 청했다. 수제는 백제를 시켜 고구려의 움직임을 엿보게 했다. 백제왕 장은 몰래 우리 군사와 내통하고 수군이 움직이려 할 때 백제는 국지모를 수에 보내 군사를 출동할 기일을 정해 달라고 청했다. 수제는 대단히 기뻐하고 회합기일을 알려주었다. 수군이 요수를 건너오자 백제 역시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고 수나라를 돕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24년 봄 1월 수제는 조서를 내려 천하의 병력을 징집하여 탁군에게 모이게 하였다. 또한 백성들을 모집하여 날쌔 장정을 골라 요동고성을 수리하여 군량을 저장케 했다. 2월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기로 결심했다. 좌광록대부 광영이 간하여 말하길 오랑캐가 예도를 모르면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천군의 무계를 지닌 활로 다람쥐를 쏠 수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만민의 존귀하신 몸을 욕되게 하여 줌도둑과 상대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수제는 듣지 아니했다.

여름 4월 수제의 수레가 요수를 건넜다. 우문술과 양의신을 보내 평양으로 향하게 했다. 왕인공은 부여도(道)로 나와 군사를 전진하여 신성에 이르자 우리 군사 수만이 항거했다. 왕인공은 강한 기병 일천으로 공격하여 쳐부셨다. 우리 군사는 영성을 고수했다. 수제의 명을 받은 여러 장수는 요동을 공격했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은 편리한대로 전쟁에 임하도록 했다.

높은 다락과 진을 뚫은 수레, 그리고 구름 사닥다리 등과 지도를 갖추어 진군했다. 그리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으나 우리 측은 그때 그때 임기능변으로 적을 막았다. 20여일동안 공격했으나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주로 수나라 군사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

성벽에 부딪치는 사닥다리의 길이가 45m였다. 효과와 심광이 45m 끝까지 올라가 다다르자 우리 군사와 싸워 짧은 시간에 수십명이 죽었다. 우리 군사는 경쟁적으로 공격하므로 45m 끝까지 올라와 있던 군사가 땅에 닿지는 않았지만 추락했다. 그때 사닥다리 줄에 매달린 심광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본 수제는 장하다고 했다. 그리하여 조산대부의 벼슬을 주었다.

요동성은 오래도록 함락되지 아니했다. 수제는 백여만개의 벼주머니에 흙을 넣어 쌓아

큰 다리 길을 만들었는데 넓이가 30보였으며 높이는 성에 닿게 했다. 군사들은 높이 올라와 공격했다. 또 누각이 있는 팔운차를 만들어 높이가 성높이보다 높았다. 좁은 고개 길까지 올라와 성을 내려다 보고 활을 쏘아 공격하였다. 성 안에서는 위태로웠다.

이즈음 양현감의 반역에 대한 글이 전해오자 수제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고관의 자제가 모두 양현감의 휘하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수제는 근심했다. 특히 병부시랑 곡사정이 본래 양현감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수제는 밤에 비밀리에 여러 장수들을 수집하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게 했다. 이때 군수 물자와 기계 등으로 공격하던 것을 산같이 쌓아두고 군진의 장막도 두고 떠나야 했다. 무리들은 마음이 두려웠으나 여러 길로 나누어 흩어졌다. 우리 군사는 즉시 깨달았으나 감히 출동하지 못했다.

이로써 성 안에서는 북소리가 요란했다. 다음날 12시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행여나 수나라 군사들이 속이는가 싶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이틀이 지나 수천의 군사가 추격했으나 수나라 군사 간에 거리는 8,9십리나 되었다. 수나라 군사들은 요수에 이르렀다. 수제는 요수를 건너 간 것을 알았다. 그때 후군에 뒤따르던 군사도 수만 명이였다. 그때 우리 군사가 들이쳐서 수천 명을 죽였다.

25년 봄 2월 수제는 다시 천하의 군사를 징집하여 여러 길로 나누어 나아갈 것을 명령했다. 가을 7월 수제는 회원진에 머물렀다. 이때 천하가 어지러워 정찰한 군사가 많이 기일을 어기고 도착하지 아니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내호아가 비사성에 당도하자 우리 군사가 맞아 싸웠으나 내호아가 싸워 이긴 후 평양성을 육박할 기세였다. 왕은 두려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했다. 수나라 병부시랑 곡사정이 반란에 가담한 죄로 고구려로 도망온 곡사정을 수나라에 보냈다. 수제는 기뻐하여 사지절을 보내 내호아를 소환했다.

8월 수제는 군사를 철회했다. 우리 사자와 곡사정을 시켜 큰 사당에 고하게 하고 따라서 고구려왕더러 조회하라고 하였으나 왕이 끝내 응하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내려 장병들에게 무장을 단속하고 다시 거사하기로 하다가 실행하지 못했다.

4. 제 4 대전

제27대 영유왕 12년 가을 8월 신라장군 김유신이 동쪽 변방을 침공해 와 낭비성을 파괴시켰다.

21년 겨울 10월 신라의 북쪽 변방에 있는 칠중성을 침공할 때 신라장군 알천이 막아 칠중성 밖에서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했다.

제28대 보장왕 2년 가을 9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백제가 신라의 40여 성을 쳐 빼앗았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오는 길 마저 끊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며 군사를 내어 줄 것을 청했다.

7월 가을 당제(唐帝)는 군사를 출동시키기에 앞서 홍주, 요주, 강주, 의3주에 명령하여 병선 400척을 만들라고 했다. 배가 만들어지면 군량을 싣게하고 영주도독 장검 등을 보내 유주와 영주, 의 두 도독의 군사와 글란, 해, 말갈을 거느리고 먼저 요동은 공격하게 했다.

그리고 그 형세를 관찰케 하고 대리경 위정을 궤수사로 삼고 소경인 소예를 시켜 하남성의 여러 주의 군량을 운반하여 바닷길로 들여 보내게 했다.

11월 형부상서 장량으로 평양도행군 대총관을 삼아 강희, 영협군의 군사 40,000명과 장안과 낙양에서 모집한 군사 3,000명과 병선 500척을 거느리고 내주(萊州)에서 바닷길로 들이닥치게 했다.

여기서 내주는 산동성 발해만에 있는 지금의 액현에서 황하의 입구로 들어가 패수 즉 지금의 황하로 거슬러 올라가 낙양을 지나 지금의 서안에 있는 장안성인 고대 평양성으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다.

또한 태자첨사좌위술 이세적으로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보병과 기병 60,000명과 난주와 하주에서 항복한 호병(胡兵)을 거느리고 양군이 합세하여 유주(幽州)로 모이게 했다.

행군총관 강행본과 소감 구행업을 보내 먼저 못 군사를 독려하여 안라산에서 성(城)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만들게 했다. 그때 가깝고 먼 곳에 있는 용사를 모집하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바치기로 했으나 이긴다는 것은 불가했다. 당나라 왕은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해와 이익이 더하더라도 편리하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수 청하에 조서를 내려 말하길 “고구려 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하고 있기 때

문에 정이야 어떡하던 가히 참기 어렵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당장 몰래 탁군의 서경인 장안성으로 달려가 죄를 묻고 싶으나, 그러한 노력이 헛될 것 같구나. 또 말하자면 옛날 수나라 양제는 잔악하고 포악한데 비하면 고구려왕은 어질고 백성을 사랑했다. 이로써 생각해 보면 어지러운 싸움이였다. 공격하고 싸우되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간략하게 말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도(道)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게 공력하되 최소화해야 한다. 둘은 말한다면 순리로 역습하여 토벌하는 것이다. 셋은 난세를 순리로 다스려야 한다. 넷을 말하면 적을 편안하게 하는 척 하면서 고달프게 해야 한다. 다섯을 말한다면 마땅히 즐겁게 하거나 원한을 갖게 하면 어떤 걱정을 해도 이길 수 없다” 고 했다.

근원적으로 포고를 내리므로 모두가 의아하고 두려웠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물자와 기계 등을 갖추었다고 했으나 태반이 감소되었다. 여러 군사들에게 조서를 내려 신라, 백제, 해, 글란 등에게 길을 분담하여 공격하게 했다.

4년 봄 1월 이세적의 군사는 유주에 이르렀다. 3월 당제는 정주에 이르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요동은 본시 중원의 땅이다. 수씨인 수나라는 사방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나 소득이 없었다. 짐은 요동을 정복하고 욕심같으면 중원의 자제로서 원수를 보복하고자 한다” 고 했다. 당제는 정주를 떠나 친히 폐옥으로 만든 활과 화살과 비옷, 그리고 말을 손수 갖추었다. 이세적 군사는 유성을 출발한 후 다각도로 형세를 살폈다. 곧 회원진을 출발할 때 잠복해 있던 군사들이 빠르게 북쪽 길을 달렸다. 이는 뜻밖이었다. 여름 4월 이세적은 스스로 통정을 지나 요수를 건너 현도에 이르렀다. 고구려의 성(城)과 읍이 모두 문을 닫고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부대총관 강하왕 도종은 수천의 군사로 신성에 이르렀다. 이세적은 강하왕 도종과 개모성을 공격하여 뽑아 버렸다. 그리하여 만명의 포로와 양곡 십만석을 확보한 뒤 그 땅을 개주라 했다. 장량은 군사와 함께 배를 타고 동래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했으나 사면이 절벽이었다. 유일하게 서문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정명진은 군사를 이끌고 밤에 이르렀다. 부총관 왕대도는 앞장서 올랐다. 5월 성이 함락되고 남녀 8,000명을 죽였다.

이세적은 진군하여 요동성 아래에 이르렀다. 당제는 요택에 이르러 보니 이백여리의 진흙땅이 있어 사람과 말이 갈 수 없었다. 장수는 큰 장인을 시켜 흙을 펼쳐서 덮어 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군사는 머물지 않고 요택의 진흙땅을 건너갔다. 고구려왕은 신성과 국내성에 있는 보병과 기병 40,000명으로 요동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했다. 당나라 군사가 피를 흘리며 패하자 도종은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고구려 군의 진이 어지러웠다. 더불어 기마병 수천과 충돌했다. 이세적은 군사를 이끌고 도왔다. 고구려 군사가 패하여 죽은 자가 수천여명이었다. 주야로 22일간 요동성을 공격했다. 당제는 정예군사를 모아 성을 수 백리로 에워 쌓다, 요란하게 북을 울리니 천지가 진동했다.

성안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고 갑옷, 창 등이 있었다. 사방은 포위되어 위급했다. 부인을 미녀로 신(神)이라 했다. 무녀가 말하기를 “주몽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성은 반드시 완전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세적은 포차로 큰 돌을 날리니 300보를 날아 떨어졌다. 돌이 맞은 곳 마저 무너졌다. 성에서는 나무를 쌓아 막았으나 능히 막지 못했다.

당거 즉 부딪치는 수레로 집을 부수었다. 그때 백제가 금색으로 된 검붉은 갑옷과 또한 문채가 있는 검붉은 금색의 갑옷을 올렸다. 당제와 이세진이 함께 입으니 햇빛에 밝게 빛났다. 남풍이 급하게 불었다. 당제는 군졸을 보내 끝머리에 올라가 막대기로 서남의 누각에 불을 붙였다. 화염은 순식간에 성으로 번졌다. 이때 장수와 군사들이 성에 올라가 우리 군사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그때 죽은 자가 10,000여명이며 잡은 병사도 10,000여명이었고 남녀는 40,000명이었다. 양식은 50만석이며 그 성을 요주라 했다. 그리고 백암성을 암주라 했다.

처음에 막리지가 가시성에 있는 군사 700명을 보내 개모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세적에 의해 함락되고 포로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종군하여 공을 세우기를 청했다. 당제는 말하기를 “너의 집이 모두 가시성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싸운다면 개소문이 반드시 너의 처자를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을 얻자고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을 나로서는 차마 못 하겠다” 라고 하고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보냈다.

당제는 안시성에 이르렀다. 군사가 나아가 공격했다. 북부육살 고연수와 남부육살 고해진이 우리군사 및 말갈병 15만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했다. 당제는 세 가지 계책 중에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것이라 했다. 그들은 군사만 믿고 직접 싸우러 올 것이라 했다.

고연수에게 대노인 고정의가 말했다. “옛날 진왕이 안으로 군용을 없애고 밖으로 용족

을 정복하고 독립하여 황제가 되었으니 이는 세상에 흔치 않은 인재입니다. 그가 지금 넓은 바다 같은 땅 안의 군중을 이끌고 왔으므로 대처할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군사를 정돈하여 싸우지 말고 날짜를 오래 오래 끄는 동시에 기병을 나누어 군량을 운반하는 길만 끊는다면 저것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으므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길이 없으니 이기게 될 것이오” 라고 했다. 그러나 고현수는 듣지 아니했다. 군사를 끌고 안시성에서 40리에 진을 쳤다. 당제는 아사나두이를 시켜 돌궐의 기병 일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 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거짓으로 달아나니 연수는 하잘 것 없다라고 다투어 나가니 기세를 타고 안시성 동남 8리 지점에 이르러 산에 진을 쳤다. 이때 당제는 복병을 두어 일시에 공격했다.

연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구려 군사는 30,000명이 죽었다. 연수는 산으로 달아났으나 사방이 포위된 것을 알고 군사 36,800명을 데리고 항복했다. 말갈군사 3,300명을 구덩이에 묻어 버렸다.

6년 가을 7월 우진달에 이해안이 고구려 경계로 들어와 무릇 100여번의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석성을 공격하여 뽑아 버렸다. 나아가 적리성 아래서 고구려 군사 10,000여명이 나아가 싸워 이해안을 공격하여 이겼으나 우리 군사도 3,000명이 죽었다.

당태종은 칙령을 내려 송주자사 왕파리 등에게 강남 12주에 공인(공인(工人)) 즉 배를 만드는 기술자를 모아 큰 배 수백 척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다.

7년 봄 1월 우무위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행대총관으로 삼고 우위장군 배행방을 부관으로 삼아 군사 30,000명과 전선과 전함을 거느리고 래주에서 바닷길로 들어가 공격하게 했다. 여기서 내주(萊州)는 지금의 산둥성 발해만이 있는 액현이다. 이곳이 황하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우연히 우리 보병과 기병 5,000명이 역산에서 싸워 패하게 했다. 그날밤 우리 군사 10,000여명이 신감의 배를 습격하였으나 신감의 복병이 발동하여 패했다. 가을 7월 무협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으로 향해 내주에 닿았다.

9월 전선과 전함을 타고 발해만으로 가 황하 입구에서 압록으로 들어가 박작성 남쪽 40리에 이르러 진영을 만들고 주둔했다.

박작성주 소부손수가 보병과 기병 10,000여명을 거느리고 항거했다. 그러나 우리군사는

무너졌다.

13년 겨울 10월 왕은 장군 안고를 시켜 군사를 출동하여 말갈병과 합세하여 글란을 공격했다. 소막도독 이굴가가 막아 싸워 신성에서 크게 패했다.

14년 봄 1월 우리가 백제 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경계에서 33성을 빼앗았다. 여름 5월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 우리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귀단수를 건너 싸웠으나 정명진 등이 크게 이겨 죽이고 포로로 잡은자가 1,000여명이었다. 그리고 촌락을 불태우고 돌아갔다.

17년 여름 6월 영주도독겸 동이도호 정명진과 우령군중랑장 설인귀 등이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못했다.

18년 겨울 11월 당나라 우령군 장랑장 설인귀 등이 쳐들어 왔으나 우리장군 온사문이 횡산에서 싸워 부셔버렸다.

20년 가을 8월 소정방이 패강에서 우리 군사를 부수고 다음산을 빼앗고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9월 연개소문이 아들 남생을 시켜 정예군사 수만명으로 압록강을 지키므로 당의 군사가 건너오지 못했다.

21년 봄 1월 당의 좌효위장군 백주자사 옥저도총관 방효태가 개소문과 더불어 사수가에서 싸워 전군이 몰살하고 그의 아들 열세명도 모두 전사했다. 소정방은 평양을 포위했으나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26년 가을 9월 이적은 신성을 빼앗고 설필하력으로 지키게 했다. 이적이 군사를 끌고 진격하므로 16개성이 다 항복했다.

27년 봄 1월 우상 유인개로 요동도부대총관으로 삼고 학처준과 김인문으로 부장을 삼았다. 2월 이적등이 우리 부여성을 빼앗았다. 설인귀가 금산에서 우리군사를 부수고 승세를 타 3,000명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우리군사와 싸워 승리하여 부여도에 있는 40여성이 모두 항복했다.

고구려 비기로 말하면 불급 900년이라 했다. 즉 900년이 못미치는 역사라고 했다. 장수는 80명이 없어지고 고구려는 한(漢)나라때 있었다. 고구려는 5부로 나누어져 있었고 176개의 성이다. 호수는 69만호이며 9도독부였으며 42주에 100개의 현이 있었다. 안동도호부를 두고 평양에서 통치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24나라와 전란을 겪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개소문이 왕을 죽이지만 아니했더라도 고구려는 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VII. 결론

삼국사기에 의한 고구려사의 논문을 엮어 보았다. 고구려는 건국하기 이전 195년 전에 이미 구려국으로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기원후 8년에서 9년 왕망은 한(漢)나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라는 나라이름을 천하에 반포한 이래 고구려가 기원후 668년에 망할 때까지 899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구려국왕이었던 주몽은 한반도의 약 4배정도의 강역을 넓혀왔다. 그리고 제19대 광개토왕은 대륙에 있는 소국을 병합시켰다. 또한 강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20대 장수왕 때는 대륙의 외몽고의 중부까지 거의 다 차지할 만큼 천자국(天子國)으로서 손색없이 한반도 전체의 30배가 넘는 대강역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나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특히 한나라가 망한 후 남은 무리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하남성 개봉현에서 자리잡고 전란을 일으키고 위나라는 한때 고구려를 침략해 고구려가 위기에 봉착한 때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나라, 백제, 신라의 삼파전으로 인하여 일시 국력의 소모가 많았다. 그후 설상가상으로 수나라가 생겨 29년간의 치열한 전란으로 고구려는 국력이 상당히 쇠잔했다. 이어서 당나라가 생겨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위기에 부딪치고 있었다.

제27대 영유왕 25년 겨울 10월에는 개소문이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로 고구려의 국운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개소문의 독단에 보장왕은 놀아났다.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계기는 군신간의 안이한 사고와 민족의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국가의 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데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1대 1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무려 24나라와 전란을 겪은데 있었다. 게다가 사망에서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의

식과 투철한 정신력이 강화되지 못했기에 거대한 강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기나긴 역사를 가진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한민족사 (이중재 저)
2. 상고사의 새 발견 (이중재 저)
3. 고구려원전 (상고사학회 저)
4. 고구려본기 (상고사학회 저)
5. 고구려 뿌리역사 (상고사학회 저)
6. 고구려사 정역에 대한 고찰 (상고사학회 저)
7. 고구려 전란사 (상고사학회 저)

고산동 부용산 미륵암과 미륵신앙 고찰

—미륵좌상과 삼층석탑에 대해서—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目次

I. 머리말

II. 부용산 미륵암 용화전 미륵좌상과 삼층석탑

1. 미륵암 창건설화 및 연혁
2. 미륵암 용화전 미륵좌상
3. 부용산 미륵암 3층석탑

III. 한국 미륵신앙 전개

1. 삼국시대 미륵신앙
 - 1) 삼국시대 미륵신앙의 여러 모습
2. 통일신라 미륵신앙
 - 1) 진표율사와 미륵불이야기
 - 2)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3. 고려시대 미륵신앙
 - 1) 반야산 관촉사 창건설화
 - 2)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 3) 파주 장지산 용미리 석불입상
4. 조선시대 미륵신앙
5. 근대 미륵신앙과 부정적 미륵신앙
 - 1) 근대 미륵신앙
 - 2) 부정적 미륵신앙

IV. 맺음말

집필자 : 최영희

의정부시 시정40년사 편집위원, 의정부 문화원 이사, 현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불교가 전래된 삼국 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은 면면히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산 이름과 절 이름 등에 미륵, 용화, 도솔 등이 자주 쓰였고, 미륵신앙에 얽힌 설화가 민간에 널리 퍼진 것도 모두 미륵신앙의 영향이었다. 백제 미륵신앙의 본거지였던 익산의 미륵사 창건설화는 다분히 전설적이지만, 사자사나 용화산 등의 지명에서부터 벌써 미륵신앙의 상징이 등장한다. 또한 신라시대의 화랑과 미륵신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것은 분명 미륵신앙이 신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이었다. 미륵신앙의 이상 세계를 그 당시 사회에 구체적으로 역사화 시키고자 하였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미래의 미륵이 출현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미륵신앙은 주로 하층민의 희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미륵 신앙이란 지난날 석가모니불이 그 제자 중의 한 사람인 미륵에게 장차 성불하여 제 1인자가 될 것이라고 수기한 것을 근거로 삼고, 이를 부연하여 편찬한 『미륵삼부경』을 토대로 하여 발생한 신앙이다. 이 삼부경은 각각 상생과 하생과 성불의 세 가지 사실을 다루고 있다. 미륵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부지런히 덕을 닦고 노력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을 만날 뿐 아니라, 미래의 세상에 미륵이 성불할 때 그를 쫓아 염부제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미륵불의 용화법회에 참석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미륵사상의 중심은 미륵(Maitreya)이다. 원래 '친우'를 뜻하는 미트라(Mitra)로부터 파생된 마이트레야는 '자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미륵보살을 '자씨보살'이라고도 불려왔다. 관세음보살을 대비보살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미륵하생경》에 의하면 미륵보살은 인도 바라나시국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 석가의 교화를 받으면서 수도하다가,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은 뒤 도솔천에 올라갔고, 지금은 천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가모니불이 입멸하고 56억 7천만년이 지난 뒤, 인간의 수명이 차츰 늘어 8만세가 될 때에 이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며, 3회의 설법으로 교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중생 구제를 위한 자비심을 품고 먼 미래를 생각하며 명상하는 자세가 곧 반가사유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미륵보살을 믿고 받드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현재 보살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또는 보살이 보다 빨리 지상에 강림하기를 염원하며 수행하는 신행법이 널리 유행하였다.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통속적인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원론적인 구세주의 현현(顯現)을 의미하기도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품게 되는 이념으로서, 지나치게 이론적인 종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불교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 형태가 곧 미륵신앙이다. 미래사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념이 표출된 희망의 신앙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불교사 속에서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륵사상과 미륵신앙에 근거해서 조성되었을 고산동 소재 부용산 미륵암 내의 석조미륵불과 석조삼층석탑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부용산 미륵암 용화전 미륵좌상과 삼층석탑

1. 미륵암 창건설화 및 연혁

의정부시 고산동 647번지 부용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의정부 시내에서 고산동행 1~5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던가, 43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오른쪽에 의정부교도소입구 안내판이 보인다. 건너편에는 신숙주선생 묘소입구 안내판이 보이는데, 이 길로 들어서서 조그만 시멘트 다리를 지나면 반사경이 있는 곳에 미륵암이라는 화살표가 보인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부용산 중턱에 자리한 미륵암에 닿게 된다.

미륵암은 조선초 학자이며 정치가인 신숙주(1417~1475)선생과 관련이 있어 더욱 흥미를 끈



〈미륵암 전경〉

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숙주의 꿈에 ‘양주 부용산 자락 약수터 아랫터를 파서 나를 숨 쉬게 해 달라’ 는 소리에 잠을 깨어 이곳을 찾아 파보았더니 정말 미륵불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조께 아뢰고 이 절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일까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기도 기념물 제88호인 신숙주묘소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구전을 사실화한다.

한국사지총서(韓國寺誌叢書) 제4집(輯) 봉선사본말사지 미륵암 편에는 “미륵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창건설화에 의하면 세종 때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미륵불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은 신숙주에게 명하여 절을 짓게 했으며, 신숙주는 승려 혜암(慧庵)에게 부탁하여 절을 짓고 불상을 모시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왕실의 후원으로 혜암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양주 부용산의 미륵암에 관한 창건설화를 찾아볼 수 없다. 어쨌든 절은 불교를 외회했던 세조(재위1455~1468)때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을 모시는 미륵도량으로 출발했던 셈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일단 세조의 재위 마지막해인 1468년을 창건년도로 보기도 한다.

절이 창건이후 조선시대에 어떠한 번전을 겪었는지를 전해주는 어떤 자료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1871년에 간행된 《경기읍지》 가운데 〈양주목읍지〉 불우(佛宇)조에도 부용산의 미륵암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봉선사에서 발행한 《봉선사본말사지》에 의하면 1892년(고종 29)에 승려 운송(雲松)이 한차례 중수하였고, 1924년에 주지 학송(鶴松)이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향로와 다기(茶器) 등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3년 뒤인 1927년에 산신탱화와 독성탱화를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절의 연혁은, 1950년 승려 경하(慶河)가 중수하고, 1970년 승려 청운(靑雲)이 요사를 중건했으며 1975년에는 비구 일우(一雨)가 대웅전·산신각·요사채를 중수하면서 면모를 일신했다고 한다. 또 1981년에는 13층석탑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 뒤 1988년부터 1993년에 이르는 동안 용화전 준공, 요사 증축 및 중건 등의 불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법당인 용화전과 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다. 유물로는 조선 세종 때 발견된 석조미륵불과 경내 삼층석탑이 있다. 그리고 2002년 승려 미등(彌燈)이 석조미륵좌

상의 석조좌대와 협시보살을 조성하였다. 2003년 9월경 토지 1045㎡(약 350평)을 조계종 미륵암 앞으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2003년 12월 정부지원으로 용화전 지붕의 기와를 전부 교체하였다.

2. 미륵암 용화전 미륵좌상

용화전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그 분의 불국토인 용화세계(龍華世界)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상징화한 법당이다. 즉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을 사찰 속에 응축시킨 것이 미륵전이요, 먼 미래의 새로운 부처님 세계에서 함께 성불하자는 것을 다짐하는 참회와 발원(發願)의 장소인 것이다. 이 전각은 미륵불에 의해 정화되고 펼쳐지는 새로운 불국토 용화세계를 상징한다고 하여 ‘용화전’ 이라고도 하며, 미륵의 한문 의역인 ‘자씨(慈氏)’를 취하여 ‘자씨전’ 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당 안에는 현재 도솔천에서 설법하며 내세에 성불하여 중생을 교화할 미륵보살을 봉안하거나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될 미륵불을 봉안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륵불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 미륵보살은 지금 천상의 불국토인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위해 설법을 하고 있으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한 뒤 56억7천만 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 내려와 용화수(龍華樹)아래서 성불하고 세 번에 걸쳐 설법함으로써 완성된 미륵의 국토를 건설하게 된다. 이 세계를 용화세계라 하므로 상징하는 전각을 ‘용화전(龍華殿)’ 이라고 하며, 미륵의 한문 의역(意譯)인 ‘자씨(慈氏)’를 취하여 ‘자씨전’ 이라고도 한다.



〈석조 미륵좌상〉

한편, 법당에 석가불을 안치할 경우는 대웅전이라 하고, 아미타불을 모실 경우는 아미타전 혹은 극락전이라 한다. 그리고 비로자나불을 안치할 경우는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법당(금당)의 현판은 대부분 안에 모시는 본존불에 의해 정해진다.

미륵불은 미래에 도래할 부처이다. 불교의 메시아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처인 것이

다.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로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가 국토의 조건이 마련되면 하생한다. 미륵불은 장래에 도래할 부처이므로 지금도 사바세계로 오고 있음을 상징하여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모습으로 많이 조성된다. 특히 미륵은 삼존불로 조성된다. 이것은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한다는 《미륵하생경》에 근거해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왔음을 상징하며 삼존불로 보신다. 이러한 미륵삼존불의 조형(造形) 형태는 백제 무왕이 창건했던 익산 미륵사에서 시작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승려 진표에 의한 삼존불의 조성사상은 다시 미륵불의 지역을 세 곳으로 확대하여 절을 창건하게 되었다. 곧 김제 모악산 금산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금강산 발연사 등에 미륵부처를 봉안하는 대사찰을 건립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고려시대 미륵불은 국가의 비호아래 대대적으로 조성되었고 그 규모도 거대하였다. 논산 관촉사미륵불, 안동 제비원미륵불, 안성 대평미륵, 중원 미륵사 미륵불 등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뒤 조선에 들어와 불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불상이 유생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파괴된 불상을 복원하여 미륵불로 신봉하였고 새로운 불상을 조성할 때면 거의 미륵불이었다. 미륵은 조선시대에 민간신앙으로 깊이 신봉되면서 마을을 지키는 수신(受信)역할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령으로 모셔졌다. 특히 아들을 낳고자하는 여인들에게 절대적인 부처로 신앙되었다. 여기에서 미륵(彌勒)이라는 명칭은 범어 마이트레야(Mait-reya)의 한역인데 자씨(慈氏), 곧 ‘자비한 어머니’라는 말이다. 기독교의 메시아란 말과 같은 뜻으로 미래세에 출현하는 미래불이다.

미륵불(彌勒佛)이란 석가모니부처가 입멸한 후 56억7천만년이 지나면 수범마를 아버지로 하고, 범마발계를 어머니로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염부제에 태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미륵불은 화림원의 용화수아래에서 성불하여 용화세계를 건설했고, 복을 짓고 있는 중생들에게 세 번의 설법(說法)을 통하여 제도하기로 되어있는 미래불이다. 지금은 미륵보살로서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천인(天人)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으나, 때가되면 하생하여 성불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 고삼동 부용산 미륵암 용화전은 팔각지붕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목조건물이다. 본존인 미륵좌상은 하얗게 도색이 되어있고, 왼손에는 용화보주를 들고 있다. 미륵불상의 협시보살로 좌측에는 법화림보살이, 우측에는 대묘상보살이 봉안되어 있으나 이 보살상들은 본존불 대좌¹⁸⁷⁾와 함께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미륵삼존상〉

이 본존인 미륵좌상이 창건설화에 나오는 발견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조선 초기 이전의 석불(石佛)로, 즉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조성되었다가 사찰이 폐사되면서 땅속에 묻혔다가 인연이 닿은 사람에 의해서 조선 초기에 발견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어떠한지 연구해 볼이다. 더군다나 이 미륵불은 불상 도록이나 필자도 전에 본적이 없는 모습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불교미술사적 양식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부용산 미륵암 용화전 미륵불은 석조좌상으로 소형이다. 불상조성기법도 매우 소박하게 선각으로 두리뭉실하게 조성한 조잡한 형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등신으로 머리 부분이 1/3을 차지해서 크게 표현되었고, 목의 삼도¹⁸⁸⁾ 표현도 회계 도색한 부분 위에 보이고, 법의는 우견편단 인듯한데 오른쪽 어깨에 편삼이 표현된 것 같다. 화강암을 일일이 정(釘)으로 쪼아 법의의 주름상태 세부묘사를 하기에는 조잡한 편이나 수인(手印)¹⁸⁹⁾은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하고 왼손에는 지물(持物)인 용화보주를 들고 있다. 나중에 흰칠을 걷어내고 실측조사를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본고에서는 겉모습만으로 관심을 표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륵불은 전각 안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건물 밖에 입불(入佛)로 조성되어 있다. 전각을 만들어 봉안할 경우에는 앉아 있는 모습이거나 보살상으로 조성된 경우

187) 대좌 : 대좌란 불상을 안치하는 자리, 곧 좌대를 말한다. 좌대는 수미산을 상징하여 만들었다하여 수미대좌라고도 한다. 수미대좌의 모양은 수미산의 형상처럼 가운데가 오목하고 아래와 위가 넓은 원통형이다.

188) 삼도(三途) : 불상의 목 부분에 음각으로 조성되는 세 줄의 선을 말한다. 원만하고 광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상징한다.

189) 수인(手印) : 손으로 짓고 있는 인장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인장이란 여래의 내적 깨달음 곧 스스로의 깨달음과 서원 또는 공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수인이란 모든 불 • 보살이 수행할 때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소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손 모양을 말한다.

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미륵불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반가부좌의 자세로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깊이 사유하고 있는 모습인 미륵반가사유상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미륵불이라기보다 미륵보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이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란 미륵불이 되기 전의 보살 단계이고, 현재에도 도솔천에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하생할 수 있는 국토의 요건이 충족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다.

미륵이 하생할 국토의 요건이란 전쟁과 환란이 없고, 물질이 충족되어 있는 세상으로 전륜성왕을 중심으로 중생이 만드는 세계이다. 미륵불은 이 사바세계에 하생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한다. 이를 융화삼회설법(龍華三會說法)이라 한다.

3. 부용산 미륵암 삼층석탑

탑은 부처님의 사리(遺骨)나 유품을 봉안하기 위해 만든 조형 건축물이다. 탑은 산스크리어로는 ‘스투파(Stupa)’로서 부처의 묘탑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탑을 처음으로 세우게 된 것은 석가입멸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인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탑은 반구형의 분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것이 차차 후대에 이르러 그 밑에 높은 기단을 만들어서 탑신(塔身)을 받치고 상륜(相輪)도 그 수효를 늘리는 한편, 주위에 돌난간을 둘러 아름다운 조각을 새겼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인도식 반구형 봉분이 사라지고 목조 누각의 형태를 갖춘 중국식 목탑으로 변하였다. 그 목탑 양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삼국시대에는 목탑이 유행했으나 차츰 한국식의 석탑이 주류를 이루면서 정착하였다.



〈삼층석탑 전경〉

탑의 구조를 보면 우선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부분으로 되어있다. 기단부는 탑신을 올려놓는 기초이며, 기단위에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된 부분이 탑신부이다. 상륜부는 노반을 기초로 해서 구륜(九輪)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장식된다.

탑신부의 한층은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되며 몸돌에는 인왕상과 사천왕상, 화불, 보살상 등이 새겨진다. 또한 몸돌의 각 변에는 때로 자물쇠 모양을 새겨놓았는데, 이는 탑신부가

일종의 집을 상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탑신부 위쪽부터 상륜부가 전개되는데, 상륜이라는 말은 수연(水烟) 밑에 있는 구중원륜(九重圓輪) 또는 보륜(寶輪)의 판 이름이다. 현존하는 탑 가운데 상륜부가 조성당시의 형태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상륜부 아래로부터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의 순서로 철심에 꿰어 올려져 있다. 수연 아래에 있는 테 모양의 장식을 특별히 상륜이라 하는 것은 표상(表相)이 높이 솟았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석탑 상륜부〉

부처의 진신(眞身)을 모시고 있는 탑이 처음부터 불교신앙의 중심체였던 만큼, 불교도들은 부처를 옹위하고 그의 세계를 장엄하기 위하여 탑의 조성에 정성을 쏟았다. 기단과 탑신부에 사천왕상과 팔부중상, 십이지신상을 비롯한 불국의 수호신들을 새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탑 속의 부처와 그의 세계를 외호케 하였으며, 오묘하고 신비한 장식물들을 상륜부에 배풀어서 모든 개념과 형식을 초월한 부처의 경지를 표상하였던 것이다.

부용산 미륵암 사각삼층석탑은 예전에 조성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1981년에 조성된 13층 석탑이 용화전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탑을 조성할 때는 3·5·7·9·13층 등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탑을 홀수의 층수로 조성한 배경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탑의 층수는 불교 교리나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신앙의 주류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과 음양오행사상이었다. 그 사상 체계는 하늘과 사람의 상호 감응하는 이치를 통하여 천의(天意)를 인간사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사람은 천지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참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인간이 천지자연의 법칙을 체득하면 천지와 더불어 지위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인간 자신이 그 원리와 법칙을 스스로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늘의 뜻을 인간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 중의 하나가 우주의 원리에 응(應)하는 수



〈삼중석탑〉

를 유·무형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 예를 『삼국사기』 「잡지(雜志)」악(樂)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문고에 대해 말하되, “거문고의 길이 3자 6치 6푼은 366일 상징하고, 너비 6치는 육합(六合; 천지와 사방)을 상징한다. 5줄은 오행을 상징하고……” 라는 기록이 있다.

『풍속통(風俗通)』을 인용하여, “거문고의 길이 4자 5치는 사시(四時)와 오행을 본받은 것이고, 7줄은 칠성(七星)을 본받은 것이다. 쟁(箏)¹⁹⁰⁾은 길이가 6자이니 음률의 수에 응한 것이고, 기둥의 높이가 3치인 것은 하늘

· 땅 · 사람을 상징한다.” 는 기사도 보인다. 여기서 3의 수는 천·지·인 삼재(三才)를 뜻하며, 5의 수는 오행, 7의 수는 칠성(七星)에 응하는 도상화된 수를 말한다. 우주의 원리에 응하는 도상화된 수를 생활 속에 적용한 예는 건축물의 구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찰 건물은 아니지만 창덕궁 대조전처럼 정방형을 아홉 개의 방형으로 균등 분할한 뒤, 그 중심 위치인 5의 자리에 임금의 침전을 마련한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천자(天子)의 자리인 구오(九五)에 응한 것이다. 또 경복궁의 광화문이나 근정문에서 궁궐 전각의 칸수를 3·5·7……의 홀수로 하거나 삼문(三門) 형식으로 조성한 것은 삼재와 오행 등을 바탕으로 한 길상(吉祥)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홀수로 된 탑의 층급도 이러한 조탑(造塔)의 지의 일부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탑이 홀수의 층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한 길상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탑뿐만 아니라 사찰의 입지(立地)선정이나 불전의 칸수 설정, 단청의 배색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러테 이런 현상들은 불교 교리나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탑에 오행사상을 근거로 한 도상화 된 수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탑이 불교 신앙의 대상이기 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음양오행사상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당시 사회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란 건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화강암 석탑이 많이 남아 있으나, 고산동 미륵암 석탑과 같은 형태는

190) 쟁(箏) : 거문고와 비슷한 13현의 악기를 말한다.

한수 이북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편이다. 미륵암 정면에서 왼쪽으로 보면 한 쪽에 2m도 채 안 되는 작으마한 사각삼층석탑이 눈에 띈다. 새로 탑을 조성하면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탑의 규모가 작지만 탑의 기단부가 2층으로 안정적이고, 탑신부 지붕돌의 안쪽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에 조성한 탑이 아닐까 싶다. 안정된 2층 기단에 규모가 크지 않아 중간에 탱주는 생략한 듯 하고, 탑신부 지붕돌의 안쪽면이 계단식으로 조각된 것과 1층 몸돌에 문비를 조각한 양식은 대부분 신라시대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 탑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사각 삼층으로 몸돌에는 우주(隅柱) 표시만 하고 조성한 것을 보면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석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격적으로 시기가 언제인지 탑의 양식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Ⅲ. 한국 미륵신앙 전개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전래되면서 미륵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되었다. 미륵불은 먼 훗날 이 땅에 출현해서 중생들을 제도할 미래세의 부처로 지금은 도솔천¹⁹¹⁾에서 천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륵불이라고도 하고 아직은 부처가 아니므로 미륵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미륵이란 인도의 옛말 ‘마이트레야’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 본래는 사랑, 우정, 자애 등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미륵부처에 대한 믿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과 《미륵당래하생경》 《미륵대성불경》 등이 나오고부터이다.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의 내용에 따라 역사적으로 미륵부처에 대한 믿음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의 두 가지 향상을 띠고 있다. 즉 상생신앙이란 현재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회구하는 아미타신앙과 흡사한 왕생신앙이고, 하생신앙이란 앞으로 이 땅에 출현할 미륵부처를 숭상하여 십선업(十善業)을 닦으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미륵하생경》에 의하면

191) 도솔천 : 육계 6천의 하나로서 이 하늘의 내원(內院)은 장래 부처가 될 보살의 주저지로 일컬어지며, 석존도 여기에서 수행하고 현재 미륵보살도 이곳에서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그곳의 천인(天人)의 수명은 사천년, 그 하루밤낮이 인간계의 사백년에 해당한다고 한다.

장차 전륜성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미륵이 태어나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세 차례의 설법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이 땅에 용화세계를 건설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륵불의 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되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뒤 56억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이다. 그때의 이 세계는 이상적인 국토로 변하여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8만4천세나 되며, 지혜와 위덕이 갖추어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에 케투마티(Ketumati, 鷄頭末)라는 성이 있고, 이곳에 상가(Sankha)라는 전륜성왕이 정법(正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에는 수많은 보배들이 길거리에 즐비하지만, 사람들은 이 보배를 손에 들고 “옛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다지,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을 탐하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고 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 미륵이 수범마와 범마월을 부모로 삼아 태어난다. 그는 출가하여 용화수(龍華樹)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에 걸쳐서 사제¹⁹²⁾ · 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법문을 설한다. 그리하여 1회에는 96억 인이, 2회에는 94억 인이, 3회에는 96억 인이 각기 아라한과(阿羅漢果)¹⁹³⁾를 얻는다고 한다. 이것이 용화삼회(龍華三會)의 설법이다. 중생을 교화하여 이들이 진리에 눈뜨게 하기를 6년, 그 뒤 미륵불은 열반에 든다. 그런데 미륵불의 세계인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갖가지 노력이 요청된다. 즉 경(經) · 율(律) · 논(論)의 삼장(三藏)을 독송하거나,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하거나, 지혜와 계행(戒行)을 닦아 공덕을 쌓거나, 부처님에게 향화(香華)를 공양해야 한다. 또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깊은 자비심을 내거나, 인욕과 계행을 지켜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거나, 절을 세워 설법하거나, 탑과 사리를 공양하며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생각하거나,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공덕으로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 있다. 결국 이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출현하는 국토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대하여 설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죄악의 종자와 모든 업장

192) 사제 : 사성제라고도 하며 인생문제와 그 해결법에 대한 네 가지의 진리라고 하는 뜻. 고(苦,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진실), 집(集, 고통의 원인이 번뇌·망집이라는 진실), 멸(滅, 무상의 세상을 초월하여 집착을 끊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 도(道, 팔정도의 올바른 수행만이 이상의 경지로 이끄는 실천)

193) 아라한과 : 성문(聲聞)이 순서대로 얻는 4계급 중 마지막 계급으로 삼계의 전혹(見惑)과 사혹을 끊고, 공부가 완성되어 존경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의 지위

과 번뇌의 장애를 끊고 자비심을 닦아서 미륵불의 국토에 나도록 하자는데 그 깊은 진의가 있다. 이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삼국의 불교 전래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널리 신봉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미륵삼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발원하면서 미륵불상을 조성하였고, 백제에서는 미륵삼존이 출현한 용화산 밑에 있는 연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신라에서는 진자(眞慈)라는 승려가 흥륜사(興輪寺)의 미륵불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할 것을 발원한 결과 미시(未尸)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거나, 김유신(金庾信)이 그의 낭도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던 것 등은 모두 이 미륵불신앙의 긍정적인 일면이다. 반면에 후삼국의 궁예(弓裔)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칭 미륵불 행세를 한 것이나, 고려 우왕 때의 이금(伊金)이 미륵불로 자칭하며 흑세무민한 일, 조선 중종 때의 승려 여환(呂還)이 자칭 미륵이라 하면서 왕권을 넘보았던 일 등은 모두 미륵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다.

1. 삼국시대 미륵신앙

우리나라 미륵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그 초창기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순도를 파견하였던 전진의 왕 부견이 서역으로 사신을 보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미륵불상을 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미륵신앙이 전개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평양에서 발견된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광배뒷면에 있는 명문을 통하여 미륵신앙의 전개를 살필 수 있다. 여기에는 죽은 스승과 아버지가 용화삼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발원하여 미륵상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백제에서는 6세기 이후부터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634년(선덕여왕 34년)에 낙성된 미륵사는 무왕이 익산지방에 별도(別都)를 경영함에 따라 세운 삼국 제1의 규모를 가진 대 가람이었다. 창건연기설화가 말해 주고 있듯이 이 절은 왕과 왕비의 원찰이었고, 백제 미륵신앙의 중심사원이었다. 특히 용화산 아래의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미륵신앙은 주로 하생신앙이었음을 살필 수 있다. 백제 불교는 계율주

의적 경향에서 미륵신앙을 발전시켰다. 백제 미륵신앙의 특징은 현실국토를 미륵국토화 하려는 ‘국토적 구현’을 특징으로 하는 하생 신앙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 땅에 미륵불의 용화세계를 실현하려는 신앙이다.

신라에서 미륵신앙이 넓게 퍼져 있었음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기사와 불상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신라 최초의 절이었던 흥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다. 흥륜사의 승려 진자(眞慈)는 항상 미륵불상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하여 줄 것을 발원한 결과 미시(未尸)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고 한다. 화랑이 꽃같이 용모 단정한 미소년들이었다는 것은 미륵보살의 용모에 견준 것이고, 화랑의 대장을 국선(國仙)이라고 부른 것은 미륵을 ‘일체지광선(一切智光仙)’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 있는 말이다. 또 실제로 모든 화랑들이 한결같이 미륵보살을 숭앙하면서 미륵의 지도와 보호를 받았던 사실은, 모두 화랑제도가 미륵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솔천 상생의 소원과 미륵불의 하생 후 안락한 국토의 실현을 회구하는 미륵신앙은 신라의 전시대를 걸쳐 화랑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흥륜사 승려였던 진자(眞慈)가 미륵불이 화랑으로 화현해서 그들 무리를 이끌고 지켜주기를 바랐던 사실, 그리하여 미륵선화(彌勒仙花)를 만나 국선으로 모셨던 사실, 경주 단석산(斷石山) 등 화랑들의 수련장에는 거의 예외없이 미륵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지금도 그 불상들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또한 김유신은 그가 화랑으로 있을 때의 무리들을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다. ‘용화’란 미륵보살이 장차 하생하여 성불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장소인 용화세계의 용화를 딛는 것이다. 이처럼 신라 미륵신앙의 특징은 미륵을 신봉하고 도를 구하면, 그 몸이 그대로 미륵불이 된다는 미륵성불사상과, 미륵이 화랑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륵이 인간계의 이상에 응하여 현실화한다는 미륵의 ‘인격적 구현’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역시 하생 신앙이지만, 신라의 하생 신앙은 정치적, 종교적 통제 목적에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1) 삼국 미륵신앙의 여러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3층 조각공예관 특별실에는 국보 제83호인 반가사유상을 백제 작품이라고도 하고, 신라작품이라고도 본다. 흔히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과 비견되는 걸작이

다. 로댕의 그것이 예술적인 완결미를 추구했다면, 이 반가사유상은 정신적인 면을 추구한 점에서 출발부터 다르다. 정확히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은 이것 외에도 적지 않은데, 삼국기 모두 만들어 숭배하였다.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소박한 삼산관을 쓰고, 오른쪽 다리를 무릎에 걸쳐 엎고 약간 수그린 얼굴에 오른쪽 손가락을 턱에 살짝 켜 모습이다. 그가 사는 곳은 추위가 없는 듯 상체를 벗고 있는데, 그렇다고 더위를 느끼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 아마도 추위도 더위도



〈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곳에 사는 듯하다. 하의가 흘러내린 수려한 모양을 보면 가히 천의(天衣)라는 말이 어울리는, 기품 있고 고상한 자태다. 미륵보살은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분으로 지금 도솔천에서 삼매(三昧: 불교적 명상)에 잠겨 있다. 중생이 모든 계를 잘 지키고 정진하며, 십선법(十善法)을 닦아 도솔천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목숨이 다한 뒤 미륵보살 앞에 왕생한다는 믿음이 미륵상생(彌勒上生)신앙이다. 미륵하생(彌勒下生)신앙은 먼 미래에 이 땅이 낙토(樂土)가 되었을 때 미륵이 하생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접하는 신라인들 신앙의 실체는 이렇게, 그들이 반가사유상을 조성하여 내생에서 도솔천상에 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실은 대부분의 미륵관련 경전에서 팔관재를 설하고 있으니, 이미 팔관회를 연 자체가 미륵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된다. 신라인들은 무덤에 돌미륵을 안치하기까지 하였으니,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소망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였다.

선덕여왕 때 승려 생의(生義)는 언제나 도중사(道中寺)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매어 표시를 해놓게 하더니 남쪽 골짜기로 와서 말했다.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이를 파내어 고개 위에 편히 묻어 주시오” 꿈에서 깨자 생의스님은 친구와 함께 그 골짜기에 이르렀다. 표시해 놓은 곳을 찾아 땅을 파보니 거기에서 돌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三花嶺)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여왕

13년(644)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후에 절 이름을 생의사라고 했다. (『삼국유사』 「생의사석미륵」 편)

경주 남산의 삼화령 정상 부근, 장창곡(長倉谷)의 한 석실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온 미륵삼존(彌勒三尊: 미륵불과 그를 모시는 양쪽 보살)이 있다. 가운데 있는 부처는 의자에 앉아 있고, 두 보살은 서 있는 입상(立像)이다. 땅딸막한 체구가 인상적이고, 특히 보살의 얼굴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얼굴이다. 이러한 얼굴과 옷매무새가 7세기 중엽 신라 불상의 특징으로서 이들



〈경주 삼화령 미륵삼존상〉

삼존이 바로 생의사 돌미륵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그런데 현재 알고 있는 삼화령은 위치 비정(比定)이 틀렸고, 문제의 석실이란 것에도 의문이 많다고 한다. 오히려 삼화령은 남산의 ‘용장굴과 대지계곡을 거느린 뱃부리’로 보아야 맞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화랑상(花郎像)이란 관창(官昌)이나 사다함처럼 용맹스럽고, 신의를 위해 서라면 죽음도 마다 않는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 때 이름을 남긴 경우이고, 오히려 화랑의 본래 모습은 삼화령 보살상의 얼굴처럼 옛되고 순진무구한 형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신라인들은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졌다. 즉 미륵하생신앙도 있었으니, 생전에 미륵보살을 모시고 살고, 죽어서는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생사관을 가졌다. 물론 이것은 삶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치자(治者)계급에 한해서 타당한 말이겠지만, 역사상 어느 시대의 이데올로기이든 이상향을 펼쳐 보이게 마련인데, 거기에 불교가 적극 참여한 것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죽은 이가 승천하기를 바랐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변진(弁辰, 변한)의 습속은 이렇하다. “큰 새의 깃털을 죽은 이와 함께 묻었는데, 그것은 그가 잘 날아가라는 뜻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사후의 세계는 있다. 삼한시대 우리 선조들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대개는 현실 세계를 보고 연상하게 되니, 저승도 이승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생전에 쓰던 가재도구를 함께 묻어 주었고, 또는 그보다 더 좋은 의기(儀器)를 만들고, 때로는 벽화를 그려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예비했던 것이다.

2. 통일신라 미륵신앙

통일신라시대의 미륵신앙은 백제 땅의 미륵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그것을 토대로 신라의 미륵신앙을 가미하여 인격적인 구현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한 특징을 가진다. 이 시대 미륵불을 모신 최초의 사찰이 전북 김제의 금산사이며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미륵불이 어떤 분인지, 출발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표율사에 대해 빼놓을 수가 없다.

통일 신라 시대에 접어들면 전반적인 불교학의 발달과 함께 미륵 사상에 대한 학문적 논리 체계를 세우게 된다. 즉 원효와 의상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경덕왕때의 승려이자 낭도였던 월명사는 도솔가를 지어 꽃을 통하여 미륵을 친히 모셔줄 것을 기원함으로써 미륵 왕생의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역시 경덕왕 때의 충당사는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불상에게 차공양을 올렸다. 이 삼화령의 미륵불상은 일찍이 선덕여왕 때의 승려 생의가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파내어 모셔 둔 것이었고, 현재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 전해지고 있다.

1) 진표율사와 미륵불이야기

신라 성덕왕 대 전주 벽골군 산촌 대정마을(지금의 김제군 만경면 대정리) 어부 정씨 집안에 오색구름과 서기(瑞氣)가 서리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이 상서로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장차 크게 될 인물이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축하했으니 이 아이가 바로 유명한 승려 진표이다. 아버지 진내말과 어머니 길보랑 사이에서 태어난 진표는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진표가 11세 되던 어느 봄날이다. 친구들과 산에 놀러간

소년은 개구리 열 마리를 잡아 끈에 꿰어 물속에 담가 두고는 그만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봄, 작년에 두고 온 개구리 생각이 나서 다시 산에 가보니 열 마리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울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본 순간 소년의 가슴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개구리를 풀어준 소년은 친구들과 떨어져 조용한 곳에서 생각에 잠겼다.



〈금산사 미륵삼존상〉

생명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죽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다 문득 먼 산을 바라본 그는 그곳에 가고픈 충동을 느꼈다. 어떻게 산을 넘고 내를 건넌는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다. 어두워서 당도한 곳이 모악산 기슭에 자리한 금산사였다.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서 온 누구냐?”

“예, 대정리에 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오게 됐습니다.”

“오, 전생의 인연지인 모양이구나. 그래 잘 왔다. 언젠가는 이곳의 주인이 되겠구나.”

노승은 소년이 기록한 듯 쓰다듬으며 반겼다. 이튿날 집에 돌아오니 집에선 소년이 금산사에 다녀온 것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장정도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그날부터 말이 적어지고 늘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어요.”

“오, 그래. 장한 생각이구나. 그러나 너는 아직 어리니 3년만 더 집에 있다가 가도록 해라.”

비록 어부였지만 불심이 돈독한 아버지는 아들의 결심을 막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해와 격려 속에 소년은 평생 해야 할 효도를 3년간에 다하기 위해 열심히 부모님을 도우며 봉양했다.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는 두 자나 되는 큰 잉어를 낚아왔다. 그 큰 잉어는 소년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아버지께 큰 잉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며 팔지 못하게 부탁했다. 큰 잉어에게 먹이를 주며 정성껏 돌봐주는 가운데 어느덧 3년이 흘러 소년은 집을 떠나게 되었다. 집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도련님, 이제 저도 인연이 다하여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출가하시거든 성불하시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간의 은혜에 보답키 위해 제가 살던 곳에 갇힌 것을 하나 놓고 가니 그것을 팔면 부모님께서는 평생 편히 지내실수 있을 것입니다.” 꿈에 웬 처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는 훌연히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마지막으로 잉어에게 밥을 주고 작별인사를 하려고 보니 잉어는 죽어 있었고, 향아리 속에는 큰 진주가 하나 있었다. 소년은 부모님께 진주를 드리며 간밤 꿈 이야기를 하고는 곧장 3년전에 가 보았던 금산사로 갔다.

덕 높으신 순제(順濟)법사 문하에 들어간 소년은 3년간의 행자 수행을 거쳐 진표(眞表)란 법명을 받았다.

“여기 《공양차제비법》과 《점찰선악업보경》이 있으니 수지 독송하고 정진하여 미륵부처와 지장보살을 친견하고, 중생구제의 법을 널리 펴도록 해라. 법을 구함은 쉬운 일이 아니니 큰 인욕과 원을 갖고 공부해야 할 것이니라.”

“예, 명심하여 수행하겠습니다.”

미륵부처와 지장보살 친견을 서원한 진표는 그 길로 스승께 삼배를 올린 후 운수행각에 나섰다. 선지식을 두루 만난 진표는 공부에 자신이 생기자 쥔 쌀 두 말을 가지고 변산 불사의방(不思議房)에 들어갔다. 하루에 쌀 5홉을 양식으로 하고 그 중 1홉은 절을 찾는 귀에게 먹였다. 그렇게 삼 년간 뼈를 깎는 고행을 하면서 스승이 내리신 두 권의 경전(經典)을 공부했으나 아무런 감응이 없자 스님은 스스로 절망했다. 진표는 업장이 두터워 평생 공부해도 도를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 몸을 버려 도를 얻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는 높은 절벽에서 업장 소멸을 기원하며 몸을 던졌다. 이때였다. 몸이 막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어디선가 청의동자가 나타나 두 손으로 스님을 받아 절벽 위에 올려놓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진표는 다시 생각을 고쳤다.

“이는 필시 부처님의 가피일 게다. 죽은 몸 다시 태어난 셈이니 더욱 참회 정진하리라.”

진표는 바위 위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절을 하며 삼칠일 기도에 들어갔다. 삼일이 지나자 그의 손과 무릎에선 피가 흘렀다. 7일이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금장을 흔들며 나타났다.

“오, 착하고 착하구나. 네 정성이 지극하니 내 친히 가사와 발우를 주노라.”

지장보살의 가호를 받은 진표의 몸은 상처 하나없이 원래의 상태가 되었다. 그는 이같이 신령스런 감응에 감동하여 남은 기도기간 동안 더욱 용맹 정진하였다. 단식을 하여 허기진 상태였으나 날이 갈수록 정신은 또렷해지기만 했다.

삼칠일 기도회향일에 진표는 드디어 천안을 얻어 도솔천중이 오는 형상을 보았다. 이때였다.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도솔천 대중의 호의를 받으며 내려와 스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계를 구하기 위해 이같이 신명을 다해 참회하다니 과연 장하구나! 이 간자를 줄 터이니 중생을 구제토록 해라.” 지장은 계본(戒本)을 주고 미륵은 나무 간자를 주었다. 간자에는 ‘제8간자’와 ‘제9간자’라 쓰여 있었다. 미륵보살이 말했다.

“이 간자는 내 새끼손가락 뼈로 만든 것으로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을 비유한 것이니라. 8자 본각은 성불종자를, 9자 시각은 청정비법을 뜻하니 이들을 점찰 방편에 사용하여 중생을 제도하면 되느니라.”

수기를 준 미륵과 지장보살은 꽃비와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오색구름을 타고 홀연히 사라졌다. 지장과 미륵 두 보살로부터 수계를 받은 진표는 산에서 내려와 금산사로 갔다. 때는 경덕왕 21년(762) 4월이었다. 진표는 금산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할 원력을 세웠다.

“옳지, 저 연못을 메꾸고 거기다 미륵전을 세우자.” 경내를 둘러보던 그는 사방 둘레가 1km나 되는 큰 호수에 눈이 머물렀다. 불사는 바로 시작됐다. 돌과 흙을 운반하여 연못을 메꾸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바위를 굴러 넣어도 어찌된 영문인지 연못은 메꿔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인력과 비용을 댈 수가 없게 되자, 진표는 지장보살과 미륵불의 가호 없이는 불사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미륵부처님, 그리고 지장보살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백일기도를 회향하는 날이었다.

“이 호수에는 아홉 마리의 용(龍)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바위나 흙으로 호수를 메꾸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솥으로 메꾸도록 해라. 또 이 호수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만병통치의 영험을 내릴 것이니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불사를 원만 성취토록 해라.”

미륵불과 지장보살은 진표 앞에 강림하시어 이렇게 계시했다. 진표는 신도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병이 있는 사람은 금산사 호수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 무슨 병이든 완치될 것입니다. 그 대신 반드시 숯을 양껏 갖다 호수에 넣고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스님이 백일기도를 마치고 나서 좀 이상해지셨나 봐요.”

“아냐, 절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젠 별 소릴 다하는군.”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에서 한 문둥병자가 숯을 한 짐 지고 금산사에 도착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스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미륵 부처의 명호를 부르며 왔습니다. 설사 스님께서 절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셨다하더라도 불사를 위해 하신 말씀이니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지고 온 숯을 호수에 넣고 발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호수의 물을 다 마시고 목욕을 한 후 제 몸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저는 스님이나 부처님을 원망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의 이 작은 보시공덕으로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친 문둥병자는 호수 물을 마시고 막 목욕을 끝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찢고 또 찢었다. 분명 못가에 서기가 피어오르면서 미륵 부처가 나타나시더니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 착하고 착하구나, 과연 불심이 돈독하구나.”

미륵부처는 문둥병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스님, 제 몸이 씻은 듯이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자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흉측하던 몸이 맑고해지다니 너무도 신통한 부처의 가피였다. “오! 미륵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신도들은 잠시나마 진표를 의심한 것을 참회하며 너도 나도 숯을 지게에 가득히 지고 금산사 호수로 모여 들었다.

소문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금산사 호수의 물은 며칠 안가서 반으로 줄었다. 그

렇게 수 주일이 지나자 호수는 아주 메워져 반듯한 티를 이루었다.

호수가 다 메꾸어 지던 날 해질녘, 한 청년이 새로 다져진 절터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청년은 어인 일로 이곳에서 울고 있는가?”

“예, 저는 남해에서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

“참으로 장한 효심이로구나. 자네의 효성을 미륵 부처께서 알고 계시 실 테니 너무 상심치 말고 여기 연화좌대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게나.”

진표는 청년을 위로하면서 미륵부처의 가피력을 함께 빌었다. 청년은 시키는 대로 쇠로 된 연화좌대에 손을 얹고 모친의 병이 완쾌되길 간곡히 염원했다. 칠일 정진을 마친 청년은 진표에게 인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그 청년은 완쾌된 어머니를 모시고 금산사를 찾아왔다.

“스님, 부처님 가피로 건강을 회복하신 저의 어머님께서는 남은여생을 스님들 시중을 들며 불사를 돕고자 하십니다. 저의 어머님 청을 들어 공양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표는 청년의 노모를 금산사 공양주로 있게 했다.

이 소문이 다시 곳곳에 퍼져 갖가지 소원을 지닌 사람들이 또 금산사로 모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연화좌대에 손을 얹고 소원을 기원하여 가피를 입었으나 불효자나 또는 옳지 않은 일로 기도한 사람들은 손이 좌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신도 수는 날로 증가하여 금산사 불사는 쉽게 이뤄졌다. 766년(혜공왕 2) 미륵전이 낙성됐고, 다시 2년 후에는 거대한 청동 미륵불상과 양대 보살을 조성하여 봉안했다. 미륵불이 봉안되자 전국에서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와 친견하고 예경했다. 한편 진표는 금당 건립을 발원하여 776년 대적광전을 완성하였고, 자신이 미륵 부처께 수기 받던 형상을 법당 남쪽 벽에 그려 봉안했다. 신도들이 기도하던 연화좌대는 30년 전까지 동그런 기도처였는데 요즘은 붕괴될 우려가 있다하여 미륵부처 불단 밑으로 통로를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2)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전각의 1층과 2층은 앞면 5칸·옆면 4칸이고, 3층은 앞면 3칸·옆면 2칸 크기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인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꾸몄다. 지붕 네 모서리 끝에는 층마다 모두 얇은 기둥(활주)이 지붕 무게를 받치고 있다. 건물 안쪽은 3층 전체가 하나로 터진 통층이며, 제일 높은 기둥을 하나의 통나무가 아닌 몇 개를 이어서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금산사 미륵전 전경〉

웅대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3층 목조 건물로 잘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건물의 1층 현판이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 현판이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 현판이 ‘미륵전(彌勒殿)’으로 되어있는데, 현판이름은 다르지만 모두가 미륵불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층의 사찰 건축으로서 미륵전은 법주사의 팔상전과 함께 한국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꼽힌다. 일찍이 삼국시대로부터 축적된 기술적, 미학적 아름다움은 국토 곳곳을 불국토의 장엄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미륵전의 내벽과 외벽에는 사이사이에 수많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보살과 신장 그리고 수도하는 모습 등 다양한 벽화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오른쪽 벽에는 1890년(고종 27)에 조성한 제석천룡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용준(龍俊), 정선(定善), 오종(午從) 등의 금어(화승의 다른 말)가 그렸는데,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며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神衆)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미륵불 본존은 높이가 11.82m이고 삼존불 중의 협시는 8.79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미륵전을 조성할 당시에는 3년간에 걸쳐 완성한 미륵장륙상한 분만이 모셔졌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수문대사가 다시 복원 조성하면서 소조 삼존불로 봉안했는데, 1934년에 실화로 일부가 소실되었다. 4년만인 1938년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이 석고에 도금한 불상을 다시 조성해 오늘날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미륵본존은 거대한 입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지금도 남아 있는 불단 아래의 거대한 청동대좌는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없지만 잦은 소실과 복원의 과정에서 오래 세월동안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불상을 받들고 있는 역사의 대변자가 되는 셈이다. 본존불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고, 왼손 역시 손가락을 조금 오므렸지만 밖을 보이게 한 시무외인이다. 대개 미륵불은 다른 불상과 구별되는 별개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본존불 양 옆의 협시보살은 왼쪽이 법화림(法花林) 보살이고, 오른쪽이 대묘상(大妙相) 보살이다. 협시보살 좌우에는 언제 봉안하였는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2구가 있다. 본존의 협시보다 약간 작지만 역시 금을 입힌 소조상이다.

3. 고려시대 미륵신앙

고려 초기 이후 특별히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진 승려가 많지 않았고, 미륵 신앙을 중요시하는 법상종이 선종이나 교종의 화엄종 세력에 밀려 났으므로, 신라 시대와 같이 열렬함과 독특함을 함께 갖춘 미륵 신앙은 다시 꽃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특수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미륵신앙은 왕실 및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현종은 모후의 원찰로 개성 현화사를 창건한 뒤 법상종 승려들을 주지로 임명함으로써, 현화사를 근거로 법상종은 미륵을 신봉하는 고려 중기의 대표적 교단의 하나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현종의 발원에 의하여 매년 미륵보살회와 아미타불회가 열렸다. 특히 매년 4월 초파일부터 3일동안 개최되던 미륵보살회는 국가의 번영과 사직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함이었다. 현화사 금당의 주불은 미륵불이었고 특히 승려 혜덕은 미륵보살상을 모시고 매년 승려를 모아 귀의하게 하였으며, 입적하는 순간까지도 미륵의 명호를 염송하였을 정도로 미륵신앙에 독실하였다.

미륵불을 주불로 모신 사찰로는 금산사나 현화사 외에도 관촉사, 도술사 등이 있었다. 광종 때 승려 혜명에 의하여 창건된 충남 논산 관촉사에는 1006년(목종 9)에 완성된 미륵석불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 미륵불에 얹힌 영험설화는 당시 사회에서 미륵신앙의 폭넓은 유포를 알게 해준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하던 고려 후기의 민간에는 미륵신앙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륵불이 하생하여 교화하는 용화삼회에 참여하여 미륵

불에게 향을 공양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향목을 해변에 묻어두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은 곧 미륵하생신앙의 유행을 말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륵하생신앙은 고성 삼일포매향비와 경남 사천매향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1387년(우왕 13)에 세워진 사천매향비에 의하면 1000인이 계를 모아 발원하였고, 1309년에 세워진 삼일포매향비에 의하면 지방관 10여명을 비롯한 그 비속들이 함께 발원하고 있다. 특히 삼일포매향비의 경우는 동해안의 아홉 곳에 향목 1500조를 묻었던 것이다.

고려 왕조는 왕권강화의 방편으로 민중과 직접적인 조우를 피했고, 따라서 대승보살계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즉, 왕은 보살이고, 백성은 일반 신도라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민중은 말법사상과 일치된 하생신앙에 이끌려 미륵의 출현을 고대했다. 한편, 주술의존성이 강했던 고려 불교의 미륵신앙은 민간신앙으로서의 국면을 전개하여, 득남, 금기, 기복, 치병, 수호 등 무속과의 습합현상을 보였다.

1) 반야산 관촉사 창건설화

고려 968년(광종 19), 지금의 충남 논산군 은진면 반야산 기슭 사제촌에 사는 두 여인이 산에 올라 고사리를 꺾고 있었다.

“아니 고사리가 어쩔 이렇게도 연하면서 살이 올랐을까요?”

“정말 먹음직스럽군요. 한 나절만 꺾으면 바구니가 넘치겠어요.”

두 여인은 정답을 나누며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산중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요?”

“글쎄 말예요. 어디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지요.”

두 아낙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따라 가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예구, 어머니. 이게 무슨 조화람.”

“큰일 났어요. 빨리 마을에 내려가 관가에 알립니다.”

신비롭고 괴이한 풍경에 놀란 두 아낙은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관가로 가서 고을 원님께 이 사실을 고했다.

“거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이야기를 다 들은 원님은 나졸들을 보내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문은 곧 광종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광종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이 일을 논의했다.

“상감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는 필시 하늘이 내려주신 바위일 것이니 불상을 조성하여 예배토록 함이 옳을 듯하옵니다.”

“그러하심이 옳을 듯하옵니다.”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모두 한결 같아 광종은 명을 내렸다.

“금강산 승려 혜명을 모셔다 이 바위로 불상을 조성토록 해라.”

혜명은 1백 명의 석공들을 이끌고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바위를 본 순간 그는 잠시 뭉가 골똘히 생각했다.

‘음, 예사 바위가 아니로구나. 후세불인 미륵불을 대형으로 조성하여 세세생생 민족의 기도처가 되도록 해야지.’

마음을 굳힌 혜명은 작업을 지시하여 대역사를 시작했다.

석공들은 솟아오른 큰 바위로 불상 전신을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그 바위에는 부처님 하반신을 조각토록 했다.

“스님, 이 바위도 큰데 얼마나 큰 부처님을 조성하실 건가요?”

석공들이 의아한 듯 연방 물어보나 그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부처 하반신(허리 아래)이 조성되자 혜명은 그곳에서 약 30리쯤 떨어진 이웃마을 연산면 우두굴에서 큰 돌을 옮겨와 다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조성했다. 이때 동원된 역군이 무려 1천여 명, 정으로 쪼고, 갈고, 깎아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해가 바뀌면서 웅장한 미륵불상이 완성됐으나 세부분으로 나뉘어진 부처님 몸체를 맞추는 일 또한 예삿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무게라야 들어 올릴 텐데, 신통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궁리에 몰두하던 혜명이 사제촌 냇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물려오더니 흙으로 삼등불상을 만들어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무심코 바라보던 혜명은 자신도 모르게 “옳지” 하는 탄성을 발했다. 아이들은 평지에 미륵불상을 세운 다음 그 주위를 모래로 경사지게 쌓아놓고 가슴부분을 굴러 올려서 맞추어 세우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혜명은 곧장 작업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지시하고 다시 냇가로 왔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마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 까지 재미있게 떠들며 놀던 아이들은 간 곳이 없었다. 이는 혜명의 정성에 감탄한 문수보살이 그에게 불상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려고 현신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삼등불상을 무난히 세워 미륵불이 완성되니 때는 1006년(고려 목종 9) 무려 37년 만에 높이 18.12m, 둘레 11m, 귀의 길이가 3.33m나 되는 거대한 동양 최대의 석조불 은진미륵을 봉안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21일 동안 1.8m나 되는 미간의 백호 수정에서 찬란한 빛이 발하여 중국 송나라에 이르니 그곳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배례한 뒤 그 광명이 촛불빛 같다하여 절 이름을 관촉사(灌燭寺)라 했다고 전한다.

은진미륵이 완성된 지 얼마 후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오랑캐들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가사를 입고 삿갓을 쓴 스님이 나타나 태연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길을 찾던 오랑캐들은 “옳지 저 스님을 따라가면 되겠군.” 하면서 그의 뒤를 따라 강물로 뛰어들다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오랑캐들은 그만 모두 압록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부하를 잃은 오랑캐장수는 화가 치밀어 다시 강을 건너온 스님을 칼로 내리쳤다. 그러나 장수의 칼은 스님의 삿갓 한쪽 끝을 스쳤을 뿐 스님은 어디 한 곳 다치지 않아 명장의 칼을 무색케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스님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현신한 은진미륵이었다 한다. 마치 이 말을 증언이라도 하는 듯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은 3.94m의 큰 관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꽤맨 자국을 볼 수 있다.

2)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보물 제218호, 충남 논산시 은진면 관촉리)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서 일명 은진미륵(恩津彌勒)이라고도 불린다. 불신(佛身)은 허리를 중심으로 두 개의 커다란 돌을 이어서 만들었는데, 두부(頭部)만 거대하고 전체

적인 비례나 균형이 맞지 않아 괴이한 느낌을 준다. 머리 위에는 높은 원통형 관을 쓰고 그 위에 사각형의 보개(寶蓋)를 이중으로 올려놓았는데, 관의 윗부분은 팔각형으로 다듬어 보개 밑 부분의 팔각 홈과 맞추었다. 그리고 팔각 홈의 주위에는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홍꽃잎의 연꽃무늬)을 조각하고, 네 모퉁이에는 금속령(金屬鈴:쇠 방울)을 달았다.



〈논산 관측사 미륵보살입상〉

위의 보개는 훨씬 작은 것으로 밑에는 연판 4엽이 조각되어 있으며, 위에는 보주(寶珠)가 올려져 있다. 원통형 관에는 3척 가량의 금동불입상이 있었으나 한말에 분실되었다고 한다. 얼굴은 거대한 장방형으로 이마 위에는 머리칼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눈·코·입이 아주 큼직하고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턱 아래에는 음각선을 그어 군살을 표시하였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귀는 길어서 거의 어깨까지 닿는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마치 귀걸이를 한 것처럼 보인다. 천의(天衣)는 통견(通肩)으로 몇 가닥의 옷주름이 얇게 조각되어 있다. 두 손은 몸에 비해 크게 조성되었는데,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은진미륵은 보물 제218호이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관측사는 몰라도 은진미륵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미륵보살상이다.

3) 파주 장지산 용미리 석불입상 (보물 제93호,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거대한 천연 암벽에 2구의 불상을 우람하게 새겼는데, 머리 위에는 돌갯을 얹어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까닭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든다. 이런 점에서 불성(佛性)보다는 세속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방화 된 불상이다. 왼쪽의 둥근 갯을 쓴 원립불은 목이 원통형이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연꽃을 쥐고 있다. 오른쪽의 4각형 갯을 쓴 방립불은 합장한 손모양이 다를 뿐 신체 조각은 왼쪽 불상과 같다. 지방민의 구전에 의하면, 둥근 갯의 불상은 남상, 모난 갯의 불상은 여상이라 한다.

고려 선종(1084~1094)이 자식이 없어 제3부인인 원신궁주까지 맞이했지만, 여전히 왕

자가 없었다. 이것을 못내 걱정하던 궁주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꿈을 꾼 궁주가 하도 이상하여 왕께 아뢰었더니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어 알아 오게 하였는데,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왕은 즉시 이 바위에다 두 도승을 새기게 하여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는데, 그 해에 왕자인 한산 후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이 불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탄생설화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지방화 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4. 조선시대 미륵신앙

조선을 개국한 세력은 유교적 지배질서 확립을 위해 불교를 억압해서, 중기 이후에는 불교의 공인된 종파가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나 억불정책은 오히려 미륵신앙과 민중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켰다. 조선시대 미륵신앙은 불교의 민간화를 심화시켜 현세 이익적 성향을 강화했다. 조선후기 사회적 혼란기에 미륵하생에 대한 갈망이 확산되었지만, 아직 사회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민중의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하층민을 중심으로 미륵신앙은 이어졌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조 숙종실록에 보이는 기사를 테마로 소설가 황석영은 그의 대표작 「장길산」을 저술했다.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흉년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는 민중들에게 이상사회의 실현을 약속하는 미륵하생신앙은 그들의 소박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근대 미륵신앙과 부정적 미륵신앙

1) 근대 미륵신앙

구한말 사회적 혼란기에, 현실에 무력한 기존종교는 민중으로부터 괴리되고, 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민중의 종교적 기대는 팽창했다.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신흥종교들은 그 교리적 근거에 있어 대부분 미륵신앙을 표방했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 근래에 이르기까지 불교계에서 분파된 신흥종교 중에는 미륵신앙을 그들의 교리 속에 수용하여 미륵을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사교 집단들이 허다하였다.

불교계에서 분파된 신흥 종교 중에는 전통적인 불교의 미륵신앙을 그들의 교리속에 절충하여 가진 경우가 있다. 주로 증산교와 용화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증산 강일순은 평소 제자들에게 금산사의 미륵불로 강림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서백일이 세운 용화교는 금산사를 본거지로 삼아 한 때 그 교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1966년 교주 서백일이 피살된 뒤 그 교세는 쇠퇴하였지만 금산사 주변의 용화동을 중심으로 용화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처럼 김제의 금산사 미륵전을 중심으로 찾아들었던 대부분의 미륵 신자들은 증산교 계통의 신흥종교의 신도들이었다. 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미륵의 신성한 이름을 오염시키는 것일까? 이 슬픈 사건들에 대하여 굳이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정의 역사는 지혜의 눈을 갖춘 우리들에 의해 참미륵이 원하는 참된 세계를 전개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2) 부정적 미륵신앙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칭 미륵불은 후고구려의 왕 궁예(弓裔)이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 가사를 입은 궁예는 만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평보살이라 하여 협시보살로 삼았으며, 스스로 불경 20여 권을 만들고 미륵관심법을 행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로 무고한 대중을 괴롭혔다. 함흥 지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무가(巫歌) 속에는 그가 저술한 불경 일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지나간 세상에 미륵이 석가와 함께 도를 닦았는데 먼저 도를 이루는 자가 세상에 나가 교를 펴고 다스리기로 하였다. 즉 한 방에 같이 자면서 무릎위에 먼저 모란꽃이 피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내기의 원칙을 삼았던 것이다.

그날 밤 석가가 거짓으로 잠든 채하고 미륵을 바라보니 무릎에서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에 석가는 도둑의 마음으로 그 꽃을 꺾어 자기 무릎에 꽂았다. 미륵은 그것을 알고 석가에게 터럽다고 욕하면서 먼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석가시대에는 사람들이 도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이야말로 미륵인 나의 시대이다. "

그러나 그는 전륜성왕도 미륵불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희구했던 민중들의 호감을 사려했던 정치적인 계산조차도 맞아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고려 말에도 또 한 차례 자칭 미륵불이 등장했다. 곧 우왕 때의 이금(伊金)이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마른 콩 수십 섬을 쌓은 후 그 위에 미륵불을 안치하여 흙으로 덮고는 땅에서 미륵불이 솟아나리라 선언하였다. 그가 땅에다 계속해서 물을 붓자 콩이 불어나면서 돌미륵이 땅 위로 솟아올랐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믿고 존경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나무에서 곡식이 열리게 할 것'이라는 말까지 믿고 따랐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금도 역시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할 미륵불은 아니었고, 민중들을 우롱하고 처형당한 사이비에 불과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688년(숙종 14)에 요승 여환(呂還)이 일으킨 역모를 들 수 있다. 승려 여환은 그의 아내인 환향과 무녀인 계화, 아전이었던 정원태, 그리고 황희 등을 규합하여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양주군 청송면을 중심으로 미륵신앙을 흥포하였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차츰 황해도, 강원도 등지에까지 퍼져갔다. 여환은 '이제부터 용이 아들을 낳아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용녀(龍女)부인'이라 불렀고, 그녀의 신통변화는 가히 측량할 수 없다고 선전했다. 또한 정씨성을 가진 무당 계하는 정성인(鄭聖人)으로 탈바꿈하여 민중들을 유혹하였고, '7월에는 큰 비가 와서 도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미륵 신봉자들에게 장검과 군복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폭우로 도성이 무너질 때 대궐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7월 13일에는 무장한 신도들을 양주 대권리로 집결시켰다. 무장한 신도들을 양주에 남겨둔 채 여환 등 10여명은 15일에 상경하여 비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하늘은 오히려 맑기만 했다. 이에 하늘을 우리러 아직은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이 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면서 16일에 양주로 돌아갔다. 보름정도가 지나자 이 사건은 조정에 알려졌고, 여환 등 주모자 수 명이

처형됨으로써 이들의 허망한 꿈은 무너졌다.

IV. 맺음말

미륵신앙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념이 표출된 현세적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구원의 신앙이다. 미륵은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사회 변혁기에 나타나는 구원론적인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륵은 민중의 희망이요 구세주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언제나 지배층과 피지배층,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은 한 때 왕실과 지배층의 민중교화라는 정치적 이념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억눌리고 고통 받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민중의 구원신앙으로 발전을 해왔다.

삼국시대 때 백제는 미륵보살이 어서 빨리 이 사바세계에 미륵불로 하생하여 전 국토를 전쟁과 환란이 없는 불국토로 완성해주길 바라는 미륵 하생신앙을 신봉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미륵신앙을 수용, 화랑과 미륵신앙을 접목시켜 화랑을 정법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역군으로 키웠고 실제로 화랑은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고려 왕건도 미륵신앙을 정법 왕국을 건설하는 기본 이념으로 채용을 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지배계층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적어도 국가는 안정됐으며 민중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지배계층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외면했을 때 국가는 말세적 현상을 나타냈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은 지구책으로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교의 말법시대를 상징하듯 전쟁과 기아, 폐륜, 각종 질병이 횡행하는 국가 사회적 말기 현상에서 미륵신앙은 민중봉기의 원천이 되어왔다. 불교가 말하는 말법시대는 불법의 쇠퇴와 함께 인심이 흉악해지고 사회기강이 문란하며 승려들까지도 물질에 눈이 멀어 서로 다투는 시대를 일컫는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미륵신앙은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당대 사회 전반을 말세로 규정, 새로운 국가, 사회 건설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다. 미륵신앙은 현실의 정치

적 또는 사회악인 부정, 부패, 횡포, 독재, 독식 등을 행하는 기득권 지배세력이 지금은 융성할지라도 장래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과 저항을 나타낸다. 세상이 뒤집어져 지금까지 각종 혜택을 누리던 지배계층은 파멸하고 억압과 고통을 받던 민중들이 좋아지는 새 세상이 열린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륵신앙이 사회 개혁, 또는 반란의 주동자나 추종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왔던 것은 타락한 지배계층의 말세적 현상을 뒤집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에서였던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 고산동 소재 부용산 미륵암 용화전의 미륵불을 조성했던 사람들도, 지난 어느 시대인가 당시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고, 정성을 다해 불상을 조성하면서 미래를 꿈꿨을 것이다.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본 미륵불상과 석탑은 소박하고 조잡스럽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희망과 염원의 마음이 가득 찬 대상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미륵신앙이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다.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의 눈으로 바라본 유물들이, 그냥 이대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서운함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관심 있는 젊은 후배들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효림출판사, 2003년
2. 사찰문화연구원, 『경기도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출판국, 1995년
3. 신종원, 『신라 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1998년
4. 정만스님, 『미륵성지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1997년
5. 한정갑,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도서출판여래, 2003년
6. 혜자스님, 『절에서 배우는 불교』, 우리출판사, 1999년
7.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사, 1997년
8. 김봉령, 『시대를 닮는 그릇』, (주)이상건축, 2000년
9.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기사 발췌

경기 북부 지역의 화전민사(火田民史)

이 명 수 (경기향토문화연구소)

目 次

I. 머리말

1. 화전민의 유래(由來)
2. 일제 강점기의 입야 정책
3. 북부지역의 화전(火田)
4. 신분 차별화에 따른 토지 소유권
5. 조선총독부 이주정책(移住政策)
6. 힘든 삶의 애환(哀歡)
7. 움막과 토담집
8. 좌반(佐飯) 고등어
9. 어머니와 아궁이
10. 화전 정리사업과 과정의 성과

II. 맺는 말

집필자 : 이명수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사료조사위원,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동두천 향토사학연구소 소장

I. 머리말

경기북부지역에 대표적으로 화전민들이 모여 경작(耕作)을 하던 곳은 양평군에 용문산(1,157m) 포천시의 명성산(923m)가평군의 유명산(862m) 연천군의 고대산(832m)동두천시의 마차산(588m)이 있다. 화전민 대부분은 평지(平地) 농촌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거나 지주(地主)의 소유권으로 소농작(小農作)을 하다가 토지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농민들이 화전민이었다. 작은 농토마저 소유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깊고 깊은 산골이었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화전민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지였다. 화전민들은 대부분 산중턱 높지않은 분지모양을 닮은 곳에 화전을 일구어 허기진 배를 달래야했다. 깊은 산속에 문명생활과 격리된 화전민사회는 원시적이고 손발이 부르트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밤낮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각 산간지방에 경작하며 주거했던 화전민은 13,277명에 면적은 1,699정보(町步)이며 호수(戶數)는 2,730세대에 이르렀다. 화전민의 대표적으로 집성촌(마을)을 만들어 살았던 곳은 포천 명성산 산정호수 오른쪽 능선으로 오르다보면 역새폴 축제장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예전 화전밭 일구어 놓았던 밭고랑과 바가지 우물터는 지금까지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가평과 양평 연천의 화전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조각 화전밭이 나누어져 있다. 마차산 윗골에 있는 화전밭의 규모는 명성산만 못하지만 가을의 역새폴은 볼만하다 산세는 명성산 못지않게 넓어 역새폴을 심어 놓는다면 가을에 장관(壯觀)을 이뤄 많은 등산객의 관광지가 될 것이다. 사방(四方)으로 둘러싸인 화전밭 윗산에서 겨울이 오면 소일(消日)거리로 나무 한 집 지고 면내(面內)에 내다 팔거나 솟가마에 참나무 참숯은 겨우 살이 살림에 큰 도움을 준다. 원래 화전이란 우리의 고유명칭인데 불을 놓아 나무를 비롯한 지표(地表面)의 모든 식물을 태운 후 비료를 주지 않은 채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용한다. 화전 농법은 인류 최초의 농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세기까지도 열대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기원전 후부터 집약적인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방(粗放)적이고 약탈적인 화전농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지구의 산소공급을 하는 중남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원시림이 해마다 줄어들어 온난화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민(賤民)들이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화전식 경작이 성행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백전(白田)을 산전(山田) 혹은 화전(火田)으로 다방면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2)고려(高麗)이후 전작제도(田作制度)에는 상시경작(常時耕作)이 가능한 부역전(不易田)(正田) 또는 실전(實田) 수년경작(隨年耕作)을 하고 일역전(一易田) 일년 경작(一年耕作)하여 2년은 휴경(休耕)하는 재역전(再易田)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들 중 재역전이 오늘의 화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산전(山田)과 평전(平田)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화전민의 존재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토지개간을 위해 개간지에 대하여는 면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자연히 화전민이 많았던 것 같다. 화전경작이나 화전민에 관한 기록이 사료에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화전에 관한 사료가 적은 것은 화전이 적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로서는 일반적으로 토지관제 사료에 의해 대부분은 정확한 화전민의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3)1679년(숙종5년)에는 대사헌(大司憲) 윤휴(尹鑰)의 화전 엄금론이 있었으며 1729년(영조5년)북병사(北兵使) 김집(金湑)은 철령(鐵嶺) 함관령(咸關嶺)등의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전을 금하도록 건의하였으나 화전민은 늘어만 갔다. 당시로서는 빈민들이 넘쳐나 농사를 지어야 살아갈 수 있었으며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로 화전민과 관리들의 줄다리기에는 서로가 어려움을 겪었다. 1731년(영조7년) 함은군(咸恩君) 이삼(李森)의 요청으로 관서지방에도 산중턱 이상에는 화전을 금하였고 1777년(정조1년) 강춘감사(江春監司)이중협(李重協)의 건의로 관동지방에도 화전을 금하였다. 1789년(정조13년)화전을 없애고 화전민을 없애므로써 병역(兵役)을 확대시켰고 수세(收稅)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전의 수는 증가하였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일본제국주 의자들에게 빼앗기고 곡물을 강제로 공출함으로써 다시 화전민이 늘어갔다. 193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남과북)의 화전민은 120만 명에 달하며 그중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산악지방에 무려80%를 차지하며 깊고 깊은 산중까지 찾아들어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며 한 많은 생활살이를 살아야만 했다

2.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임야정책(林野政策)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제대로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책사적 측면에서 운동사적 연구가 앞서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자들이 그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세워갔으며 피지배민족(被支配民族)이 그것을 깨트리고 광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가를 문제를 밝혀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전에 없던 이민족(異民族)의 지배 아래서 지배받는 백성이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일이 한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정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을 얼마나 저해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언어 말살 정책 및 창씨개명문제 등을 흔히 지적하였다. 전체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거의 정책권외에 팽개쳐져 있었던 대중생활의 진상을 밝히는 일도 식민정책의 본질을 추구하는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우리글과 말을 못 쓰게 하는 정책 유교문화권내에서 성씨를 바꾸게 하는 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일 자체가 더욱 절박한 것이 식민지 치하의 민중생활이었던 것이다. 일본식민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생활을 급격히 영세화시켰고 이 때문에 이농 인구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산업정책은 이들 이농인구를 항만개설 도로개발 식민지산업 기반시설공사에서 수용하였을 뿐이다. 이농인구 대부분은 일본이나 만주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랑걸인으로 전전하거나 화전민 혹은 도시의 소위 토막민(土幕民) 생활은 곧 식민시대의 조선민중생활의 3대 빈민층이며 화전민들의 고난의 시대인 것이다.

(1)일제식민지 지배당국(支配當局)의 화전개정 금지정책이 지난날 구한말 조선정책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엄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도 앞서 본 것처럼 계속 화전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시대에 농민생활사에 심각한 문제가 얹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답을 구하는 일은 식민지 농업정책과 지배정책 전체의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시기에 있어서 화전민 증가의 원인을 밝힌 자료들을 몇 가지 들어보자 조선 총독부의 비밀문서 “화전 조사보고서”는 그들의 화전금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화전민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들면서 아래와 같이 비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평지에서 재산을 잃은 사람이라도 화전에 의하여 쉽게 넓은 면적의 경작지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나)새로 일구는 화전이 평지의 열전(熱田)보다 풍옥(豐沃)한점 (당시는 비료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산에 불을 질러 그 재로 거름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라리 평야의 땅보다 산간의 땅이 낫다고 했다) (다)하층의 조선인은 그 정도는 낫다 할지라도 간단 무위한 생활을 좋아하는데 비탈 밭 농사지어 거름이 다 되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게 다른 산으로 옮겨 다시 산에 불을 질러 경작을 하였다 화전에는 행정, 관청 지도감독의 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므로 그들 화전민은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를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화전 경작은 조세 부담이 적어서 지세(地稅)는 물론 없고 다만 호세(戶稅)농회비 축산조합비 등이 등급차이에 따라 부과 될 뿐이라는 점 (마)점유지의 지력(地力:땅의 거름)이 없어지면 다시 새로운 대토(代土)를 가까운 곳에서 구하기 때문에 지력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 (마)단속이 미치지 않는 동안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장만하는 경우 사실상 삼림주사(森林主事)경찰관도 이를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것 (바)화전민의 생활정도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낮아서 저장해 두었던 농산물을 추운 겨울과 이른 봄에 다 먹고는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삼림령 위반으로 형을 받아도 감옥에서 의식생활이 화전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현행의 형벌이 화전민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종래 화전 위반자들을 철저히 검거하지 않았고 지방에 따라서는 무사히 넘기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또 검거되어도 기소유예가 되거나 훈방 처분될 뿐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화전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화인자(火人者)계속 증가 될 뿐 이들도 삼림경찰의 감독을 귀찮게 여기고 또 부역이나 형벌을 받기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전생활의 안이함을 버리고 목적도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다. 때로는 넓은 산 중턱에 불을 질렀다가 관청의 감찰을 받으면 미리 희생자가 될 것을 승인한 노인을 표면상의 방화책임자로 삼아 수형케하고 감옥 간 희생자의 가족은 부락민 전체가 협력하여 이를 위로하고 그 가정의 생계를 보장하며 이 같은 희생자는 형을 마치면 향당화전민(鄉黨火田民)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다 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제통치 아래서 원시적인 생활을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서 대체로 화전경작의 유익성 조선인의 천성적인 생활의 미개성 화전단속의 벌을 앞세우면서도 어쩔 수없이 농민들의 빈곤층과 조선총독부의 행정적 단속내지 간섭이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적인

힘도 없었다.

3. 북부지역의 화전(火田)

화전이 대체로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국경지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온이 낮고 일찍 서리가 내리는 지방인데다 대부분 높고 비탈진 곳이며 비료도 거의 하지 않는 영농 이였으며 작물도 감자, 콩, 옥수수, 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화전이 가장 많은 10개지역에서 1918년부터 1927년 까지 10년간 평균 조사의 기후를 보면 대체로 9월초 중순부터 서리가 내리고 9월 하순과 10월 초순경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며 다음해 5월 중순까지 서리가 내리고 있어서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작물의 가짓수나 일기의 심한 차이는 풍년을 기대하기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1)중북부지방인 연천, 철원,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지역은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그 가운데에 있어 일기의 차이에 경각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다. 내륙산간지대인 관개로 지역별 국지성 폭우 우박 강설량 등 기상의 변화가 있지만 북부지방에 비해 날씨가 온화한 편이어서 농작물 증가에는 별 어려움은 없었다. 대개 평년의 서리는 10월 9일경이고 마지막 서리는 5월 11일경으로서 무상(無霜)일수가 151일이고 나머지 일수는 계절에 맞는 다양한 파종을 하여 채소류 및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2)중북부 화전지(火田地)중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것은 산림복구의 대상으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것은 농경지 화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지목대상으로 나누었다. 중북부지방인 경기도 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국경 인접고산지대에는 워낙 산이 깊고 높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북부지방에 화전과 산림을 구분하기 위해 화전 정리를 하였다. 화전 안에 주거지가 있고 화전 정리 후에 경작하고 있던 토지가 산림으로 복구되었거나 농경지로 인정된 토지 자기소유의 토지가 600평 미만으로 생계가 영세한 가구를 의미한다. 이전 대상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화전지 안에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어 생계지장이 없는 가구와 현지 정착대상가구는 경사도 20도 미만에 주거지가 있으며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림 안에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전답 대지 기타 산이 아닌 지목으로 등재된 토지이기 때문에 화전 정리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다.

4. 신분 차별화에 따른 토지 소유권

조선후기에 농지소유자들을 살펴보면 신분계층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양반층 (2)평민층 (3)천민층 (4)상놈:쌍놈 상한(常漢)으로 구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농지 소유에서 계층 분화(分化)는 어느 신분에서나 현저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은 소농층(小農層)과 빈농층(貧農層)은 많고 부농층(富農層)은 적다는 점이다. 부농층은 평민이나 천민보다 양반신분이 많고 빈농층은 그 반대로 평민이나 천민신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며 양반신분에도 소농층과 빈농층이 상당수 있어 비록 양반전체를 두고 보면 평민이나 천민보다 경제적으로 우세하지만 이 영세화된 소농 및 빈농층을 두고 생각한다면 평민이나 천민이 적지 아니 많은 수에 달한다. 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특히 본고(本稿)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건적 농지소유(對建的 農地 所有)에서 기본적인 특징 하나는 인적계층 관계에 따라 신분이 우월한 양반층은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신분이 비천한 평민층이나 천민층은 적은 농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각 신분의 농지 소유에서 계층분화는 이러한 특징을 내부적으로 변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1)조선후기에는 경제적 계층분화는 신분직급(身分職級)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의 고정된 사회신분에서 상급신분으로 상승해 가는 것은 제도상으로 인정되었으며 그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며 가능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분의 변동이 순전히 부력(富力)에 의존되는 평민층에서는 신분의 변동 자는 대개 곡식식량 축적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것이 비경제적인 사유인즉 양반 천민 간의 혼인에도 기인하던 천민층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농층과 빈농층에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설사 자작농토(自作農土)를 소유함에서는 소농이나 빈농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실상 빈곤한 것은 아니었다. 신분은 변동시켜 갈 수 있는 것은 농경지나 상업적 농업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갔다 조선후기 농민들의 농지소유 중심으로 한 경제적 계층 분화 현상을 조선전기부터 전해오는 신분제도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변동하고 재편성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계층분화의 위에서 사회신분제는 그나마 보장되고 재편성되었던 것이다. (2)천민은 제도상으로 정하여진 최하층 신분의 백성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천한 직업에 종사하였고 법률상으로는 극도로 권리가 제한받아 독립된 인격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농토도 거의 입에 풀칠할 정도였으며 농사철인 봄이면 양식이 모두 떨어지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빈농을 말한다. (3)화전마을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이웃을 벗 삼아 의지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평지 마을과는 보이지 않는 동떨어진 생활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모를 산골에 원시적인 농경법으로 초목에 불을 질러 씨뿌려 가꾸며 어렵게 외롭게 살아왔다.

5. 조선총독부 이주정책(移住政策)

1920년대부터 농촌인구 중 15만명 가량이 해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대량으로 농사짓는 북부지역의 화전민이나 평지 농민들이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이후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빈민층의 기본을 이루는 화전민과 토막민(土幕民)에 대한 정책이었다. 화전민은 1930년대 들어서서 더욱 늘어났다. 순수 화전민은 1926년 3,416호였는데 점차 늘어나 1931년에는 4만1212호 1935년에는 7만6472호로 나타난다. 남쪽에서는 소규모의 자작농이 화전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유림이 많은 경기북부 강원도를 비롯하여 평안도 함경도 산악지에서는 순수한 화전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수 화전민은 화전에서 곡식을 얻고 구황작물인 감자와 고구마를 생산했다. 부족한 식량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골을 떠돌며 산채를 따고 약초를 캐서 먹기도 하고 5일장에 내다팔기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들도 화폐가 필요했다. 산에서 나는 약초 등 특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아 필요한 생필품을 사다 썼으나 열악한 수준이었다. 옷이라고 해봐야 겨울옷과 여름옷 단 두벌 이불과 요리고 해봐야 7~8명 식구 한 두개 정도로 가지고 살았다. 겨울에도 덮을 이불이 거의 없었다. (1)조선 총독부 우가키 총독은 1931년 처음 개통한 금강산 전철을 타고 순시를 하다 이 일대의 화전민 생활을 목격했다. 그는 세계 명소인 금강산 일대에서 비참하게 사는 화전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조선인의 수치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가장 손쉬운 개선책은 우선 공과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2)조선시대 때도 이와 같은 논쟁이 많았지만 화전민에게만 면제혜택을 주었다. 총독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화전민에게도 세금을 물렸던 것이다. 우가키 총독은 화전에민에게 세제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추방정책을 폈다. 1932년 북부지역의 개척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국유지의 산림보호정책을 폈다. 화전민은 산림을 훼손하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화전민은 지력(地力: 땅의 거름)이 다한 화전을 버리고 이동하면서 새로운 화전을 일굴수 있었다. 산림보호라는 이름으로 순수화전민의 화전지대에서 추방한 것이다. (3) 화전민은 차츰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갔다. 1937년 화전민은 7만2919호 줄어들었고 해마다 2천호씩 감소되었다 우가키 총독은 화전민의 참상을 해결해 준다고 공언해 놓고 산림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화전민을 새로운 형태의 빈민층으로 몰아갔다. 일부 추방당한 화전민은 농토를 잃고 이들은 도시나 공장지대로 몰려와 날품팔이꾼 지게나 수레로 짐 운반이나 공사판 막일꾼 철도나 도로공사의 하루벌이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엽장수 또는 잡화행상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거지가 되기도 했다. 도시 주변에 몰려들어 토막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껏해야 풍년이 들면 죽을 쑤어 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정도였다. 이들은 유리민(遊離民) 또는 유개민(流丐民)이라 불렀다. 유개민은 서울 주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등 성벽을 바람막이하며 의지해 살았으나 장기간 주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식민지 시기에 들어서서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노동자의 증가로 새로운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예전 유개민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민유지(民有地)나 국유지(國有地)를 가리지 않고 빈터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 무덤같은 토굴이나 움막을 짓고 살았다. 이는 예전에 백정(白丁)이나 일본의 후라쿠민(部落民)과 같은 천민계층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과는 구분이 되었다. 이들은 아주 못사는 빈민이었다. 일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아 193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내의 토막민이 시외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연차로 총독 관저 앞에 널려있는 토막민 500여 호를 도화정(洞)의 부유지로 시내에 흩어져있는 토막민 270여호를 돈암정(정릉동)으로 400여호를 홍제동 언덕배기 위로 옮겼으나 여전히 전면적으로 이주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이주할 때 경비나 인부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며 서약서를 쓰게 한 뒤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과 인부를 동원하여 토막과 가재도구를 부수 철거를 단행했다. (5) 이주지역을 보면 서울 근교 주로 산비탈이었다. 대표적으로 안현정(동) 홍제정 돈암정 수용지(收容地)와 같이 실로 잡

다한 부락이 산허리에 치마를 두른 듯 모여살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라 여기고 주로 경비(經費) 문제도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 수용지가 높은 곳에 선택되어 택지의 조성 및 도로 점유율이 충분하지 못했다. 당시로서는 경성부(서울)의 안 또는 부(府)의 가까운 곳에 선택되어 풍치상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된 곳도 현재는 모두 서울장안에 있어 도시 미관상으로도 또 사회통치상으로도 다른 곳으로 이전 집결시키지 않으면 않된다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주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빈민의 복지보다 도시미관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초라한 빈민을 또 한번 죽이며 격리시키는 대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토막민을 교외로 이주시켰지만 생계를 위해 날마다 서울로 들어와야 하는 날품팔이꾼이나 지게꾼들은 전차(電車) 등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눈치껏 다시 도시안으로 들어오는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6. 힘든 삶의 애환(哀歡)

농사지를 땅도 집지를 터도 없는 사람들이 오지(奧地)인 산속 깊숙한 땅까지 찾아 들어 절박한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풍진(風塵)세상을 견디어 보려고 비탈밭과 씨름하며 하루가 또 간다. 달 밝은 밤이면 달에 비친 뿔 안흥리 뒷골 접동새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슬픈 여운을 남기며 흐느끼듯 밤은 달빛에 젖어 빠져든다. 근심 많은 이 내 심정을 아는지 아득한 저승 끝 울려나오는 듯 그윽하고 야멸찬 피안의 새소리가 더욱 슬프게 여운을 남긴다. 일찍이 김소월은 접동새 새소리를 듣고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니며 운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들의 새는 한자리에 앉아서 울어도 고요한 적막 속에 것처럼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그저 저만치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송수권 시인의 시 구절에 지리산 뽕죽새라는 시가 있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뽕죽기가 때로 울음 울어 석삼년도 봄을 더 넘겨야 나는 길 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뽕죽새임을 알아냈다”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뽕죽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그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마리의 뽕죽새로 울음 우는 것도 알았다. 밤이면 화전의 고달픈 삶을 아는지 찾아 울든 접동새 따라 손톱이 자랄 날 없이 발일에 울음을 적서내는 일을 해

야 했다. 평생은 허기진 배 움켜쥐고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한 채 풍파를 겪어야 하는 화전 속에 온 몸은 아파만 가고 있다. (1)화전민 대부분은 평지 농촌에서 자작지(自作地)는 물론 소작지(小作地)마저 가질 수 없어서 유랑하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화전지대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산속 중턱에 화전을 이루어 수확해 봐야 일년 먹을거리도 안 되었다. 화전민 생활은 문명생활과의 거의 단절된 그야말로 원시인 생활과 닮아가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 (2)비바람 피할 곳 움막집을 지어야 했다. 양지바른 오목이 들어간 삼태기 지형을 닮은 곳 겨울이면 햇볕 잘 들고 여름이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소나무 베어 기둥세우고 참나무 역새 지붕 올려놓고 싸리나무 흙쳐서 벽을 만들면서 방안에 갈대 깔아 촘촘히 만들면 돗자리가 되었다. 철이 바뀌어 세월 따라 흐름에 자식 낳아 식구 늘어 방이 좁아지면 뒷벽을 헐어 기둥 하나 더 세우고 움막집이라도 그렇게 늘려나갔다. 부엌 속에 흙빛이 부뚜막은 무쇠 솥 하나 올려놓고 국 끓여 밥 짓는 아궁이의 연기는 온 집안 퍼져나가 식구마다 눈 매워 눈물 흘리며 밥이 다 될 때까지 밖에서 떨어야 했다. 끼니때마다 눈물의 밥을 먹으면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만 나왔다. (3)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이름 모를 골짜기 산중턱에 가족들의 생을 맡겨 가며 힘겨운 먹을거리 하나라도 더 심고 잘 가꾸어 생활을 꾸려나갔다. 곡식이라야 산에서 경작하는 옥수수 감자가 주식(主食)이었다. 한 귀퉁이 콩, 팥, 깨 심어 조금씩 두어 먹고 움막 옆에는 채소류를 심어 소금에 절여 먹어야 했다. 쌀 한 톨 보이지 않는 옥수수 감자밥에 질린 큰 아들놈은 세끼밥 먹는 것이 소원이라며 지난 가을 화전밭 추수 끝나고 군에 지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로 떠나고 말았다. 그래도 힘이 있던 아들 믿고 농사지었는데 앞으로 기다려야 할 제대 3년이 걱정이었다. (4)우리민족은 일반적으로 일상이란 말은 언제부터 유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늦어도 고려 때부터 전해오지 않았나 보아진다. 고려 말기에 사실을 기록한 화夷역어(華夷譯語)로 14세기부터 18~19세기경까지 편찬 중국어와 외국어와의 대역어휘집(對譯語彙集)의 조선역어(朝鮮譯語)에서 “밥”을 “파”라고 기록했으며 그보다도 11세기에 편찬된 “계림유사”와 “고려방언”에서는 “밥”을 “박거”라고 기록했다. 밥은 벼, 보리, 밀, 조, 수수, 기장 같은 껍데기 있는 익은 열매를 절구로 찼어대다 보면 껍데기는 벗겨지고 그 속에 알곡식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물을 넣고 끓이는 알곡은 종류에 따라 나뉘지는 벼-흰쌀밥 보리-보리밥 밀-밀밥 조-조밥 수수-수수밥

기장-기장밥 등을 해 먹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알곡들은 쌀에다 보리 섞으면 보리밥 쌀에다 조를 섞어도 조밥이라 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쌀, 콩, 조, 수수, 팥 등이 있으며 예전에 콩도 못 꾸었던 요즘에 먹는 비빔밥 약밥 볶음밥 회덮밥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가 있다. 예전에 흰쌀밥이나 찰쌀밥은 지배계층이나 논(畝)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양반 계층 등이 먹었다. 일반 천민 층이나 빈민층은 어쩌다 음력설이나 추석 또는 생일이 돌아와야 힘들게 구한 쌀밥을 모처럼 먹어야 했다. (5)우리가 기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3가지 문제이며 이 3가지 때문에 고생고생하며 산다 그중에 제일은 먹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보존하기위한 필수조건이었다. 인류 역사상 먹을거리를 찾아 강을 중심으로 돌도끼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그 후 변천과정을 통해 도구가 발달하여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서 문화가 발달되면서 인류가 마제(磨製)석기를 이용하면서 농경과 목축생활의 시대가 열렸다. 그 후로 철기시대(鐵器時代)에 인류문화의 발전단계에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이어 철기를 사용하여 칼, 화살촉이 등장하게 되었다. 주로 강을 끼고 살았던 구·신석기인들은 사냥하며 물고기 잡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불을 발견하여 익혀먹으면 맛있는 것도 알았다. 들과 산에서 나는 풀잎과 풀뿌리 과일 열매도 채집하여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는 생각이 있어 사물에 현상에 부딪치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냈다. (6)화전민의 식생활은 쌀 알갱이 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감자에 옥수수였다. 여름에 수확한 옥수수를 말려 겨울이 오면 땃돌에 갈아 땅속에 보관했던 감자를 꺼내 으개서 옥수수 가루와 함께 콩을 얹어 주식으로 때워야 했다. 어쩌다 별식이나 결두리 먹는 녹두나 메밀 갈아 국수나 빈대떡 콩갈아 되비지에 순두부 만들어 먹는다. 요즘 다이어트 웰빙음식인 것이다. 기름기 없는 자연 그대로 음식 섭취는 배고플 수밖에 없었다. 겨우살이 반찬은 양념도 제대로 안된 엉성한 김장김치에 봄 여름내 뜯어두어 말렸던 산나물 끓여 무쳐먹고 시래기에 된장 넣어 국끓여 허기진 배를 채웠다. (7)오랜 세월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은 풍습이 되어 밀접한 관계속에 이어져 왔다. 모든 음식의 재료는 대부분 끓여야 맛이 있고 제대로 된 음식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각 지방마다 자연 지리적 생활감정에 따라 다소 음식의 종류와 맛의 차이는 있지만 먹을거리 자체는 풍습이 되어 고유한 민족의 전통음식이 되어 자리 잡아 오늘날 음식문화의 시초(始初)가 되었다.

7. 움막과 토담(토막)집

원시사회(原始社會)인류역사상 최초의 사회로 원시적 생활을 하며 일정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생계수단으로 이어왔다. 생각 없이 살면서 문화가 열리지 않는 시대에 나무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던 시대였다. 지금도 동두천 신천(莘川)에서부터 한탄강으로 이어지면서 돌도끼가 출토되는 것을 보면 그 흔적을 알 수 있다. 원시초기 사람들은 집을 지을 줄 몰랐으며 자연동굴이나 고목나무속의 나무굴 바위 그늘과 같은 곳을 생활거점으로 하면서 그곳을 집으로 생각하고 추위와 더위 비바람 눈과 같은 자연현상들과 짐승, 독벌레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원시시대를 거쳐 구석기시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은 바람 막(幕)이나 구덩이와 같은 단순한 것이었다. 그 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보다 쓸모 있는 건물로 발전하였다가 점차 반움집(반지하)으로 그것이 다시 땅위로 올라와 토벽(土壁)을 쌓는 토담집으로 지상 건물을 짓게 되었다. (1)움막집은 허리춤 깊이와 구덩이를 만든 다음 그 위 지붕에는 참나무 소나무 등으로 서까래로 지붕을 만든 다음 갈대나 억새풀을 엮어 씌운다. 움막 바닥에는 병충해 예방으로 단풍으로 물든 솔잎을 모아 기초바닥을 깔은 다음 지붕에 올려놓은 갈대나 억새풀을 엮어 방바닥을 만들면 움막집이 된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마한(馬韓)의 가옥은 분총형(墳塚形:무덤식)으로 움막을 만들어 바닥은 마루를 깔았음의 초옥 토실(草屋 土室)로 출입구가 계단을 통하여 위에 있다 하였는데 이것이 예전에 화전민이 살던 움막과 비슷한 생활공간이었다. (2)토담집(土牆家)은 흙을 이겨 돌과 같이 쌓거나 널빤지로 직사각형의 틀을 만들어 진흙에 짚을 넣어 반죽한 후 단단하게 다지고 틀에서 적어내 6~7일 햇볕에 말려 벽을 쌓는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것이 흙속에 있는 성분이 오묘(奧妙)함을 느끼게 한다. (3)토담방은 골을 판 그 위에 얇고 넓은 구들장(돌)을 깔은 다음 진흙반죽을 얇게 바르고 아궁이를 만들어 불을 지피면 열기가 골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구들장이 달아올라 한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3)부엌에 아궁은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 위에 부뚜막을 만들어 가마솥이나 작은 무쇠솥을 올려놓고 불을 때면 음식을 편리하게 익혀 먹을 수 있으며 방도 따뜻해지는 이중으로 효과를 내며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이렇게 단순한 바람 막으로부터 시작된 움막집 그리고 토담집은 우리나라에서

살림집으로 반듯하고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였으며 고대에 이룩된 살림집의 민족적 특성은 삼국시기에 이르러 발전되었고 봉건사회의 전 기간에 걸쳐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으로 풍부화 되었다.

8. 좌반(佐飯)고등어

우리나라 중요 수산물의 하나인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는 몸은 가름하고 통통하며 등은 녹색이며 배는 은백색이 많이 나며 주로 동해바다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1950~1960년대 까지만 해도 도로교통시설이 열악하여 해안 어촌에서 내륙지방까지 운반하는 물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고 냉동차나 가정에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 두고두고 오래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자반(좌)이라 하여 도올좌(佐)자에 먹을반(飯)자를 썼다 오래두고 먹을 수 있도록 고등어 배속에 굵은 왕소금을 넣어 젓갈 모양으로 찌개 만들어 두 마리를 한솥(한섬)씩 판매하였다. 육류나 생선이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어찌다 가름에 콩나듯 자반고등어 먹기도 힘든 때였다. 화전에서 나는 잡곡류 등에 지고 5일장(場)에 나가야 한두 섬(2~3마리) 사와 장작불에 구워 먹는 그 맛은 천하 일미였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못 먹었다. 늘려 먹으려면 경제성을 앞세워 찌다 찌개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를 먹어야 했다. 요즘처럼 싱싱한 횡감이나 기름에 튀겨 먹는 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었다. 생선의 부피보다 소금의 양이 더 많아 그래도 고기(괴기)반찬이라 좋아했었다. 어쩌면 절인 생선의 몸을 빌려 소금을 먹었던 것이다. (1)화전밭 주변 봄이면 반찬거리인 산나물들이 하나 둘씩 약속이나 한 듯이 뿌족이 올라온다. 달래 냉이 고사리 두릅을 따다가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 내다 팔아 허름한 옷가지이며 석유 한 되 사고 주먹만한 빨래비누, 새우젓에 성냥 한통 사고 나면 그만이다. 한여름이면 감자 옥수수를 내다 팔아 쌀 되박이나 사다가 감자를 넣고 모처럼 가족끼리 둘러앉아 감자밥을 지어 자반고등어 놓고 그래도 작은 행복에 눈물겨운 저녁밥을 먹는다. (2)깊은 산중 높은 산 아래는 햇빛도 숨이 찬 듯 빨리 숨어 버린다. 석유 등잔 호롱불빛 어스름이 깔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부엉이 접동새가 밤이 싫은지 번갈아 울어댄다. 때 묻지 않은 풀벌레 날짐승 들짐승들이 모두 동지를 찾아 가고 없는 고요한 밤에 두고 온 부모형제들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3)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써 열심히 일하며 발버둥쳐 봐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유랑생활하다 보니 흘러 흘러 불을 질러 화전 발을 일구어 개간하는 첩첩산중까지 오게 되었다. 넓은 비탈밭 한해 농사짓고 겨우내 일거리 없을 때면 참나무가 지천이라 숯가마 만들어 놓고 숯을 구어 등짐지어 시장에 내다 팔아 밀가루 반찬거리를 사오곤 했다. (4)산골에 휘몰아치는 폭설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토끼 노루 눈 발자국 따라 사냥에 나선다. 어찌다 산토끼라도 한 마리 잡으면 가죽을 벗겨서 털조끼나 털모자 해 쓰고 고기에 감자를 넣고 고추장 소금 넣어 얼큰하게 요리하여 그나마 몸보신이라도 한다. 이렇듯 모든 것은 몸으로 부딪치면서 자가(自家) 소득(所得)을 하기 때문에 식량이든 사냥이든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화전민들의 가계 생활상은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소작 화전민들은 평지 농사 그것보다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의 폭우와 산사태로 밭이 유실된다든가 산불로 인하여 농작물까지 소실되어 없어질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9. 어머니와 아궁이

아궁이는 하루세끼 식구들의 식생활 찬거리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아궁이 앞에 후후 불어가며 불씨가 꺼질까봐 불을 지피는 어머니의 모습은 매운 연기 눈가에 어려 눈물이 난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불은 약하게 또 강하게 태워가며 아궁이에 남아있는 불을 부지깽이로 들썩인다. 불씨는 치마에 올려 불을까봐 치마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려가며 부뚜막 위에는 크고 작은 무쇠솥이 있다. 밥짓는 구수수한 냄새와 된장국 냄새는 은은한 코끝을 스치며 땀들이는 순간이다. 아궁이는 옛선조 때부터 삶의 문화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 생활속에 사라진 아궁이 따라 가족들도 흩어져 핵가족이 되었다. 화목하고 인정이 메마른 세상속으로 무쇠솥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주황빛으로 아궁이의 불빛은 세상의 드리내지 않고 부엌의 아궁이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타올랐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불이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했고 그곳엔 삶의 성숙함은 꿈의 불이었다. 불은 아궁이속에 방골을 통하여 구들장을 데워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오로지 오순도순 방에 모여앉아 훈훈한 마음을 살피우게 했던 어머니의 불은 성스러우면서 때로는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는 평생을 아궁이와 함께 살다 갔다.

인류의 역사는 기아(飢餓)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해월(海月)선생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월 선생이 쫓기는 몸이 되어 며칠을 굶어 몹시 허기져 있었다. 그 때 제자 중 한사람이 “선생님 밥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은 대답하기를 “밥이 하늘이다” 고 했다. 밥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酸素)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안 되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예전에 어릴 적 가을 추수 끝나고 마당에 흩어져 있던 벼 곡식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곡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다름 아닌 먹는 것(食) 거처하는 것(家) 입는 것(衣)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중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먹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 따라 다녔기 때문이다. 오전6~7시에 밥을 먹으면 12~13시에 점심을 먹어야 한다. 그 간격의 시간은 5~6시가 된다. 그 시간을 넘기면 배고픔을 느낀다. 일손에 힘이 빠지면서 의욕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제가 다르다 예전에는 그날그날을 끼니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양(量)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지구촌의 문제로서 자존심도 없었다. 우리에겐 밥이 하늘인 때가 있었다. 멀리도 말고 65년 전 65세 이상을 살아온 노인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일제하에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때 백성들은 밥이 하늘인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봤자 일년을 견디기 힘든 식량에도 못 미치는 공제식량을 얼마 남겨놓고 강제 공출로 빼앗기고 말았다. 농사철이 돌아오는 봄에는 식량이 바닥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 영양실조로 부황증(浮黃症: 오래 굶어 살가죽이 뜰어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걸린 백성들이 허다했다. 광복은 맛있게만 남과 북이 이념의 갈등으로 혼란기가 찾아오고 결국 6.25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앞친데 덮친 격으로 배고픔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1)배고팠던 그 시절 그래도 웃어른들은 밥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 아니 아들 손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밥이 많은 적든 언제나 일정한 양을 남기곤 했다. 머느리는 왜 남기는 줄도 모르고 끼니때마다 남기자 밥을 적게 드렸지만 여전히 또 그만큼 남기곤 하였다. 시아버지는 머느리한테 왜 밥을 남기는지 그 사연을 들려주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친척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었다. 천척을 맞은 그 집에서는 마침 때가 점심때라서 점심 준비를 했다. 그런데 쌀독에는 한사람 먹을 만큼의 쌀밖에 없었다. 그래서 손님에게만 드리려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 그러한 속사정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는 부엌문에 서서 얼마 나도 밥취하고 졸라댔다. 그 보채는 성화에 못이긴 어머니는 손님이 진지 드시고 남기시면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사연을 알 리가 없었던 그 어른은 점심을 받아 시장하던 참에 먹다가보니 밥이 조금밖에 남지 않자 조금 남은 밥에 물을 들어 부었다 송충삼아 다 마실려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다. 문밖에 마루에 서서 손님이 밥을 남겨주지만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엄마! 손님이 밥그릇에 물 부어 버렸어! 하고 울기 시작했다. 손님은 그 순간 아뽕싸! 하고 느꼈지만 이미 물 말은 밥을 다 마신 후였다. 어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이들이 왜 내 밥 먹는 것을 지켜봤는가를 미처 몰랐던가 하고 느꼈지만 이미 엇질러진 물이었다. (2)어른들은 아래 식구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밥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 후 그 손님은 어디를 가든지 의도적으로 밥을 남겨주었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다. 밥은 곧 목숨이라는 것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전략가들은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첨단 무기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이 멀지 않아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머느리는 아버님 진지를 남기지 마세요 계속 남기셔서 진지를 적게 드렸어요 밥을 남기시면 요즈음은 아무도 그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애들도 싫어하고요 그러나 그날도 아버지는 어제와 다름없이 밥을 또 남기셨다. 어려웠던 시절 교훈을 잊으면 어려운 세상이 언젠가는 또 돌아온다. 있을 때 절약하는 습성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루세끼 밥을 먹으면서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해 본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10. 화전 정리사업과 과정의 성과

깊은 산속 모진 목숨이으려 쓰린 가슴 불질러가며 한 많은 세상을 살아야 했던 화전민들도 정부정책에 따라 어디론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했다. 젊었을 때 들어와 남은 것도 없이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며 늙음은 어쩔 수 없었다. 세월은 일제시대에 광복의

문을 열어주고 나라를 찾았지만 화전민의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다.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에 이제는 떠나야 할 땅 긴 세월 땅을 파서 먹고 살았던 애증(愛憎)의 땅을 뒤로 한 채 그들은 가고 없다 (1)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문제는 화전으로 인한 황폐화 등 무림목지의 증가와 입목 축적의 감소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일제시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화전 정리사업이 1974~1979년간 단 6년만에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재정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화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입법적 피해가 심각하여 화전과 화전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화전정리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었다면 성공은 커녕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화전과 화전민의 문제였다. (2)1970년대의 화전 정리사업에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자되는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을 경상액 기준은 1960년대 후반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해 이후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는 제3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 때문에 196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앞뒤 시기 사이에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의 규모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가 나타났다.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60%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각각 1972년과 1971년이고 25%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각각 1968년과 1969년 이었다. 그리고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의 10%를 넘어가는 시기는 각각 1965년과 1966년이며 1960년대에는 각각 3.2%와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1974년 이후 화전 정리사업에 투지된 비용을 감당하려면 정부예산 차원에서 보았을 때 1974년에 비해 1968년에는 4배 1966년에는 10배 1960년에는 25배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1960년대 전반기에는 화전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싶더라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1970년에 화전 정리사업의 성공과 일제시대의 화전정리사업의 실패원인을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비교해 보면 일제시대 화전정리를 위해 처음 5년간 1호당 매년 50전의 시비(施肥)장려금을 지급하여 정착농업을 하게하고 농경 적지로 지정한 곳으로 옮기기 원하는 경우 1호당 평균 20원의 이전비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은 이전에 없던 것이다. 그러나 이정도의 지원을 통해 화전민이 자작농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았다. 1923~1938년 화전민 가족의 연간 수입에

대한 평균 수입이 97원 64전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원을 1년 수입의 120.5%에 불과하다. 그리고 1930~1932년 최저농민 소작농의 연평균 총소득이 339원 54전에 비하면 20원은 5.9% 불과하게 된다. (4)1970년대의 화전정리 타시군 지역 또는 타시도로 이전한 가구에게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40만원이 지급되었고 1976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경상도 20도 이상의 화전정리 지역에서 20도 이하의 마을로 이전할 경우 20만원과 25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전비는 1976년 화전민의 1년 평균 소득에 거의 가깝고 전체농가 1호당 평균소득의 43.3%에 이르며 이주비는 그 절반에 이른다. 이와 같은 수치를 일제시대의 복선 개척사업에서 지급된 이전비와 비교해 보면 화전민이 화전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화전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서 1932년에 저리자금을 융통시켜 매호당 200원의 농자를 주고 상환법은 30년부로 해야 한다는 동아일보 김병식 기자의 지적은 화전정리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적은 최소한 매호당 200원 정도를 지원해야 화전민이 화전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액수는 1970년대의 화전정리사업에서 지급했던 이전비나 이주비용과 비교해 볼 때 설득력 있는 것이다. 8.15광복이후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산림문제는 화전황폐지 등 무림목지 등 증가와 임목 축적 감소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전정리사업 사방사업 등을 통한 무림목지의 재.조림과 더 이상의 산림황폐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용 목지 연료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했다. 무림목지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해당 지역주민이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 심은 나무를 벌채한다면 언젠가 그 산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광복직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아궁이에 태워버리는 막대한 가정용 목질 연료 소비에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산림녹화 성공은 가정용 연료를 목질 연료에서 화석연료로 대체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이었으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1967년 산림청 발족이후 진행된 대규모 조림이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림문제 중 하나였던 화전이 1974~1979년간 완전히 사라졌다. (5)항공사진을 이용한 전국규모의 산림자원 조사실시와 도로시설의 확대는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과 직접연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화전민의 은닉성을 제거하여 화전민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국가산림자원의 조사는 1972~1975년에 이루어졌다.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의한 계획적 산림녹화 기반조성과 산림 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산림 기본조사로서 1974년 말 현재의 전국산림의 실태파악과 산림통계 정비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과거 현장 산림자원조사 방법을 탈피하여 전국임야에 대한 임업용 항공사진 축적1:15,000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국 규모의 임상도 64,554가 작성되었다. 전국규모의 항공사진 촬영으로 화전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화전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 화전의 경작자가 또는 산림계에게 해당화전이 있는 산림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화전의 소재지 면적 경사도 산림의 소유자 화전의 경작자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화전 신고자는 신고를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신고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계에 의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화전면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75년 산림자원 조사가 최종 완료되어 항공사진 및 임상도를 활용하여 화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화전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6)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의 효력이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 역시 1967년경을 고비로 시작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화전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74년 1960년의 25배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생산과 정부예산의 확대는 화전정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화전정리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임업적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전민의 생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의 효과가 이러한 충분한 비용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며 이것은 한편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화전정리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구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항공사진을 이용한 전국규모의 산림원 조사가 기술의 발전과 도로시설 확대는 화전정리사업과 직접 연결될 것은 아닐지라도 화전민 발생 원인중 하나인 은의성을 제거하는데 항공촬영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II. 맺는말

인류의 역사는 기아(飢餓)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언제나 삶의 현장에 따라 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제가 다르다. 먹는 것이 넘쳐난다. 1년에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약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그날그날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백성의 문제 즉 양적인 문제였다면 오늘의 먹을거리 문제는 양과 질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오히려 영양가 음식이 넘쳐나 당뇨 고혈압을 부르고 있다. 해월(海月)선생의 일화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월 선생이 쫓기는 몸이 되어 며칠을 굶고 몹시 배고 고팠다. 그때 제자 중에 한사람이 “밥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은 대답하기를 “밥이 하늘이다” 라고 했다. 얼마나 밥이 소중한지 이렇게 대답했을까 우리에게겐 6.25한국전쟁이 끝나고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잣대미 위에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허리를 졸라맨 보릿고개가 있었다. 서민들은 밥이 하늘인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쌀농사는 문자 그대로 우리민족의 피와 살이 되고 문화와 전통의 공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화전민들에게는 쌀이란 꿈도 꾸지 못한 너무 가난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축복받지 못한 쌀 대신 잡곡인 수수, 팥, 콩, 보리, 옥수수, 감자 등을 얻기 위해 허기진 배 움켜쥐고 허리 한번 못 펴보고 화전 밭을 일궈야만 했다. 힘든 삶에 산 그림자는 저녁 짓는 연 기슭에 또 하루가 저편으로 떠나가고 있다. 화전민이 살았던 곳은 세상 끝 막다른 골목길이었다. 정부가 화전민들의 생활대책과 국토보존을 내세워 화전 정리사업을 한 것은 1966년 제정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고 나서부터 시작으로 1978년을 마지막으로 화전민은 화전경작의 전면적 금지에 따라 그 모습을 감추었다. 그 후 우리가 슬하에 들어온 치산녹화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화전민들은 보따리 짊어지고 조금씩 산 밑으로 내려오거나 뿔뿔히 흩어졌다. 산림청은 1970년 12월에 간행한 화전정리사에는 화전민의 생활 안정과 치산녹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협동정신 발휘는 화전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함으로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길 또 하나의 업적을 이루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과 사업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적 봉사정신과 그리고 값진 땀이 밑받침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그 공적은 후세에 길이 남겨질 것이라고 했다. 오

랜 세월의 흐름 애환이 서려있었던 곳 화전민의 불은 뜨겁고 서글픈 정열과 같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서글픈 일이었다. 숲에 불을 질러 밭을 갈아먹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불로서 삶을 이어간 이들은 이제 못 잊을 세월속에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국사 대사전 (1982년 한국출판사)
2. 한국사 이야기 (2004년 도서출판한길사)
3. 사진으로 보는 (한국100년 1978년 동아일보사)
4. 사진으로 본 광복 35년 (1984년 한국일보사)
5. 화전민에 관한 연구 (최태호)
6.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의 성공요인 (이기봉, 배재수)
7. 일제시대 때 화전민 생활 (강만길)

〈부 록〉



1. 토막집과 父女



2. 가마니로 만든 움막집



3. 호롱등



4. 남포등



5. 디딜방아



6. 단칸초가집



7. 화전민 부엌에 아궁이



8. 바람을 이용하여 낱알을 고르는 모습



9. 소등집 장작장수



10. 소반(밥상)장수



11. 소달구지



12. 팥주리를 머리에 이은 아낙네들



13. 절구 찜는 아낙네



14. 어느 농가의 부엌



15. 절구와 절구공이 떡메



16. 너와집(귀틀집)



17. 정월달 복조리 장수

京畿鄉土史學

발행인 : 오 용 원

편집인 : 김 성 문 · 진 숙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제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10년 11월 30일

발행 : 2010년 11월 30일

인쇄처 : 양지프린트 (031-338-3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19-1

편집위원 : 한동익 · 김장환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 기획특집-경기도 전쟁사

1. 처안성 대몽 항쟁 연구 | 김장환
2. 파주 지역과 임진왜란 | 권효숙
3. 병자호란 후 조선의 방위전략 | 홍정덕
4. 壬午軍亂 기간 중 明成皇后 피난행적과 국내외 상황 | 조성문
5. 舊韓末 경기도 광주지역 의병전쟁 | 윤종준

■ 경기도 향토사

6. 삼국사기에 의한 고구려사의 연구 | 김택기
7. 고산동 부용산 미륵암과 미륵신암 연구 | 최영희
8. 경기북부지역의 화전민사 | 이명수